DIGITAL LG

디지털 디자이너?

제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고객의 생활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앞선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생활을 디자인하는
디지털 디자이너, 바로 디지털 LG입니다.

Digital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인 '디자인 경영대상'을 수상한 디지털 LG가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을 이끌어갑니다.

디지털 LG, 제1회 대한민국 디자인 경영대상 수상!

세 상 을 바 꾸 는 힘 - 디 지 털 L G

LG / 전자CU

LG전자 LG정보통신 LG.Philips LCD LG정밀 LG마이크론 LG하니텍

웃자!
놀자!

feminist journal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if

특집 악녀에게 말걸기

여성동로들이 뽑은 인기맨 4인방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백지연 "영등하는 페미니스트로 태어나겠다"
감자아이게 보내는 여자들의 10개명
밝히는남자 박노해 '부드러운 페니스'로...

고급인터뷰 서갑숙 포르노그라... 걸어나온 여자

수다방 인어공주는 어느쪽이 생선일까?
if를 열며 안티코리아

99 겨울
8,500원

신세계백화점의 추천상품은 '친절'입니다

방긋방긋 미소짓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를 대하듯, 내 가족을 대하듯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의 세계 -
신세계는 손님 한분한분을
존경의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친절로 여는 새로운 세계를
기대해 주십시오.

친절세계
신세계

신세계 사이버 쇼핑 http://www.shinsegae.co.kr • 본점 754-1234 • 영등포점 2639-1234 • 미아점 944-1234 • 인천점 032-430-1234 • 광주신세계 062-360-1234

CLIO PROFESSIONAL

마이 볼~

나는 '볼'로 마무리 한다!
5가지 컬러뉘앙스, 클리오 파우더 볼

- 브러쉬 한 번에 다섯가지 컬러가 골고루 섞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운 믹스는 윤곽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레인보우는 얼굴 전체를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 미세한 입자로 화장이 잘 먹고 투명감이 오래 간직됩니다.
- 단단한 볼타입이므로 가루분보다 사용기간이 깁니다.

레인보우
브라운 믹스

㈜클리오 · 본사(02)514-0056 · 이대점(02)312-5631 · 부천LG백화점(032)320-7159 · 일산그랜드백화점(0344)910-2113 · 대전엔케이백화점(042)256-3073 · 천안갤러리아백화점(0417)559-9129 · 부산지사(051)502-2586 · 대구지사(053)744-6469 · 대전지사(042)627-4179 · 강원지사(0371)732-2976

롯데칠성음료(주)
www.lottechilsung.co.kr

물은 좀 심심하다 말이야

주스는 너무 달지 않니?

이온음료는 왠지 멍청하구...

탄산음료는 자극적이야

지금 난, 2% 부족할때!

난 목마를 때, 필로 채우니? 난 2% 부족할 때로 채워. 물처럼 깨끗하지만 같은 아니야!
물보다 상큼하고 맛있는... 2% 부족할 때

2%부족할때

Refreshing Water

DAESANG 大象

자연에 정성 만을 더합니다

청정원

모든 원료는 자연에서 거둔 것만 씁니다.
신선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온 국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한치 소홀함도 없습니다.
이 까다로운 약속을 지킨 제품에만
청정원이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청정원 마요네즈 옥수 멸치액젓 카나리액젓 올고기양념 순창 된장 쇠고기수프 사과식초

국시장국 속에 맛있는 국물요리가 보인다!

뽐내자! 별미국물

별미 꼬치오뎅

끓는 물에 국시장국, 맛술, 소금을 넣어 기본 국물을 낸 후 오뎅, 유부, 무우, 양파, 당근 등을 넣어 한번 더 끓여주세요

별미 미역된장국

제철조개를 우려낸 물에 국시장국으로 간을 맞춘 후 해물장을 풀어 끓이다가 볶은 미역, 두부, 파 등을 넣고 마무리해 주세요

여자니까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이가 아플 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도,
정작 내 몸은 제대로 한번 돌본적
없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먼저 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월 2~3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성들의
각종 질환을 중점 보장해 드립니다.

- 여성특정암(자궁, 유방, 난소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시 2,000만원까지 보장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골절), 관절염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고액보장
- 장기입원시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지급
-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시와 교통재해 입원시 응급치료비 지급

삼성생명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중앙: 매경 등 11개 일간지 '3하의료 상품 선정

*MBC-AM '여성은 2회오, 사실 진행자 최유리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삼성생명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
■ 전화로 센터 : 1588-3114 ■ 동부지역본부 : 02)3706-3731~9 ■ 강남지역본부 : 02)3451-1381~7 ■ 경인지역본부 : 032)761-6080~4 ■ 부산지역본부 : 051)630-6555,6123
■ 대구지역본부 : 053)250-5292~6 ■ 호남지역본부 : 062)230-5250~6 ■ 충청지역본부 : 042)329-0121~7 ■ TM실 080-999-7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sunglife.com

feminist journal if

content 99 winter

18 **이프를 열며**

20 **female gaze** 아듀코리아, 안티코리아!/ 20세기 한국사회의 성(性)자들

26 **뉴스우먼** APEC 여성자문기구 초대의장 선임된 장필화 교수/
한일여성지도자 교류세미나 마련한 유권자연맹 이춘호 회장/
『제사를 거부하는 여자』 책으로 펴내는 소설가 이하천/
전국여성노조 초대위원장 최상림/ 아줌마 문화운동 시작한 이숙경

36 **WOMAN**STREET

40 **사이버뉴스** 사이버의 백미, 커뮤니티/ 지난 여름 여성학동호회에서 생긴 일/
남성학 연구회 출발!

42 **긴급인터뷰** 포르노그라피에서 걸어나온 여자, 서갑숙(박이라)

48 **이여자 백지연** "험동하는 페미니스트로 다시 태어나겠다"(김민숙)

54 **밝히는 남자 박노해** '부드러운 페니스로…'(류숙렬)

60 **남자에게** 김지하 시인에게 드리는 여성들이 만든 10계명(김재희)

65 **장씨부인과 나혜석** 그 영겁의 만남,
문광부 선정 이달의 문화인물에 나란히 올라(황오금희)

71 **여성작가인터뷰** (카이스트) 송지나, (국회) 정성희,
(마지막 전형) 박혜랑 등 여성작가 인터뷰(권혁란)

78 **허스토리** BI 디자이너 손혜원의 일이야기(황오금희)

82 **자매애는 아름답다** 안트리오와 그 어머니 이영주씨(조우석, 류숙렬)

87 **난나의 if세상**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젠 웃고 싶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희망하는 정복자인, 지배이오하는 분수지인 그렇게 웃고 싶다. 자, 웃자!

사랑하자!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온 따뜻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이 최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 이 세상을 변한 신나게 되길이 바라고 싶다. 공감하시 않은가? 어떻게 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이지도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의 시간은 학습과 정에 다름아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독시켜 아름다운 노예의 평안을 선사했다. 이젠 싫다. 증오고 싶다. 싸우고 싶다. 놀고 싶다. 그리하여 여자들을 중심적 만들고 싶다.

content 99 winter

89 특집 엄마에게 말걸기

190 **총론** 우리 사회 달라지는 여성상 이해하기(조혜자)

196 **집중취재** 남자들의 고충(권일란)

102 여성동료들이 털어놓은 이기적인 사인방(김보미)

108 여자로 귀엣을 원하는가? 최형미, 김소희, 이유현주, 신정원, 이하천)

122 **사례** 탤런트 최수종 등 6명의 사랑받는 남자이야기

134 **색녀열전** 무 묻은 놈이 애 봐라(정차현실)

138 **남자의 성경험** 환상탈출기(황범하)

142 **남자의 육아일기** "빨간물에 곰짝도 못하고 퐁당하고 있어"(김세중)

162 **수다방** 20세기 영향력 있는 여성캐릭터, "인어공주는 어느 쪽이 생선일까?"

172 **유채지나의 영화산책** '노랑머리'가 때론 포르노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REVIEW

178 **THEATER** 장진의 〈허탕〉과 이윤택의 〈바보각시〉(지혜)

170 **EXHITION** 방정아와 함진 개인전(장정화)

182 **CINEMA** 〈자소〉와 〈책상 서랍 속의 동화〉(공혜조)

186 **ADVERTISING** 주류(酒類) 광고 속의 여성모델(이남경)

194 **MUSIC** if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김보미)

196 **BOOK** if가 뽑은 겨울의 책(윤숙경, 김정복, 유여종, 권혁란)

한달에 무조건 18,000원만 내는 018 틴틴 탄생 (vat 포함 기준)

행사기간 중 틴틴요금으로 신규가입한 분들께 선물을 - 행사기간:11월 22일(월) ~ 12월 31일(금)

12월 31일까지 018 틴틴요금으로 가입하면 선물바람는다!!

Click! OneShot 018

content 99 winter

201 **유인경의 옷이야기** 겨울의 필수품 코트로 멋내기

205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가지 못한 길…

213 **책 읽어주는 여자** 도리스 레싱의 삶과 소설(이숙인)

214 **고은부인 도끼들었네!** 부모양계혈통제를 향하여!(고은광순)

218 **이럴땐 이렇게** 같이 사는 남자 길들이기(변혜정)

224 **김인숙이 만난 딴 나라 여성들** 이란의 여성들 어떻게 살고 있나?

220 **백수일기** 동가식 서가숙의 노하우(김영선)

230 **여성과 수련②** 딸의 호연지기 기르기(김정희)

CROSSOVER

234 **세계의 여성들** 유방암과의 전쟁에 나선 구미 여성들/ 독일, 구체적인 가사분담법 등 가족법 개정 박차/ 애니 라이보비츠 사진집 『여성』 화제/ 지난 1천년 여성지위 변화/ 수잔 팔루디 『경직』 파내(김신명숙, 류숙렬)

240 **가상리포트** 2000년, 다시 쓰는 명절일기(오조영란)

244 **발굴** 조선시대 자유부인들, 감동과 어울우동(정성희)

248 **동굴**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252 **과학칼럼** 정보화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윤정로)

255 **if연재소설** 내 사랑 투명반창고 3 애무(愛撫)(이숙인)

269 이프가 해외여행계를 시작했어요!

표지 : 이프 표지 포맷에 변화를 줬다. 상황선을 없앴다. 서갑숙의 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서갑숙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서갑숙에게 양복을 입혔다. 서갑숙이 남자라면 no problem? 머리은 코앞에 닥쳤는데 서갑숙은 사라지고…. 수소문 끝에 호주의 한 호텔로 전화를 해서 11월 25일 귀국한 서갑숙을 잡아 26일 촬영과 인터뷰를 거우 마쳤다. 여독도 안 풀린 상태에서 너무나 성실껏 촬영과 인터뷰에 응해준 서갑숙은 진정한 프로였다. 발행인 겸 포토디렉터 김은숙

제호 :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 과 고유이름 'F' 를 합해서 만들었다. F'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약에…' 라고 가정해 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니설로 읽을 수도 있다. 그외에도 I'm Feminist 또는 I'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안티 코리아?

얼마 전 한 시사주간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칼럼 하나를 읽었다. 칼럼의 제목은 '아내의 영어공부와 세 명의 한국여자' 였고 필자는 모 방송국의 PD였다. 그의 글에 의하면 이른바 전업주부인 그의 아내가 어느날부터인가 문득 영어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취미 정도가 아니라 다부진 각오라도 한 듯 일상을 다해, 혹시 남편과 자식을 떠 어놓고 혼자 유학이라도 갈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잔뜩 불안해진 그 PD는 아내의 영어공부에 신경을 곤두세 울 수밖에 없었다.

얼마의 신경전 끝에 그는 마침내 아내가 영어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세 권의 책이었다. 방직공장 공원에서 하버드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서진규씨의 자서전과 미국에 건너 가 태마파크 디자이너가 된 나나 안, 그리고 최미 여성아라톤대회에서 우승한 나은경씨의 인생 수기였다.

아내가 내놓은 그 책들에는 얼마 나 열심히 읽었는지 곳곳에 몸몸하게 밑줄들이 쳐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고 남편에게 미국 발령이 떨어질 그 언젠가를 기대하며 영어공부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가 왜 미국행 꿈을 갖게 됐는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 대답은 그녀가 읽은 세 권의 책들이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차별과 억압 속에 움추리들이 있던 그들이 제대로 기를 피고 꿈을 찾은 곳이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니 그 PD의 아내가 새로운 희망의 땅, 여성들의 엘도라도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달린 중년의 전업주부, 월급쟁이 아내로서 '옴치고 뛸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었을 그의 그 질질한 탈출 기대에,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이 막혀온다.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한국적 현실에 가슴이 더욱 답답해지고야 만다.

지난 5월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의 일이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여성장애인은 '안티 미스코리아' 라는 말을 자꾸 '안티 코리아' 라고 해 일부 참석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건 긴장한 그녀의 말실수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어쩌면 그녀가 실수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숨겨진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매우 불온한 생각임에 틀림없었지만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차별과 모멸을 견디내야 하는 그녀의 입장에서 어림짐작해 본 결과였다.

최근에는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에서 어린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핸드하키 선수 김순덕씨가 '정신 못 차린 조국' 을 떠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엄마로서 남은 자식 하나라도 안전하게 키우려고 한국을 떠난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인 한국을 떠나는,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면 잘못일까?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떠나는,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그녀들을 향해 '떠나봐야 남의 땅이 천국일 줄 아느냐' 고, '그곳에는 여성차별은 덜할지 몰라도 인종차별이 기다리고 있다' 고,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나기보다는 여기 남아 함께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올바른 도리 아니냐' 고 말을 걸고 싶은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인간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비전과 실천이 하루 빨리 제시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if

김신명숙 편집위원

한국의 대표기업을 넘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GLOBAL 삼성화재

이제 삼성화재가 세계기준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美S&P로부터 IMF이후
국내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최고신용등급「A」!

- 삼성화재가 美 S&P로부터 투자추천(Strong)을 의미하는 신용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 이는 세계의 4,000여 보험사 가운데 상위10위 회사들과 같은 등급으로, 삼성화재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기업임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세계적 기업임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 이를 계기로 삼성화재는 새천년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도하며 국내외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S&P사의 신용등급과 FSR(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은 영업성과, 투자현황, 자본의 적정성, 준비금 평가, 자산유동성 및 자본의 유연성 등 19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삼성화재의 A등급은 투자추천등급으로 재무 안정성 및 지급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www.samsungfire.com

- AM BEST 2년연속 Excellent등급 획득!
- KCSI자동차보험 부문 고객만족도 1위!
- KMAC선정 브랜드파워 1위기업!
- 아시아머니誌 선정 최우수 경영기업!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

20세기 한국사회가 성자(性者)를 성자(聖者)로 만드는도다.

얀 반 에이크 작 「날개가 펼쳐진 겐트 제단화」에
장정일(내게 거짓말을 해봐), 마광수(즐거운 사라), 장선우(거짓말),
오현경(O양의 비디오), 서갑숙(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의 얼굴을 합성했다. "

안티코리아

아듀 코리아, 안티코리아!

무너진 코리아
끊어진 다리처럼 가버린 생명들,
우리도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왼쪽부터 인천호프집 화재현장, 씨랜드참사 현장,
씨랜드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와 오열하는 부모.
배경사진은 끊어진 성수대교. 사진제공 한겨레)

그림 읽어주는 여자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주는, 사랑하는 이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는 책!

거기서 두 남녀는 뭘 할까?

좋아한다는 말 대신 주고 싶은 그림

처음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냥 감대 그림이거니 생각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안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갛게 수줍은 볼을 가진 소녀와 줌무늬 티셔츠를 입은 소년. 감대에 싸여 보일 듯 말 듯한 그들은, 아마 사랑하고 있겠지? 인생이 이처럼 바람 많은 감대밭이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불현듯 나의 그대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나도 발갛게 상기된 볼을 가진 소녀처럼 수줍게 그와 속삭이고 싶다. 그도 내 마음을 알까?

우린 그때 정말 사랑했을까?

사랑의 달빛을 담았을 때 눈에 들어온 그림

당신, 사랑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있는지.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 풍경을 예감하고, 그로 인해 세상의 완희를 노래한 적이 있는지. 사랑 때문에 뜬눈으로 새벽을 맞은 기억이 있는지. 함께 죽어도 좋다 생각한 사람의 기억이. 당신에게 있는지. 내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 힘없이 뻗은 내 손바닥 위에 자기 손바닥을 올리고, 다섯 손가락 꺾어 박지끼며 말하던 사람.
"우린 이렇게 만났고, 내가 네 손을 풀지 않으면 난 네게서 떠날 수 없어."
다섯 가닥으로 굳어 있는 손가락을 풀 수도 없었던 나. 사랑은 교통사고 같아서, 내 어디에도 사고의 예감은 없었건만 나는 그를, 그는 나를 만나 우리는 사랑하고 말았다. 사랑의 미열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사람. 그러나 그는 떠났다. 나는 아직 굳은 채로인데, 그는 다섯 손가락 박지 풀고 떠나버렸다.
태어나기 이전 이미 예정된 이만큼의 사람이라면,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짐하며 새벽을 맞았건만……. 아침이면 또다시 마음 바닥은 철거덩철거덩 그리움으로 물고 있었다.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할 사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길을 가다 비슷한 사람만 봐도, 관계된 사소한 명칭만 들어도…… 그 사람으로 이어지던 날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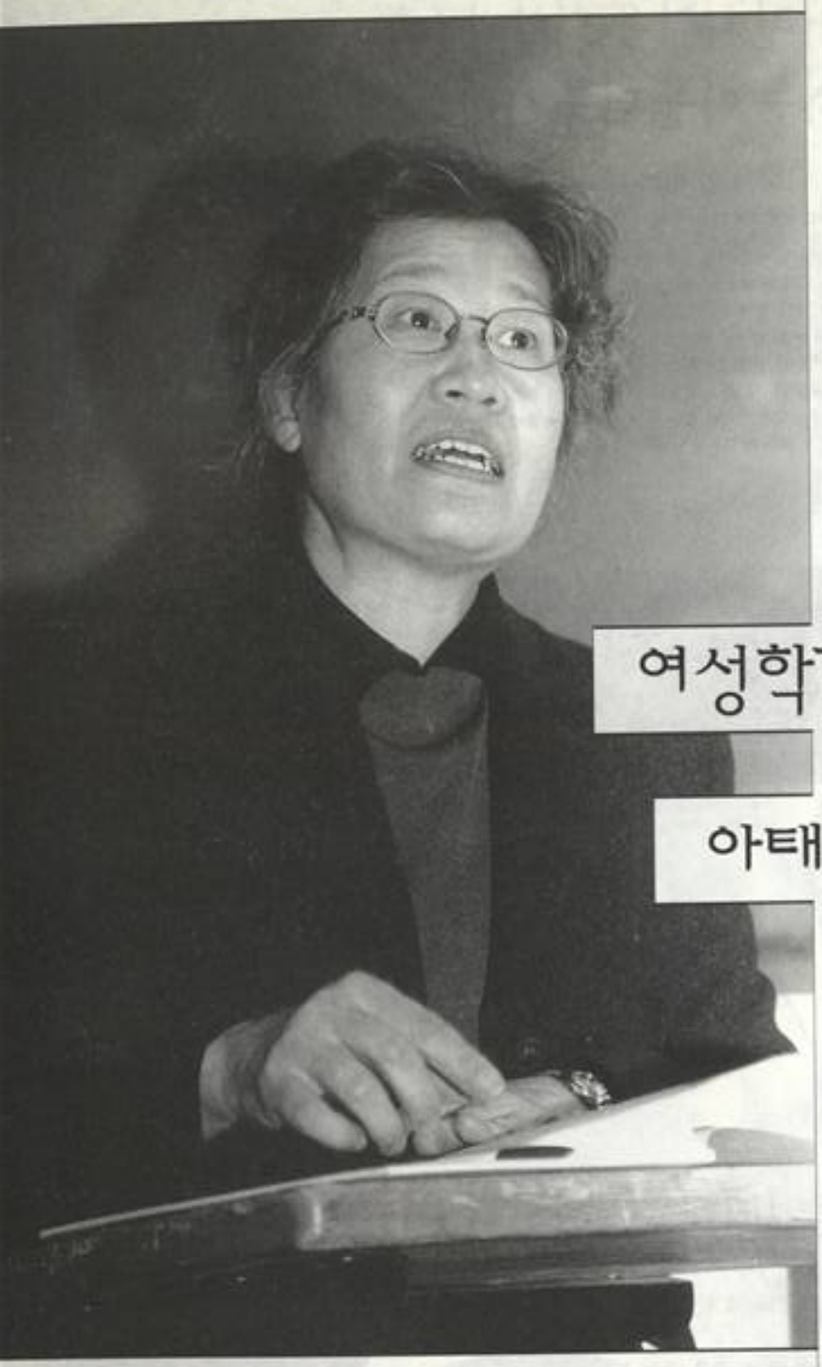
"오늘 문득 그림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 때문에 뜬눈으로 새벽을 맞아본 기억이 있는지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있는지
따뜻한 그림과 잔잔한 글들이 함께 녹아든 이 책이
사랑과 외로움을 기억하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한젬마 지음/ 변형 크라운판/ 올 컬러/ 값 9,800원

올 가을, 화제의 베스트셀러!

한젬마



여성학계 '하이비전'

아태의 바다로

APEC 〈여성자문기구〉 초대의장 선임된
이화여대 장필화 교수

우리 나라에 처음 석 · 박사과정 여성학과가 신설된 곳이자, 한국의 여성학, 여성운동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 이화여대다. 우리 나라에 여성학이 꽃피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온갖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성학의 터전을 지키고 가꿔온 중추적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런 인물의 한 사람을 꼽자면 국내 제1호 여성학 교수로서 지난 15년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이대 장필화 교수(50)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그가 최근엔 그간의 행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중책을 맡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여성자문기구〉의 초대의장직에 선임된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이번 자문기구의 신설에 깊이 관련해 왔고, 장교수가 초대의장에 추대된 이유는 그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여성학자라는 점, 3년 전부터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를 만들면서 아시아여성연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등 '아시아여성문제통'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APEC의 기구는 사무국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엔과 달리 고위관리회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고위관리회의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성자문기구의 신설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초대의장으로서 장교수는 이 여성자문기구를 통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성(gender) 인지 프로그램의 제도화, 모든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작성하는 것, 중소기업 여성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경제협력기구의 성격상 APEC의 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여성'이 과연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성학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될 첫 과제가 젠더트레이닝(gender training) 프로그램입니다." 장교수는 APEC의 모든 기구가 이런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교수의 활약은 아시아 여성들의 '주류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므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엔 제16대 한국여성학회장으로 선출되어 그가 갖는 굵직한 직함만도 예닐곱 개. 정부의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여성특위 위원에다,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지난 8월부터는 이대 한국여성연구원장직도 겸임하는 등 평생 '일복이 많은' 장교수의 양어깨는 날로 무거워만 간다.

그의 일복은 15년 전인 84년 장교수가 영국 서섹스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이대 여성학과에 부임, 젊은 나이로 여성학과장을 맡아야 했던 데서 시작됐다. 대학당국의 적극적 지원은 있었지만 기성 학문의 틈바구니에서 신생 학과의 학문적 입지를 다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립학문이라기보다 '다학문적(interdisiplinary)' 접근을 해야 하는 여성학의 특성상 장교수는 1대 다대응의 관계를 통해 여성학의 학문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자리에 오랜 시간을 홀로 서 있었다. 그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학문적 연구와 함께 대외적 관계며 행정적으로 풀어야 하는 숱한 업무를 홀로 지고 왔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을 그의 전성기로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런 '관계맺음'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인정받았다는 데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도 쉼없이 일을 만들고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풀어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장교수를 일컬어 제자들은 '드리머(꿈꾸는 사람)', '하이비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의 꿈들은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96년 시작한 아시아여성학 교과과정 개발 프로젝트와 맨땅에서 시작한 아시아여성연대를 위한 〈아시아여성학센터〉다.

그간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할 수 없었기에 그는 15년만에야 첫 책 〈여성 · 몸 · 성(또하나의 문화)〉을 집필할 수 있었다(이 책은 최근 문광부가 선정한 좋은 책에 뽑혔다). 그러나 정작 장교수가 15년 동안 미뤄왔던 여성학이론서 집필의 꿈은 아직 때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APEC 〈여성자문기구〉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4개국 순방길에 올라야 하는 등 그가 맡고 있는 중책들이 장교수를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IF

글 박혜숙/ 사진 엄율순

제사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제사를 거부하는 여자』

책으로 펴내는

소설가 이하천

제1회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즈음, 푸르른 조명아래 『선택』 속의 인물 장씨부인이 현대적 버전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무서우리만치 당당한 표정으로 『선택』에 묘사된 자신의 모습을 거꾸로 뒤집으며, 작가 이문열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가부장제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남성작가의 생각 없는 손에 의해 본의아니게 이생의 여성들을 비난해야 했던 그 장씨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야말로 가부장제의 폭압 아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아니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던 여자라며 분노를 풀어놓은 한스런 장씨 부인의 현현. 그리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던 그 사람은 다름아닌 소설가 이하천씨.

현재 부산에서 낮은 천정으로부터의 해방, 벽지로부터의 해방, 소음으로부터의 해방 등 일곱 가지 해방개념이 들어간 집을 지어 버려진 개와 20여 마리의 들고양이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비둘기를 키우며 살고 있는 그가 12월말 경 『제사를 거부하는 여자』라는 책을 펴낸다.

도서출판 이프의 세번째 단행본이 될 『제사를 거부하는 여자』는 가부장제를 죽는 날까지 버릴 수 없는 지고지순의 가치와 덕목으로 껴안고 숭앙하는 남성들의 심신을 불편하게 만들 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혼이 무엇인지, 남의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혼을 했고 내 자신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맺음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미국과 캐나다에서 15년을 살았다. 서구여성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밝음, 경쾌함, 자신감을 교포여성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이상했다. 한국여성들은 외국에 나와서도 남성의 공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효도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 교회에서 밤새 울며 기도를 하는 여자들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왜 그토록 어두운 표정을 하고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왔다."

뉴욕에서, 캐나다에서 만난 많은 한국 남녀의 일그러진 정신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천착하던 끝에 다다른 해답은 바로 한국에 아직도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가부장제.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식의 개인을 죽이고 조직과 단체를 앞세우는 전근대적인 논리와,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식의 미성숙하고 그릇된 의식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는 나라, 그 중에서도 근대적 합리성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와 자식이 잘 살기 위해 조상을 상전으로 모시는 가부장제의 핵, 바로 '제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은 조상 앞에 제물을 차리고 의복을 정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남성들의 그 껍데기뿐인 효도, 그 조상도 여성의 조상은 아니잖은가. 남성의 조상에게 남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토록 위대하다는 제사를 준비하는 일은 왜 모두 여성에게만 주는가. 한 번도 그 여성을 위해 정성을 들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효도하라고 강요하는가. 그게 아름다운가. 난 그 이율배반의 논리에 칼날을 들이대고 싶었다. 그 좋은 것, 남성들 당신들이나 가져가라고 말이다."

책을 통해 그는 '피흘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까지 왜 어떻게 흉물스러운 제사를 거부하게 됐는지와 그 대안적인 제사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한국남성들이 영원한 마마보이처럼 정신적 지진아의 수준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거침고도 단호한 어조로 풀어놓았다. 게다가 어떻게 해서 부산의 산골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피며 황폐해진 숲과 바다를 청소하며 살고 있는지도 정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인습을 깨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첫 걸음이란 그의 일갈이 서늘하다. IF

글 권혁란

여성이 문다

한일 관계,

〈한일여성지도자 교류세미나〉 마련한 유권자연맹 이춘호 회장

지난 10월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과 일본 여성 지도자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한일 양국 여성지도자 교류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이들이었다. 지도자급의 한일 여성인사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최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춘호 회장(55)은, 다가오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이고,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암울했던 한 · 일 양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성들간의 교류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양국의 관계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의 힘으로 서로 보듬어가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를 여성 국회의원, 여성 단체장 등 지도자급으로 제한한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최근 들어 논란을 불러왔던 옷로비 사건 등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여성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 그래서 정치 관련 여성인사들이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새롭게 마인드를 다지자는 의미였다. "다른 분들도 참여를 원했지만 우리 유권자연맹에서도 지부장들만 참석토록 엄격히 제한했어요. 뽑아주는 유권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를 맡을 당사자들이 보고 배울 기회가 되길 바랐으니까요."

이춘호 회장의 전공은 정치학. 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공부 도중에 결혼을 했고 80년초 남편과 함께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2년 동안 맏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야만 했다. 언젠가는 저녁상을 12번이나 차린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이 때 시작한 것이 바로 여성학. 나이 38세 때이다. '여자가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 혹시 불행한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깨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을 2년만에 졸업했다.

"제가 사실 지금 머리숱이 적은데요, 그 때 공부하느라고 한 움큼씩 빠져서 그래요." 그후 90년까지 대학 강의에 전념하다가 86년 유권자연맹 임원연수 강사로 초청 받으면서 이 단체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던 중 그는 97년 겨울 〈미국여성유권자연맹〉을 방문하면서 정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된다. 이 단체는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대통령후보 정책토론회를 처음 실시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막강한 단체이다. 이회장은 그 규모나 실제적인 힘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반한 것이다. "그곳에서 저는 정치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나와 밀접하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일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라면 실제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유권자연맹의 60여 개의 지회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문제들을 정치와 연결시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는 아동 방과후 지도 문제를, 광주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부산에서는 낙동강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활동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요즘 이춘호 회장은 정신없이 바쁘다.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과 실력 있는 여성후보자를 지원하는 일들이 그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 단체의 '회장' 이라는 직함이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남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기획하는 일이 적성이 맞다는 이춘호 회장. 그러나 그는 사실 여성들간의 진정한 네트워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라기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여성의 힘이었어요. 난 단지 나의 에너지, 시간, 능력을 다른 여성들에게 환원할 뿐입니다." IF

글 김보미/ 사진 엄을순

보너스는 꿈도 꾸지 못한 채 다만 밀리지 않는 월급을 고맙게만 생각하는 여성,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은근히 강요받는 여성, 직장규모도 작고 더군다나 여직원은 거의 없어 정보교환조차 불가능한 여성. 이런 여성들, 아니 이런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노동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다. 바로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 이 여성노조는 지난 8월 29일에 출범해 일하는 여성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고 있다.

IMF 사태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퇴직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특히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무직 여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이룩해 놓은 터전에 적신호가 울렸다. 이에 98년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례들을 모아 개선 방향을 토론하면서 '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틀을 잡아갔다. 이런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 바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조의 위원장인 최상림씨(44)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한 여성노동자들이 쉽게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 조직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출범 전 준비과정으로 지난 7월에 전국여성노동자 캠프를 갔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구성작가나 학원 강사부터 파출부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연극을 하면서 나와 다르리라 생각했던 선입견들이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으로는 모두 같았어요. 같은 점을 발견한 거죠. 그 때 여성노조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슴으로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최위원장은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에 뛰어든 노동운동의 베테랑. 76학번인 그는 83년 결혼과 함께 현장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집과 노래를 만드는 등 노동운동 지원에 힘을 쏟았다. 그 때 막 노조에 여성간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생리휴가 등 법적 휴가를 따내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여성노조의 모태가 됐다.

우선 최위원장은 여성노조를 널리 알려서 조합원을 늘리고 힘을 키우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 확보를 인식시키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여성노동자 중에는 자기 권리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권리'에 대해 잘 모르더라구요."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여성들은 월차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아무 때나 해고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둘 것!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단지 고용된 기간이 '짧다'는 점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성노조 안에서 단지 '권리'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1모임'을 원칙으로 조합원들끼리의 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성노조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자주 모여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노조에 가입하면 풍물반, 영화소모임, 정보통신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서 노동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좋은 친구들과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여성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죠. 이것을 지원하는 공간이 바로 여성노조입니다." 최상림 위원장이 말하는 여성노조의 역할이다. IF

글 김보미/ 사진 엄을순

"아는 게 곧 권리입니다"

전국 여성노조 초대위원장 최상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줌마가 좋다"

아줌마 문화운동 시작한 이숙경

"아줌마 기 살리기 운동 왜 하냐구요? 그야 내가 아줌마니까요. 직업이 무엇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줌마가 되는데, 아줌마로서 이 사회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살기 위한 거죠."

아줌마운동가 이숙경씨(36세).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줌마 운동'에 대해 좀더 거창한 말로 설명하리라 예상했더니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한다.

원래 '아줌마'란 말은 여자 어른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줌마들의 존재방식이 소비주체 등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점점 가치가 하락(?)해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불리우는 게 사실. 한 부류의 사람들의 존재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들을 가리키는 명칭 자체의 의미도 함께 달라진 경우이다.

하지만 이제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인 30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교육·문화 체험이 크게 다르고, '운동'이라는, 함께 할 때 생기는 '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숙경씨의 생각이다.

"사람들이 점점 변하고 있고 그 이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그 달라지는 데다 가속도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숙경씨는 '아줌마'라는 이름을 고집한다. 아무리 '미시'나 '주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봤자 그 구성원들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무시당하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아줌마라는 이름을 고수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이뤄내면 인식은 분명히 달라지리라는 확신이다.

이숙경씨가 벌이는 아줌마 운동의 큰 맥락은 '아줌마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온천을 간다거나 먹거리를 찾아다닌다거나 하는 것 이외엔 아줌마의 특색있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이숙경씨의 전략은 아줌마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연극, 노래,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여성신문사가 주도하는 신주부캠페인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아 2번의 행사를 치렀다. 지난 7월의 〈아줌마가 아줌마 살리기〉 행사와 9월에 열린 〈신주부 아줌마 대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줌마 내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며, 모인 아줌마들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규모도 소수정예인 6명 정도. 올초 처음 구성된 팀은 '아줌마의 문화탐험'이라는 주제로 연극, 미술, 책 등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정에서 소외돼 있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한 아줌마들에겐 이런 문화적 활동을 이용해 소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이 프로그램을 접한 '인재' 아줌마들이 다시 주위에서 뜻 맞는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간다면 새로운 방식과 내용들의 소모임이 생겨나 다양한 아줌마 문화가 창조되리라는 것이 이숙경씨의 바람이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부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힘이 생기면 위에서부터 진행되는 개혁이 아니라 아줌마 당사자들이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아줌마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줌마의 정치세력화'가 멀지 않을 것이다.

아줌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여유를 갖게 됐다는 이숙경씨.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페미니스트이든 아니든 간에 아줌마로 '산다'는 것에서 나오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라며 아줌마의 언어와 문화, 힘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IF

글 김보미/ 사진 엄율순

여성이 뽑은 평등방송 디딤돌 걸림돌 시상식

디딤돌 대상에 KBS 〈일요스페셜〉 '가족의 미래, 여성은 어디로 가는가' 뽑혀

사람들을 만나면 꺼내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전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다.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로 불리지만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텔레비전 방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좋은 점을 창찬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11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미디어센타가 주최한 '평등방송 디딤돌 - 걸림돌' 발표 및 시상식.

심사위원 중 김훈순 교수(이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우리 미디어에 그려지는 여성은 상품화 되고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이 서슴지 않고 방송된다"면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방송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평등방송 디딤돌 - 걸림돌'을 선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부분에 선정됐는지 궁금할 터. 자신이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일 것이다. '99 여성연합이 선정한 '평등방송 디딤돌'은 KBS 1TV 〈일요스페셜〉 '21세기 희망—가족의 미래, 여성은 어디로 가는가'(99년 5월 23일),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성희롱, 이것이 성희롱이다'(99년 1월 31일), MBC 〈테마게임〉 '세상의 절반 남과 여—2010 이브의 경고'(99년 1월), EBS 〈알고 싶은 성, 아름다운 성〉 '성폭력', '성희롱'(99년 4월 17일, 7월 17일)이다. 한편 영광스럽게(?) 선정된 '평등방송 걸림돌'은 SBS 〈99한국슈퍼엘리트모델선발대회 갈라쇼〉(99년 9월 12일), KBS1 〈왕과 비〉(98년 5월 8일~현재), SBS 아침드라마 〈그녀의 선택〉(99년 5월 24일~10월 9일), MBC 〈'99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여연 차하은회 공동대표가 디딤돌 수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윤민PD(그것이 알고 싶다), 조대현 기획자(일요스페셜), 주철환 기획자(테마게임), 김경은 PD · 박달희 기획자(알고 싶은 성).

이날 디딤돌 대상은 KBS1 〈일요스페셜〉이 수상했다. 또 걸림돌에 선정된 MBC '99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측에서 여성연합이 요청한 자료장면을 보내주지 않아, 지난 5월 미스코리아대회 대안으로 열렸던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의 일부 장면을 대신 내보냈다.

2000년 총선, 준비된 여성을 국회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대 발기인대회〉 치러

새시대의 정치는 남성의 성역일 수 없다. '정치개혁', 바로 우리 '여성'이 한다.

다름아닌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대〉(가칭)의 선언. 여성이 정치의 주체가 돼 부패 정치, 폐쇄 정치, 지역 정치를 개혁하자는 취지이다. 준비위원회 대표의 중책은 장하진 교수(충남대 사회학과)가 짊어졌으며 발기인은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 여성신문사 이계경 사장, 영화배우 방은진, 변호사 황덕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 3,228명이다.

발기대회는 국회 앞에서 11월 22일 치러졌으며 내년 1월 전격 출범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옥씨는 "능력있는 여성을 발굴해 지역정치나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또 발굴된 여성지도자를 지원해서 민주적으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 단체의 활동목표를 밝혔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일어붙이기 위한 단체가 여성계에서 잘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 총선, 준비된 여성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해 봄직하다.

포르노,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포르노/여성/미디어〉 주제로 세미나 열려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쯤은 해봤을 포르노 논쟁. 어떤 것이 포르노인지, 포르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포르노에 대한 세미나가 10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내 '21C 여성 · 미디어 운동센터' 주최로 열렸다.

주제는 '포르노/여성/미디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하는 논쟁거리, 포르노. 이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 날은 포르노의 근본적인 정의에서부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과정, 페미니스트들의 포르노에 대한 논쟁과 바람직한 성교육, 표현의 자유의 법적인 한계까지 폭넓게 논의됐다.

발제를 맡았던 공미혜 교수(신라대 여성학과)는 "포르노는 사회 문화적 생산품의 하나이므로 포르노가 여성이미지를 왜곡시킨다기보다, 여성의 육체와 성에 대한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최측의 예상외로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중이 모여 뜨거운 자리가 됐다. 특히 기존의 포르노에서 남녀의 체위를 바꾸거나, 사람과 성기를 그림자나 공백으로 처리해 포르노의 이미지를 뒤집는 장면을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문학과 여성, 국제적인 학술대회 연이어

언어는 다르지만 문학이라는 공통된 틀 안에서 '여성'을 이야기하고 연구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나는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 주최 한영 문학포럼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교보생명빌딩, 10월 13일~14일), 다른 하나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회장 최영 교수) 주최 〈영문학 내의 페미니즘 연구 위상〉(이대 학생문화관, 99년 11월 5일~6일)이다.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은 현대 영국작가들과 한국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 특히 포럼 둘째 날에는 평론가 최혜실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학부)가 '근대성, 사랑, 젠더: 신여성의 사랑과 고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최교수는 나혜석을 예로 들어 1920년대 '여성 고백체 소설'에 대해 평했다. 고백체 소설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소설가들은 진실을 감추고 있는데 비해 20년대 여성들은 '나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진실을 말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영국 소설가로는 루이자 영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소설을 주로 해서 영국 현대소설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루미나 세티 · 크리스 위든 · 팻시 스토우만 교수(왼쪽부터).

〈영문학 내의 페미니즘 연구위상〉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의 영문학자들이 모여 '영문학에서 페미니즘' 읽기를 시도했다. 인도의 루미나 세티 교수(뉴잡대)는 민족주의 안에서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 발표했고, 영국 팻시 스토우만 교수(헐대)는 영문학에 있어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영국 카디프 대학의 크리스 위든 교수는 유럽의 지식인으로서 비서구권 페미니스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했다.

이외에 다양한 슬라이드 장면과 함께 서구 소설, 오페라, 영화 등에 나타난 왜곡된 아시아여성들의 모습을 비평한 우미성 교수(연세대)의 논문과 김민정 교수(이화여대)의 〈문화의 정치학: 인종, 자본주의,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의 문학적 개입〉 등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해방을 논하면 강단에 설 수 없다"

대구 효가대, 손덕수 교수 해임통지 논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이문희, 총장 최한선, 이하 효가대)는 1987년부터 13년간 이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해온 손덕수 교수에게 99년 11월 3일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손덕수 교수는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1세대로 한국여성의전화 대표(87~89년), 대통령정책기획위원(94~97년), 하월곡동 빈민촌 '산돌공부방'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강연과 TV출연으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

사건의 발단은 손교수의 수업방식에 불만을 품은 한 학생의 투서. 지난 6월 손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조사를 받고 8월 24일 학교측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받았다. 이에 손교수는 9월 8일 '대학 징계위에 드리는 답변서'를 통해 해명을 하고 10월 7일에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1월 3일 효가대는 손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손교수는 11월 5일 '부당해임에 대한 공개서한'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측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성적, 과제물, 출석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교수는 과제물 제출 횟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평가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혼합평가방식에 의해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사유는 불성실한 근무이다. '99년 1학기 '여성복지'는 강의시간에 여성복지보다는 여성해방에 관해 반복 학습했으며, 수업은 주제별 학생들의 발표로 발표수업의 종착점은 늘 여성억압이나 남녀평등이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는 주소로 주거를 계속 옮겼고 월요일 대구로 와서 야간강의를 하고 목요일 수업 종료 후 서울에 올라갔는데 형식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한 혐의사실이 있다"는 등이 학교측의 해임 사유이다.

지난 5월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한 손교수(왼쪽에서 두번째).

이에 손교수는 "다양하게 진행된 수업방식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며, 수업진행은 학생들의 요구와 시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주민등록은 대구에 있지만 가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대구에 있었으며 주 2~3일은 거의 밤11시까지 연구실을 지키면서 연구활동과 학생지도에 임했다. 그런데도 주 5일 강의제를 지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주 4일 근무'라고 하여 불성실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학교측이 제시한 출·결석 성적을 잘못 처리하고 수업을 교과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우는 대학교수 징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런 식으로 교수를 평가한다면 남아날 교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손교수는 학교측이 제시한 행정적 미숙이나 오류 외에 자신의 여성해방사상이 징계의 원인이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올해 초 전체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장이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성의 역사'니 '여성과 법률'과 같은 강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카데미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과 법률'도 강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손교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총장실에 불려가 "그 동안 방송, 신문 등의 매체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발언한 테이프와 기록이 모두 보관돼 있으니 본인의 결혼관, 이혼관, 성과 가족관을 모두 써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손교수는 "여성복지를 강의하는 시간에 '북경여성대회'나 '안티미스코리아 대회'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과서에 없다고 잘못된 것이며 남녀평등,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강조하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여성학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들은 이미 손교수 구명을 지지하는 성명서와 요구서를 학교당국에 보낸 상태. 아울러 손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효가대에 공개서한을 보내 학교측의 답변에 따라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교수는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해온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해임이라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에도 여성운동의 물결이 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며 법적 투쟁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투지를 보였다.

21세기 여성포럼이 마련한 이효재 선생 초청간담회

"이제 더 이상 구색만 맞추지 마세요. 언제까지 숫자에 연연할 겁니까?"

이효재 선생이 여성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지난 10월 15일 63빌딩 별관 3층에서 열린 이효재 선생의 〈여성운동과 나의 삶〉이란 주제의 초청간담회. 이 행사는 21세기 여성포럼 주최(공동대표 조은 · 지하은희 · 손숙)로 마련됐다.

이효재 선생은 97년 은퇴한 후 고향 진해로 내려가서 여러 번 지방강연에 초청받았다. 강연내용으로 요청받은 것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목소리는 낮추어서 얘기할 것 등의 예절교육이었다고. 선생님은 떠나는 예절교육을 통해 소외된 지방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느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렇다. 여성계가 정치분야든 다른 분야든 수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오히려 남성위주의 관료조직을 떠받쳐주는 격이 됐다. 또 여성 관련 이슈만 갖고 활동해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여성전문집단 혹은 특수집단으로 보여질 때도 있다. "이제 유권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여성운동의 성격을 시민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효재 선생의 충고. 여성들 자체가 시민의식으로 무장해서 문화운동도 펴고 교육운동도 펴고,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한다고.

은퇴후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여성계 인사들이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는 자리였다.

하정은, 〈나른한 오후〉.

대중미술공간 〈늦바람〉 여의도공원서 꿈을 주제로 전시회

'늦었더라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늦바람〉(대표 황정화)이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제3회 정기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중 특히 눈길을 끈 작품은 하정은(55)씨의 작품. 하정은씨는 실제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경영하고 있다. 하루 중 시장에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에, 여름이라 지친 시장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흥정하는 사람, 부채질하는 사람 등의 모습은 정겹기만 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꾸준히 활동하고 자신의 삶을 그려낸 하씨의 남다른 의지가 부럽다.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린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도 인상깊다. 그들의 그림에선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엿보인다.

"남들은 생각만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직접 실행에 옮기죠. 우리는 바로 우리 꿈을 그렸어요." 전시회 〈꿈 · 夢 · Dream〉에 관한 주최측의 설명이다. 그림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마음껏 그림을 배우고 그릴 수 있는 공간.

기존의 화랑들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든 점을 감안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인 공원에서 전시회를 연 세심한 배려 또한 놓칠 수 없다.

글 김보미

중국에 계시는 일본군 성 노예피해자 할머니를 도웁시다!

중국에 사시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위해 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무한지역에 네 분의 할머니, 흑룡강성과 길림지역에 여섯 분의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외롭게 혈육도 없이 양로원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고향땅을 밟고 살아도 형편상의 이유와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해 오시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할머니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소식들을 보내드리면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11-389-6220(조아권)
02-708-4327(지구촌 동포청년연대 사무실)

부산에 있는 혈육을 찾고 있는 이광자 할머니.

사이버의 백미, 커뮤니티가 당신을 부른다

온라인의 중요한 요소로 3C를 꼽는다. 정보제공(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온라인공동체 즉 커뮤니티(community)가 그것.

이중에서도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참여공간이다.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예는 동호회, 클럽, 대화방, 게시판 글쓰기, 미팅 등이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세계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될수록 자기 표현의 욕구는 강렬해진다. '표현하기'와 더불어 '주장을 개진하고 토론 혹은 여론을 이끌어 나가기'도 커뮤니티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익명의 네티즌들을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한국형 포탈사이트라는 '다음(www.daum.net)'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 '이 세상에 태어나, 여성으로 태어나'란 이름으로 칼럼을 운영하고 있는 '해마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은 현재 37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활발한 온라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인터넷을 길들이려는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설명과 함께 만들어진 온라인카페 〈사이버 앨리스〉에는 현재 944명의 회원이 가입해 즐거운 '수다'를 풀어내고 있다.

여성이 운영하는 코너라도 '여성'이라는 주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심이가 선택하는 오늘의 웹사이트〉는 현재 회원 467명을 확보하고 매일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에서 클럽이나 카페를 만들고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아직 균형이 잡히지 않은 웹은 지금 여성인 당신의 참여를 목말라하고 있다.

지금 도전해 볼만한 커뮤니티 사이트

■ 포탈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카페, 칼럼, Miznet
http://www.daum.net/
라이코스 클럽
http://club.lycos.co.kr/main.asp
네티앙 커뮤니티
http://www.netian.com/

■ 인터넷 메신저
ICQ 동호회
http://www.cookie.co.kr/icqkorea/icqlist/sigmain.html
인터넷 버디클럽
http://www.internetbuddy.com/servlet/iclubtop

■ PC통신 & ISP
천리안 동호회
http://www.chollian.net/
하이텔 동호회
http://www1.hitel.net/plaza/
유니텔
http://www.unitel.co.kr/
나우누리
http://www.nownuri.net/
신비로 동호회
http://www.shinbiro.com/@sig/index.html
채널아이
http://www.channeli.net/
넷츠고
http://www.netsgo.com/

■ 종합 생활정보사이트
씨티넷
http://www.citynet.co.kr/
씨티스케이프
http://www.cityscape.co.kr/
씨티라이프
http://www.citylife.co.kr/

■ 채팅전용 사이트
하늘사랑
http://www.skylove.co.kr/

■ 여성전용 커뮤니티
톡투미
http://www.talk2me.co.kr
우먼플러스
http://www.womenplus.com/
아이지아
http://www.izia.co.kr/
우먼21
http://www.women21.co.kr/

■ 나도 잡지 발행인-메일 매거진 사이트
인포메일
http://www.infomail.co.kr/
이지페이퍼
http://www.ezpaper.co.kr
이맥21
http://www.emag21.com

지난 여름, 여성학동호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편견없이 존중받는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 온라인에서는? 보다 열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상은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99년 여름과 하반기에 걸쳐 천리안 여성학동호회(go femi, 이하 여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살펴보자.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언어 · 비언어적 성폭력이다.

여동에는 '비회원 게시판'이란 곳이 있다. 가입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여동이지만 회원이 아닌 사람도 이곳에는 자유로이 글을 올릴 수 있다. 바로 이곳이 끊임없는 문제의 진원지이다. '아즈히로', '구루조', '짱구'라는 아이디 혹은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동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여성비하 발언을 계속해서 올리고 이에 대해 꼬리를 문 상호비방이 이어졌다.

여동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회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회칙에는 게시판의 글 중 인신공격이나 언어폭력, 동호회 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 경고의 권리를 비회원 게시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여기에 '불평등의식', '여남차별'을 극복 · 대처하겠다는 여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한 가지 여동에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ROSE'라는 모임방이 있다. 여기서는 드러내기 힘든 개인적인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어김없이 오고간다. 그러던 중 로즈방을 여동회원들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게 됐다. 정서적 교감대를 이루지 않은 비회원들에게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글을 쓰고 싶어도 모두에게 공개되므로 꺼리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를 받아들인 여동은 소모임방 전체를 비공개 방으로 했는데, 기존너 모임을 비롯한 3개의 소모임 회원들은 자신들의 경우 특별히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아 결국 로즈방을 비공개 상위메뉴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소모임방은 공개공간으로 복귀시켰다.

또 한 가지 소모임방의 변화는 동성애 학술모임 '해피투게더'가 생긴 것이다. 지난 8월 15일에 첫 제안을 수렴해서 동성애방이 개설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갑숙의 책이 화제가 된 지금 공개와 비공개의 논란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남성학 연구회 출발!

천리안에 '남성학 연구회(go men)'가 10월 7일 탄생했다. 여성학 동호회에 비해서 2년이나 뒤늦게 출발한 셈.

네티즌 중 남성비율이 훨씬 높은데 전문적으로 '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웹사이트는 '여성'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보다 훨씬 적고 분야도 한정돼 있다. '남(男)'보다는 '성(性)'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가장 많은 남성사이트는 발기부전, 남성클리닉 등 남성의학에 관한 것이고, 남성패션, 미팅 등이 뒤를 잇는다.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란 설명을 단 이색사이트로는 룸살롱, 단란주점 회원을 모집중인 클럽이 눈에 띈다. 건전한 모임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http://user.chollian.net/~fathers1)〉과 하이텔의 〈한국 남성의 전화(MANSOS)〉가 있다.

미국의 경우 〈남성운동기관(www.vix.com/pub/men/orgs/ orgs.html)〉에는 남성운동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빠짐없이 링크돼 있으며 남성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이트도 다수 눈에 띈다.

〈지지클럽(www.zzclub.com)〉은 남성을 위한 사이트와 여성을 위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사이트의 경우 카테고리를 성공, 사랑과 섹스, 골프, 패션, 여행, 자동차, 카지노, 가족 순으로 분류해 놓은 데 비해서 여성전용 사이트는 패션, 센스, 임신, 다이어트, 요리로 구분해 남성과 여성의 주요 관심사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이 남성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최혜숙

긴급인터뷰

포르노그라피에서 걸어나온 여자, 서갑숙

글 박미라(편집장)

남자들이 그린 명화 속에, 영화 속에, 그리고 이발관에 걸린 달력 속에, 텔레비전의 미인대회 속에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기 맞은 편에서 언제나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존재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보면서 꿈꾸고 몽상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한 명의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나왔다. 게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더 노력해 봐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요."

심지어 그녀는 이제 가르치기까지 한다. "자, 내 말을 들어봐요. 그리고 그대로 해봐요. 나는 이미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림을 감상하던 이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 됐을까. 그걸 상상하는 일도 꽤 재미있겠다.

사람들은 종종 세기말을 탓한다. 심심치 않게 요란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서갑숙씨의 책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J-pub)가 엄청난 이슈가 되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10월 중순에 출판된 이 책이 서갑숙씨의 말에 의하면 이미 50만부를 넘어섰다니 한반도를 뒤흔들었다는 말이 지나친 과장법은 아닌 듯싶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덩달아 이프도 흔들렸다(이프의 판매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프야 노골적인 성표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이다보니(?) 서갑숙씨의 성고백서 출판소식이 그리 충격적일 것도 없었다. 그 책은 결국 이프 바깥 사람들에 의해 먼저 읽혀졌고, 책에 담긴 메시지나 여성으로서의 의식이 꽤 괜찮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아, 이 이야기도 해야겠다. 이프의 식구들이 이 책을 접하기도 전에 온갖 신문방송매체로부터 의견을 말해 달라는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는 뒤늦게 그러나 서둘러 책을 구해 읽었고 읽자마자 원고청탁이 들어왔다. 10월 27일자 문화일보에 실렸던 김민숙 발행인의 글, 「서갑숙, 당당하라」라는 칼럼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후로 마치 이프는 서

어느날 내 몸을 거울로 보니까 너무 내버려둔 거예요.
마음도 망가져 있고…
그제서야 이젠 날 좀 사랑하자 싶어요.
진정한 나와의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갑숙씨의 대변인이 된 듯 각종 매체의 토론회와 인터뷰 때문에 동분서주해야 했다. 그리고 서갑숙씨와는 바로 그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26일 그러니까 이프 11호가 인쇄소로 들어갈 날을 정확히 이틀 앞두고 우리는 호주 여행에서 막 돌아온 서갑숙씨와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몇 명의 이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시간이 급박한 만큼 최단기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왜 책 제목에 포르노라는 말을 썼는지 이프 독자를 위해 설명해 달라.

보통 포르노라고 하면 남성들의 공격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만이란 사람이 '여성도 포르노를 보고 흥분을 느낀다' 고 했어요. 바로 여자가 공격적인 장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가 남성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성들도 성적 판타지를 위해 포르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책 출판 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시달렸다고 생각하나.

의외로 담담했어요. 나는 워낙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요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책 쓰기 전에는 사방이 꽉 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빗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됐고 그 후론 담담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기뻐하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기자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을 텐데 느낌이 어땠나.

매일 똑같은 질문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냐, 검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심경이 어떠냐…. 그런 것보다는 네가 말하는 성은 뭐냐,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사랑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얘기하자, 이러면 재미있죠.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서갑숙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여성학 전공자들과 여성운동가들이 만든 소규모의 토론회도 있었다. 〈침묵하지 않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토론회의 제목처럼 대부분 서갑숙씨를 지지했다. 어느 인터뷰에선가 나는 사람들의 매개자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나.

사람들의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만족의 의미, 다른 사람들을 속시원하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누구를 대변한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의 내 삶 자체를 어떤 외압이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건가?

지지도 조심해야 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를 지지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 하는 건데 그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가 아니거든요.

통신에 들어가보면 서갑숙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온다. 또 서갑숙씨 책의 주 독자층이라고 하는 40~50대 남성들도 그 책에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더라도 편가르기나 싸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더 너그럽고 큰 사람이 상대방을 포용하듯이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려면 안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내 주변엔 40대 남자들도 별로 없지만 나를 만나도 핵심을 얘기하지 못하고 피해요. 돌려서 얘기를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렇게 따질까봐 그러는지.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도망갈 구석을 터주고 잡아야 되고, 해소할 마당도 필요한 거고, 욕하고 싶은데 욕할 데가 없었잖아요. 사실 욕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편가르기를 여성들이 먼저 한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말할 때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을 경계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들은 불평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그래요. '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해요(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기득권층의 남자들일수록 '우리 남자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지요. 편을 가르는 건 피해의식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로 말하자면 이프는 여성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며, 그것은 어쩌면 여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피해를 입어서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도, 비합리적인 행동도 아니기 때문이다.)

연예인노조 성명 이후에 개인적으로 동료로서 지지해 준 사람은 없었나.

없었어요. 〈학교〉 드라마 찍으러 나갔다가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 가방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후배가 '아유, 어떡하냐,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길래 응, 나 괜찮아,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너무 서운하지?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힘 안 들어, 괜찮아' 그랬더니 '언니, 그럼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 미안하지는 않고, 같이 하다가 못하게 돼서 서운하지, 미안한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언니, 정말 미쳤어' 하는 거예요.

서갑숙씨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다. 의외로 매우 담담하고 딸을 독립적인 존재로 봐주는 것 같았다.

우리 어머니 나이는 예순여섯이세요. 어머니야말로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이에요. 취미도 없고 옷도 안 사입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곤경에 처한 거 같으니까 내가 감싸고 믿지 않으면 어디 발 붙이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 전의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다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엄마는 지금도 저보고 매일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왜 그렇게 사니…, 하세요. 그럼 내가 또 이러죠. 엄마가 이

렇게 반대하면 나는 나가서 몰래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단만 치지 말고 내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여성잡지에 난 거고 뭐고 다 말해드렸어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언어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팩스 같은 거 들어오면 어머니가 먼저 읽어보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 그 말은 뭐냐 이렇게 다시 물어오시고…. 엄마가 지식이 많거나 방어능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말을 꾸미고 그랬을 텐데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애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편안하게 소신있게 표현하면 그게 다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딸에 대해서도 별말 안 하는데 그래도 딸들이 지혜롭게 생각해 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면 전달이 될 거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른이어서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육이 아니고 정보를 주면은 아이들이 다 판단해서 살아요.

이번에 책을 내면서 한국사람들에 대해 어떤 걸 느꼈나.

사람들한테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먼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식의 절대부족 상태인 것 같아요. 책으로 얻어지는 것 말고도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어느날 내 몸을 거울로 보니까 너

무 내버려둔 거예요. 마음도 망가져 있고…. 저는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의 끝까지 내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야 이젠 날 좀 사랑하자 싶어요. 진정한 나와의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잃은 거는 없고, 많이 얻은 거 같은데요. 돈도 얻었고, 인세를 받으면 빚 청산도 될 거고(웃음). 사람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외롭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뻐근하게 기분이 좋아요. 소외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여자들 중에는 서갑숙씨가 주장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 코웃음치는 경우가 있다.

코웃음 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노력해도 잘 될 거 같지 않은 벽을 느꼈을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꿈꾸는 얘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꿈꾸기는 했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각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치를 두더라도 나는 아주 작은 것이 가치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나 자신은 뭘 원하느냐.

사람들은 서갑숙씨가 사랑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한다. 혹시 M과의 사랑이 가면 방황하고 다른 사랑을 찾는 데 급급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한번 겪고 나면 실마리를 잡게 돼요. 실마리를 잡았다는 거는 뭔가를 눈치 챘다는 거예요(웃음). 사랑의 실패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120킬로로 달리는 차를 탔어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70~80으로 달리는 사랑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요.

서갑숙씨의 책에 나오는 '명기'에 대한 얘기다. 몸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하면서 너무 성기중심적인 사고 아닌가. 그리고 명기란 남성의 성적인 도구로 생각되는데….

여자한테만 명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명기가 있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 피부를 단련시키듯이 질 근육도 단련을 하면 성적인 느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도 성기를 단련시켜서 명기가 되면 좀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명기 이야기는 총체적인 사랑의 일부로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에요.

직접 만나보니 인상이 예상과 다르다. TV에서는 꽤 강하게 보였는데….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윤곽이 뚜렷하고 크다고 생각해요. 이목구비가 크니까…. 그런데 직접 본 사람들이 요렇게 암전하게 보이는 여자가 대담한 일도 저질렀구나 그러죠. 자분자분하게 말하면서, 자분자분한 입에서 별 말이 다 나오네, 사람들이 그래요.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나?

나는 집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메이컵하고 코디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안 맞았어요. 자꾸 내 이미지를 섹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피무늬 짧은 치마를 입히려고 하고 그래서 그만두게 했어요. 많이 치장하고 꾸민 집시 말고 그냥 자연에 가까운 집시가 좋아요.

2월에 선보인다는 연극은 어떤 것인지.

책 2권, 그리고 연극까지 3개가 하나의 계획이었고 이건 모두 성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았어요. 제 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에피소드화해서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고정관념 없이, 어떤 인물이 돼서 혹은 서갑숙이 돼서 울고 웃고 하다가 갑자기 사회자로 관객과 대화하다가 그러면서 연극을 통해서 성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은 영화 제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 세 가지 일이 끝나면 생각해 봐야죠. 그럼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딴데 나중엔 소용도 없어…(웃음).

실크로드 누드사진집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그 책 제목이 『뼈 · 연적 · 18』이에요. 부제는 '길에서 넘어진 자 길을 짚고 일어서라' 예요. 제목은 일부러 주제가 드러나지 않게 정했어요. 보통 책 제목들은 주제가 선명한데 그렇게 알려주면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각자 자기 느낌이 있을 텐데…. 주제는 무위(無爲)예요. '한다'와 '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 이런 경계선이 필요 없는 경지죠. 자연과 나를 분리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과 자연은 하나거든요.

연예인이 누드사진집을 찍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한다. 보통 변한 장면을 연출하는 대상화된 여성모델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실크로드에서 사진 찍으면서 큰 절 받아들이게 됐어요. 거기 산들이 있잖아요.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을 보니까 오랫동안 깎이고 패인 상처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편마암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산을 보고 추하다 아름답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수술자국이 크게 남아 있는 내 몸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처있는 몸도 내 몸이고…. 죽음을 극복한 훈장이잖아요. 마음 속으로 사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프와 인터뷰한 박노해씨는 '나도 과감하게 포르노배우가 돼볼까' 하는 농담을 했고, 그를 인터뷰한 류숙렬씨는 '상품성이 없겠다'고 받아서 모두 웃었다.

상품성이 없기로야 나도 그렇죠. 30대 후반에다 미혼도 아니고, 수술자국도 있고….

서갑숙씨의 성고백 '과문'(일부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다)은 결코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그의 계획 속에서 발견한다. 그는 일생일대의 작정을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벗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옷을 벗으므로써 자신이 욕망을 가진 인간이며, 대상이 아닌 주체이며, 게다가 사회적인 금기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생각하는 사람'임을 선언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는 페미니스트들을 조심스러워한다. 아직은 그가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그가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 그것은 그녀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우리는 단지 서갑숙씨의 당당함을 칭찬하고, 그에게서 용기를 얻은 제2, 제3의 서갑숙을 기대할 뿐이다. 더 자유롭고, 더 성찰적이며, 더 '꺼'가 넘치는 여성들이 아우성치기를. IF

사진 김민숙

공동 인터뷰어

지혜(베즈비언 액티비스트)
김민숙(발행인)
박옥희(이사)

이여자백지연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로 다시 태어나겠다"

글 · 사진 김민숙(발행인)

백지연씨가 자신과 아이, 전 남편의 채혈을 통한 DNA검사로 드디어 결백을 과학적으로 입증받았다.

11월 24일 열린 배부전씨에 대한 명예훼손 8차 공판에서 담당 이상주 판사는 DNA검사 결과 백지연씨의 아들이 전 남편 강형구씨의 친자임에 틀림없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5개월 동안 백지연씨를 괴롭혀온 괴소문의 진상이 밝혀졌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전 남편에 대한 친권박탈소송을 통해 또 한 번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배부전씨의 국선 변호사인 조병룡씨는 기자들에게 "그쪽 사건에 훨씬 기자들 입맛에 맞는 내용이 많을 거다"라는 뼈있는 말을 함으로써 유명인의 사생활을 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예견하기도 했다.

지난호 이프는, 백지연씨 이혼을 둘러싼 보도들이 도를 지나쳐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앵커우먼 자리를 지켜온 한 여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어린 아들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여성계와 함께 '백지연씨에 대한 보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게재(본지 10호 64쪽)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와 각 언론사들에 보낸 바 있다.

지난 7월초 PC통신과 『스포츠투데이』에서 시작된 마녀사냥식 가십기사가 급기야는 8월 18일 KBS 뉴스에까지 등장하면서 백지연씨는 각종 언론 루머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남자유명인사였다면 겪지 않았을 사생활 검증과 해명, 그리고 몇 가지 소송에 시달리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할 의욕조차 상실한 채 공적인 일을 모두 중단하고 아이와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매달려왔다.

'백지연씨 사건'은 미국 LA 한 교포신문의 발행인이라는 배부전씨가 PC통신에 백지연씨의 아들에 대한 루머를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백지연씨의 아들이 그의 전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이 내용은 당장에 스포츠신문의 사냥감이 됐다. 「백지연씨 모함」이라는 교묘한 제목을 달고 제도권 신문인 『스포츠투데이』가 이를 활자화한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모함'이 아닌 그 기사 내용에 모아졌고, 소문은 증폭되어 마침내는 뉴스로서의 가치도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이 KBS 뉴스에까지 등장하게 됐다. 그에 관한 루머는 '모함'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 명의 여자 죽이기가 진행된 것이다.

백지연씨는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 먼저 배부전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스포츠투데이』에 대해서는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고자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쪽 가족들이 친자여부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이다. 백지연씨는 재판과정중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친자확인 DNA검사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전 남편 강형구씨는 3차

11월 24일 DNA검사 결과 친자임을 입증받은 백지연씨의 기자회견 광경.

에 걸친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아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DNA검사를 거부했다.

백지연씨는 아이의 존귀함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급기야는 친권박탈소송까지 냄으로써 법조계와 사회의 관심을 모아왔다.

김 일각에서는 백지연씨의 친권박탈소송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한다. 결국 이 소송 때문에 전 남편이 DNA검사에 응한 것 아닌가? 전 남편과 시부모들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백 시부모는 이혼후 한 달 동안 전화를 걸어 "우리는 아직도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재결합을 바라셨는데 내가 응하지 않자 많이 노여우셨던 모양이다.

김 친권박탈소송에 대한 그쪽 반응은 어떠했나?

백 소송을 내던 날 남편이 몇 개월만에 전화를 걸어와 아이를 보고 싶으니 데려가겠다고 했다. 당연히 거절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의 증인 출석에나 성실히 응해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했다. 전 시부모는 나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비공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법정이 지정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백지연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1월 12일 담당판사실에서 서울대 이정빈 교수팀에 의한 세 사람의 채혈이 이루어졌고, 24일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김 앵커로 활동하는 동안 백지연씨가 언론에 비협조적이어서 일부 매스컴이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백 앵커 백지연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개인 백지연의 사생활에 대한 인터뷰는 사양하고 싶었다. 미국의 경우 방송국에서 앵커를 관리하는데,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뉴스전달자로서의 권위나 신뢰감, 혹은 적절한 신비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파티 참석도 삼가게 한다고 들었다. 나는 프로로서 직업에 합당한 이미지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뷰 요청이나 사진촬영을 거절당한 언론사측으로선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

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맞설 힘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여성, 혹은 이 사회의 약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백 며칠 전 아들과 함께 광릉 기도원에 간 적이 있다. 아이에게 바람도 쐬어줄 겸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려 한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도 뭔가 건지는 것이 있어야 덜 억울할 것 같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의 논리가 빚어낸 약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호주제도, 이혼법, 이혼시의 재산분할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세뭅게 태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 내가 『스포츠투데이』의 최윤정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많은 유명인

"이 시련을 통해
나도 뭔가 건지는 것이
있어야 덜 억울할 것 같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의 논리가 빚어낸
약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 연예인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청해 오기도 했다. 자신들은 말도 안 되는 폭로성 기사에 당하고도 항의조차 못했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꼭 이겨달라고 했다. 유명인도 이럴진대 이름없는 약자들의 현실은 어떻겠는가?

김 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나?

백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

다. 친정어머니와 이모들의 각별한 사랑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다. 아무리 바깥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억울하고 괴롭더라도 집에 돌아가 문을 열 때 "엄마" 하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나오는 아들을 보면 일시에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김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상처가 아물고 나면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싶은가?

백 세 가지 송사를 처리하느라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아예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능력이 될지 의문이다.

방송일은 이번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스트레이트 뉴스보다는 시사토크나 뉴스 매거진 형식에 관심이 많다. 오프라 윈프리의 친숙함도 닮고 싶고 다이안 소여 스타일의 진행도 하고 싶고 오리아나 팔라치 같은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도 관심이 많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헛소문을 청소하느라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중삼중으로 화가 난다. 주위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니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내년에 아이가 유아원에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 급할 수밖에 없다.

김 왜 프리선언을 했는가?

백 23살에 9시 뉴스 앵커가 된 이후 10년 넘게 똑같은 일을 했다. 남자앵커가 3~4차례 바뀌었지만 내 위치에는 변함이 없었다. 승진이라면 남자앵커를 제치고 메인앵커가 되는 것인데 우리 현실로는 어렵다. 도전이 없다면 모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김 미국의 저녁뉴스 앵커는 대통령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한국앵커의 대우는 어느 정도인가?

백 미국과 우리의 현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앵커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다. 입사 기수에 따른 월급 외에 약간의 수당이 있을 뿐이다. 앵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앵커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졌을 때 상황도 달라지리라 본다.

김 CF모델을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은 없었나?

백 프리랜서가 되고나니 광고섭외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미지 관리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화장품회사와 자동차 광고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사양했다. 매스컴의 한 분야인 광고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것이었다.

김 이프는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백지연씨는 미스코리아 대회 사회를 봤다.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

백 처음 나에게 섭외가 들어왔을 때 대회사상 처음으로 여성 혼자 사회를 봐달라는 것이었다. 큰 대회는 남성이 메인을 하고 여성이 보조를 하는 식인데 여성 혼자 3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미스코리아에 대한 여성계의 시각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없어질 대회가 아니라면 여성이 진행을 맡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한다면 남성사회자가 여성출전자에게 손쉬운 농담을 하는 것만이라도 없앨 수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고 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지연씨는, 이번 일을 통해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한 개인의 인격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실제로 겪으면서 자신과 같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고 이 사회의 약자들, 특히 이혼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처한 불합리한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자신이 이들의 편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 동안 악성루머에 시달리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맞서 외롭게 싸우는 백지연씨가 명예를 회복한 데 대해 여성계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까지 타고난 조건과 능력으로 양지에서만 승승장구하던 백지연씨가 음지의 실상을 체험하고 나서 여성계의 투사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니 여성계는 큰 원군을 얻은 듯 기쁘다. 하지만 기왕이면 이제까지의 차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좀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다. IF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 · E-Mail : mindvis. unitel. co. kr

깨어나는 당신, 새로운 삶이 열린다!

■명상 · 수행 · 깨달음의 세계 ■동서고금의 심신 수련법
■두뇌 · 의식 · 마음 · 영혼의 과학 ■은비학 · 우주문명 · UFO ■생태영성의 회복
■통합의학 · 대안교육 ■자기계발 · 성공과 행복 ■영혼의 스승들

월간 정신세계 1999년 12월 창간

• 정신문명의 새시대에 태어나는 새로운 종합지 •

월간 정신세계 창간준비 특집 1호
새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백만 수련인의 필독서!
●대담/ 수련문화의 현실과 방향(이규행 · 임경택 · 박병운 · 안동준 · 장휘웅 · 정재서)
●가부좌에 들어간 마르크스
●특전문 기자 김인근의 수련문화 30년 비사
●국내 수련단체 요람

신간 월간 정신세계 창간준비 특집 2호
새천년의 물결 뉴에이지
새로운 삶을 여는 뉴에이지 백서!
●대담/인류 진화의 신세계를 향하여(김재희 김정란 · 조병준 · 김재수 · 박석 · 손덕수)
●뉴에이지 문화 읽기 — 영화 · 음악 · 광고 만화 · 음식 · 출판
●당신의 뉴에이저 지수는?

근간 월간 정신세계 창간준비 특집 3호
깨어나는 여신 — 에코페미니즘
새천년과 함께 거듭나는 여성과 자연!
●생태문명의 영성과 여성의 영성
●미래의 신과학 — 생명여성주의

〈월간 정신세계〉 정기구독을 서두르세요!
2000년 하루 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1년 구독료 60,000원에서 할인된 값 50,000원에 드리며, 정신세계사 제휴단체 프로그램 참가나, 책 · 물품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33-3135

밝히는남자 박노해

"부드러운 페니스로…"

류숙렬(문화일보 차장)

"박노해가 자기는 지금 무슨 '주의자'도 아니지만 구태여 밝힌다면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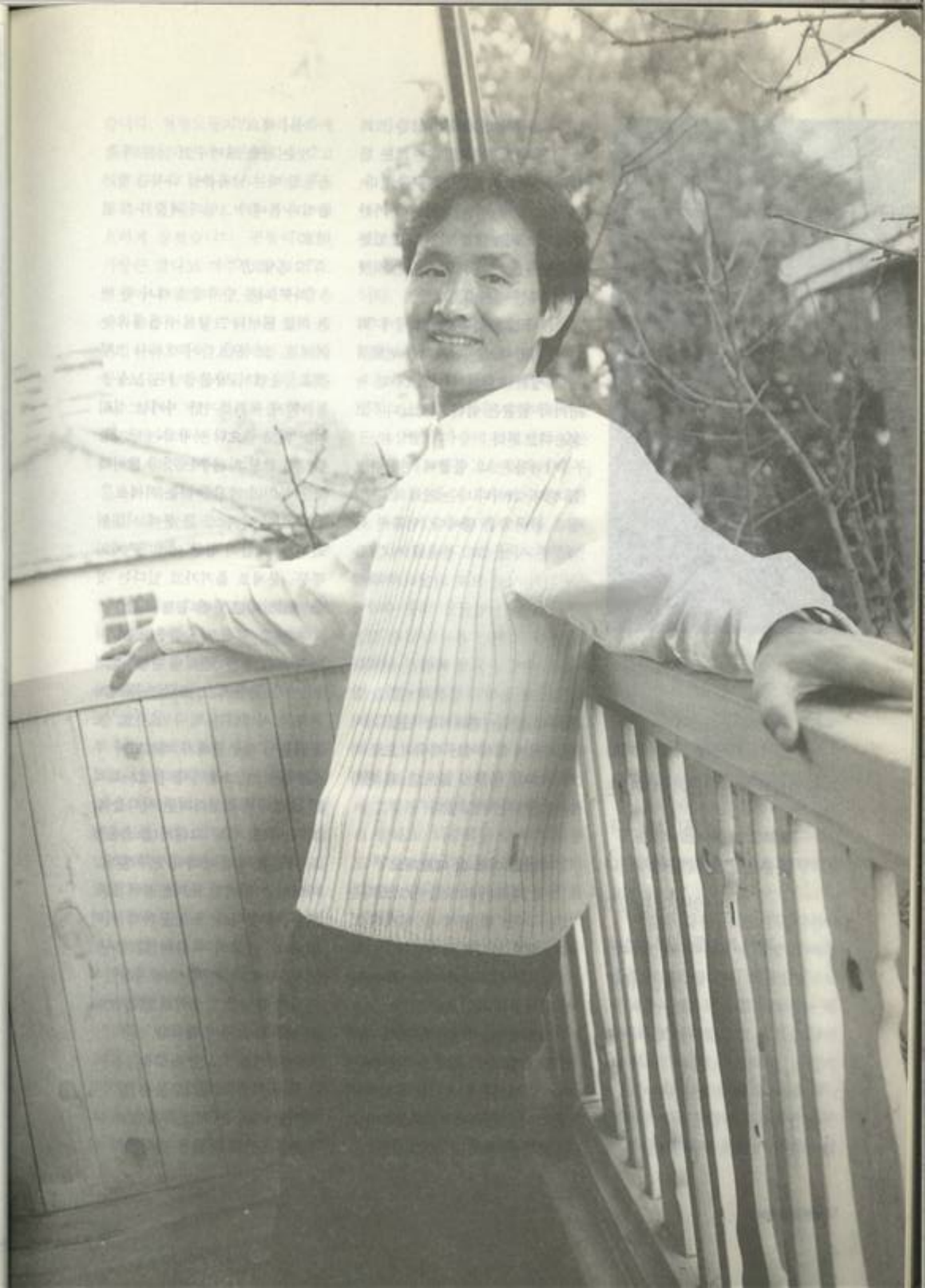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뉴욕의 유니온신학대학 정현경 교수(전 이화여대 교수)의 한 마디 때문에 이 인터뷰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11월 12일 오후 4시 광화문과 서대문 사이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195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고흥, 벌교에서 자란 박노해의 본명은 박기평, 세례명은 가스발이다. 노동해방을 줄여 만든 이름 박노해는 그의 필명인 셈이다. 서울 선린상고(야간부)를 졸업하고, 섬유·화학·건설·금속·운수 노동자로 일했고 1984년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며 한 시대를 상징하는 '얼굴 없는 시인'으로 떠올랐다.

이후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향한 80년대 혁명운동에 앞장서다 1991년 사노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년여의 수배생활과 8년여의 감옥생활 끝에 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93년 두번째 시집 『참된 시작』, 97년 옥중에세이집 『사람만이 희망이다』, 99년 에세이집 『오늘은 다르게』를 펴냈다.

그는 요즘 '변절했다더라', '맛이 갔다더라' 등등 많은 소리를 듣는다. 노동자 혁명을 추구하던 빨갱이 지하혁명가에서 서태지를 좋아하며 신세대를 옹호하는 '뛰는 남자 박노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왜 변신했을까? 아니, 그는 정말 변한 걸까?

집필중이던 강원도에서 올라오는데 차가 밀려 늦었다며 그가 들어



"운동조직에서도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었고 70년대 파업할 때도 남자들은 배신하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운수노조 할 때도 기사보다 안내양들이 많았고 기사 부인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셨다. 베이지색 재킷과 남방 그리고 하얀 니트 조끼를 입은 그는 단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노동의 새벽』이 한국사회에 가한 충격으로 박노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요즘 모습은 시쳇말로 '배신 때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91년 체포될 때의 이글거리던 반역의 눈빛, 성난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혁명가의 얼굴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변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원래의 내 얼굴로 돌아왔을 뿐이다.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 그 '짐승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성난 얼굴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무덤속 같은 독방 벽에 갇혀서 빽아픈 패배에 절망하며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살아내야 했다. 변해서는 안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난호 이프 참 예쁘데요"

창간 때부터 이프를 사보았다는 그는 "지난 번 표지 참 예쁘대요"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남자 여자 같이 나온 표지요? 성 정체성을 특집으로 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매력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게이들과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만 보면 자꾸 벗는 거예요."

"아니 왜요?"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운동할 때는 남자몸이 나지만 젖가슴이나 몸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서 한 번은 화를 냈더니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동안 한이 맺혀서 그랬겠죠. 울면서 박선생님은 노동운동, 약자 얘기하지만 자기는 실직자가 돼도 좋으니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밥상 차려주는 것이 꿈이라고 사무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시대의 화두가 '계급의 평등'에서 '존재의 평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지냈지만 그 동안 '존재의 평등' 문제는 생각 못했어요. 요즘 노동자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노동자들이 생존문제가 해결되자 주식투자하고 그러면서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영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운동도 파업할 때만 과격하게 투쟁하고 나머지는 완벽한 소비문화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노동문화가 거의 없어요. 진보의 역설에 걸려버린 거죠. 이제 육체노동자와 지식인이 존재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존재의 평등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국의 지식엘리트들은 정치경제적인 평등은 인정하지만 지식, 문화, 정신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노동자가 지식문화에 관계하게 되면 거대한 반감을 갖고 집중공격이 들어옵니다. 저도 『노동의 새벽』을 누가 써준 거냐고 집요하게 당했습니다. 공돌이라고, 가방끈 짧다고 껴주질 않는 거죠. 여성이나 동성애자, 장애자 같은 약자들은 언제나 주변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세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변하고자 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재는 척도의 핵심은 문화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됩니다."

'계급의 평등'에서 '존재의 평등'으로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죠? 사회주의자에서 신세대 페미니스트로 변신한 건가요?"

"에코페미니즘은 무슨 주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보성이고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지구를 살리며 인간을 살리는 공생의 정신문화 가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코페미니즘이 근본주의로 떨어지는 것은 경계합니다."

"남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저는 남자보다 훨씬 똑똑한 여자들, 대학출신보다 훨씬 똑똑한 비대학출신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같이 운동하고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 가서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 놀랄 정도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했던 운동조직에서도 항상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었고 70년대 파업할 때도 남자들은 배신하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운수노조를 할 때도 기사들보다 안내양들이 많았고 또 기사 부인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에서 각성의 바늘로 '이불을 꿰매며'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문신을 새겨넣은 그는 감옥에서 무기수로 8년을 지내며 여자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리움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번은 여선교회 집사님들이 면회를 오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찰싹 달라붙은 쫄티와 청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모든 재소자들의 눈길이 그 집사님의 젖가슴으로만 가더라구요. 가슴곡선이 참 예쁜 분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보면 왜 그렇게 여자가 사무치게 그리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여자가 얼굴도 형체도 없어지고 강물 같은 이미지로만 남아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죠."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여자 없는 벽 속에서/ 오랜 세월 빛바래 가면/ 여자는 얼굴도 구별도 형체도 사라지고/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흰 빛으로/ 둥그스름한 젖가슴과 엉덩이 능선으로/
새벽안개 속 언덕처럼 떠오른다./
그런 여자 꿈을 꾸고 난 새벽이면/ 누운 채로 가만히 눈물이 흐른다./
여자여 여자여/ 흐르는 새벽 강물이여/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여자는 왜 부드럽고 강인한가. 왜 속이 깊고 따뜻한가./
여자는 왜 남자보다 키 작은가. 왜 남자보다 덜 강한가./
그건, 미래를 낳기 위해서야./ 다음 생명을 낳아 기르는 자궁과 젖가슴을 발육시키느라/
키 크는 성장도 싸우는 강함도 미래를 멈춰서는 거야./
불덩이 시대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사람아./
자기 성장의 강한 힘을 안으로 들이부어/ 핏덩이 같은 희망 하나 키워가는 사람아./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사람아./
여자여 여자여 내 안의 여자여/ 조용히 흐르는 새벽강물이여/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포르노 스타가 필요해요"

"서갑숙파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갑숙 같은 사람 자꾸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노조에서 퇴출시켰다는데 정말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릅니다. 서갑숙씨도 여자니까 더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에 용감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상업문화에 포섭될 수 밖에 없

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음란서적을 돌려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현실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폐하면 할수록 음습하고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구성애씨의 아우성 성교육은 어떤가요?"

"제가 91년에야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구성애씨의 성담론도 현실 성문화에 못 미치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포르노배우 할까요?"

"개인적으로 남녀의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계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기운, 감성이 모두 일치되는 가장 총체적인 관계방식입니다. 상대를 모르고 자발적이지도 않은 성은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섹시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진보운동권에서 대안적이고 적극적인 성문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선적인 명분주의만 있었을 뿐 진보에는 성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남자들에게는 정치경제의 진보성과 문화감성의 보수성이 기형적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 스트립쇼를 보았는데 우리의 성문화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서는 스트립쇼를 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주변의 시선도 끈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포르노 스타도 나와야 돼요. 내후년부터 과감하게 나도 기여를 할까 해요."

"어떻게요?"

"내가 포르노 배우로 나가볼까요?"

"정말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들 중에서 자꾸 서갑숙, 서태지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난 이혼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멋있게 하는 것을 보는 게 꿈이에요."

그는 '에코페미니스트'에서 이제 '밝히는'(?) 남자로 변신한 것이다.

"'밝힌다'는 말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흔히 '여자가 남자를 밝힌다', '먹을 것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밝힌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끌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심'과 '끌림'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늙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은 욕망의 불을 밝혀 들어야 생기차고 발전합니다."

"아이는 안 낳으세요?"

"아내나 저나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 닮은 아이'를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나라는 인간이 나오기까지 수억 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나 닮은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선업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시대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여동생은 신부, 수녀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친 셈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집안 종손이자 장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80년대 동원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아이 하나만 낳으라는 홀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인 결정 아닌가요? 부인도 동의를 했어요?"

식물성 남자 박노해

"제 아내는 꿈도 재능도 실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아깝죠. 노동현장 생활 6년여 전위조직의 지도부까지 20년 가까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드문 여성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아내가 나를 통해 자기일을 했으면 하고 바라시지만 전 부부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잘 섬기고 날 잘 키워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더 발전하고 클 수 있는데 저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그건 너무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재능과 기회를 찾아 발현시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기가 가장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아내 혼자 5~6년 유학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잔업,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내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8년 면벽 참선하다 나오니 성욕이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나의 정열과 기운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달라진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성생활의 의무가 안 돼요. 아내도 스님이 돼갖고 나왔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되출위기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에요. 아무래도 육식 안 하고 채식하고 성찰하는 버릇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열정, 충동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느낌이에요. 남성으로는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없죠."

그래서 남녀의 섹스의 결합을 '생명의 동불을 밝히는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던 '밝히는 남자' 박노해는 이제 '식물성 남자'가 됐다.

부드러운 페니스로(96.7)

착한 사람도 화날 때 보면/
성난 투우처럼 뿔 속으로
들어간다./ 소뿔처럼 강
한 페니스로/ 널 뜨겁게
사랑하던 날이 있었다./
풍풍 언 땅을 밀고 들어가
는/ 더 강하고 철저한 뿔
이 되고자/ 성난 뿔 속으
로 내 여린 몸을 난폭하게
밀어놓고/ 투우처럼 피흘
리며 내달려 왔었다./
넌 지금도 그런 나를 그리
워 하니./ 난 지금 부드러
운 페니스로 널 만나고 싶
은데/ 석녀처럼 그늘속에
시들어가는 너에게/ 물처럼 바람처럼
나직이 흘러가/ 네 온몸 구석구석을 사
무치게 애무하며/ 그대 안의 따뜻한 눈
물 길어올리고 싶어./
난 물처럼 바람처럼 부드러운 페니스로
/ 넌 흙처럼 햇살처럼 따스해진 자궁으
로/ 내일의 푸른 봄을 잉태하고 싶어.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나 닮은 아이' 대신 잉태하고 싶은 '푸른 봄'은 무엇일까? 그의 신간 『오늘은 다르게』 서두에 붙은 글 「아름다움을 모두에게」는 어쩌면 그가 낳고자 하는 '푸른 봄'의 일단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것, 새로운 것, 섹시한 것, 세련된 것, 우아한 것, 신비로운 것… 이런 것들에 나는 본능적으로 이끌린다. 그 매혹적이고 싱싱한 것들을 온몸으로 맛보는 체험의 절정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며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정직하게 인정한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세상의 내용물이고 우리가 꽃 피우려는 원형질의 요소가 아닌가. 그런데 나는 슬프다. 이것이 나의 분노이다. 이렇게 좋은 것을 소수의 가진 자와 지적 능력을 가진 엘리트계층만 누릴 수 있다니.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섹스욕망보다 더 강렬한, 원초적 투혼이 이글거림을 느낀다. 이 아름다운 것, 이 좋은 것을 모두의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품어서 모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내 안과 밖의 아름다움을 열렬히 참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일의 박노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며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 같은 미소와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초봄의 '해토'처럼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의 모습은 청년예수 같은 순결한 감동을 자아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실토한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죽는 마지막날까지 21세기의 혁명을 해나갈 것이다." 결국 박노해는 '진리'를 '밝히는 남자'이고 싶은 것이다. IF

사진 엄율순

아듀, 아듀 가부장제 남자에게

속지마십시오, 김지하 시인님!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그들은 무섭게 불호령을 한다.
그 소리가 닿지 않는 바닥에는 개미떼가
바지런히 오락가락 소근소근 간질간질 까르르르,
가부장제의 피라미드를 무너뜨린다.

저그 저그 전라도허고도 마이산 절 진안땅에 한들이란 곳이 있나봅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메누리 년들은 물론 신당동 떡볶기할머니조차도 이제는 알 도리가 없지만, 암튼 한들이란 곳과 뭔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슬픈 나라에 살았던 익명의 여인, 제 외갓집에서는 그녀를 그냥 '한들할머니'로 부릅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하 시인께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왜 그 한들할머니가 생각나는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김지하 시인 하니, 요즘 스캔들에 휘말리신 우리 가엾고 불쌍하신 단군할아버지, 구소련 여기저기서 명강댕강 목이 잘리고 고철덩이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실려다니던 처참한 레닌 동상을 떠오르게 하는 그 단군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아마 언제부턴가 하느님 어머니께 제 설운 마음을 다 바치는 버릇이 생기다보니 그 마고할머니란 분이 생각나고, 그리하여 옛날 옛적 저 태고적 단군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또 또 또 할머니의 할머니셨다는 마고할머니! 그 달콤한 이름을 떠올리니 어렸을 적 가끔 듣던 부드러운 그녀의 이름, 한들할머니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I

김시인의 조부께서는 동학군의 일원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그 무렵 조선남아의 혈기와 의기투합으로 전라도 어디쯤에서 한 번쯤 서로 스쳤을 인연도 있을 성싶습니다. 저의 외증조부 말씀입니다.

저희 외갓집 조부님들은, 그 집 여인들이 한결같이 열녀비 세울 공적을 쌓느라 살뜽죽을뜽 살았던 시절, 공자왈맹자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호읍' 하고 기침만 해도, "저 냥반들은 기침을 해도 딱 공자님 불

이학, 〈단군〉 자수.

호령같이 들린단 말여…" 소리를 듣던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들의 후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주 이씨 시조 신라 대사마 대장군 휘 천일의 오십팔세 손이시며 여말 충신 시 문성공 휘 명성의 십구세 손으로 고종 갑자년에 훤칠허신 용모와 총민허신 천성과 돈독허신 효우와 탁월허신 문장과 필법을 타고나신" 저희 외증조부님께서는 "고종 무자년 문과에 등과 승정원 주서에 제수되시었으나, 때는 개화라는 혼탁한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시사가 크게 어긋나 나라가 기울어가니 이를 통탄하시며 벼슬길에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봉황대 위에 천인정을 지어 기불탁속 선비의 고절을 지키시며 둔거하시다가…병오년 순창 의거시에는 호남창의대장 임명을 수서하여 일방 책임을 맡아 분용부전 목숨을 걸어 보국진직하시었으나 불행히도 일이 모두 낭패창황하여 주저하는 동안 왜기병 일대가 공의 집을 급습, 비장 문건과 더불어 전주옥사에 압송 국문 등 고초를 겪으시다가, 갖은 피육 끝에 석방되어 돌아오셨으나 이후로는 신정이 쇠탈하고 겉몸만 남은 듯 매양 술로 마음을 달래시며 때로는 정기장한 의 시가를 자작 방성 낭음하며 울분을 토하시다가 경신 구월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다" 합니다.

아녀자 생각이 짧아 무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대단한 분이셨던가 봅니다.

II

한들할머니는 그 어른의 아버님이신 제 외고조부님이 노후에 얻으신 애첩이었다 합니다. 효성이 지극하신 외증조부님께서는 당신보다 연세가 퍼금 아래인 한들할머니가 홀로되시자, 이 연하의 작은 어머님께 별채를 지어드리고 남은 생

을 스캔들 없이 살아가도록 돌보아 드렸다 하는군요.

불심이 깊으셨던 한들할머니의 행적 중에 아직 남아 있는 흔적은 시주하셨다는 조그만 절 하나랑, 혈연과는 아무 상관없는 증손녀들, 즉 저희 어머니의 사촌 자매들에게 지어주신 불심 그득한 이름들: 업덕(業德), 수덕(修德), 필업(畢業), 뭔가를 지성껏 쌓아서 다른 뭔가를 꼭 쓸어 없애라는 애틋한 뜻이 담긴 '심오한' 이름들.

그런데 조국 근대화가 전국을 휩쓸던 시절, 그러니까 나뭇잎 구르는 소리에도 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하던 시절, 종이에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울림으로 저의 귀를 간지럽힌 이름은 업데기, 수데기, 피레비 이모들…, 키키키~.

구르고 밟히는 한낱 나뭇잎처럼 부스럭대는 이름들. 그 훌륭한 할아버지들이 시(諡)에 휘(諱)에 아호(雅號)에 등등을 늘여쓰는 역사책 어느 쪽에도 기웃대지 못할, 얼굴 없고 이름 없는 숱한 여성을 맘놓고 부르는 나뭇잎 구르는 소리려니싶어, 저는 그 뜻을 다 새기지 못한 채, 번번이 갸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답니다. 업데기, 수데기, 피레비…, 키키키~.

그 무렵 시인께서는 이미 조국 근대화가 늘어뜨리는 긴 그림자의 한 끝에서, 아직 참으로 까마득했던 새벽을 어서 불러오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불호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김시인의 행적을, 그야말로 지하의 미궁에 빠진 저희 어리석은 아녀자들은, 바람에 실린 소리로만 전해들었고, 어느 아마득한 세월이 흘러 땅속 깊은 곳에도 엷은 빛이 새어들 적에, 소담스레 피는 생명의 꽃이 어떤 자태를 하는지 머얼리서나마 까치발을 들고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

한들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무렵, 마을 앞 개울을 열심히 건너기 시작한 여인이 또 한 분 계셨으니, 한들할머니처럼 이 집안과 혈연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던 발바라(Barbara) 선생님, 마이산 근처 진안땅의 업데기와 수데기와 피레비들은, 어느 수녀원에서 경도(멘스)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신 김발바라 선생님을 만나, 이 댁에서 '새로 쓰는 여성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사노동과 열녀가 되는 길 말고는 도무지 그럴 듯한 삶과 죽음의 가능성을 알 기회가 없었던 시절, 김발바라 선생님이 그 집 여인들에게 깨우쳐주시는 천주교 교리는 참으로 미덥고 감동적인 깨우침이었나 봅니다. '메누리'나 '안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섭리로 창조된 '나 자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게 힘을 북돋아주시는 분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도 크나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호기심만 많고 배울 기회 드물었던 이 집 아녀자들은 하나둘 이 '삿된' 종교에 물이 들었고, 그러다가 마리아, 헬레나, 아가다로 줄줄이 이름을 바꿔칩니다. 아니 어찌면 처음으로 대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의 이름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갸르르 웃음을 터지게 하는 업데기, 수데기, 피레비도 루시아, 발바라, 데레사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뭔 소린지 도통 모르는 교리를 줄줄이 외어대다가 꼬박꼬박 졸음에 빠집니다.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쫄딱 망해버린 박관에서 풍류를 찾아 방랑길에 나서는 호쾌한 남아들, 그렇게 먼길 떠난 채 돌아오지 않는 남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과 들, 배고픈 아이들,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그리 혹독한 삶을 지워주셨는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흙을 갈고 땅을 뒤져 아이들 입에 풀칠할 양식을 달라고 휘어진 허리와 어깨를 기대 루시아, 발바라, 데레사들은 성모님께 빌고 또 비셨다 합니다. 왠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기가 미덥지 않아 관세음보살 같은 성모님만 지성으로 부르면서 밤낮으로 비셨답니다.

물론 교리도 열심히 외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느님 아버지를 흠숭하는 예식 때마다 반드시 외우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외우고 은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삼위일체의 교리. 지성·감성·영성, 딱 끊어버리고 "삼위일체는 한 하느님 안에 서로 구별되면서 완전히 동등하신 삼위가 계시며, 친밀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음"이라고 졸졸졸 외우며 가슴에 재겨넣어야만 했습니다.

Ⅳ

김지하 시인께서 한동안 단학선원이란 곳의 홍보대사 노릇을 하시며 세상엔 미친놈이 필요하고 당신님께서 그 몫을 맡아하겠노라고 서글서글한 혹은 서글서글픈 웃음을 날리시며 여러 매체에 등장하던 무렵, 자꾸만 뒷목을 잡아당기는 참으로 야릇한 느낌이 떨어져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으앗! 그, 그거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삼위일체! 이건 순전히 암기에 소질 없고 대신 머리와 가슴과 배로 쭉 통해야 비로소 알아먹는 아녀자들의 육감일 따름이오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그 육감이 곧 문화산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라니 한번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종교의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절대 법칙이었다, 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세주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 양반 아들, 그리고 쫌 알딸딸하게 분위기 조성하는 안 보이는 기운, 이렇게 엮어서 삼위 일체를 시켜버린 채 "모르면 지옥 알면 천당"이라고 불호령을 하면서 이천 년을 지탱해 온 로마 가톨릭 교리, 삼위일체! 가부장제 피라미드 조직의 치밀한 음모를 밝혀낸 순간, 으 으앗, 바로 그거다! 뒷목을 짓누르던 야릇한 느낌이 사라지며 깨달음의 안식이 엉덩이께로 번졌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 여호와 자리를 한배달의 단군할아버지가 물려받고, 그리고 울려의 울림으로 오시는 이여, 그대 이름은 지하! 얘는 짐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야소 구리수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 아울러 우주핵과 존재핵을 일치시키는 알다가도 모를 저 단학의 정기들이여! 사뿐히 성령의 자리로 드

가부장제 귀신은
이렇게
김시인의 상단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해야 한다는
'구세주 강박증'을
부추기는 장난을 쳤던
모양입니다.

이학, 〈용왕〉 자수.

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대신 단군과 지하와 단학의 이름으로 아멘."

가부장제 귀신은 이렇게 김시인의 상단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해야 한다는 '구세주 강박증'을 부추기는 장난을 쳤던 모양입니다. 아듀, 가부장제! 물러가라, 가부장제! 물러가라, 물러가, 가부장제 귀신아!

속지 마십시오! 새 시대입니다. 당신님의 말씀대로 만년지상 화천타를 이루시려면 우선 그 징그러운 허물을 벗어버리십시오. 헌 시대의 가장 견고한 껍질, 가부장제의 허물을 벗고 당신님이 외치시는 신인간이 되시오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부드러운 마고를 만나십시오.

V

우리 안에 죽어가던 '진정한 사랑' 마고를 만나기 위해, 마고할머니와 한들할머니와 발바라 선생님의 자매들은 그녀들의 가슴을 울리는 신통한 말로 십계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십계명

1. 나 하느님은 온 존재의 원천인 지혜이며 떨림이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내가 낳은 거룩한 존재들이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내 이름이든 그 이름이든 맘껏 부르며 애용하라. 행여 내 이름에 누를 끼친다 해도 나는 내 생명의 후손인 너희에게 벌을 주거나 심통을 부리지 않으리라.
2. 또한 내 이름을 빌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말라. 아울러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빌어 단호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절대로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3. 너희는 내 모습을 맘껏 그리고, 상상하라. 특별히 너희들 이웃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내고 실컷 사랑하라. 행여 그러다 실수를 한다 해도 그건 내 탓이지 너희 탓이 결코 아니니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지 말라.
4. 죽음은 삶의 다른 모습이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사시사철 즐거운 일을 찾아 축제를 벌이고, 특히 주일은 더 즐겁게 보낼 것이로되,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축제를 벌이도록 하라.
5.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되, 지상에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 맺어진 인연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결코 누군가의 종노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펼치라고 창조되었음을 명심하라.
6.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마음 편히 간통하라. 가슴 뛰는 상대를 좀 늦게 만날 수도 있는 법이니, 주저 말고 사랑하라. 그러나 정든 님이 정말 좋거든 그냥 그에게 성실하라.
7. 너희의 재산을 남들과 많이 나누도록 하고,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띳띳하게 취하도록 하라.
8. 진실만이 아름다우니,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다짐이나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
9. 네 이웃의 남자나 네 이웃의 소유를 사랑할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결국 불행의 씨앗일 뿐이니, 그걸 뺏으려들지는 말라.
10. 마음을 열고 너 자신이 되어라. 시샘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못된 맘을 품는다고 자신을 증오하지 말라.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일 따름이니 얼마 있으면 싹을 증세들이니라. 자,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시도하라. IF

김재희

온전성이란 상처 없음이 아니라 치유되었음이라 믿는 에코페미니스트.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명, 새로운 영성, 새로운 예술은 서로를 북돋는 온전성에서 나온다고 믿는 『신과학 산책』의 저자. 낡은 과학, 낡은 문명, 낡은 영성, 낡은 예술의 뻣뻣한 허물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날 때면 그 속에서 '살았다!' 고 환호하는 마녀의 소리를 듣는 초감각의 소유자.

장씨부인과 나혜석, 그 영겁의 만남

문광부 선정, 이달의 문화인물에 나란히 올라

1999년 12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우리는 두 명의 역사적인 여성인물과 만나게 됐다. 조선시대 여인인 정부인 안동 장씨(1598~1680)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정월 나혜석(1896~1948)이 바로 그들이다. 두 사람은 문화관광부에 의해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후손들 앞에 나란히 등장했다. 안동 장씨부인은 지난 11월의 문화인물로, 나혜석은 오는 2000년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이다.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문화관광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현모양처의 대명사, 여성군자라 불리던 장씨부인이 20세기의 끄트머리에, 영혼까지 자유로운 인간이고자 했던 여성주의자 나혜석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은 어쩐지 상징적이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여성상 안동 장씨와 20세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수많은 '노라'들의 큰언니 나혜석, 그리고 세기말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부유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들.

1.

2.

3.

1. 술가 전에 그린 〈맹호도〉.
2. 『음식디미방』 뒷면에 쓰인 장씨부인의 부탁말.
"이리 눈이 어두운데 이 책을 간신히 썼으니 딸들은 베껴가고,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다.
3. 장씨부인의 친필본인 『음식디미방』.
4. 장씨부인 유품인 거울.
5. 안동장씨 영정. 1998년 이호신 그림.

그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너무나 특별한 '현모양처'

안동 장씨가 누구였던가. 우리는 불행히도 그의 이름을 1996년 이문열의 소설 『선택』을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자신의 직계 손자뻘 되는 이 시대 최고의 글쟁이 이문열의 '글 감옥'에 갇힌 채 장씨부인은 곰팡내 나는 '아버지 가부장'의 말씀을 설파했다. 여성들이여, 어설픈 자아실현 운운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성취요, 행복이니라! 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불같은 분노가 이문열과 그의 소설 속의 장씨부인을 향해 폭발했다. 그것은 96년 문단을 뒤흔든,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페미니즘—반페미니즘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 속에 장씨부인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장씨부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는 진정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소통할 수 있는 후손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살던 시대에서 가장 성취한 여성이었노라. 사임당 신씨나 난설헌 허씨에 못지 않게 재능을 발휘한 여성이었노라' 고 말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에 비겨 뒤지지 않는 내가 왜 이름도 없이 장씨라는 아버지 성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 고 말하고 싶어서.

이문열의 소설 『선택』이 아니어도 정부인 안동 장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를 만날 수 있다.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꽤 남아 있다. 이들 자료에서 장씨를 소개하는 공식적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장씨는 이

4.

5.

퇴계의 손자뻘 되는 경당 장흥효의 딸이요, 석계 이시명의 아내이며, 존재 이휘일과 갈암 이현일 형제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다. 그의 아들 현일이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의 품계가 내려졌고, 이때부터 정부인 장씨라 불리게 되었다. 뛰어난 학식과 입신양명으로 조선조 유일한 여성군자로 불린다' 등등.

동아시아 최초 요리책, 『음식디미방』

그러나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장씨는 그 시절 눈에 띄는 시인이자, 학자였으며, 화가이기도 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로부터 성인군자의 입문서 『소학』과 『십구사략』(十九史略, 세상 돌아가는 실제를 알기 위한 중국 역사서) 등의 책을 공부했는데 쉽사리 그 학문의 뜻을 이해했다고 한다. 장씨는 글씨 가운데 특히 초서를 잘 썼고, 또 인두로 나무에 지져서 그리는 낙화(烙畵)와 수(繡)도 당대의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전한다. 정부인 장씨의 글은 시 7편, 서간 1편이 전해지고 있다.

그가 남긴 7편의 한시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자연과의 교감을 담은 「소소음(蕭蕭吟)」이라는 시다. 누군가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아의 경지로 이끌어가는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내게는 왠지 모를 외로움과 허망함이 느껴진다.

창밖에 쓸쓸히 비가 내리니(窓外雨蕭蕭)
그 소리가 그대로 자연이라.(蕭蕭自然聲)
내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我聞自然聲)
내 마음 또한 자연이로다.(我心亦自然)

그에 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 놀라웠던 것은 그가 말년에 집필했다는 요리책이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장씨부인은 후세를 위해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규곤시의방'으로도 불린다)이라는 요리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단순히 요리법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요리연구서로 평가받는 아시아 최초의 요리책이라고 한다. 각 지방의 특색있는 음식조리법을 국수, 과자, 채소, 술 같은 항목으로 구분해 조선시대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요리책 『음식디미방』은 궁중요리의 대가 황혜성 선생에 의해 지난 1980년 출판되었다.

장씨부인, 어떻게 볼까

장씨 부인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존재다. 장씨부인이 11월 문화인물로 선정된 이후 한 일간신문의 독자칼럼에는 '문화인물 장씨부인 본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 글을 쓴 권

나혜석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에게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으나,
나혜석의 삶은
여전히 낯설다.

영임씨(서울여성노동조합 조직지원팀장)는 "장씨부인은 아들의 출세에 힘입어 정부인이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잘 섬겨 그 후광을 입은 것에 불과했다"며 "장씨부인의 인고의 삶은 지금 우리 여성들의 귀감이 될 수 없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장씨부인을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맹신자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왠지 서운함이 느껴진다. 그보다는 그 시절 그가 여성으로서 품었던 욕망과 그의 실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시, 서, 화에서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펼쳐 보였던 장씨부인은 어쩌면 자의식 강하고, 성취욕구가 큰 현대여성의 조선시대 버전에 다름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철옹성 같은 남자세계에서 장씨부인은 군자(君子)로 불렸다. 우리에겐 별로 매력 없는 칭호지만 조선사 500년을 통틀어 '군자(君子)'로 칭해진 유일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그는 참으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그런 점에서 장씨의 후손인 이현종씨(장씨부인추모사업회)의 "할머니가 현대에 살았다면 훌륭한 여성지도자로 활동하셨을 것"이라는 평가는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 시대의 삶을 무조건 이해하려 드는 것도 재미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기준에 따라 과거의 인물을 재단하려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인간이길 원했던 선각자 나혜석

장씨부인이 타계한 지 약 200여 년 후, 이 땅에는 또 다른 문제적 여성, 나혜석이 살았다. 나혜석의 삶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는 그리 길지 않은 오십평생에 너무 많은 '사건'을 벌였기 때문이다.

시인이자 소설가, 화가이자 만평가, 네 아이의 어머니이자, 외교관의 부인이었던 여자, 그러나 그 누구의 이름보다 인간으로 살고 싶어했던 여자, 정월(晶月) 나혜석은 1896년 4월 18일, 경기도 수원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진명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나혜석은 1913년 동경여자 미술전문학교 양화과에 입학해 여성으로는 최초의 서양화 유학생이 된다. 서양화를 배운 남자도 3~4명에 불과했던 시절, 여성 서양화가인 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1921년 서울에서 가진 첫 개인전은 장안의 화제였다. 1920년 당시 변호사였던 김우영(후에 외교관이 된다)과 결혼, 1년 반 동안 남편과 함께 유럽, 미국 등지를 여행하며 서구 문물을 익혔다. 이후 독립운동의 동지였던 최린과의 파리 연애사건으로 남편 김우영과 이혼했고, 마침내 1948년 서울의 한 시립병원 무연고자병동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과격적인 주장을 한 여성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이름 석 자는 개화기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로, 자유분방한 연애행각 과격적인 이혼 파란만장한 생애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으나, 나혜석의 삶은 여전히 낯설다.

이배용 교수(이대 사학과)는 "나혜석은 한국 근대시기에 한국 미술사뿐 아니라 문학사, 신문화운동을 포함하여 여권운동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다채로운 발자취를 남기며 여성의 지위향상에 앞장선 선구적 여성"이라고 평가한다.

나혜석의 삶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편의 시가 있다. 서구 여성해방의 물꼬를 트는 문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센의 『인형의 집』과 동명의 시(詩)인 나혜석의 「인형의 집」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 딸인 인형으로
그네의 노리개였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다오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머니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네

(나혜석, 「인형의 집」 중에서)

특혜받은 환경에서 살았던 여성 나혜석의 자아는 어떻게 페미니즘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그의 글에는 여권 옹호, 가사노동의 남녀분담, 직업과 가정의 양립, 모성과 주체적 자아의 갈등을 온몸으로 담아내며, 가부장사회 아버지의 법에 과감히 도전한 '노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남편과의 이혼후 1943년 『삼천리』에 실은 〈이혼고백서〉(1934)에서 사회적 인습과 몰이해를 통렬히 비판했다. 이른바 '이혼고백서 사건'으로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온 나라 인구에 회자되었다. 더 나아가 그는 "여성해방은 정조 해방부터 해야 한다"며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라

왼쪽 - 나혜석, 〈무희들〉.
오른쪽 - 나혜석의 자화상.

고 외쳤다. 그의 혼백이 만약, 1990년대말 어느 대학에 순결학과라는 요상한 학과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혜석 죽음의 재조명

그러나 그의 자유로운 사상과 깨어 있는 의식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담한 이혼고백서 공개를 전후해서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한 그의 삶은 급격히 피폐해져갔다. 나혜석은 1935년 재기를 위해 다시 개인전을 열지만 세인의 무관심 속에 실패로 돌아간다. 그의 사회활동과 작품활동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한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 사생활을 추적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흥미 위주의 기사거리로 보도하였다. 그 해 2월 나혜석이 『삼천리』에 실었던 〈신생활에 들면서〉라는 글을 보면 당시의 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18세 때부터 20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즉, 1등 졸업사건, M과의 연애사건, 그와 사별후 발광사건, 다시 K와 연애사건, 결혼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사건, 황옥 사건, 구미만유사건, 이혼사건, 이혼고백서사건, 고소사건, 이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 그 생활은 각국 대신으로 더불어 연회하던 극상 계급으로부터 남의 집 방구석에 굴러다니게 되고…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던 내가 이제는 사람이 무섭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고 사람이 싫다…."

그리고 나혜석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사남매 아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이었더니라." (『삼천리』, 1935. 2)

그 말의 장엄함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그러나 너무 비극적이라고 속단하지는 말자. 〈나혜석 기념사업회〉 유동준 회장은 나혜석의 말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나혜석의 일생을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다. 그녀가 홀로 죽음을 택한 것도 황국신민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지식인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지식인 남녀가 일본의 그늘 밑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독립운동으로 5개월의 옥고까지 치렀던 나혜석은 자신만의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 그의 일생은 '비극적'이라기보다는 '극적'이라고 해야 옳다는 것이 유회장의 주장이다.

나혜석 사후 50년 뒤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나혜석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올 4월 나혜석 탄생 103주년을 기념해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인간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나혜석이 새천년 2월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면서 12월 1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나혜석 서거 51주기 추모심포지움(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을 시작으로 나혜석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문의: 585-2223).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스캔들의 주인공으로서의 나혜석은 잊자. 그래야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고 싶어했던 진보적 사상가였으며, 실천적 여성운동가로서의 나혜석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단지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장씨부인과 나혜석의 삶의 흔적들과 만나면서 나는 그들이 과거 속의 인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장씨부인, 개화기의 나혜석, 그리고 세기말의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를 비롯한 이 시대의 여성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헤매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장씨부인과 나혜석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지 않은가. 장씨부인과 나혜석,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모른다. 우리의 영원한 화두는 단 하나, 나혜석이 '이혼고백서'에서 썼듯 "내 갈 길은 내가 찾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IF

글 황오금희

'시청률'과 '긍정적 여성상'

두 마리 토끼 잡은 여성작가들 인터뷰

TV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많이 변했다. 단지 '여자'이기만 했던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강한 여자=정숙한 여자', '순한 여자=세상하지 않은 여자=인정받는', 외친말을 무의식 중에 여성이지고, '악한 여자=예쁜 여자', '남 만 여자=세상한 여자=사랑과 결혼은 안 한 있는 여자'의 등식도 사라지고 정

대, 바로 여성들이 그 이유다.

여성이미지 제고에 한 몫 한 사람, 남성 캐릭터를 보완한 드라마들이 있다는 것을 TV 관계의 영향력으로 분석해 역사적인 일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호는 요즘 활약한 여성들의 관심과 성장을 한눈에 보고자 세 명의 여성작가를 만났다. '카이스트'(SBS 월화드라마)와 '국희'(MBC 시트드라마)의 김영희, 그리고 지난 9월에 종영한 방송의 드라마 '마지막 전쟁'의 박현석씨가 그들이다.

〈카이스트〉의 송지나

"진심과 다르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성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면 이미라 하는 마음을 구분하여 여학생과 남학생 마음을

〈카이스트〉에 출연중인 김성연. 그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괴짜여학생이다.

5:5로 만들었다. 로봇동아리에도 여학생을 넣었다. 처음엔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던 사람들도 이젠 그런 걸로 트집잡진 않는다. 그게 어딘가?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믿게 하는 힘을 믿는다. 이제 올라오는 트집은 '카이스트엔 배우처럼 그렇게 예쁜 여학생은 없다'는 정도로 사람들 의식이 달라졌다." 〈카이스트〉의 작가 송지나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개성있게 자신의 삶을 재단해 가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카이스트〉는 울고 짜거나 암투와 질투로 점철된 스토리가 없어도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시청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달팽이〉 등 한 시대를 휘어잡은 드라마의 작가답게 송지나씨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다음은 기획회의중인 송지나씨를 얼굴만 간신히 보고난 뒤, 메일로 주고받은 인터뷰 내용이다.

요즘은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뿐 아니라, 그 속의 여성상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한다. 〈마지막 전쟁〉, 〈퀸〉, 〈사랑해 당신을〉 등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상당히 달라졌다. 다른 드라마들의 그런 경향(여성캐릭터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이 비슷한 질문을 해오는 분이 많군요. 어제도 한국일보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 남자기자분의 질문은 좀 잘못되었었습니다. "요즘 남성적인 여성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캐릭터가 인기를 끌기 때문인가…"라고 질문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남성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일 잘하고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게 남성적이라는 얘기인가요?"

만약 요즘 당당한 여성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와준다면… 그것은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일 겁니다. 사회가 그런 여성들을 좋게 봐준다는 의미겠지요. 예전에 그런 여성캐릭터가 나왔으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위에서 예를 든 드라마들의 작가는 다 젊은 여성작가들이군요. 그들의 의식이 예전 선배작가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드라마를 쓰기 전부터 어떤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염두에 두는 것은 있는가?

"흐음… 물론입니다. 저는 방송드라마가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어서…;^^ 드라마의 역할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꼴이 빈' 여성을 드라마에서 자꾸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그런 여성이어야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성캐릭터를 만들 때 오히려 속박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예를 들어 『캔디』에 나오는 '이라이자' 같은 형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편이지요. 여성끼리의 질투나, 속좁은 모습은 되도록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수동적인 여성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연으로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건 작가로서 일종의 아집일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자유로운 글쓰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까요. ^^

궁극적으로는 어떤 여성상, 어떤 남성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저 어떤 인간상을 그리는 것에 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성캐릭터에 공력을 들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윽, 제 드라마로 남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더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제가 창출한 여성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들이 다른 드라마에 유행처럼 쓰이는 것을 보면… 선구자가 된 기분이 들면서 좋아합니다. 남들이 내 영향을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드라마를 쓸 때마다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 합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몇 달간 일에 빠져 있을 텐데 집안일과 육아 등의 개인적인 고충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역시 무지하게 많이 받는 질문이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새삼스레 뭔가 고충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게 되는데… 실은 저는 아주 복이 터져서… 남편이나 아이나… 저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해 줍니다. 저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해 주는 것도 남편이고, 방송들을 녹화해서 비디오마다 제목 붙여 정리해 주는 것도 남편입니다(물론 나도 남편의 것들을 그렇게 해줍니다. -_-). 내가 출장을 갈 때면 아들은 내 색연도구를 갈이 챙겨줍니다(나는 늘 빠뜨리는 게 너무 많아서리).

물론 저에게도 투쟁의 세월은 있었습니다. 왜 나만 밥을 하냐…에서 시작해서 왜 니가 하는 건 해주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냐 등등.

이제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집안일에서의 분업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에 유의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년 이후로는 자신의 준비물을 자신이 챙겨가고, 엄마가 숙제를 챙겨줘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지가 알아서 잘 합니다. 우리집의 가훈이란 게 있다면 '따로 또 같이'일 겁니다.

좀 지저분한 실내나 세탁할 시간이 넘은 아이의 교복, 번번이 치러야 하는 공과금의 연체료 같은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배짱만 있으면, 작업과 살림이 별로 갈등을 겪지는 않는 듯합니다(음… 이런 말까지 해야되나…). 고충이란 것은 '이게 고충이야, 고충' 하고 자꾸 생각하는 동안 정말 고충이 되는 게 아닐지요."

예전에 김정수씨를 인터뷰할 때 김정수씨가 송지나씨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던데 송지나씨가 애정을 갖고 보는 다른 작가가 있다면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저야말로 김정수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선수를 뺏겼군요.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극중의 인물들이 언행을 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따스한 시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작품이 많이 방송되면 우리 나라도 따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분의 작품 중에 특집 3부작들이 좋습니다. 〈어디로 가나〉와 같은 류의… 앞으로는 매년 그런 작품들만 하나씩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품을 보면 연륜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방송작가협회를 지금처럼 제대로 된 협회로 만든 것은 김수현 선생님의 공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오십 명만 있으면 우리 나라가 조금은 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상에서건 실제 연예인이건 애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누구인가?

"아, 이것은 위험한 질문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쓴 작품에 나오는 누구라도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조조조 연이라도."

앞으로 '세 여자 이야기'를 쓰신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기대된다. 어떤 작품인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싶은지 말해 달라.

"에구, 아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작품들을 마치려면 몇 년 뒤에나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말 그대로 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여자가 정말 멋지지 않은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같은 느낌을 던져주고 싶다는 욕심 외에는…. ^^

이를테면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이

한 여성의 지난한 성공기를 그린 드라마 〈국희〉.

린 젊음이 멋지지 않은가…' 라는 것을 던져주고 싶었던 것처럼. 딸아온 김에… 드라마 〈카이스트〉는 저의 아들 한 새가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서 그 입학 선물로 주고 싶었던 작품이랍니다. ^^"

〈국희〉의 정성희

밤 10시. 좀 자주면 좋겠는데 딸 두 놈이 잠잘 생각을 도통 하지 않는다. 월요일, 〈국희〉를 하는 날. 드라마 진행중 갑자기 큰애가 울기 시작한다. 조금 있다가 또 작은애가 따라서 운다. 드라마에선 '국희'가 신영 엄마의 구박을 받고 있거나, 아버지를 만나려다 엇갈려 지나가거나, 비를 맞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한바탕의 통곡이 끝나고 자러 들어가며 두 놈이 대화를 시작한다. "국희가 정말 성공할까, 언제 행복해질까?"

국희가 시작된 후, 월 ·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우리집 풍경이다. 〈국희〉를 쓴 정성희씨는 어느집 여자아이 둘의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알고나 있을까.

요즘 다른 드라마의 여성캐릭터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희〉 원고 작업의 진행이 촉박한 관계로 다른 드라마들을 볼 시간이 별로 없다. 또한 드라마는 드라마로, 즉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꼼꼼이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편이 아니다."

〈국희〉는 어린 딸들이 밤늦게까지 보고 있어도 혼내고 싶지 않은 좋은 드라마였다. 드라마의 여성캐릭터를 어떻게 그려야할지 고민하는가?

"하하하. 이프를 보니 여성문제에 관심이 깊은 잡지라는 것을 알겠다. 난 국희가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원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느낌이 주어지는 드라마가 되기를 희망할 뿐, 일부러 긍정적인 여성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건강한 인물, 의지를 갖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다."

드라마작가는 작품에 들어가면 사적인 일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데….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육아의 고통은 없다. 다행히 남편이 내 일과 생활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많은 부분 가정생활의 흐름이 무너질 때가 많아 남편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추천하고 싶은 다른 여성작가가 있다면?

"감히 추천할 만한 입장은 못되고, 개인적으로 김정수 선생님의 글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전원일기를 즐겨봤다.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시는 모습에서, 그 분의 넉넉한 인품과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드라마작가를 꿈꾸는 수많은 여성이 있지만 성공하는 여자는 극히 소수로 알고 있다. 이 일이 만족스러운가.

"어려운 질문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도 느낀다. 방송작가가 된 것은, 이전부터 소설을 써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꿈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성희씨의 여성관, 남성관을 듣고 싶다

"살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본 일이 없다. 어려서 집에서는 오빠와 조금 다른 대우를 받긴 했지만, 그 일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따라서 특별한 여성관, 남성관이 없다."

앞으로 쓰게 될 작품에서 사회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면?

"난 내 드라마가 어떤 거창한 의미나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치 않는다. 드라마는 설교나 논문이 아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십대에서 오십대, 육십대가 모두 모여앉아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문화의 후방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하루의 삶이 고단한 농촌의 어느 아주머니부터, 시장의 상인들까지 잠시 보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드라마의 몫은 다한 거라 생각한다. 정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드라마는 쓰고 싶지 않다. 보고 나서 '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운이 느껴지는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성작가니까 '국희' 같은 여성캐릭터를 그렸겠다는, 편협한 기대는 애초에 틀린 것 같다. 여성작가들이 모두 어떤 대단한 의미를 두고 여성을 그려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성희씨의 출발점은 여성작가가 아니라 그냥 방송작가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성의 삶과 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천착하는 바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고나 할까.

〈마지막 전쟁〉의 박예랑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다. 결혼한 이후 뜨겁게 사랑한 바로 그 점이 서로에게 못 견딜 단점이 되어 부부는 싸움에 돌입한다. 그 중 몇 쌍은 헤어지고, 또 다른 몇 쌍은 화해하고 또 다른 이들은 차갑게 살아간다.

지난 9월 종영한 〈마지막전쟁〉. 미혼의 작가가 리얼하게 부부관계를 묘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 전쟁〉의 작가 박예람.

〈마지막 전쟁〉이 부부싸움 이야기라고 들었을 때 떠오른 것은 영화 〈장미의 전쟁〉. 그 영화야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러나 당당한 커리어우먼과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라곤 없는 남편의 부부싸움을 그린 〈마지막 전쟁〉의 끝은 의외로 '화해'였다.

부부싸움의 끝이 이해와 화해로 끝나는 행복한 결말이다. 서둘러 봉합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 마지막 회에 있었다. 단 한 마디 꼭 필요한 말을 안 하거나, 아껴서 부부들이 헤어진다. 이혼할 만하면 헤어져야 하지만 의외로 부부가 다가설 수 있는 길은 쉽다. 서로에게 필요한 한 마디 말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마지막 전쟁〉 전의 작품은?

"스물셋에 방송을 시작해서부터 '아줌마'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 부부 얘기, 중년의 얘기 말이다. 첫 작품이 〈엄마의 늦바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람이나 불륜으로 자아찾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 삶을 일으켜세우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달수시리즈〉를 썼고 〈새의 선물〉, 〈영웅만단〉 등을 썼다."

어떻게 미혼의 젊은 여자가 '아줌마'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게 되고, 나 또한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여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결혼에 대해 잘 모르고 시작하는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

결혼한 이후의 여자들의 심리상태, 남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은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마음을 다 비웠다. 부부사이로 잘 살기 위해선 하나의 코드만 맞으면 될 것 같다. 환상 같은 것은 없다. 각오가 돼 있다고나 할까. 편하게,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그러나 나를 죽이는 방법으로는 아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하는데, 다음에 쓸 이야기 속의 여성은 어떤 모습인지?

"드라마를 막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리만족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사명감도 든다. 〈사랑의 전설〉이란 제목으로 내년에 방영될 얘기가 있는데, 전업주부인 한 여자가 전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 여주인공의 입을 빌어 평소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할 생각이다. 아내이기에 앞서, 엄마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여자인, 그래서 여자로서 주체적으로 서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종속된 사랑이 아닌 선택하는 사랑을 하는 여자말이다."

드라마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여자 영웅을 그리고 싶다. 여성전사나 성공한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평범하면서도 '여자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심리적 구속에서 벗어난 멋진 여자를 그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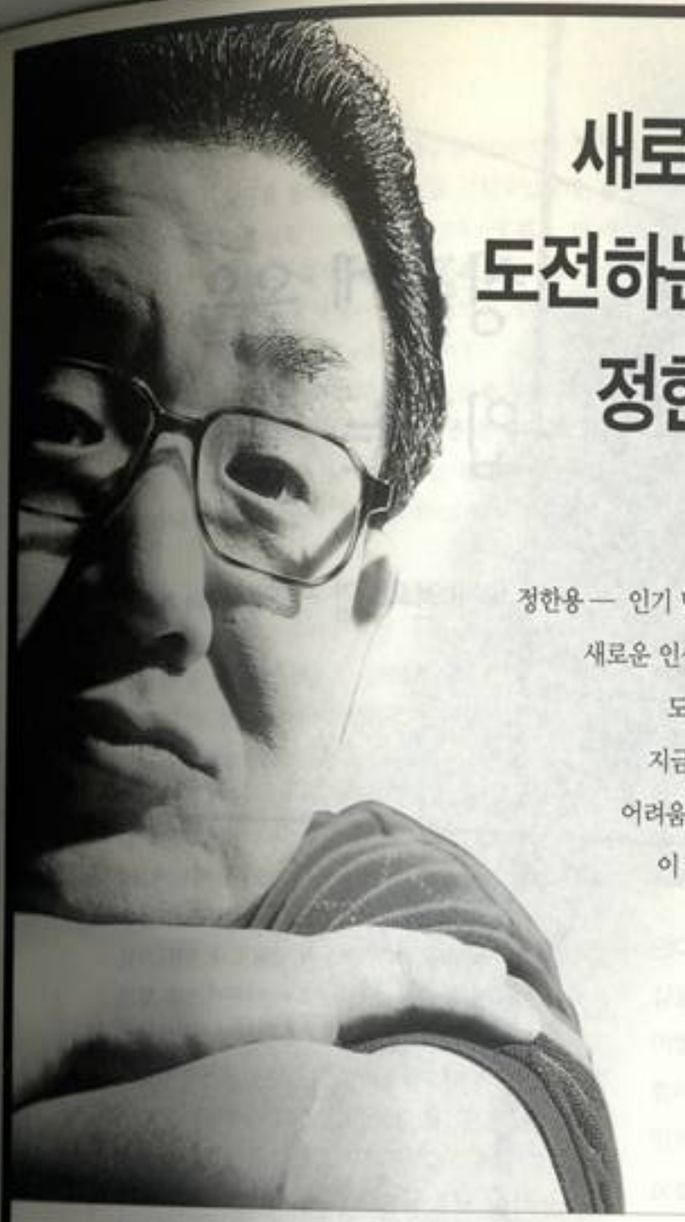
현재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건태로울 만큼 심심한 삶. 튀지 않고 평범하면서도 내 일을 할 수 있게 된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결핍'의 고마움이랄까. 몇날며칠을 집안에서 글만 쓰고 있지만 그 글 속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 산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작가로서의 그들의 바람은 모두 같았다. 시청률 높은 드라마의 작가들치고는 의외의 발언이었다. 따뜻한 인간관계, 가슴을 덥히는 이야기, 그 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것은…. 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드라마가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는 세상 아니었던가.

앞으로는 더욱더 볼 만한 드라마가 많아질 것 같다. 이 정도의 인간관과 철학, 사명의식을 지닌 능력 있는 여성작가들이 방송계에 포진해 있으니 말이다. 이젠 정말… 즐겁게 TV를 켤 수 있겠다. IF

글 권혁란



새로운 인생 무대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정한용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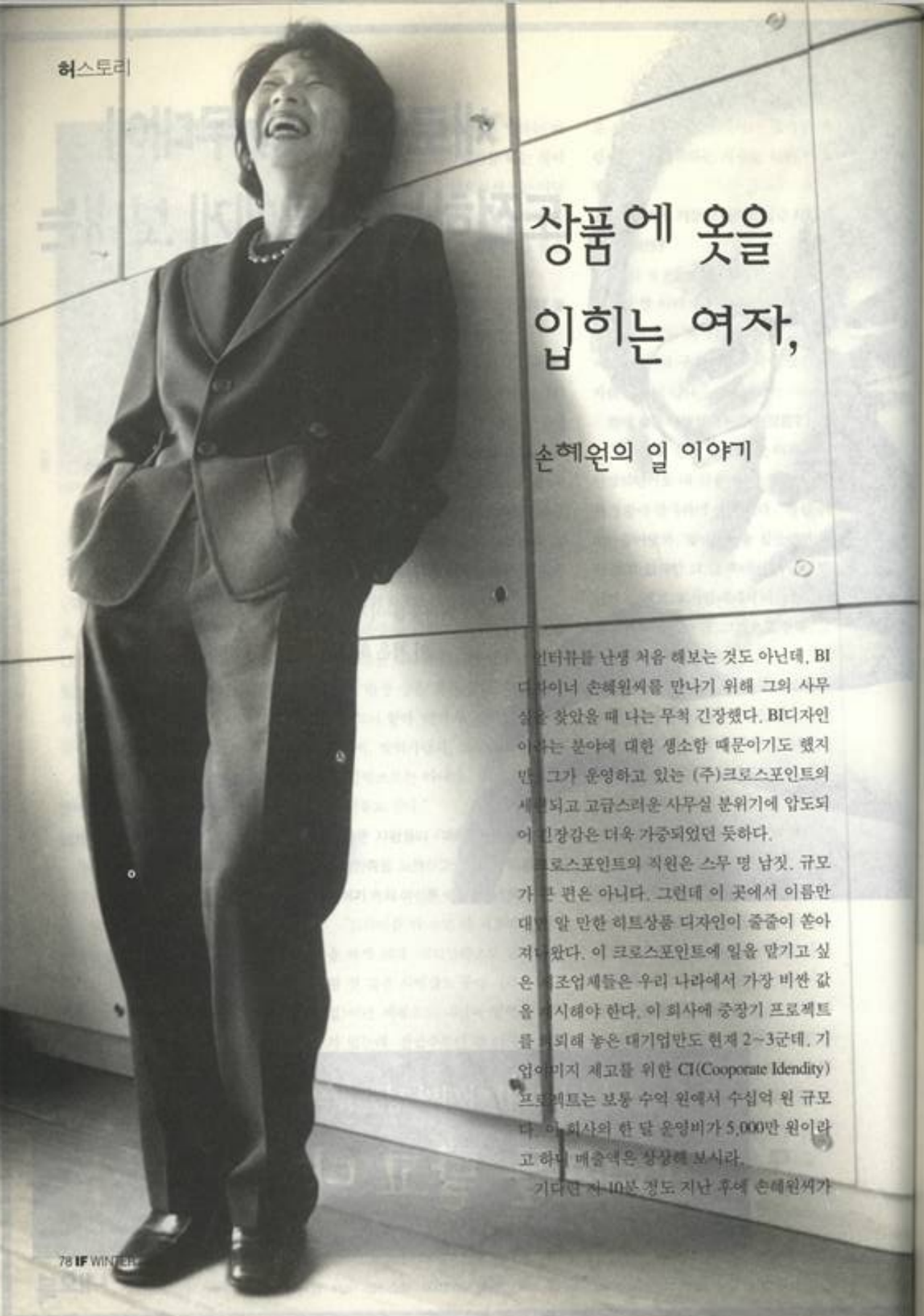
정한용 — 인기 탤런트에서 유학길로 그리고 정치 초보생으로 —
새로운 인생 3회전을 맞이한 그의 인생 고백은 바로
도전하는 삶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일지라도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백조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값 7,500원

영원한 두꺼비 아저씨 정한용 의원의 인생 3회전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남자

전화 526-1600 팩스 526-1624 인터넷 http://www.hainaim.com 네오북



상품에 옷을 입히는 여자,

손혜원의 일 이야기

인터뷰를 난생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BI 디자이너 손혜원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나는 무척 긴장했다. BI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생소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운영하고 있는 (주)크로스포인트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분위기에 압도되어 긴장감은 더욱 가중되었던 듯하다.

크로스포인트의 직원은 스무 명 남짓.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히트상품 디자인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이 크로스포인트에 일을 맡기고 싶은 제조업체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회사에 중장기 프로젝트를 예약해 놓은 대기업만도 현재 2~3군데.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CI(Cooporate Idendity) 프로젝트는 보통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다. 이 회사의 한 달 운영비가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출액은 상상해 보시라.

기다린 지 10분 정도 지난 후에 손혜원씨가 회의자료를 챙겨들고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 신문에 난 사진을 통해 그의 얼굴을 익혀두었는데, 뭔가 이건 신문에 실린 그 얼굴이 아니다.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날씬하다. 검정색 폴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그가, 시커먼 탁자에 시커먼 의자, 시커먼 책딸이가 놓인, 온통 시커먼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혜원씨는 인터폰을 누른다. "회의를 오래했더니 배가 고파죽겠다, 빵 좀 사다주라."

쿡! 웃음이 나왔다. 내가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이 탱!하니 튕겨져나간다. '원초적 본능'의 위대함이여!

히트 브랜드만 20여개인 흥행보증수표

손혜원. 올해 나이 마흔다섯. 홍익대 미대 시각디자인과와 동 대학원 졸업. 현대양행, 디자인포커스 디자이너 역임. 현재 (주)크로스포인트 대표,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내가 조사해 간 그의 이력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이력은 한 단어로 설명된다. BI디자이너, 바로 그의 직업이다.

BI, 이른바 브랜드아이덴터티(Brand Idendity), 직역해 보면 상표정체성. 전문용어로는 브랜드이미지통합으로 불린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BI디자이너 손혜원씨는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흥행보증수표로 통한다.

참나무통맑은소주, 참眞이슬露, 米XOZU, 칼튼힐 같은 술 이름, 씨(SI), i·n·v·u(아이엔비유), 베스띠벨리, 크로아제, VIKI(비키), ESSES(에스에스) 같은 옷 이름, 식물나라 같은 화장품 이름, 초코지오 같은 과자 이름, 보솜이 같은 기저귀 이름들이 다 그가 만들어낸 브랜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자칫 그가 상품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BI디자이너란 단순히 상품의 이름을 짓는 브랜드네이머(Brand Namer)와는 구별된다. BI디자이너는 상품전체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말하자면 BI디자이너는 상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전 원래 그래픽디자이너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BI디자이너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말하자면 BI디자이너는
상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상품의 로고디자인을 주로 했어요. 그래픽디자이너인 내가 어떻게 BI디자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내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로고를 만들다보니 언어를 떼놓고는 완벽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고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언어(상표명) 역시 상품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크로스포인트를 설립하고 브랜드

네이밍과 이미지디자인을 통합한 BI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것이죠."

언어와 그림의 절묘한 만남

그림을 아는 디자이너들은 언어가 갈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만큼 브랜드네이머로서 적격자는 없다. BI디자인이란 바로 그림과 언어의 가장 완벽한 조화를 통해 탄생하는 것이다.

"참眞이슬露라는 브랜드네임을 처음 제안했을 때 너무 길고, 어렵고, 이상한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냥 줄여서 '참이슬'이라고 하면 더 쉽고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미지의 목표는 '진로'라는 상표의 본래 의미가 '참이슬'임을 일깨워주면서, 진로에서 만든 또 다른 소주라는 뜻이 하나의 브랜드에 함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해 길다는 느낌을 불식시키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누어 쉽게 '참이슬'로 읽히도록 디자인으로 유도할 수 있었어요. 브랜드네임은 브랜드이미지의 핵심요소이지만 그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브랜드네임 즉, 언어의 기초 위에 그림 그러니까 디자인의 옷이 다시 입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네임을 개발할 때는 로고디자인, 색상 및 기타 패키지디자인 등의 표현계획까지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한쪽 장갑만 일곱 켤레를 판 아이

"학창시절에 내가 연필을 들고 뭔가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친구가 '네 손이 너무 신기하다'며 돌아져라 보곤 했어요. 내 손이 특이하대요. 내가 보기에는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한 손'인데 내 손을 유심히 본 친구들이 '영락없는 디자이너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해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꽤 좋았거든요."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손혜원씨 같은 사람이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다. 어느 반 애가 더 손재주가 있느냐에 따라 환경미화 심사에서 일, 이등이 결정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손혜원씨의 손재주는 평범한 재주 이상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본식 코바늘뜨개질을 배우신 적이 있는데 평면뜨기만 되는 거예요. 대신 뜨개질 방법에 따라 모양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죠. 재미있어 보여서 어머니가 뜨고 남긴 실을 이용해 조그만 장갑을 짜기 시작했어요. 혼자 궁리해 가면서 매번 다른 디자인의 장갑을 짰어요. 우스운 것은 죄다 왼쪽 장갑만 짰다는 거예요. 장갑 한 켤레를 짜려면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짜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싫어서 전부 다른 디자인으로 왼쪽 장갑만 일곱 개를 짠 거죠.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왼쪽 장갑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는데 그 때 내가 준 장갑을 받았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얘기해요."

학창시절 손혜원씨의 재주는 또 있다. 그는 국어를 참 잘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칭해지는 모범생이라는 말이 지독히 싫었다는 그였지만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독해력이 특히 탁월했다. 그래서 한자공부하는 것도 즐거웠다. 상형문자인 한자는 대부분 글자 안에 뜻이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한동안 한자에 몰두했다. 그가 BI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는 다양한 언어를 구경할 수 있는 사전을 참 좋아한다. 사전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 사전 말고도 의학용어사전, 자동차용어사전, 식물용어사전 등 희안한 사전이 많고, 그 속에는 재미있는 언어가 수두룩하다고.

"아줌마, 요즘 ○○○ 어때요? 반응이 좀 있어요?"

인터뷰를 대충 끝내고 그와 점심을 함께 하러 그 동네(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일 맛있다는 세발낙지 전문점에 갔다. 세발낙지를 가지고 무교동낙지처럼 맵게

볶아내는 집인데, 아니나 다를까 입안을 확 달아오르게 하는 매콤한 양념에 물컹하게 씹히는 세발낙지 맛이 일품이었다. 매운 입을 호호거리며 열심히 낙지를 먹다가 손혜원씨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근래 자신이 만든 브랜드의 소주가 잘 나가느냐고 물은 것이다.

아주머니는 "요즘 난리예요. ○○○ 때문에 △△△를 찾는 사람이 통 없어요"라고 응대한다. 아주머니의 대답에 고무된 탓인지 그는 자신이 만든 이러저러한 제품들 때문에 경쟁사의 제품이 올상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손혜원씨가 느낄 그 짜릿한 성취감을 내가 짐작이나 할수 있을까.

"근데, 김근태 의원은 어떻게 후원하게 되었어요?"

김근태 의원 후원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언젠가 '김근태와 나'라는 제목으로 손혜원씨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었다. 정치인과는 좀처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가 어떻게 김근태 의원의 후원회원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의 답은 심플했다.

여자들이여 '진정한' 성공을 꿈꾸자

"내가 아주 존경하는 소신 있고, 자기 주장 분명한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김근태 의원의 후원자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군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자 손혜원은 어떤 남자랑 살까.

"결혼 얘기 좀 해주세요. 화끈한 연애를 했을 것 같은데…."

"어휴, 결혼은 재미없게 했어요. 오래 연애하다가…,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힌 거지…. 신랑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소심하고 성실하고 외곬수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싫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잘 맞아…."

손혜원씨의 남편 정건해씨는 회계사다. 그들은 수입은 두 배이면서 아이는 없는, 전형적인 딩크족이다.

"우리집 거실에 누워서 산자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보면 좋은데 옆에서 (남편이) 귀찮게 구니까… 강아지 빽빽거리고. 나는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사는 데 어려움도 있겠죠. 사실 난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손혜원씨를 보면서 상투적이지만 이런 말이 생각났다. 프로는 아름답다! 여자들이 성공을 꿈꾸는 것은 아마도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IF

글 황오금희/ 사진 엄용순

"이제 우리가 엄마를 키울게"

모든 여자는 서로 자매다. if는 여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자매애는 아름답다' 난을 신설했다. 그 첫번째로 정트리오 이래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음악자매로 세계 무대에 부상하고 있는 안트리오와 그 어머니 이영주씨를 만나보았다.

전문적 이상을 위한 패션브랜드 'ANNE KLEIN' 광고 모델로 등장한 안트리오.

놀이와 즐김의 음악회, 안트리오 국내 연주회 리뷰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명색이 클래식 음악연주회장인데, 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꾸며진 음악무대는 보통의 콘서트 관객들에게는 많이 낯설 수밖에 없었다. 〈바디샵과 안트리오가 함께 하는 가을밤 숲속의 환경콘서트〉가 열리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무대는 내게 당혹스러우면서도 유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느낌을 동시에 전해주는 별난 음악회장이었다.

우선 연주회장 분위기가 '상식 밖의 무대'였다. 악기 배치부터 가관이어서 정통 트리오와 달랐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3개 악기는 분명 있지만, 그 좌우로 한 무더기의 타악기들이 떡 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 뒤에는 세 자매가 직접 제작했다는 설치미술 비슷한 작품들이 늘어서있었다.

조명도 정상은 아니었다. 환한 백열등의 여느 클래식 무대와 달리 울긋불긋 현란한 조명이 분위기를 요상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뭔가 사고치려고 작정한' 그런 무대임이 틀림없다. 살펴보니 악기 위에는 모두 마이크들이 설치돼 있다. 자연음향(아쿠스틱)을 생명으로 여기는 클래식의 기본부터 무시하고 들어가겠다는 의도이리라. 레퍼토리도 매우 이상했다. 국내 음악회의 단골 메뉴인 고전 낭만시대 음악은 단 한 곡도 없다.

그런 것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음악회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살펴보니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트리오〉(1937년작),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잊혀짐〉 등 3곡의

미국 『보그』지에 실린 안트리오의 모습.

탱고가 모두 금세기 작품들이었다. 더욱이 후반부의 3개곡 중에는 미국 뉴욕에서 막 활동을 시작한 20대 신출내기 작곡가들의 곡이 두 곡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 곡들은 모두 안트리오에게 헌정된 작품들이다. 물론 국내 초연이다. 연주회가 매우 잘 이뤄질 경우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의 음악회' 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법한 대목이다.

이윽고 세자매가 무대 가운데로 나온다. 무대복도 튄다. 먼저 바이올린을 들고 나오는 막내 안젤라. 상고머리에 가까운 과격한 커트머리에 샛노란 박스형 롱드레스 차림이다. 첼로의 쌍둥이 맏언니 마리아는 긴 생머리인데, 패션만으로 따지면 한 단계 위이다. 허벅지가 확 끼는 번들거리는 바지, 그 위의 배꼽티, 그리고 반짝이로 장식된 붉은색의 '황금박쥐 망토' 같은 것을 차려입었다. 가장 정장에 가까운 것이 루시아인데, 단발머리에 드레스를 입었지만, 등짝이 훤히 다 드러나 자극적이다 싶지만 유쾌하다.

이쯤되면 이 음악회가 국내의 통조림무대에 한방을 먹이려고 구상된 무대임을 감지해야 한다. 무대와 패션이 '개성백출' 인 데다 뉴욕을 중심으로 갈고 닦은 이들의 연주솜씨 역시 파격이다. 먼저 첫 순서인 번스타인의 작품. 3개 악기의 유희적 성격을 강조한 곡의 분위기부터 잘 살아난다. 역시 안트리오 같은 젊은이들은 고전 낭만시대의 꽉 짜여진 틀의 음악보다는 이런 열려진 곡에서 자기 호흡을 잘 맞춘다 싶다.

두번째 곡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가 다시 무대의 위아래 분위기를 잡는다. 끈적거리는 듯, 몽롱한 듯, 그러면서도 인간적 체취가 물씬거리는 이런 레퍼토리는 확실히 남미풍이면서도 탈(脫)근대적인데, 안트리오의 탱고는 기존 크레머의 탱고에 비해 '별미' 다. 반도네온(남미스타일의 가벼운 아코디언 악기)이 연주하는 주 선율을 묵직한 첼로 파트가 대신하는 바람에 곡

이 다소 무겁고 클래식하게 느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몽환적 분위기는 다치지 않고 있다. 이 대목에서 무대의 위와 아래가 '뉴욕의 세 자매가 벌이는 튀는 음악회' 의 컨셉을 확인하는 표정이 읽혀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의 완성도를 거론하기 전에 안트리오의 무대 매너이다. 그 동안 우리는 너무 음악적 완성도 등을 따지며 조바심을 치다가 막상 '허가난 헛짓' 을 하지 못했다. 우선 피아노의 루시아는 건반 위에서 가볍게 몸과 머리를 흔들며 음악의 느낌을 몸으로 보여준다. 건들거리듯 몸을 놀리는 안젤라의 매너 역시 더없이 자연스럽다. 후반부 타악기와 함께 한 레퍼토리에서 안젤라는 시종 일어선 채로 연주를 했다.

바로 이것이다. 즉흥성이 살아 있는 것이다. 안트리오의 음악회는 '놀이와 즐김으로서의 연주행위' 이다. 그것은 국내 무대에서는 거의 금기로 여겨져왔던 대목이다. 즉 내남 없이 즐거우라고 만드는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즐거움' 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안트리오는 '이 곡을 미스터치 없이 매끈하게 연주하겠다' 는 중압감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아류(亞流) 연주자들이 갖는 '향기없는 음악' 이다.

안트리오는 대신 '지금부터 우리에게 즐거운 음악을 하겠다' 고 선언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것이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된다. 강렬한 비트와 함께 연주되는 록음악 분위기의 에릭 이웨이즌의 〈더 다이아몬드 월드〉에서는 관객들 사이에 휘파람이 난무하며 열광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제 결론을 짓자. 안트리오는 전자바이올린을 메고 껑충껑충 무대를 뛰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네사 메이가 아니다. 바네사 메이는 상업주의 풍토가 만들어낸 '가짜 음악상품' 이지만, 안트리오는 '현재진행형 현대음악의 메신저' 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많은 작곡가들이 이 트리오에게 헌정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속사인 EMI가 다음 음반을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자매의 튀는 연주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학예회 수준' 을 면치 못하는 우리 음악계에 주는 충격의 측면이다. 국내 음악회는 음악을 공급하는 연주자 중에서 그 행위로 생업을 잇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음악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학예회 수준' 이고, 모이는 청중 역시 자발적인 청중 대신 연주자 집안 사람들의 가족 모임과 다름없는 엉터리 청중이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학예회 수준' 이다. 다소 과장 섞어 '열에 열 하나인' 그런 음악회만을 보다가 '살아 있는 음악' 이 물씬 풍기는 안트로오의 음악무대를 접하니 즐거웠다. 그런 즐거운 음악이야말로 무대를 풍부하게 하지만,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관객도 창출한다. 관객은 그런 음악회를 자주 보고 싶은 것이다.

조우석 문화일보 문화부장

안트리오 키운 엄마 이영주

이영주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티분위기와 같은 콘서트장의 가벼운 흥분이 떠오른다.

콘서트가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엄마와 함께 한 안트리오. 왼쪽부터 막내 안젤라, 엄마 이영주씨, 쌍둥이 동생 루시아, 언니 마리아.

가슴이 아련해지는 이유는 한국적인 서정성과 고향의 추억이 물씬 묻어나는 그의 글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 풍겨나는 아련한 고향냄새는 곧 코스모폴리탄적인 뉴욕의 냄새와 결합되면서 다국적의 혼합정서로 대치되고, 이어서 그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세 딸, 안트리오의 음악이 가미되면서는 공연예술의 고급한 향취로 승화한다.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안트리오의 어머니로 더 많이 알려진 그이지만 나는 문필활동을 하는 수필가 이영주로 먼저 인연을 맺었다. 뉴욕의 조선일보에서 일하고 있던 90년대 초반 현지 칼럼니스트인 그를 만났다. 그는 한국문단에 등단한 수필가이며 또 미국의 한국학교에서 한국말을 모르는 2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한국어 교사이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표피적으로 갖게 되는 선입견을 여러 가지로 배반한다. 그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 아니다. 그는 화려한 인상을 갖고 있다. 글을 끄적거리는 고리타분한 문인이라기보다는 무대에 서야 더 어울릴 것 같은 육감적인 외모를 지닌 것이다.

무대체질 분위기의 외모에다가 딸 셋을 줄리어드에 유학 보내 세계적인 연주자로 길러낸 여자, 자기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매체에 글을 쓰는 여류(?) 문인,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조건들은 상류사회에 속한 극성엄마나 세속적인 욕망에 눈을 밝히는 맹렬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화려하고 현대적이며,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는 오히려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현대적인 모성에 더 가깝다.

그를 좀더 알게 되면 이번에는 그의 동화적인 면모에 또 다시 놀란다. 나이를 그만큼 먹고 다양한 경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정 모르는 소녀적 순수함을 지금껏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와 생활을 해결하며 줄리어드 뒷바라지를 해내고 그리고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됐는지가 불가사의하게 여겨질 정도로 모든 인간관계에 동화적으로 대처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세 딸, 안트리오도 줄리어드 유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민족에 대한 개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사치를 누리는 특권계급의 자녀들이라는—을 철저히 배반한다. 안트리오는 지금껏 크리스마스카드나 감사편지 등을 사서 쓰는 경우가 없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든 수제품을 친지들에게 보내는데 그건 모두 엄마 이영주씨에게서 배운 탓이다.

그는 연주여행 때문에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딸들을 위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음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먹이는 전통적인 어머니인가 하면, 고뇌하는 예술가의 영혼을 지닌 딸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개인으로, 또 동료로 긴 편지를 나누기도 하는 낭만과 열정도 지니고 있다. 딸들이 어렸을 때는 따뜻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훈련교사로, 매니저로, 때서운 비평가로 훈육주임 같은 역할도 했지만 아이들이 성년의 나이를 모두 지난 지금 그는 세 딸과 함께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비밀을 나누는 자매지간처럼 지내고 있다.

그는 소녀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동화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설교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그의 따뜻한 스타일은 딸들이나 또는 다른 문화,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영주씨는 자식들에게 젖줄을 대고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 같은 엄마일 수도 있는 것이다. if

류숙렬 편집위원

비너스가 아름다운 이유?

- 비너스의 탄생 -

백설공주 가 사랑받는 이유?

-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

한국남자들은 피롭다. 요즘 직장에서 만나는 여성동료들과 자신의 아내와 애인…,
그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보기엔 여자들이 쉽게 분노하고,
한 치도 지려고 하지 않고, 까다롭고, 만만치 않다. 게다가 요즘은
'우리 여성들만의…' 운운하며 남자들과 경계를 지으려고 한다.
물론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멋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들 앞에만 서면
왠지 자꾸 작아지는데…. 도대체 요즘여성들은 뭘 원하는 걸까.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이기까지 한 요즘여성들을 '악녀'라고 지칭해 봤다.
그리고 악녀들과 살아가는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나쁜 여자와 살아가는 남자들

총론 우리 사회 달라지는 여성상 이해하기 조혜자
집중취재 남자들의 고충 김혜진
여성동료들이 뽑은 인기맨 김보미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최영미 김소희 이유현주 신정원 이하진
사례 탤런트 최수종 등 6명의 사랑받는 남자 이야기

너희가 악녀를 아느냐

우리 사회 달라지는 여성상 이해하기

여자들이 달라졌다. '테러리스트가 되자' 고 부추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길들여지지 않겠다' 고 선언하는 여자도 있다. 원초적 수치심을 자극했던 생리를 주제로 '월경페스티벌' 을 벌이는 여대생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전시회를 〈팔뚝들의 행진〉이라며 스스로 '팔컥 '임을 자청하는 여성화가들도 있다. 국회에는 몸싸움과 욕지거리를 앞장서서 하는 여성의원이 있고, 껌을 질겅거리며 버스에 오른 대학생에게 껌을 버스에 뱉으려면 내 손바닥에 뱉으라고 호통을 치는 여자 버스운전사도 있다. 그리고 남성의 전화에는 여자들에게 매맞고 상담을 청하는 남자들도 있다.

왜 이 땅에 드세고 거친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까?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여성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맞은편의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속의 '아수라백작'

사회는 남성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남성성을 부추겨왔다. '남성성=좋은 것' 이라는 등식을 가르쳐왔던 것이다. 남자들이 하는 일들은 중요한 일이고 여자들이 하는 일들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성비율이 높은 직업보다는 남성비율이 높은 직업이 월급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해!!
여성적인 것이 정신건강에도 나쁠 뿐 아니라
더 이상 사회에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 우리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특성을 기르지 뭐.'

도 더 많고 인정받는다. 같은 남자들 속에서도 더 남성적인 사람이 인정받는다. 힘이 세고 우람한 남자는, 힘이 없고 왜소한 남자보다 멋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키가 크고 몸집이 좋은 남자가 국회의원으로 뽑힐 확률이 그렇지 못한 남자보다 높다나? 큰 소리를 내는 남자는 소리가 작은 사람보다 영향력이 크다.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보다 더 출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 그리고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추겨왔던 특성들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열등한 지위에 발목을 묶어두는 특성들이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보살피는 것, 남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을 기죽이는 것,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보기 십상이고, 알아서 몫을 챙겨주기엔 세상에 처리해야 할 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다. 최근 미국 심리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처한 이런 상황과 특성이 여성들에게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억눌려 살아온 상황에서 벗어나 남성들과 겨루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 몫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특성에 더 이상 묶여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해!! 여성적인 것이 정신건강에도 나쁠 뿐 아니라 더 이상 사회에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 우리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특성을 기르지 뭐.'

이들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여성다움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결사코 생 머리에 생 얼굴에 흰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을 즐긴다.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생각들로 남자들을 닦아세우며 기를 죽인다. 기분이 좋으면, 누가 있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기도 한다.

융(Jung)은 여자든 남자든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여자라고 여성다운 특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다.

필자가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남녀모임에 갔을 때에나,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위축되고 소극적이지만, 동창회에 나갔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당당하고 적극적이며, 자신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에게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강하게 추구하느냐, 사회가 무엇을 부추기느냐에 따라서 여지껏 숨겨왔던 특성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처녀 적에는 날씬하고, 힘없고, 약하고, 부드럽던 여성들이 30~40대 아줌마로 바뀌면서, 튼튼한 팔과 억센 신체조건을 갖고 에너지를 발산해 그녀들의 당당함이 때로는 뻔뻔함으로 비치지 않던가?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여성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강인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남자는 여자를 모른다

남자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요새는 자신의 배우자인 남편에게만 의존하려는 여자보다는 돈 잘 버는 여자, 좋은 직장 가진 여성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중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도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사회생활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있지만, 남자와 경쟁을 하거나 드세지는 건 안 되지!"

그러나 일단 사회로 나온 여성들은 점점 더 능력을 키워가고, 도전적이며 거세고, 목소리도 커졌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남자들이 늘어난다. 여자들이 두렵다는 남자도 있다.

남자들이 변해가는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사시대 이후로 남자들이 쟁취해 놓은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것이다. 여자가 경쟁대상이 아닐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대하지만, 그 여자가 경쟁상대가 될 때는 태도가 돌변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자에게도 남자나 마찬가지로 꿈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남자도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왜 여자들까지 나서서 자리를 뺏으려고 하나?'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득실을 계산한다.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손해 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 동료직원의 부인이 무언가 그악스럽게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마누라는 왜 그러지 못한지를 내심 못마땅해한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살림은 뒷전이고 아이들이나 시부모도 내팽개치고 직장일에 매달린다면,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여자가 왜 알뜰살뜰 살림이나 잘 하고 아이 잘 키우는 데 만족하지 못하나'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니, 시야가 좁아져서 여성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들이 여태껏 어떻게 희생해 왔고,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요주의! '여자가 너무 좋아' 증상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들이 때론 진정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남자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웃고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 어

어떤 남자는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자기보다
능력있고 똑똑하며 강한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떤 학자는 이런 현상을 '여자는 너무 좋아 증상'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여성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호의적 성차별주의자'들이다.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탐내고 경쟁하려 할 때나 남자들이 하는 일을 넘보고 관심을 가질 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떤 남자는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자기보다 능력있고 똑똑하며 강한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고정관념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인정치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니 요즈음은 뱃속에서부터 고정관념을 강요당하면서 자라나게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에 내포되어 있는 성고정관념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흡입되어져, 우리의 의식 곳곳에 박히게 된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낼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에서 무엇이 고정관념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구별해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편안하고 좋다고 느낀다. 인간에겐 여러 번 노출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린 '씩씩한 남자, 싹싹한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성고정관념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방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경우 이탈자로 취급하고, 싫어하고, 암묵적인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다. 남자들에게 여러 명의 여자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여자는 강한 페미니스트로, 어떤 여자는 여성다운 주부로 소개를 하고, 이 여자들이 특정 과제를 잘못 수행했을 때 장난감 망치로 때려주라고 했다. 그 결과 남자들은 강한 페미니스트 여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여성다운 주부가 잘못했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세게 때리고 있었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 이탈자를 싫어하는 반응들은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일어날 수 있다. 고정관념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전의식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검열자의 시선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왜 자신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싫어질 수 있다. 우람한 체격의 남성이 눈화장을 짙게 하고 여자 목소리로 말을 걸 때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 상냥할 것으로 기대했던 여직원이 거칠게 대들 때 무조건 싫어지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반응이 아니다. "누군가가 좋아지고 싫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성이 남성적으로 행동하면
여성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휩싸이고,
여성적으로 행동하면 유치한 행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강하고 당당한 여성들이 좋다는 남성은 누구인가? 그들은 외계인인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 고정관념이 없는 건가? 아마도 그들은 성 고정관념을 덜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부모가 성차별하지 않고 아들 딸 똑같이, 정말 똑같이 길렀다면 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 거다. 게다가 어머니가 적극적이고 당당하다면, 반복해서 보아온 어머니 같은 모습을 가진 여성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들은 진정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들도 성차별적 사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올라 자기를 휘감는 고정관념적 생각이 없을 리 없겠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겨내고 있을 거다.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고정관념이 틀렸음을 의식적으로 해석해 내고, 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다. 그들은 여성을 여자로만 보지 않고 꿈과 희망을 안고 있는 인격체, 그리고 자신이 그러하듯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다.

처음엔 힘이 들었겠지만, 아내가 자기 일을 위해 밤늦게 귀가할 수 있는 것도, 직장일을 위해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것도,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누구 앞에서나 말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보니 이젠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녀의 발랄한 생각이 멋지고, 그녀의 당당함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노예를 마누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기왕에 욕먹을 바에야…

그러나 이런 멋진 남자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직장에서 여성들이 야근도 할 수 없고, 회식에도 가지 않는다면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비난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꼭꼭 야근이나 밤늦은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여성에게는 '무슨 여자가 저래? 여성답지 못하게' 하고 비난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몇 년 전 한 여성장관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입방아감이 되더니, 공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또다시 입방아에 찧였던 일이 기억난다. 그녀는 결국 중도에 장관직을 사임하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여성이 남성적으로 행동하면 여성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휩싸이고, 여성적으로 행동하면 유치한 행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비난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의 이동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욕먹을 바에야 과감히 '악녀'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점점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악녀'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런 '악녀'들과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이들이 전혀 험오스럽지 않고 매력적이며, 정말은 악녀가 아니라는 걸 체험하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면, 남성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성고정관념 또한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여성은 나약하다'는 고정관념의 자리에, '자아를 추구하는 당찬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고정관념이 대신할 날을 고대한다. IF

조혜자

이화여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학교만 다녔고, 여학교에서만 가르쳤으며, 아이도 딸만 둬, 여자 세상에서 살아왔다.
여성으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분노하며, 여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여성심리와 관련된 논문과 책을 집필하며, 강의를 하고 있다. hyejacho@hanmail.net

영나니가 건진 유머

부부

남편 건강이 나빠지자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갔다. 검진이 끝나자 의사는 부인을 안으로 불렀다.
"남편분 말씀인데… 별건 아닙니다만… 매일같이 좋아하는 음식에 저녁엔 멋진 영화를 보여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함께 다녀보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부인이 나오자 궁금한 남편은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봤다.
"당신 곧 죽을 거라네요."

장례식

악명 높은 건달의 장례식. 목사는 고인의 인격과 성실성과 근면함, 자비로움과 인정스러움을 칭송했다. 듣고 있던 이망인은 아들에게 말했다.
"얘, 가서 관속에 있는 게 진짜 네 아버지가 맞는지 보고 와라."

입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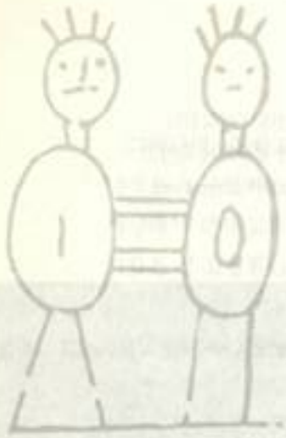
집으로 데리고 오는 층간마다 아버지가 늘 피싸를 놓았다. 그러자 친구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남자를 데려오면 좋아하실 거야."
몇 주 후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
"네 말대로 아버지와 꼭 닮은 남자를 데려왔지. 좋아하시더군."
"그래? 잘 됐네."
"아니, 이번엔 엄마가 딱 질색이라고 그러잖아."

사연

출장갔던 회사원이 예정보다 일찍 일이 끝나자 하루 앞당겨 돌아간다고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기겁을 했다. 그는 집을 나왔고 이튿날 장모는 그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가서 딸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을 터인즉 그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며 사위를 설득했다. 한 시간 후 전화를 걸어온 장모.
"내가 뭐라던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랬잖아. 그애는 자네 전보를 받지도 못했다는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의 크기를 5센티 정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센티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5센티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 이렇게 긴 건 아직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의 앞부분은 둥글고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부분은 촉촉히 젖어 있기도 합니다. 방송용 마이크를 달았지요. 끝 부분으로 가면 털도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239쪽에 있습니다. 엽첩 궁금하죠? 그냥 다음호에 실을까? 정답을 맞추는 분에는 이것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음… 그것만 따로 포장하기 좀 힘들지만… ^^;)



두 그루 나무처럼, 적당하게 떨어져라

악녀의 파트너, 그들의 고충

달라진 여자들. 그 여자들과 같이 사는 남자들은 어떤 고충을 안고 있을까? 그 남자들의 고충은 바로, 우리 사회 남자들 전체의 고충이기도 하다. 이프는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여성들과 관계맺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남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다.

차라리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왜 내 목을 조르는 거지?

남종철(38세, 삼성라이온즈 운영팀 과장)씨는 몇 달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채 소식이 끊겨 한동안 황망하게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여덟 살과 세 살인 아이 둘은 함께 사는 어머니가 돌봐준다지만, 아내가 어디로 왜 떠났는지조차 추측만 간신히 될 뿐 진실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친구 편에 남긴 아내의 편지에는 이혼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만 덜렁 담겨 있었다.

간신히 알게 된 아내의 거처는 깊은 산 속의 절. 아내가 삭발한 것이다.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었지만 파르라니 깎은 아내의 민머리가 남긴 상실감은 지금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 일의 특성상 지방출장이 잦았고, 해외출장도 많았다.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아내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외로이 키웠다. 친정조차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 하나만을 믿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에서 겪었을 소외감과 절망이 얼마나 클까 생각했지만 내 생활이 바빠 보듬어줄 수가 없었다. 그 사이에 아내도 자기 일을 갖고자 했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걸로 보여 내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일을 갖는 걸 반대한 적도 없었고, 글을 쓰고자 하는 아내가 읽는 책들, 보는 영화들,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이해해 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멀리 가는 것 같았다. 글을 쓰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아내는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은 듯, 그렇게 머리를 깎고 한 달 동안을 지내다 돌아왔다. 그리고는 일도, 글도 접었다. 이혼이야기도 이제는 꺼내지 않는다.

함께 살던 어머니는 며느리의 삭발에 충격을 받고 분가해 나갔다. 오두마니 앉아 '당분간 아무 꿈도 꾸지 않겠다'는 아내를 지켜보는 일은 차라리 귀가가 늦어 걱정되거나 화날 때보다 더 힘들다.

"결혼한 지 10년이다. 아내는 글을 쓰고자 했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걸 원했다. 누가 일하지 말라고 했는가. 차라리 잘 됐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설명하며 아내가 일 잘하고 시 쓰고 살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사회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내보다 능력 없는 남자도 제 몫의 일을 하며 사는데 여자에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언젠가 다시 아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덕(36세, 제일화재 대리)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남들처럼 결혼이란 것이 나이 차면 그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자가 일하는 것을 남편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결혼할 때 아주 많은 부분 합의를 거쳤다. 아내가 일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좋았고 가사분담도 철저히 하고자 했으며, 아이도 아내의 동의하에만 낳기로 결정했다. 친정식구도 내 부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둘이 사는 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아내의 늦은 귀가도, 살림을 등한시할 때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내가 책 한 권을 펴내면서 일어났다.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이란 단행본을 펴낸 아내는 단지, 그가 책을 펴낸 사람의 남편이란 이유로 너무 많은 도움을 바랐다. 각종 인터뷰에 꼭 그가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내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모든 일정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핑핑 돌아갈 정도로 볶아칠 때는 진짜 가도가도 끝이 없다는 생각에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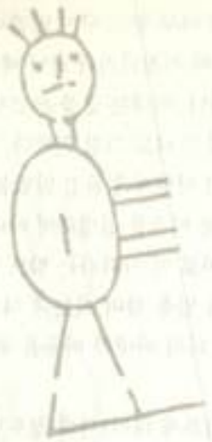
여자가 결혼하고도 일을 갖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의 절대적인 정신적 지지와 시간적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하는 남자들은 꽤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대표'가 아니다. 더구나 교화대상이라니

신상호(30세, 컴퓨터회사 근무)씨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아내 일에 대해서 그와 아내 모두 꽤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러저러하다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주 자립적이고 당당한 여자였고, 신씨는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보기 좋았다.

"그녀가 페미니스트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다. 나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페미니스트란 흠로 자신 있게 서는 여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여자, 주눅들거나 피해의식에 젖어 있지 않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점이 날 자유롭게 할 거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고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아내는 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관계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하러 만나느냐?"고 따져물었고 보통의 관계라면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에도 과민하게 반응했다.

자신과 생각이 맞는 친구들과는 경쾌하고 발랄하고 유쾌하게 웃는 아내가 자신에겐 환한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많이 속상했다.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걸로 믿었는데, 함께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게끔 행동했다. 세상의 남자들이 가진 나쁜 고정관념과 행동, 즉 나쁜 남자의 총합체인 양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남자들도 잘 하지 않는 욕을 할 때, 자신을 끊임없이 바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집불통, 이 정도도 못 해주나?

통상적인 친구관계라면 고통스러울 게 뭐 있을까싶은 것에도 남자들은 일단 그녀가 '나의 여자'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박상우(30세, 시사잡지 기자)씨가 그런 예다. 아직 미혼인 그는 사귀고 있는 여자가 수틀리면 절대 안 참아주는 고집불통이어서 힘들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나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를 사사건건 걸고 넘어져 황당하다.

"어려운 선배와의 합석자리에서 선배가 남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술잔을 권했다. 한 번은 참는 것 같더니 몇 번 술잔이 돌아오자 따지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대화방식, 선후배관계 등등 모두 맘에 안 들었는지 큰 소리로 싸우다가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에 이르렀다"며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상냥하기만 하고 살살거리는 여자, 늘 보살펴줘야 할 부드러운 여자는 질색이고 그의 여자친구가 고집 세고 당당한 여자여서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화 잘 내고 그럴 때는 속이 푹푹 썩을 만큼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씨처럼 '악착같이 대들고 잘 따지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는 남자는 이름을 다 대기 힘들 만큼 수없이 많았다. 시댁의 ㅅ자만 나와도 제도적 사회적 편견을 들먹이며 치를 떠는 여자 때문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난감해하는 남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집안일을 똑같이 나

누어야 한다는 것 등등 하나의 주제도 양보하지 않는 데서 고충을 느끼는 남자….

그러나 그 남자들의 고충은 정작 여자들이 지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 너는 1이고 나는 0.75야

상대방 여자에 대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남자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 이혼을 택한 김민상(36)씨는 아내가 결혼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에 비해 자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물론 연애할 땐 느끼지 못한 감정이다.

월급이나 사회적인 인정, 심지어 인간관계도 아내가 더 잘 풀어나가는 것 같은 나머지, 아내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그 열등감은 자신을 멋지게 보아주고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는 여자를 찾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아내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점에선 이주현(가명, 37)씨도 마찬가지다.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강사생활로 자신의 용돈 정도를 벌고 있지만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아내는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고 의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양육비에서 생활비까지 거의 모두를 충당하고 있다. 권위적인 가장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자신의 할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열패감에 빠질 때는 일 때문에 늦는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도 못하고 괴로와 할 뿐이다.

아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여러 면에서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늘 비교대상이 되는 남자의 괴로움도 있다. 박철민(35)씨는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아내가, 생각도 외모도 멋진 남자를 만나고 와서 자신과 비교할 때 생기는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 여자의 남자관계를 믿을 수 없어 괴롭다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생기는 술자리는 피치 못할 것이고, 누군들 좋아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겠냐고 항변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들일수록 자신의 아내가, 여자친구가 일 때문에 술 마시고 늦거나 남자를 만나는 것에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여자'에게 일 때문에 술 마시고 늦을 일이 왜, 얼마나 있겠냐는 논리다.

남자인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아내, 혹은 여자친구에게만은 유난하게 반응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하건 나이가 얼마나 됐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김민우(48, 교수)씨는 아내가 일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남자들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심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남호(36, 교사)씨 역시 자기 아내가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고 오는 밤이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참기 힘들다는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은,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신경정신과 의사 전지홍씨는 "요즘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외도 문제다. 자신들은 외도를 하거나 여자들을 만날 때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혼을 예정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온 생애를 걸고, 아니면 가장 큰 불만을 가슴에 품은 채, 이혼

까지도 불사할 만큼 대담하게 외도의 길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행여 외도사실을 알게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다"고 요즘 남성내담자들의 고통을 분석했다.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일까. 따로 또 같이 살면 되는 것을

사람과 사람사이의 그 복잡다단한 갈래를 들춰내고, 가닥을 잡아 이야기를 듣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남녀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문제의 해결실마리를 알고 있는 듯했다. 자신들이 더 깊고 넓게 마음을 열어둔다면 그녀를 이해 못할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남자 페미니스트'로 이름난 『반쪽이의 육아일기』의 저자 최정현(39)씨의 말을 들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그는 요즘 아내의 논문준비를 돕느라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의 대화 끝에 '악녀와의 사귐'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 아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으면 결혼조차도 안 했을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원칙이 나름대로 선 여자, 나와 어떤 이야기라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여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주눅들지 않은 당당한 여자, 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난 지금쯤 대화상대를 찾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을 나누어 하는 날, 즉 당번이 아니면 그녀도, 나도 외박을 하건, 밤을 새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날은 서로에게 자유다. 물론 결혼초에는 주먹이 오갈 정도로 심하게 싸우기도 했고, 요즘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할 땐 다투기도 하지만 이 여자와 사는 일에 별 고충은 없다. 각자의 일을 하되, 서로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서로 각자의 일이 있을 땐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면 된다. 엉켜서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 아닌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 잘 서 있으면 어떤 고충도 느낄 수 없다." if

권희란 출판팀장

친정엄마와 딸이 함께 쓴 별난 부엌이야기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

딸아, 네 부엌이 아닌데선 일하지 마라.

엄마, 착한 며느리 야망 다 버렸어요.

'행복한 요리'를 하기 위해 박형옥 · 박이은경 모녀가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

1. 딸을 비롯한 이 땅의 며느리들에 대한 걱정와 연대감이 박력있는 필치에 실려 필박필박 뛴다.
월간 말 김소희 기자

2. 아주 특별한 요리책—
때에 몽후수를 박는 일은 힘센 남편이 할 것, 같은 톡톡 튀는 설명이 재미있다.
시사저널 김은남 기자

3. 이 책에는 요리법은 조금 들어있고 대신 부엌과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정과 시댁, 남편과의 관계가 오밀조밀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에게는 억압의 공간이자 해방과 자유의 터일 수 있는 부엌과 요리라는 작업을 통해 가족사회학을 그려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일보 최현수 기자

4. 딸을 결혼시키면서 느닷없이 "말가진 죄인"이 돼야했던 친정엄마와 결혼하면서 갖가지 일을 겪어야 했던 딸이 결혼 2년동안 깨달은 '부엌'과 '요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담은 수필집.
대한매일 강산임 기자

박형옥 · 박이은경 지음 / 이프북스 / 값 7,500원

신국판변형 265

if정기구독자에게는 20% 할인가(6,000원)에 판매합니다.

대표전화 • 02) 553-6715, 팩스 565-9059 주소 •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북빌딩 2층(135-080)

여자는 신사를 좋아해

여성동료들이 뽑은 인기맨 4인방

요즘 직장여성들은 어떤 남성과 일할 때 행복할까? 밥 잘 사주는 사람? 매너(만) 좋은 사람? 아니면, 잘 생긴 사람? 답은 아니올시다.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똑똑하고 당찬 여성들이 추천하는 '인기맨', 그들을 만나보자.

꽃을 든 남자, 위성계 대리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 생긴 남자가 아침에 꽃집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아뿔사, 미리 꽃다발을 준비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다.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는데…. 꽃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꽃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선물한다. 어느아침 위성계 대리(36세, 교보문고 홍보팀, 오른쪽 사진)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려는 남자겠거니 추측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위대리는 여직원들에게 꽃을 선물하기로 유명하다. 생일은 기본이고 화이트데이에는 여직원 한명 한명에게 꽃을 한 송이씩 선물할 정도.

"꽃이요? 잘 보이려고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받으면 그 친구가 몹시 기뻐하니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부서 회식 때 위대리가 '짠' 하고 나타났단다. 그것도 오렌지색 자켓을 입은 채. 일명 찬조출연이었다는데, 기대하지도 않은 깜짝 출연에다가 '밤무대 의상'을 능가하는 옷차림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통 때도 사람들이 입기 힘든 옷을 척척 소화해 내는 위대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보문고의 베스트드레서이기도 하다.

위성계 대리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정이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원들이 언제 입사했는지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정도는 줄줄이 꿰고 있다. 물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 위대리의 인기는 대단하다. 작년 위대리 생일 때는 받은 선물을 혼자 들고 가기 벅찰 정도여서 부인이 퇴근길에 원정(?)까지 왔다.

그런 그가 정작 자신의 일에 소홀하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의 행동이 입방앗감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대리의 인기는 대단하다. 작년 위대리 생일 때는 받은 선물을 혼자 들고 가기 벅찰 정도여서 부인이 퇴근길에 원정(?)까지 왔다.

위대리는 일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다. 그 원칙이란 바로 '자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일에 욕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자기 실력이 충만하면 저절로 친절해지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면 불친절해지거든요. 후배들이 단지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메신저가 되길 바라죠." 올해 4월부터 같이 일했다는 김형순씨(27세, 비소설코너)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듣고 나면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태했었구나' 하고 느껴요. 대리님부터가 열심이니까 진심 어린 충고로 들려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긴장하게 되죠."

사실 위대리가 홍보부에서 매장으로 옮겨왔을 때, 편만 굴렸던 사람이니 지시만 하고 일은 안 하겠거니 예상했었다. 그러나 위대리는 팔을 걷어붙인 채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창고에 들어온 책의 수를 세고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는 등 열심이었다. 고객들에 대한 친절 또한 남달라서 98년에는 교보문고의 북퀸(Book Queen)으로 뽑힐 정도였다. 남자사원으로는 위대리가 처음이었던 셈이다.

위대리는 농민신문사에 근무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다. 직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기만점일까 사뭇 궁금해져서 물었다. "집안일이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죠. 아내 말로는 6대 4정도로 분담하고 있다지만, 내 생각으로

는… 7대 3이 아닐까…. 누가요? (머리를 긁적이며) 3이 저죠. 더 노력해야겠죠?"

믿어주는 남자, 황승목 과장

영미를 보내며…
아쉬워말자. 우리가 함께 한 치열했던 시간들이
억울했더라도….
진지한 눈으로 밤새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10년 세월
새벽 공기 속으로 집을 향하면서도 못다한 일들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도 아쉬워말자.
…

-진정으로 진정으로 정년까지 함께 일하고 싶었던
동료를 보내며…

이 글은 황승목 과장(37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쟁력강화추진팀, 왼쪽 사진)이 작년 9월, 10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자기 충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여자 후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떠나던 날에는 같이 일하던 팀원들의 사진과 이 글을 함께 넣은 액자를 선물했다. 또 그는 부서를 옮길 때나 혹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도 후배직원에게 메일을 보낼 때면 한 편의 시를 덧붙인다.

에피소드 하나. 입사 2년차에 같이 일했었다는 최성연 대리(28세, 해외사업부)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황과장에게 결혼할 남자를 소개했다.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무뚝뚝하게 대하시는지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계속 "잘 해줘야 한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다.

그 날의 일에 대한 황과장의 답변은 이랬다. "생각 같아서는 축하해 줘야겠는데, 결혼해서 고생하면서 회사일 할 생각을 하니 막 화가 나더라구요." 그러면서 웃는다. "결혼하지 마라, 하려면 늦게 해라, 아이는 늦게 낳아라, 낳으려면 제발 하나만 낳아라"라는 여자후배를 위한 '4계명'을 평상시 여성후배들에게 세뇌(?)시킨다니 어

"결혼하지 마라,
하려면 늦게 해라,
아이는 늦게 낳아라,
낳으려면 제발 하나만 낳아라"라는
여자후배를 위한 '4계명'을
평상시 여성후배들에게
세뇌(?)시킨다.

찌면 당연한 상황이었겠다.

무엇보다도 황승목 과장의 직장선배로서의 매력은 '신뢰'이다. 여자라고 더 잘해주거나 쉬운 일을 주는 상사도 많지만 황과장은 일단 믿고 일을 맡긴다. 일이 어렵다싶어도 업무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황과장의 스타일이다. 삼성화재가 삼성의 다른 계열사에 비해 여직원이 많긴 하지만 대졸여성을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1993년의 일이라 여직원에게 과감히 일을 주는 상사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순비 대리(29세, 해외사업부)는 "남녀의 편견을 깬다는 것이 사실 힘들잖아요. 황과장님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을 '키워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일한다면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여후배들 칭찬에도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황과장은 옆에서 후배들이 칭찬할 때마다 연신 쑥스러워하며 안경을 벗고는 손으로 얼굴을 자꾸 쓸어내린다.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공부를 잘했어요. 가정에 있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여성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서 돼야 하는데…. 어서어서 (여자)후배들이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됐으면 합니다."

황과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시던, 가을엔 시를 읽어주고, 수업시간에는 열정적이었던 국어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래서일까? 후배들이 같이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자주 황과장을 찾아오는 이유가?

편견 없는 남자, 신동주 PD

강요되는 술자리에서 'NO'라고 말하는 사람, 대신 좋은 사람들과는 술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람,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수다떨 수 있는 사람, 잘못된 사회 통념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획일주의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자기 사는 문제에도 자질구레한 일상에도 고민이 깊고, 내린 결론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따뜻한 사람.

바로 '기독교방송의 니콜라스 케이지(외모가 정말 비슷하다)' 신동주 PD(34세, 기독교방송 편성제작국)를 두고 하는 말들. 신PD에 대해 말해주기로 한 여자동료들이 정해진 방송시간 때문에 짬짬이 와서 한 마디씩 하고 간 말들이 거의 비슷했다. 아니 똑같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즉 신PD는 사람을 대할 때 '남자'다, '여자'다 하는 편견이 전혀 없단다. 아니, 상대를 '사람' 그 자체로 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선 남자, 여자 가르는 것도 우스워진단다.

김용신씨(27세, 아나운서)에 따르면 "여자인 우리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 나도 아직은 사회의 통념에서 제대로 못 벗어났구나' 깨닫게 되죠." 이런 탓에 신PD와 친해지는 데는 일반남자들과 친해지기 위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 잘 가고, 2차, 3차를 거쳐 노래방까지 따라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또 하나, 신PD와는 자유롭게 '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와 나누는 성이나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칙칙하다거나 끈적끈적하지 않다. 여자친구보다도 더 편하게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장주희씨(30세, 아나운서). "나를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놀린다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성을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거 같아요."

신PD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뒤집어 생각하거나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는 게 많다.
특히 뒤처진 사람, 소외된 이들과
함께 가는 기획을 주로 한다.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보다는
그 일의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지 물어본다.

성에 관련해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 신PD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연극 〈생과부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연극평론가와 아나운서가 즐겁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모처럼만에 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는 흡족했는데 모니터 평가에서는 '성을 너무 경박하게 다루고,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신PD. "성은 원래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진지한 신음' 도 있습니까?"

신PD답게 프로그램도 시청률을 의식하기보다는 뒤집어 생각하거나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는 게 많다. 특히 뒤처진 사람, 소외된 이들과 함께 가는 기획을 주로 한다.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보다는 그 일의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지 물어본다. 이런 그의 '인생관' 이 좋아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때 즐겁다고 여자동료들은 말한다.

신PD가 신나게 말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 실린 해프닝 성의 사건이었다. 여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미국 여자축구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그녀들을 위로하는 남자들이 보내졌단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자주장에게 물어봤더니 그녀 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협기왕성한 여자거든요." 신PD가 덧붙인다. "통쾌하지 않나요? 전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들. '여자도 남자와 똑같다' 라는 말이요."

아이 돌보는 남자, 이상민씨

여기서는 한 아이가 울고, 저기서는 아이 둘이 장난감을 갖고 싸운다. 얌전하게 잘 노는 아이가 있는 반면, 선생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도 있다. 이곳은 성북구 돈암동 소재의 〈우리 어린이집〉. 그곳을 들어서면 한 청년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이고 아이와 놀아주기, 씻기기와 치우기가 예사솜씨가 아니다. 바로 이상민씨(25세, 국민대 전자공학과 3학년).

이상민씨는 학과 동아리인 〈동그라미〉의 회원이다. 〈동그라미〉는 '공동육아' 의 기치 아래 모인 자원봉사 모임이다. 남학생들이 다수인 공대 전자공학과에서 아이들이 좋아서 동아리를 만드는 일도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주로 하는 일은 어린이집, 탁아소 등에서 설거지,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하거나, 야외학습이나 캠프에서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일이다. 가끔 '탁할' 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짠 후 일일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들어보니 상민씨는 선생님에게도 싹싹하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진심으로 잘 논단다. 〈동그라미〉의 한 후배는 "애들이랑 정신 연령이 같아요. 놀 때보면 오히려 형이 더 시끄럽다니까요" 라고 말한다.

상민씨에게 아이들과 노는 일은 봉사가 아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그저 좋단다.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사실 애꿎은 아이들만 혼났어요. 애들을 비행기 태우는 걸로 놀았거든요. 위험하지 않냐구요? 정말 한 번도 안 떨어뜨렸어요." 아이들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도 한껏 높아지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민씨. "작년 여름에 아이들과 '농사학교' 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절 처음 봤는데도 잘 따라줘서 얼마나 기뻤는데요. 아이들이랑 감자, 배추, 무 등을 수확해서 부모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동그라미〉의 여자후배인 이소영씨(20세, 전자공학과 1학년)는 상민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선배의 장점이랄까 매력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 때는 아이들하고,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우리들이랑요. 나이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사소한 것에도 신경 잘 쓰고, 생각 자체가 막힌 게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후배보다도 더 후배 같다는 상민씨. 그의 별명은 주영훈이다.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돈이 생기면 뜻맞는 사람들과 근사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공동투자를 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상민씨는 두 아들 중에 막내다. 딸이 없어 못내 서운하신 어머니가 "이럴 때 딸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잘 하냐구요? 설거지도 이따금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아, 자랑할 만한 거, 내 방 청소는 꼭 내가 해요". IF

글 김보미/ 사진 엄을순

"이상민 선배의 장점이랄까
매력은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 때는 아이들하고,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후배들이랑요.
나이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최영미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홍대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꿈의 페달을 밟고』,
기행산문집 『시대의 우울—최영미의 유럽일기』(청비),
번역서 『화가의 잔인한 손—프란시스 베이컨』(강),
『그리스 신화』(시공사)를 출간했다.

처음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난 내가 이 주제에 관해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곰곰 곱씹어보니, 그만 자신이 없어졌다.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의 '여자' 는 남자를 향해 있다. 즉, 이 질문을 하는 상대로서 남자를 상정해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남자들에게 그 동안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남자들에게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정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건대 내 인생에서 남자를 (이성의 상대로서) 포기한 지 꽤 되었고, 거기에 관해 그다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약속한 지면을 메울 것인가? 독자들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보겠다.

시를 써서 소위 공인이 된 뒤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의 하나가 "왜 결혼 안 하세요?" 였다. 처음에는 뭔가 주섬주섬 더듬거리며 답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자 나도 요령이 생겼다. 요즘에도 이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냥 아무말도 안 하고 웃던가, 혹은 "결혼했는데… 모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해버린다. 차라리 그게 편하다. 한국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적기 때문이다. 내 인생과 별 관계가 없는 타인들에게 내가 정말로 혼자 사는 이유를 말한다 해도 그들이 날 이해할까?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그것도 독신으로 늙는다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다. 흔히들 추측하듯, 외로워서라기보다 가족중심으로 편성된 사회에서 살며 알게 모르게 받는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내가 이 사회에서, 문단에서,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톨이라고 '왕따'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긴다.

그렇다고 독신의 언니들이 모두 결혼하고 싶어 환장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남자들이 제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여자들은 모두 그렇고 그런 여자라고, 그것밖에 모른다고 착각—단정하고 있는 한국의 오빠들은 얼마나 멍청하고 단세포적인지. 한 여자를 만족시킬 줄도 모르면서 열 여자 감당하겠다고 호시탐탐 '다른' 여자와 바람필 궁리만 하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결코 '내 여자' 가 무얼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아니, 차라리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묻는 게 낫겠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역사적 거세과정을 거쳐서, 내 머리와 가슴엔 이런 본질적인 물음과 회의가 애당초 입력되어 있지 않다.

아주 오랫동안 여자들은 남자들이 원하는 것을 원해왔다. 그녀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의 그늘에서 희생하며 순종하는 댓가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알더라도 이를 발설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감히 주장할라치면, 남성지배사회의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다. 지금도 아랍의 일부 회교국가에서는 부모가 짝짓기 해준 남자를 거부하면 남동생들이 자기 누이를 죽이는 관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봉건적,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여성들이 어느 정도 해방됐다는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을 남자의 그것에 맞춘다. 직업선택에서부터 하다못해 유행하는 립스틱 색깔에 이르기까지, 이런 '순응' 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남자들에 의해 흔히 여자들의 특권(?)이라고, 가벼운 비아냥거림과 동시에 찬양받는 특성인 '변덕스러움' 도 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어머니와 함께 유럽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무얼 먹느냐가 우리 모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변덕이 죽 끓는' 나는 끼니마다 다른 걸 먹고 싶었다. "어머니,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물을 때마다 어머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늘 같은 대답을 하셨다. "아무거나 네가 먹는 것 먹지." 아, 불쌍한 우리들의 어머니여, 대대로 봉사와 희생의 삶을 강요당한 끝에 우리 어머니들은 입맛도 남편과 자식에게 맞춰진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몸에 밴 순응, 완강하기까지 한 수동적 태도에 나는 때로 짜증을 내기도 했었다. 지금 우리 어머닌 미국에서 어린 손자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다.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며 난 늘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이젠 제발 어머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사세요."

하지만 난 안다. 어머니가 끝내 남편과 자식, 그리고 손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란 것을.

내 경우 내가 진정으로 무얼 원하는지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몸을 여러 번 추스린 뒤에야 비로소 내가 뭘 원하는지 조금 알겠고, 그걸 몇 자 끄적일 수도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지금 내가 무얼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위 각성한 여자들이 처한 불행한 상태가 아닐는지.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우즈강에 몸을 던졌고, 바흐만(Ingeborg Bachmann: 1926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시인. 1973년 로마의 한 호텔에서 불에 타죽은 시체로 발견됨)은 로마의 호텔에서 담뱃불을 당겼을지도….

나도 때론 '착한꽃'이 되고 싶다

김소희

월간 『말』 기자.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96년부터 진보적 시사종합지 월간 『말』 사회문화팀 기자로 뛰고 있다. 자신이 『말』 취재부의 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가끔 신경질이 나면 국장이고 동료고 가릴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는 통에 '성질 나쁜 꽃'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달게 받는다.

오늘도 그는 무척 배가 고팠나 보다. 식당에 우르르 몰려가 자리를 잡고 앉자 아줌마는 주문도 하기 전에 꼬막, 계란찜, 콩나물 등 몇 가지 반찬들을 우선 차려줬다.

그는 수저통에서 수저 한 쌍을 꺼내더니 유유히 반찬을 집어먹는다. 순간 나는 민망해서 재빨리 다른 사람 몫의 수저를 챙겨준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남자라서 그래. 아무리 돼먹지 않은 여자라도 저러지는 않아.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지가 좀 빨리빨리 수저 놓고 그러면 안되나. 어째 저렇게 둔하고 무디지?'

차마 내가 좋아하는 그를 미워할 수는 없어서 그 옆에서 멀뚱히(아마도 기사 생각에 빠져 있을 테지만) 앉아 있는 다른 동료에게 맘속으로 화풀이를 한다. 그리고 신경질이 나서 밥을 잔뜩 먹는다.

나는 월간 『말』 편집국 취재부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꽃이다. 으하하. 취재부에 인원 변동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나는 유일한 여자다. 나이로도 막내다. 나보다 늦게 입사한 동료가 네 명이지만 다들 나이가 많다. 이렇듯 안팎으로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지에서 일하면서 음지만 쳐다본다.' 종종 성질 나쁘고 표독스런 꽃이 되는 것이다.

강조컨대 아주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다. 그 사소한 순간이 진짜로 너무 사소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차라리 동료들과 그럴듯한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거나 사무를 벌이는 것이라면 이토록 신경 뉴런이 뻗치지는 않을 것이다.

때르르릉. 한창 정신없이 마감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린다. 뒤늦은 기획청탁이나 제보일 경우가 많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오늘, 내일 초치기 하는 순간엔 사실상 성가신 일. 대부분 받는 사람이 처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성관련' 전화면 옆에 아홉은 받는 사람이 한숨 돌린 표정으로 여성담당 바꿔주겠다며 나에게 전화를 돌려준다(난 맹세코 남성담당이다. 나는 잠도 남자랑 자는 게 좋고, 데이트도 남자랑 하는 걸 즐기고, 신랑도 남자다). 마감 때 다른 잡무를 처리하고 전화를 받을 수는 있어도 여성담당 찾는 전화만큼은 여자인 당신의 몫이라는 퀸가르기, 혹은 비겁함.

다음 장면은 밤 10시 전후, 간식타임이다. 사과나 귤 등 하나씩 먹는 과일이 제철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포도나 수박 등이 잘 팔리는 계절이면 난 정녕 슬프다. 수박을 자르면 끄트머리는 맛이 없고 가운데 부분은 맛있다. 포도도 알이 굵고 검은 게 맛있다. 헌데 여럿이 먹을 때 꼭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 이들이 있다. 난 그 순간도 이렇게 생각한다. '여자들은 안 그래. 저렇게 맛난 구석만 골라 먹지도 않고, 씨를 아무 데나 뱉지도 않아. 이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야. 정말 여자들하고 같이 간식 먹고 싶어.'

다음은 주변정리 상황. 공동으로 쓰는 복사기나 출력기 주변이 지저분할 때, 회의실 테이블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치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들은 소수자다. 여자이거나 여성성을 지닌 남자들. 편집국의 경우 몇몇 빛나는 남자들이다.

다수의 남자동료들이 돌쇠로 보이는 순간은 대략 이런 때다. 그들은 남자, 나는 여자라는 '자각'에 나의 돌쇠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 물론 내 과민반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도 반복되면 그건 진실이다. 고의가 없고 지나친 피해의식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은 우여곡절 끝에 남자취재원과 전화로 대판 싸운 적이 있었다. 마감 때 고성이 오가는 것은 그리 드문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 나를 참 아프게 한 사건은 그 다음이었다. 다들 내 눈치를 슬슬 보더니 나를 피했다. 필경 내가 전화를 끊으며 몇 마디의 육두문자를 내뱉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나와 책상을 붙이고 있는 옆짝, 앞짝에게 연유를 설명했다. 헌데 다들 몸을 사리며 이렇게 말한다. 덜된 남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다 당신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냐는 둥. 나는 이 대목에 이르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내가 남자라도 그럴까.

가끔 반말하는 택시기사와 싸우고 들어왔을 때, 불심검문 하려는 전경들하고 삿대질하다 왔을 때, 혹은 정신병력 있는 취재원을 만나 입씨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똑같다. 내가 남녀의 구획을 나누지 않는 주제나 사연을 떠들면 맞장구치면서 재미나게 듣다가도 남녀차별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눈에 띄게 긴장들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회사에 들어오면 밖의 이야기를 안 한다. 열불나는 일을 말해 봤자 듣는 남자들은 되려 나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다 신경쇠약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한다. 한동안 마감 때마다 나를 사로잡던 '화두'는 우습게도 이런 것이다. '왜 국장은 나에게는 화를 안 낼까. 국장이 유능한 나를 높이 샀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그럴까.'

결국 핵심은 음양의 조화이다. 나는 '여자'에 목말라 있다. 아니 '여자'라기보다는 '여성성', '인간성'에 목말라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여자들 중에도 무례한 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일터에 여자동료가 없다 보니, 간혹 밖에서 여자를 만나면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마감 때마다 소소한 일에 쌩 소리 날 만큼 남자 탓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부디 동료들이여, 단 한 번이라도 편집국 취재부의 음양 조화를 중요시 여겨본 적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과업에 맞는 전천후 품성을 지녀야겠다는 각오는 안 해보는가. 혹은 스스로 진보를 내세우면서도 여성관련 기획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본 적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온덕' 혹은 '음덕'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다. 그건 외롭고 고독한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다. 두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마감 때마다 동료들이 '돌쇠'로 보이는데 내가

어찌 '공주'가 되겠는가. 성질 나쁜 부업대기가 될 뿐이지.

앞서 이야기한 '숟가락맨'. 그는 유능하고 훌륭한 선배이자 '핸섬가이'이기까지 하다. 진심이다. 헌데 나는 그에게서도 우리 나라 30대 중후반의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남성'을 본다. 일에서는 박력있고 꼼꼼하고 유능한 그가 왜왜왜 자기 수저만 챙기는지, 회식 자리에서 각자 책임과 역할이 다른 업무국 직원들을 '아가씨들'로 통칭하는지, 듣는 여자들이 발끈해도 반성은커녕 이해조차 못하는지 말이다.

지금까지 거듭된 용어 사용으로 짐작했겠지만 일상에서 '무지'와 '둔함'의 업보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남자를 나는 '돌쇠'라 부른다. 잠시잠깐이라도 성찰하지 않고 몸에 익은 습관대로 그냥 돌진해 버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가 '돌쇠'로 보일 때 나의 신경 뉴런은 무한 공간으로 확장한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쿨한 태도를 갖고 딱히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 그건 때론 미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역사의 어두운 관습에 의한 것이고 특정 성이 특정 성에게 일방적으로 저질러온 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문제다. 이 시대 진보를 표방하는 대표 매체의 구성원이 소소한 습관이나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젖어들어 있다면 더 심각하다. 나는 자꾸 성질이 나빠지는 것 같다. 이 소녀, 부디 돌쇠 아닌 왕자와 일하고 싶다.

IF 독자들과 함께 '씹고' 싶은 네가지 유형의 ××들

-취재원에게 겪은 성희롱 유형

시사월간지 기자는 고정 출입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히 관리하는 분야별 취재원들 외에는 그 달 그 달 기획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나 평소에 친분이 있건 없건, 고급 정보를 가진 자건, 아니건 도처에서 맞닥뜨리는 '××'들이 있다. 정보를 핑계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여기자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아들이다. 지금 고백하는 네 가지 경우는 내가 불쾌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던 실제 사례다. 출입처를 갖고 있는 일간지의 기자들에 비해서 나는 술자리 광행에 덜 노출되어 있고, 『말』 기자라는 타이틀이 어느 정도 '꼰제의 ××'들로부터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여기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고 활발하게 논의해 다른 비슷비슷한 ××들을 직·간접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노출형

서울지검 박아무개 검사. 98년초 한 살인사건을 취재하느라 두 차례 만났던 박검사는 그 후 틈만 나면 나에게 삐삐를 쳤다. 처음 박검사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한 마리 학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전혀 학처럼 생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박검사가 말끝마다 온갖 찬사를 늘어놓는 통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삐삐를 받아 전화를 하면 시사를 핑계한 자신의 신변잡기를 늘어놓기 일쑤였다. 한 번은 원일인지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무게 잡으며 꼭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정보는커녕 자기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갖는 저녁 술자리에 동행하자고 제안했다. 난 바쁘다고 돌아왔다. 그 후로도 그는 몇 달간 토요일마다 삐삐를 쳐댔다.

2. 완전한 강아지 부뚜막형

재벌기업 ㅇㅇ사. 97년초 우리 나라 유일의 무노조 재벌기업을 취재할 때 유력한 취재원이었던 그와 두 차례 만났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그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태워다주마 했다. 호의로 여기고 차에 탔는데 차안에서 내 손을 잡았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느라 잠시 망설인 후 손을 빼고 정중히 항의했다. 그런데 잠시후 그가 다시 손을 잡았다. 나는 결국 정색을 하고 그에게 따진 후 차에서 내렸다.

3. 설상가상형

무역진영의 대표자 오아무개 변호사. 97년 봄, 한국통신과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사이에 있었던 명예훼손 소송 건을 취재하느라 만났던 그는 말끝마다 나를 미스김이라고 불렀다. 내가 몇 차례 김기자로 불러달라 요구해도 그는 끝내 그 호칭을 버리지 않았다. 미스김이 매력적이니까 이야기해 준다는 등, 문제 있는 잡지 『말』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냐는 등, 말끝마다 매력이 어떠니, 분위기가 어떠니, 인터뷰 주제와는 상관없는 말을 들먹이며 노추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였다.

4. 무대포형

전 민주노총 간부 이아무개씨. 성희롱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97년초 민주노총 관련 취재를 하고 나서 그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는 노동법안 날치기 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울 때였다. 2차까지 마친 후 그는 막무가내로 3차를 가자고 우겼다. 술집이 싫으면 여관에 가서 방을 잡아놓고 마시자고 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러냐며 "동지적 관계로 생각했는데 실망"이라고 화를 냈다. 몇 달 후 다시 그를 만날 일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또 제버릇을 못 버리고 2차, 3차를 가자고 했다. 심지어 나에게 '잠을 자자'는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 나는 그후 그와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 믿는 도끼 더 조심하시라. IF

내과의사들은 머리 아플 때 어떤 두통약을 복용할까?

문화일보와 한국갤럽은 최근 삼성의료원, 서울 중앙병원, 서울대병원 등 9개 대형 종합병원 내과 레지던트 및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두통약의 복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86%의 의사들이 타이레놀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이유로는 '부작용이 적어서'가 46%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좋아서'가 15%, '안전해서'가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약사를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도 타이레놀은 41%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내과의사 조사 결과로 의·약계 전문가들이 모두 타이레놀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 두통약 중 유일하게 카페인이 없고, 비피린계 아세트 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 제조되어 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기타 약물과도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두통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타이레놀 복용이유(표)

너도 내가 무섭니?

이유원주

고려대 2학년. 『석순』 편집위원.

장면 하나.

얼마 전, 군대간 선배가 첫 휴가를 나왔다. 그 선배의 평소 인간관계가 썩 좋았던지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두번째 술자리가 파하고 자리를 뜰 무렵, 과 후배가 옷깃을 잡아끌었다.

"언니, 얘 모르죠? 인사해요. 너 이 언니 모르지? 인사해."

사람 많은 술자리 특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정신없어 하다 황망하게 뒤돌아서니 아까 내 자리 반대편의 구석에서 연신 소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던 베이지색 야구모자가 눈에 들어온다. 인사하라는 후배의 독촉에 고개를 꾸벅, 자기를 소개하는 그 녀석.

"안녕하세요. 공대 99학번 ×××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과 98학번 이현주라고 합니다."

술기운 탓인지 분위기 탓인지 후배는 선배에 대해 신이 난 듯 한 마디 덧붙였다.

"이 언니 석순이야. 멋있지?"

순간, 그녀석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어라? 이유는 안 물어봐도 뻔하다. 내 소속이 네 맘에 안 든다 이거지? 괘씸한 녀석 같으니.

"왜요? 내가 무서워요?"

짐짓 생글거리며 물어보는 나. 내 질문이 끝나도 아까 구겨진 표정 그대로를 유지하는 걸 보니 이번엔 좀 심각한 걸.

"…좀 그렇네요."

그렇다니? 내가 무섭단 말에 동의한다는 거야, 아님 너무 존경스러워서 안면근육이 통제불능일 지경이라는 거야? 무안해진 후배의 표정이 보인다. 내 눈치를 보며 그 녀석을 가볍게 한 대 툭 친다. 무안한 표정 그대로 입으로만 웃으면서.

"왜~ 뭐~야!"

그래, 이게 뭐 하루이틀이냐. 이럴 땐 중간에 있는 내가 제일 당황스러운 법이지. 날 멋있다고 해준 사랑스러운 후배야, 놀라지 말거라. 살다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냥, 공대에서는 여위나 석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위는 우리 학교 여학생위원회의 줄임말, 석순은 우리 학교 여성학 교지. 둘 다 우리 학교 일부 남학생들에게 악명(!)을 떨치는 존재들이다. 뭐, 그게 호랑이와 곶감의 관계에 가까운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에 가까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 이 녀석아, 나도 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좀 그렇네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휙, 돌아서서 무리 속에 파묻히는 녀석. 슬픈 일이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처녀를 무서워하다니! 그런데 무서워하는 표정은 전혀 아닌 걸? 그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무고한 공대생들이 '단무지'가 되는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다니. 말 좀 제대로 하고 살거라. '안 좋아하는' 주체가 공대생들인지 아님 너인지, 왜 온근슬쩍 네 말 한 마디로 나머지 공대생들을 너랑 같은 종류로 분류하게 만드니? 쯧쯧, 내 말을 끝까지 들을 수도 없었나보지? 얼른 어린애가 엄마 치마 잡듯이 네 무리 속에 파묻혀서 모르는 척하는 꼴이라니. 불쌍한 녀석.

장면 둘.

몇 안 되는 우리 학교 여성학 수업시간.

앞에서는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고, 내 뒤에선 두 명의 남학우들이 때이른 강의평가에 바쁘다.

"말도 안돼. 여자가 어디서 맥맥거려?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게. 내가 여자면 남편이 해주는 대로 편하게 살겠다."

"하긴 저 선생님 남편은 그러고 싶지도 않겠다. 맨날 저런 소리만 할 텐데. 집에서는 밥도 안 할 거야.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시집은 갔을까? 혹시 소박맞은 거 아닐까?"

"이 수업 듣는 여자애들 다 참…."

이런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내 옆의 여학우가 뒤로 휙 돈다.

"도대체 이 수업 왜 들어요?"

잠시 무안해진 녀석들. 그중의 좀더 말 많은 한 명이 히죽 웃는다.

"재밌잖아요."

뜨아아~ 내 옆의 여학우와 나, 둘 다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래, 넌 수업도 '까대는' 재미로 듣는 녀석이니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살아라. 내가 저주를 내리노니. 에휴, 남자들이란 하여간 입만 살아서 말이야….

하긴 그 녀석들이 어디 처음부터 그러기야 했을까. 우리 학교의 남성중심성이, 크게는 이 사회의 가부장성이 다시 한 번 재생산에 성공한 수많은 사례 중 내 눈에 도드라진 몇 개에 불과할 텐데. 아마 어려서는 울기라도 하면 나오던 눈물도 순식간에 마르도록 혼이 났을 터이고, 이 땅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의 자격조건과 여자들의 하찮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들었을 것이며, 페미니스트라는 여자들의 발칙함도 그 여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리쯤으로 생각될 정도로 부지런히 들어왔을 테니까. 더군다나 남성중심적 악습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면면히 전해오는 악조건 속에서 양성의 조화라는 미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는 힘들었겠지.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남자는 하늘'이란 말과 동가는 아닌데, 여자들에 대한 비하가 곧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월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버린다면 훨씬 자유로워질 텐데, 최소한 지금보다 덜 유치해질 텐데.

날 화나게 했던 그 발칙한 녀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그래도 내가 무섭니?

여자와 남자는 적敵인가?

신정원

만화가. 1970년생
월간만화잡지 『오즈』에
「직장의 꽃」, 「세쌍둥이네의 비밀」
등을 소개했다.

내 만화를 본 남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분 나쁘다. 꼭 이런 만화를 그려야 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여자가 남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아느냐"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자면 내 작품 중의 많은 부분들이, 강자로 설정된 남자들이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잔혹한 보복을 당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전자의 남자들은 그 결과의 잔혹함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후자의 남자들은 남자들이 갖는 근본적인 우월감 등을 잘 이해하는 것에 놀라는 것이다.

아마도 내가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 잘 아는 이유는 만화가가 되기 전까지 했던 4년 동안의 회사생활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보자.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똑똑한 여자와 함께 살아가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직장이라는 사회에서 보면 여자는 4종류가 있다.

1. 정말 똑똑한 여자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
2. 정말 똑똑하지만 똑똑한 척 안 하고 겸손하게 사는 여자.
3. 머리에 든 거 하나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고 똑똑한 척하는 여자.
4. 사실 똑똑하지도 않고 똑똑한 척하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사는 여자.

이 네 부류 중에서 4번 사례는 여자동료나 남자동료 모두에게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문제도 없다(나는 모든 인간이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성격이 좋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3번은 여자동료나 남자동료 모두 싫어하는 인물, 한마디로 "재수없다"고 표현된다. 특히 이런 여성이 남자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논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싸우려고 들고, 또 그것이 마치 여성운동인 양 자랑스레 생각하지만—2번의 여성인 경우 주변의 남녀 동료들에게 모두 인기가 있다. 재밌는 것은 여자동료들은 그의 똑똑함과 더불어 그 겸손함을 높이 사는 데에 반해 남자동료들은 2를 4와 같은 인물로 치부해 버린다(물론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제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의 인물이다. 가치관이 뚜렷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자기주장이 강한 이 훌륭한 여성이 대한민국이라는 보수적인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어떨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남성의 태도를 한 번 보자.

A. 이 훌륭한 여성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 잘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남자.

B. 이 여성의 능력만은 인정하지만 그 여자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남자.

C. 이 여성을 3의 여성으로 매도하는 남자.

D. 이 여성을 4로 만들려는 남자.

이 네 부류 중에서 D는 기본적으로 남성은 우월하고 영원히 우월해야만 하며 여성은 열등하고 영원히 열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장 형편없는 부류로서 자신들의 열등함이 드러나 1로부터 멸시당할까봐 힘으로, 나이로, 남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권위로 1을 누른다. 능력있는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이외에는 시키지 않으며, 아내일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러한 웃기는 인간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C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치 않으며 머리는 텅빈 주제에 입으로만 잘난 척 떠드는 '재수 없는' 여자로 매도한다. 1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C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자니까 남자보다 못한 것이 당연한데 무슨 소리냐는 태도이다. 같은 팀에서 회의를 할 때, 남자들이 의견을 내면 암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여자가 의견을 내면 갑자기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는 직원이 있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회의란 것이 원래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B는 마치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여성에게 많은 일들을 맡긴다. 1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뻐하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입사한 동료남자들보다 진급이 늦다. 교육의 기회도 남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다가 인원감축의 순간이 오면 결국 잘리고 만다. B의 말은 언제나 한결같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자꾸 그만두니까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회사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그만둔 여직원보다, 애써 키워놔도 더 좋은 연봉을 찾아 딴 회사로 옮기는 남자사원이 더 많다.

A는 더 말할 것도 없이 1의 훌륭한 파트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적다. 학교나 친구집단에서 마치 A인 양 행동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해관계가 얽히는 회사 같은 사회에 들어오면 B나 C의 본성을 드러내고 만다.

남자와 여자는 과연 적인가? 왜들 바보같이 구는가? 군대갔다 입사한 남자 신입사원들의 경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선배를 맞았을 때 C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그는 여자선배가 가르쳐주는 것에 콧방귀를 뀌며 무시한다. 그 대가는? 함께 입사한 동료직원들이 회사일을 거의 배워갈 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 상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맡게 된다면? 그는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원으로 도태될 뿐이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 있는 남자직원이 유능한 여직원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정말로 남자와 여자는 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의 발전, 일에서 성공, 가정의 행복…, 그것을 위해 모든 남성들은 똑똑한 여자와 협력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마차의 바퀴이다. 그 한 바퀴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그 대답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적이 아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짓밟는 전쟁은 이제 제발 끝장내자.

어떻게 부러진 손가락에 새싹이 돋아나는가?

이하천

작가(장편소설 『조용히 쓸어라, 대지는 깊이 잠들지 않는다』, 『불타는 대지』).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출강. 동물과의 10년여에 걸친 한바탕 애정행각을 끝내고 요즈음은 들꽃과 싸우기 뽑아내는 연두빛 새싹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배우며 12월에 출간될 『세사를 거부하는 여자』의 마지막 손질과 '허균과 허난설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싹뚝,
물건이 없어져버리네!
안돼,
싹뚝, 싹뚝, 불알도 사라져버리고
안돼, 안돼, 안돼!
뎅정, 모가지가, 모가지가 날아가!
철거덕! 철거덕! 어허 두 다리마저 뭉땅 잘려져버리고
뒷수정 가죽조끼 방성구 물리쇠워 청태가 시퍼런 독감방에
안도놈을 사정없이 가둬버리는구나.
철커덩, 자물쇠 채우는 소리.
찌렁찌렁찌렁찌렁, 옥사에 멀리멀리 울려퍼져나갈 적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허, 이것이 웬짓이냐! 이것이 웬짓이냐!
헐벗고 굶주리고, 죽도록 일했는데
매맞고 억눌려도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쉬지도 놀지도 잠들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웬짓이야! 내가 무슨 죽을 죄라 이리도 벌이 모질드란 말이냐!
날아가는 기러기야 너는 내 속을 다 알리라.
...
이리 울며 안도 놈이 노래를 불러보나 머리가 없고 보니
눈물이 나겠느냐 소리가 나겠느냐. 눈물도 소리도 없이
그저 속으로만 새빨간 피울음을 밤마다 울어대며 안돼,
안돼, 안돼!
굴려! 몸통을 굴려! 부닥뜨린다, 안도놈이, 메그르르
벽에다가 쿵! 다시 또다시 메그르르
벽에다가 쿵!
...

이것은 김지하의 시 「소리내력」의 한 대목이다. 이 판소리는 나의 내부 어딘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이 글의 주제와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판소리에서 나는, 조금만 주체적으로 움직이려면 사정없이 철퇴가 내려진,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내면 속에 사지가 잘린 채 떠돌아다니는 여성성의 실체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20대 초반에 한국을 떠나 30대 후반에 귀국했고, 같은 또래의 남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결혼도 스승과 했다. 그러니 말은 많이 들었어도 경험부족으로 한국남성을 잘 모른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세 명의 남성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 세 남성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 경험을 한 후로는 한국남성들을 대할 때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되었다.

첫번째는 40대 초반의 남성작가였다. 이 남성은 이상하게 나만 만나면 시종일관 여자와의 섹스에 대한 얘기를 했다. 나는 그와의 나이 차이도 있고 섹스에 대한 대화에 그다지 익숙하지도 또 재미있지도 않기에 대화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선 강아지와 같은 표정을 하며 두 눈을 우멍하게 떴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섹스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나는 이 남성이 과연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러졌는가 의심했다. 나는 그를 나에게 소개시킨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지요? 그러자 그 친구의 말이 더 이상했다. "선생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한 방식 아닐까요?"

두번째 남성은 40대 중반의 철학교수였다. 이 남성은 나를 만나자마자 꼭 뭐 꼴린 뭐처럼 허둥거리고 안절부절하며 내 모습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내 나이가 돼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장면은 조금은 딱하고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재미있기도 하다. 젊을 때 같으면 그런 말들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의 이상한 표정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서 그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불행하게도 나에게는 영혼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나는 흥미롭게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지요?" 그는 몹시도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내면에서 발견한 것은 사지가 잘린 '안도란 놈'의 형체로 불안하게 쿵쿵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여성성이었다. 그도 역시 여자를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는 성장과정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세번째 남성은 40대 후반의 화가였다. 나는 사실 이 남성의 수려한 모습에 놀랐다. 나이도 나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남성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나만 보면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해댔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심기가 불편했다. 나는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패배적인 언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살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정서는 어머니 앞에서나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세 명의 남성을 거치면서 기절할 듯 깜짝 놀랐다. 마치 버얼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무심코 잡았을 때처럼 후다닥 손을 떼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첫번째 남성과는 문학얘기 즉 한국에서 문학을 한다는 의미를 나누고 싶었다. 두번째 남성과는 철학에 대해서, 세번째 남성과는 예술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 다음에야 개인적으로 막연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들은 과연 내가 혼을 가진 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종종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노했고 드디어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땅의 남성들은 여성성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 자신 속의 여성성과도 깊은 불협화음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길러졌다는 말이다.

육체와 영혼이 서로 화해하며 살 수 없는 이 땅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결론이다. 우선 어머니들이 잘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바로 '효도'라는 개념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효를 강조하는 사회풍토 위에 던져진다. 그리고 그 논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족과 아들이라는 든든한 언어의 울타리를 친 것이다. 여성성과의 화해는 이슈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란 착각까지도 한다.

여성성은 수시로 비하되어 왔고 그들 스스로도 여성적인 것은 가치가 낮은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주체성이 강한 여성을 만나면 그토록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이도령들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의 심리 저 깊은 곳에는 아직도 춘향이에 대한 동경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사실 이 문제를 지나간 10년 동안 추적해 왔다. 나의 화두는 과연 어떻게 서로에게 해방된 만남이 될 수 있는가였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결론이었다. 왜냐하면 내 살아 생전에는 이룰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간과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의 저변에 두꺼운 비계층으로 버티고 있는 기형적 남성성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빛나는 여성성을 채워넣기 위해서 적어도 앞으로 한 세기는 더 싸워야 할 것이다. 불행한 역사를 우리의 귀여운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말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도 당당한 어른들이 있었다는 자존심을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끈질기게 바톤을 이어받으며 뛰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세 명의 남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기형적 바람(춘향이거나 어머니이기를 바라는)에 맞장구를 치며 그 관계를 계속하기에 나는 이미 너무도 밝은 인식의 세계로 나와 있고 또 참을성도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도 '가부장적 언어의 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가부장적 언어의 틀은 우리의 내면 속에 풍부한 상상력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 영양분인 공정한 언어의 도입을 마구 휘저어버렸다. 우리는 아직도 결혼과 동시에 남의 자식을 내 집에 들어온 소유물로 인식하도록 사기를 치는 법제도와 어른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족쇄를 풀도록 언어를 생산해 내야 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열린다고 떠들석하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둡고 천박한 현실만이 더 많은 구린내를 풍기며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내가 보건대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고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쿵쿵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사지가 잘린 안도란 놈의 육체를 복원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이것은 격렬한 언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사회는 가짜가 판을 치며 살도록 형성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진짜가 이길 것이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이 땅의 여성들도 남자와 남자의 의식을 틀어잡고 있는 그들 가족들과 해방된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남성들도 여성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가를 배울 것이란 생각을 이 세 남성을 만나면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요즈음은 품잡는 한국남성들을 보면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따, 이놈들아, 그 의식 가지고 학문을 해본들, 예술을 해본들, 사랑을 해본들, 섹스를 해본들 결국 가짜밖에 더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정말 육체와 영혼이 일치된 진정한 권위를 가진 한국남성을 만나고 싶다. IF

〈전면광고〉

건강칼럼

빈틈없는 부부사랑을 유지하는 지혜
전기자극치료로 골반근육 이완 해결

칠없던 시절, '이쁜이 수술'이란 말을 처음 듣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아아' 하며 그 뜻을 알아차렸지만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기로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였을 듯하다.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그 이름 예쁜 수술의 끔찍한 아픔. 그 아픔을 감내하는 여자들의 속사정이야 또 얼마나 복잡미묘했을까.

온 가족들에게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안겨다준 출산. 그러나 그 주체인 주부들은 그 뒤에 오는 각종 여성질환에 시달려야 하며, 출산후 달라진 모습에 자신감마저 상실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주라는 산욕기 동안 자궁을 제 위치로 가게 해야 하고 이완된 질근육을 제자리로 보내야 한다. 산모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산모들은 자기 몸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채 육아라는 험난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산후 늘어진 골반근육이 회복되지 못하면 여성의 건강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주게 되며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성기능장애와 요실금을 들 수 있다.

느슨해진 질 근육에 대해 병원에서 흔히 하는 처방으로 케겔 운동법과 이쁜이 수술이 있다. 케겔 운동법은 아무리 잘 설명하고 학습해도 환자의 반 이상이 스스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소위 이쁜이 수술은 질구는 좁혀주지만 속의 밀착감과 신비의 주름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혼에 있어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성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은 심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후 반갑지 않은 불감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성기능장애는 근육이 들어지고 신경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증세이다.

성교통과 성욕장애는 거의 동반해서 오는 일이 많다. 비정상적인 수축과 애액이 분비되지 않아 겪게 되는 성교통은 흐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여성 자신뿐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고통을 주며 부부생활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골반부의 울혈을 가져와 건강까지 해치는 일도 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을 괴롭히는 요실금도 출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도를 지지해 주던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제 각도를 잃어 소변이 흐르게 되는 것. 해결책으로는 약물요법, 수술요법, 골반근육 운동법, 전기자극치료법 등이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지책은 사전예방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비뇨기과에서는 요실금을 '사회적 암'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재채기, 큰웃음, 줄넘기, 등산 등을 할 때 갑자기 소변이 흘러 속옷을 적시게 되는 요실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암적인 질병이라는 것.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염, 방광염 등도 출산후의 골반근육 이완과 관련이 크다.

이처럼 출산후 여성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을 벗어나는 해결책은 전기자극치료법이다. 그 치료율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를 받은 많은 여성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기자극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법은 수동적 수축과 이완으로 반복운동을 시행함으로써 골반근육을 교육시켜 질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신진대사의 활성화, 세포활성화를 통한 재생력과 면역력을 키워준다.

전기자극치료를 하루 30분 정도씩 약 4-6주 정도 하면 이제껏 몰랐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출산후 10주부터 사용하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치료성적이 좋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전기자극치료법은 여성 질환과 부부 사이의 고민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사랑의 해결사이다.

(글: 김희자 (주)닥터스 상담실장 / 도움말: 정태준 의학박사)

Dr. Gyno 101

문의

02-3445-6859

http://www.doctorsk.co.kr

그 여자를 존경할 만큼 사랑한다

황철훈(39세, 염광여중 교사)

우리는 이제까지 남편과의 대화에 성공한 '사랑받는 아내'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프는 거꾸로 아내에게 사랑받게 된 남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황철훈(염광여중 교사)
- 이경형(대한매일 편집국장)
- 전지홍(신경정신과 전문의)
- 손승호(시민의 신문 부사장)
- 박형철(디넥 소프모어 코리아 사장)
- 최수종(방송인)

난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싫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할 거라는 내 생각과 달리 아내는 너무나 당당했다. 칠팔 년간 일 때문에 내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반박할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이해하며 참았던 아내는 이제 자신이 똑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아예 벽창호 취급했다.

아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고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극단적인 의처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눈을 감으면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아내의 몸에서 다른 남자의 체취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의심은 나중에는 극단적인 걱정으로 이어져 인신매매나 강간을 당하는 아내의 영상이 떠올라 12시가 넘으면 아파트 입구에 나가 아내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장시간의 기다림 끝에 아내가 모습을 보일 때는 안도감과 함께 짜증이 밀려와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술에 취한 아내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기 일쑤였다.

언젠가는 싸움 끝에 이혼을 입에 올리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제 정신이 아닌 채 텅 빈 도로를 미친 듯이 달리기도 했었다.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럴 텐데, 이 여자는 왜 이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내에 대한 이런 의심은 아내의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끝나게 되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대부분의 경우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정할 때, 아내의 입장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내가 바빠지면서 갖게 된 또 다른 불만은 아침밥 문제였다. 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싶었다. "여보! 늦겠어, 빨리 일어나"라는 아내의 채근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찌개나 국이 놓여진 아침 밥상을 받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결국 내가 원한 것은 아내의 말처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던 셈이다. 내 손으로 내 아침밥을 챙겨먹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내가 넌지시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얘기하면 아내는 당장 "당신은 내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언제 한 번 맘 써본 적이 있느냐"고 따지거나 심지어 요즘은 아내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 입을 막아버린다.

아내는 직선적인 성격이라 속에 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부러운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린다. 저 남자는 저래서 멋있다, 저런 남자와 살면 참 편하겠다, 등등. 난 아내가 별 뜻 없이 지나가며 하는 말 몇 마디에 심한 상처를 입는다. 내 성격도 만만치 않아서 상처를 입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그 만큼의 상처를 주어 보복하는 편이다. 아내는 말 꺼내기가 무섭게 이내 얼굴 표정이 바뀌는 나를 보고 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입을 다물어버린다. 언젠가부터는 아예 나를 누구와 비교하는 이야기마저 하지 않아 이제는 되레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아내는 아직도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집안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보낸다. 진짜 10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아직도 10대의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가 좋다. 아직 10대가 채 안된 딸들과 진짜 감정의 진폭이 맞아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이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아내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당당함과 쾌활함이었다. 아직 난 그녀가 나에게 처음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개새끼." 같은 과의 2년 후배인 아내가 복학후 처음 맞닥뜨려 자신에게 반대의견을 말한 나에게 한 말이었다. 뒤에 아내는 자신이 오랜만에 관심을 가진 선배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에 속이 상해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고 했지만 당시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욕설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아내가 새롭게 보였고 이런 서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아내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낯선 사람과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 난 말수가 적은 편이라 다른 사람에게 신중한 사람으로 비쳐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이 없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비해 아내는 끊임없이 상황에 맞는 말을 잘 풀어간다. 가끔 가다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스럽다.

우리 나라에서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삼십이 넘은 여자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새로운 일을 찾기는,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나 역시 아내가 일을 갖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오는 것을 지켜봤지만 고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발버둥치다 제풀에 지치겠지 하는 생각이었고, 나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내가 나

동그라질 때,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못하게 만들었다는 아내의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어냈다.

자신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친 건지, 자신감을 잃은 건지, 가끔 아내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한가한 시간에 음악이나 들으면서, 시간이 나면 좋아하는 영화나 보면서, 그리고 조금씩 여건이 되면 여행을 계획하면서 한세상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럴 때 나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그 힘든 싸움에서 이겨냈어. 세상과 나, 그리고 당신 자신한테도. 당신은 계속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이다. 난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시작하는 아내가 존경스럽다.

결혼생활 20년의 노하우

이경형(53세, 대한해일 편집국장)

나의 아내는 공격적이다. 술도 나보다 더 세다.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다. 아니, 내가 아내를 '다룬다'는 말 자체가 도무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다.

몇 년 전 아내의 생일로 기억된다. 수첩에 아내의 생일을 표시해놓았지만 그 날따라 회사일로 바쁘게 지내느라 까맣게 잊었다. 그러다가 밤늦은 퇴근길, 그것도 집에 거의 다 와서야 생각이 났다. 급한 김에 인근 아파트 상가 꽃집으로 달려갔다.

어줍잖은 선물을 고르기보다는 꽃이나 한아름 사갖고 가면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못한 죄(?)에 대해 '면죄'가 되겠거니 생각했다. 마침 꽃집 아주머니가 가게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어서 다짜고짜 "아무 꽃이나 한 다발 달라"고 주문했다. 주인이 어디에 쓸 것인가 물었지만 왠지 집사람 생일축하용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워 친지집을 방문하는 데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꽃집 아줌마는 장미는 다 팔리고 없다며 이 꽃 저 꽃을 한아름 그것도 싼값으로 주었다. 팔다 남은 것을 모아 나한테 막판 세일을 한 셈이다. 집에 들어서면서 "당신 생일 축하해. 선물 살 것도 마땅찮고 해서 상가에서 꽃을 좀 샀지." 아내는 좋아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는 출근하는 나를 쳐다보며 "장미가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노란 국화송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 영안실에 가야 할 꽃이 나한테 왔어." 순간 머리가 띵했다. 아내에게 꽃만 사다 바치면 모든 게 '사면'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그 때 아내의 미세한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내 중심으로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런대로 재미있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남자보다 크게 유별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몇 가지 짚어보라면 서너 가지는 댈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아내의 일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혹자는 부부간에 간섭을 하고 안 하고가 뭐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필요없는 간섭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벌이를 했던 우리는 신혼 때도 집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청소나 집안일을 했다. 각자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밤늦게 귀가해도 기다리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도 많았다. 다음날 아침에도 "왜 늦었느냐, 뭘 했느냐"고 굳이 묻지 않는다. 함께 기자생활을 하는 아내의 행동반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기자 초년병의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때의 불간섭주의는 20여 년의 결혼생활 내내 전통처럼 이어졌다. 이따금 아내가 "당신 어제 늦었더라" 하고 서슬문 식으로 물을 때도 있지만 "회사 사람들하고 술 먹었어"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추궁'은 없었다. 아내 역시 간혹 새벽 2~3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자정 무렵 아내가 전화로 "후배들하고 맥주 먹고 있으니 당신 먼저 자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잔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부 함께 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생활패턴이다. 사실 미국에서 지내다보면 부부나 가족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교회에 갈 때나 영화관에 갈 때, 휴일 쇼핑이나 휴가여행을 갈 때도 부부가 늘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부부간의 정도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파원 생활 3년 반 동안 나눈 우리 부부간의 대화는 이 기간보다 5배나 더 긴 그 이전의 결혼생활 17년 동안 나눴던 대화시간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진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셋째, 아내의 허전함을 이해해 주고 메워주도록 해야 한다. 여자들은 보석이나 장신구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도 이 범주의 여자다. 우리는 결혼 때 예물로 백금 반 돈 짜리 가느다란 가락지 2개를 서로 나눠 끼웠다. 아내의 반지는 결혼 1년도 안 된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아내의 찢어진 손가락을 봉합하느라 북새통을 떠는 바람에 잃어버렸다. 당시 아내와 나는 사소한 일로 대판 싸웠다. 싸움 끝에 아내는 손가락과 팔을 다쳤던 것이다. 여하튼 그 뒤부터 아내의 손가락에 진짜 반지는 없었고 늘 모조 반지만 끼워져 있었다. 결혼 20년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다. 당시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진짜 다이아반지를 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2년이 채 안 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집에 도둑이 들어 다이아반지를 비롯한 금붙이라는 금붙이는 모조리 싹 쓸어갔다. 아내는 미국에 오면서 아이들 돌반지는 물론, 심지어 내 대학시절 클럽기념 반지까지 모두 녹여 목걸이 체인을 만들었는데 도둑이 이것마저 훔쳐갔다.

아내는 그 뒤부터 패물은 인연이 닿지 않는 것 같다며 체념했다. 악세사리용 반지를 끼지만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것들이다. 어느해 결혼기념일엔 반지를 하나 선물할까 하다 아내에게 보석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그림을 하나 사자고 제의했다. 아내도 기꺼이 동의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주고 중견화가의 유화를 한 점 사기로 했다. 아내는 자신의 허전한 손가락을 쳐다보는 남편의 마음 쓰임새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끝으로 아내에 대한 애정을 그때 그때 말이나 가벼운 포옹 등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장원에 갔다온 아내에게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는 남편은 낙제점이다. 나를 포함해서 중년 이상의 한국남자들은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온 탓인지 이 점에 관해서는 거의가 익숙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력하고 실행하면 의외로 부부애를 다지는 지름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아내와 파트너십을 갖고 살기까지

전 지 홍(40세, 전지홍신경정신과 원장)

아내는 애교, 여성적인 섬세함이나, 상냥함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집에서 아내의 별명은 '곰'이다. 기대하지 않지만 고분고분하지도 않다. 내가 어쩌다 몸살이라도 걸렸을 때 만족스러울 만큼 잘 보살펴주질 않는다. 그래서 더 아픈 척을 하거나 "어디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엎드려 절 받기를 해야지만 최소한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아내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도 큰 목소리로 할 얘기를 다 한다. 소심한 편인 나는 빨리 조용해지길 초조하게 기다린다. 조용히 얘기하라고 하면 아랑곳 않는 아내에게 내가 너무 남을 의식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 이제는 조용하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큼 옷차림도 세련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나는 아내에게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사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것에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지 못했다.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 내가 먼저 요구를 하면 아내는 마지못해 가끔 응해주는 식이다.

아내는 여성노동정책을 전공하는 여성학 박사과정 학생이자 계약직 공무원이다. '여성주의'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아내에게 말싸움에서도 나는 밀린다. 싸우다가 할 말이 궁색해지면 "여성학 공부하고 늘은 거라곤 권리의식과 논리적인 말솜씨뿐이구먼" 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

아내는 꿈이 많다. 하고 싶어하는 일도 많다. "나 1년간만 어디 갔다오면 안 될까?", "아프리카에 언젠가는 가볼 거야", "몇 년간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게", "나 따로 방 얻어나가 몇 달만 공부하다 올게"…. 실제로 미국으로 가 공부하고 오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싶었다. 일상생활에서 늘 탈출을 꿈꾸는 여자 같기도 했다. 성취욕이 강한 아내는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끔 자기 분에 못 이겨 이유없는 감정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럴 때면 눈치 빠른 아들과 나는 '잠수' 한다. 귀여운 아들을 동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등을 밀면이 녀석은 뒤꽁무니만 뺀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애교작전으로 감정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런 노력에도 허무하게 아내는 "나 혼자 있게 나둬" 딱 한 마디만 한다. 어떤 때는 누가 남자/여자인지 헷갈린다. 다행히도 아내는 거칠거나 공격적이진 않다. 그래서 견딜 만하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함께 공들여 살아온 역사를 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꼽아본다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편이다. 이기적인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비교적 통이 큰 편이라서 자질구레한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집안의 여러 문제가 생겨도 크게 갈등을 겪지 않고 쉽게 처리된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과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신념이 뚜렷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열심히 사는 것도 마음에 든다. 물론 처음 연애를 한 것도 이런 점이 좋아서였다. 나는 지금도 아내의 일을 물심신(?) 삼면으로 전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기혼남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이 주위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내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다. 가사노동, 출산과 양육, 시댁식구와의 갈등, 여성에 대한 편견, 사회적 차별, 여자이기 때문에 뒤따르는 행동의 제약…, 한편으로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도 한다.

나는 아내를 차별하거나 아내의 일에 지장이 되지 않았기에 보람을 느낀다. 최소한 한 사람에게만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떳떳하다. 만약 아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과 억울함을 겪었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나도 불행했을 것이다.

어릴 때 아내에게 장인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장인은 아내에게 여성으로서의 순종이나 아름다움, 여성다움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남에게 지지 않을 것, 리더십, 강인함, 성공 등 불순사상(?)만을 가르쳤다. 당신의 딸이 여자라는 사실을 잊으셨는지 아내의 목적지향적인 면을 자랑스러워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 장인께서 아내가 여성화되는 것을 방해한 셈이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여성적인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중성적으로 지냈던 것도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따라서 아내에게 여성적인 면이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 표정, 얼굴 생김새, 몸매 같은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의 정체를 잘 몰랐다가 결혼한 이후로 서서히 부닥치게 되었다. 가부장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별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나는 여성스럽지 않은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었다. 내가 나서서 여성화시키려고 노력한 셈이다. 그렇지만 아내의 뿌리깊은 이런 특성과 확신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나도 아내의 유능함을 아끼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부감은 없지만 아쉬움은 컸다. 처음에는 여자답지 못한 점에 화도 많이 났지만 지금은 내가 적응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좋은 점도 많았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믿음직하게 잘 처리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질 않아 편하다. 내가 힘들 때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서 의지가 되는 점도 좋다. 아내가 여성스럽지 않은 장점(?)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끝까지 그냥 들어준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이 있어도 무조건 서로의 편을 들어준다. 서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알맞은 충고도 해줄 수 있다. 대화하고 나면 서로 만족하는 편이라 우리는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사과를 잘한다. 반대로 아내는 사과하기를 힘들어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래 겪은 탓인지 나를 닮아 사과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는 궁합이 잘 맞는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감정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이 즉각적인데, 반대로 아내는 감정이 늦게 나타나고 오래간다. 처음에 내가 감정적이 되어 말하면 아내는 보통 듣기만 하는 편이고 별 반응이 없다. 그러고 나면 나의 감정은 사라지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드디어 감정적이 된다. 이미 나는 평온을 찾은 뒤라 아내의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러다 보니 서로

싸움이 되질 않는다. 평소에 나는 아내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면을 화두삼아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편해지고 관대해진다. 이해한 점을 아내에게 말해주면 아내도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된다. 이럴 때 서로에게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여성학을 전공한 아내 덕에 여성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나도 여성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우리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남녀평등의 문제는 권력관계이고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이 채용과 승진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 줄 '여성할당제' 또는 '여성목표제'가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실행되어야 한다.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자리잡고 평등하게 대우받아 남녀가 파트너십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

아내의 흰머리가 좋다

손승호 (55세, 시민의신문 부사장)

삶의 형태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듯 부부간의 대화방식 또한 갖가지다. 젊은 신혼시절에는 서로간에 달콤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다른 노력없이 간단한 애정표시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서 다르게 교육받으며 자라 깊은 이해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돌아눕는 것이 부부생활이 아니던가. 돌아눕는 순간 바로 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상대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사람은 현재의 외양만을 보고 상대를 평가한다. 암울했던 나의 신혼일기를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잉꼬부부라고 부러워한다.

아내와 나는 30년 전 신문사 동기로 입사해 결혼한 사내 커플이다. 하는 일이 비슷하고 출신대학도 같았으므로 남들보다 대화가 자연스러운 편이었다. 행동반경도 서로의 가시권 내에 있었으므로 관계가 투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혼생활 30년 중 전반기 10년간의 남편으로써의 삶은 나에게 화살이 되고 비수가 되어 박힌다.

친구들과 어울려 포커판을 벌이며 지쳐 쓰러지는 나의 나날은 취생몽사에 죽음과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이었다. 아내가 미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아 도에 넘친 외박이 잦았다. 자연 호흡이 긴 대화는 끊기고 단절음의 연속이었다. 부부간의 대화는 삶의 활력소요, 산소 그 자체다. 그 신선한 산소 공급이 끊기면 모든 물질이 부패하듯, 집안 곳곳에 냉기가 감돌고 건강한 정신이 사그라든다.

건강한 육체만 믿고 달력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날이면 으레껏 낮밤을 지새웠다. 금요일 아침 출근 때마다 어김없이 아내의 환심을 사려고 한 마디 뱉는다. "이번 주말에는 맛있는 고기 저며서 불고기 바베큐라도 해먹으면 어떨까? 오늘 일찍 올게."

그리고는 1박2일이 모자라 2박3일간 연락두절인 채 친구들과 어울렸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길 거부했던 그 세월이 아내의 어깨와 허리를 꺾어놓고 말았다.

자살도 수없이 생각해 보았을 터이고 이 남편을 버릴까 하는 생각도 여러번 했음직도 하다. 사랑에서조차 자유롭고 아내라는 존재로부터도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을까? 며칠만에 안아보는 아이는 "이거 누구야" 하며 낯선 사람에게 안긴 양 울음보를 터뜨리기 일쑤였다. 아내의 눈길이 멋적어 괜스리 "아이들 건강하지? 당신도 괜찮고?"라며 계면쩍은 웃음과 함께 실없는 안부를 쏟아냈다.

그래도 간간이 일찍 귀가할 때면 연극이나 음악회 표를 구입하여 무언의 대화라도 이어가려고 애를 쓰긴 했다. 가정문제를 떠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사는 자연스레 대화의 고리가 되어 부부사이를 지켜주는 활력소가 되었다. 또 하나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챙기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처가쪽 일에는 반드시 참가하고 일차적인 선물을 챙겼다.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았나보다.

그러나 외박이 잦다보면 본의 아닌 일들이 탄로나게 마련이다. 이틀만에 귀가한 날 아내 앞에서 바지를 벗다가 죽옷이 뒤집힌 것을 보이고 말았다. "팬티 앞뒤 안 뒤집히게 잘 좀 입고 다녀요"라고 내뱉고는 방문을 닫아 잠가버렸다. 용케도 이어져오던 대화마저 끊기고 말았다.

84년 어머니의 임종 때였다. 고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골수암으로 고통받던 시어머니를 몰핀주사까지 직접 놓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 모습에 수녀님도 감동했다. "아네스(아내의 본명)를 평생 업고 다니라"는 수녀님의 충고를 듣고 나는 암울했던 젊은 날의 초상을 떨쳐냈다.

술자리 취객의 게슴츠레하던 눈은 또록또록한 눈동자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름을 끊어버리자 아내의 맑은 눈동자가 나의 눈 속으로 들어왔다. 서로 눈길을 맞추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부부간의 대화이기에 별 말 없이 둘이 앉아 있을 때면 하염없이 눈 속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눈을 못 쳐다보는 차 속이나 길을 걸을 때면 손을 꼭 잡는다.

밤길 강둑을 걷고 있던 수도사가 발에 채이는 보따리를 주웠다. 그 보따리 속에 들어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 강속으로 던지며 무료한 밤시간을 달랬다. 마지막 남은 돌이 동틀녘 아침햇살에 비쳐 번쩍이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밤새 강물 속에 던져버린 것이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수도사는 자기의 우매한 행동을 후회했다.

인생도 위에 소개한 인도의 우화와 같지 않겠는가. 지나온 나날이 귀중한 줄도 모르고 강물 속의 돌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10년의 무심한 남편 태도에도 좌절하지 않고 아내는 그림그리기, 독서에 열중하더니 어느새 병고를 훌훌 털고 어엿한 프로화가로, 작가로 변신해 있었다. 담번 귀가후에는 주부의 모습만을 보여주었기에 연세 그림을 그렸는지, 작가 수업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른다. 그 사이 아내의 머리카락 위엔 하얀눈이 소복히 내렸다. 나는 그 하얀 머리카락이 보기좋다.

"저 머리 허연 여자는 얼마나 능력 있길래 젊은 남편을 끼고 살지?" 처음 이사간 이웃에서 영락없이 흘러나오는 소리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이는 나 때문에 아내는 상처를 입음직도 한데, 젊은 놈 꿰차고 사는 것도 자기 능력이라며 당당하다.

두 아이를 일찍 유학보내고 이제 둘만 덩그러니 남아 생활하는 우리 부부는 옛날에 못다한 얘기가 아쉬워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이들 키우던 일, 하루 일과중에 일어났던 일, 오늘 읽었던 책 내용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도 다양하다. 이제 나는 술을 하지 않으므로 귀가시간에 늦을 일이 별로 없다. 저녁도 가능하면 꼭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한다.

별명이 종합병원인 아내는 평생 일곱 번 수

술을 했다. IMF 직전 위암으로 하나밖에 없는 위를 잘라버렸다. 갑자기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평소 미식가로 소문났던 아내가 잘 먹질 못하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말라 오래 서 있으면 갈비뼈끼리 부딪쳐 온몸이 쑤시다며 아파한다.

저녁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마와 쑥뜸을 해주고 있다. 한 시간씩 안마를 하다보면 땀이 비오듯한다. 차절하도록 앙상한 아내의 등판과 뱃가죽을 쓰다듬노라면 땀과 함께 애처로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아내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에도 나는 말없는 대화를 나눈다. 다시 태어나 결혼을 한다면 또 다시 당신을 아내로 선택할 거라고.

인터뷰 하나

"마누라와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박형철(44세, 다넥 소포모어 코리아 사장)

결혼 21년차, 연애기간까지 합하면 26년차의 묘한 남자가 있다. 사실은 진짜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 오랜 기간을 살았어도 '지겹기는커녕' 여전히 아내가 무지하게 좋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남자. 물론 그가 정상이다. 그렇다면 그에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상한 심장을 지니고 있는 남자일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넥 소포모어 코리아(DANEC SOFOMORE KOREA)란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형철 사장이다. 그는 외국 의료업체의 지사장으로 7~8년간 일하다 92년, 무려 1억5천만 원의 연봉을 마다하고 독립해 화려한 성공을 일궈낸 '능력있는' 건실한 기업인이다. 남자들이 성공하고 돈에 관한 한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면 영뚱한 데 신경을 쓴다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박사장을 그렇게 본다면 커다란 실례다.

아내를 위하는 남편으로,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도 '정말 괜찮은 점수'를 받는 박사장은 푸근하면서 소탈한 미남형으로 동갑내기 아내 이경숙씨와는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고3때 연애를 시작했고 군제대 후 대학 2학년 때(당시 23세) 결혼해 첫사랑이 맺어진 경우다. 그러나 첫사랑도 식기마련이건만 박사장에게는 예외다.

"아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고 그 때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죠. 정말 무지하게 제가 사랑한 경우에요." 그 때 만나준 아내 때문에 일평생 너무 행복했다는 박사장은 "창피해서 이제야 처음 고백이지만 처음 만난 날 아내가 또 만나준다기에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 이불 쓰고 울었다"고 고백했다(박사장의 이 때 표정은 진짜 천진난만했고 창피해하며 아내의 반응을 흘끗 살폈다).

그렇다고 박사장이 사실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남자다. 그러나 흔한 남자는 분명 아니었다.

박사장은 최근 아내가 이모와 큰아들 나건(20)의 학교문제로 열흘간(박사장의 표현은 그 열흘이 '장기간'이었다) 외국 가 있는 동안 너무 그리워서 '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유학중인 아들까지 여학생들 사이에서 '멋진 남자'로 통했다고 자랑하는 박사장은 "나건이도 엄마 걱정은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야 아빠가 있는데요, 뭘" 하더란다.

외식이 잦다보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만 마누라가 부업에서 일하는 게 안타까워 '외식'을 마다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부업에 들어가 라면 끓이고 퓨전푸드 만들기도 마다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아내와 놀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잘 째끼는' 남자다.

나건, 나용(17) 두 아들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 아내를 힘들게 하면 그것도 못 봐준다. 보통의 남편들은 애들 문제 때문에도 아내를 탓하고 나무라기 일쑤지만 박사장은 무조건 아내편이다. 물론 이런 대목에서는 아내 이경숙씨가 때론 불만이다. 작은 불만이나 티격태격하는 애정다툼은 있지만 최근 5~6년간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단다.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죠.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싸움을 하면 내가 잘못해서지 마누라 잘못은 없어 보여요. 나중에 꼭 잘못을 느끼고 인정합니다. 정말 아내가 인격적으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내는 자기 관리를 참 잘해요. 나보다 한 수 위랄까." 박사장은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살다보니 인격적으로 더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생겼다고 한다.

회사일이며 모든 걸 소상하게 털어놓는 박사장이 말하는 애정의 비결. "우리 부부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란다. 그는 또 "솔직히 마누라하고 하는 섹스가 제일 재밌어요.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희한하대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애들 앞에서도 프렌치키스나 껴앉기 등 애정표현을 많이 합니다." 박사장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내와 잘 노는 것이 인생의 커다란 행복중의 하나란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대외적인 대인관계 역시 폭넓다. 아내로부터도 인정받지만 직장을 비롯해 어디에서든 여성들로부터 매너좋고 인기있는 남자로 통한다. 그 비결을 물으니, "유머가 있고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소탈하게 사람을 편견없이 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아내가 말한다(박사장은 눈웃음을 잘치는 호남형인데다 말투도 20대가 쓰는 은어를 잘 구사, 여성들에게 "참 개구쟁이 같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고 귀띔했다).

"사실은 제가 인사치레를 잘해요. 누구한테든 조그만 선물을 잘하는 편이고, 다행히 남자들도 다들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무엇보다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불편하질 않아요. 아내와 관계있는 여자들이라면 처제든 이모든 상관 안하고 잘 놀거든요." 그런 연에서 박사장은 아주 '여성친화적'인 남자다. 남자형제들 속에서만 자랐는데도 여성에 대한 별 편견이나 어려움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기의 진짜 비결이다. 박사장은 지극히 평범, 소탈하면서 여자에 대한 가부장적인 편견 같은 것을 지니지 않았다. 재력에서나 사회적 위치로나 자칫 어깨에 힘주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박사장은 만나는 어떤 여성도 달리 보이질 않는다. 직장 내 여직원이나 골프장에서 만나는 캐디나 술자리에서 만나는 종업원이나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도 보여준다. 이 대목은 아내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박사장도 아내에게 아주 서운했던 적이 있었다. 중동 지사장으로 있을 때 아내가 "걱정 말고 더 있다 오라"고 했다는 것. "제일 괴로운 게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건데 더 있다 오라니 얼마나 섭섭했게요." 아내는 물론 당시 어린 두 아들 키우느라, 서운하다는 남편을 되레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요즘 박사장은 아내에게 작은 불만이 있다. 싱글수준의 골프실력을 갖춘 박사장은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고 싶지만 아내가 골프를 좋아하지 않고, 노후의 꿈이 요리여행가나 쉐프가 되고 싶은 데 반해 아내는 비행기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사장의 요즘 바람은 미대를 나온 아내가 어떤 일이든 사회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아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했다.

박사장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내의 조언에 '순종' 한 자신의 태도가 한 몫을 했다고 자랑한다.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남자를 향한 그의 마지막 충고다. 어쨌든 일평생 아내에게 '순정'을 바친 박형철 사장은 한국에 사는 수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기 드문 남자였다.

글 박혜숙 매니징디렉터

인터뷰 둘

수놓는 남자

최수종(38세, 탤런트)

KBS별관 1층 로비를 지나다 마주쳤는데 '정말 예쁘고 귀엽다'란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저녁 어머니는 "저런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며 TV 화면을 가리키는데 낮에 봤던 그 탤런트였다. 아내 하희라와의 만남은 그렇듯, 인연이랄 수밖에 없는 사연을 지니고 있다.

"반듯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우유부단하다고 평하는 최수종씨는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듯함'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속한 사회가 연예계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알고 보면 최수종, 그에 대한 평 역시 반듯함에서 그리 멀지 않기에 '어쩌면 서로를 거울삼아 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부사이가 유독 좋으셨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서인지 부부가 악다구니로 싸우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 이전에 후배, 아니 귀여운 동생으로 만나서인지 기대(?)가 크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한 연예인생활 탓에 밥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싶었는데 웬걸, 'LOVE' 자가 새겨진 멋진 케이크를 선사하지 않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잘한 건 하나도 없었다. 결혼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살림살이, 뭐든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성격 탓에 이제 '프로 살림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지난 2월에 태어난 민서에 대한 육아만큼은 아빠인 그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다.

현재 갓난쟁이 엄마인 그는 둘째를 임신하고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오히려 남편은 민서 하나로 충분하다 했지만 아내는 둘째를 선택했다.

어쩌다 쇼핑할 일이 있으면 꼭 같이 나선다. 둘 중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얼른 눈치보고 NO!를 외친다. 대개는 아내 눈치가 훨씬 빠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곁에 있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는 아내,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두고두고 설득한다. 아니 설득할 줄 안다.

언제 첫 부부싸움을 했더라? 한참 생각해야 할 만큼 싸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많은 대화 덕이다. 아무리 새벽녘 늦게 귀가해도 1~2시간쯤은 서로 잠들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의 핸드폰은 통화중일 때가 많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할 얘기가 많은 법, 너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독'돼 있는 두 사람!

"애처가 혹은 공처가라는 말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사람, 내 가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어려서 고등학생인 누나의 머리를 따줄 정도로 자상한 성향 탓일까, 아내에 대한 사랑을 시샘하는 주위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그런 용기가 있어 방송국 대기실에서 한뜸 한뜸 십자수도 놓을 수 있었다. 태어날 아기가 쓸 턱받이, 쿠션 등을 아빠 손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뭐 어떠랴싶단다.

아내의 생일, 아내의 출산을 준비했던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먼저 아내의 생일!

일찍 귀가한 그는 신애라 유호정 등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자연예인들을 불러놓고 그 역시 장모님 옷으로 여장을 하고 가발을 쓴 채 아내를 맞았다. 집안은 2백 개의 풍선으로 가득, 여장한 남편의 교태(?)를 봐야 했던 아내 하희라의 입은 어찌나 크게 벌어졌던지….

출산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 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나 병실에 들어선 그는 깜짝 놀랐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휑하던 병실은 온통 형형색색 다양한 모양의 풍선이 가~득,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으로 수술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단다.

"유산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던 적이 있었어요. 열의 산모는 곧 태어날 아기 때문에 고통스럽다지만 유산치레를 하기 위해 누워 있는 아내의 모습이 어찌나 가슴 아팠던지."

곧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될 그들로서는 까마득한 기억 저편의 일이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참 어리다고만 생각하던 아내가 지금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워낙 오래 만나온 탓에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듯함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자기를 낮추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중국 국적이었던 아내, 대만이 국적인 아버지는 딸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계집애'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중국남성의 기질이 남아 있었던 아버지는 요리면 요리, 살림이면 살림 못하는 게 없었다. 딸이라도 기죽이는 일 따위는 상상도 안 된다. 그 집의 둘째딸인 아내 하희라는 당당하고 아무지기 그지없다. 자신이 당당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건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조심스런 생각이다.

6살 연하인 아내에 대한 감정은 비단 '사랑'에 그치지 않는다. '존경'에 가깝기까지 하다.

"심지어 남자 망신은 혼자 다 시킨다고들 하죠. 난 잘 모르겠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정성을 쏟는 것일 뿐인데."

KBS별관 1층 로비에서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운명'으로 만든 건 두 사람의 노력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는 그이다.

글 신혜선(자유기고가)

색素녀女열列전傳

무 묻은 놈이 애 봐라

글·그림 / 장차현실

우선 놓고 짐
에고에고
그는 잠시다
느끼-
그녀부터 아이들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난리였다.
부산물, 성냥
다 - 강하구 ····
바다 -
그 사람은 꿋꿋하게
계속되었다.
헷갈래 이게 뭐꼬.
이런들 없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대책?
부모들도 모였다.

어느날 그들 부부는
정은 무를 화롯불 속에
묻어 두었다
빨리
정은 무
자 어서 자거나
??
이제 안심하고
자자 ···· 아니
숭자고
내?
엔닌
오메니 불이
안 일어나지 -
아이고 -
후 -
으이
무 -
자식이
낳대도 쓸
데가 -
'에이' 누구야?
무 구워 먹겠다고 화로에
묻어둘 놈이 -
이번에 나오는 애는
무 묻는 놈이 키워!!!

환상 탈출기

황범하

66년, 서울 출생, 고대 84학번, 미혼.
91년 KBS 입사(TV PD).
〈생방송 여성〉, 〈문화탐험 오늘〉,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등 교양, 다큐 프로그램 제작.
현재 〈파워인터뷰〉 연출중.

내가 섹스를 통해 배운 것은 섹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섹스를 금기시했던 시절 오히려 난 섹스의 노예였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짜릿했던 장면은 섹스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녀가 처음으로 내 팔뚝을 끼었던 순간이다.

나는 아주 열렬한 미식축구 팬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월이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볼이란 경기가 열리는데 단일 경기로는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미식축구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슈퍼볼 시청과 관련된 재미있는 설문조사 때문이다. 7, 8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슈퍼볼 시청과 섹스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느냐는 설문조사 내용 때문이다. 결과는 내 예상과 다르게 슈퍼볼 시청이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 성개방이 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섹스가 슈퍼볼이란 빅카드보다 선행할 새삼스런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게는 의외의 결과였다. 성경험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미식축구가 아무리 좋더라도 슈퍼볼 시청보다 섹스가 더 우선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다. 내게 있어서 섹스란 일생일대의 빅이벤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일 거란 기대가 있었기에, 어렸을 적부터 난 모든 면에서 규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중고교 시절 술, 담배 등의 조그만 일탈행위를 하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유치하다고 비웃기조차 하면서 내 장래를 위해 얄밉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

특히 어린시절 많이 봤던 〈수사반장〉이란 드라마는 성에 관한 한 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모두 다 여자를 밝혔다는 점에서 섹스를 즐기는 사람은 진지함이 결여된 저급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 어린 내게 늘 감동을 안겨주었던 숱한 동화책들 속에서도 섹스는 물론이고 가벼운 접촉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사랑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들은 아주 오래갔다.

대학생 시절 신앙생활에 몰두하면서 나의 성은 더욱더 견고한 성을 쌓아만 갔고 일생에 딱 한 명 진정 사랑하는 그녀를 만날 그 날을 위해 모든 것은 유보되기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때 잘 알고지냈던 여자 대

나의 몸짓과 그녀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대화가 주는 특별한 느낌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꿈꾸었던 환상적 기분은 아니었다.

학동창은 졸업후 "범하야 넌 보통 남자들과는 달라…. 넌 신성(神聖)해"라고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섹스를 하고 싶다는 충동은 늘 존재했다. 왜냐면 내 몸은 너무나도 정상인 보통남자였기 때문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성욕은 고개를 들었다. 많은 경우 그건 내게 불편한 느낌을 줬다. 항상 뭔가가 내 몸안에 고여 있다는 느낌은 배설하고픈 욕망으로 연결되었고 난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법을 택했다. 그건 상대가 없는 공차기놀이 같은 것이었고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패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나를 안심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자와 함께 나누는 섹스에 대한 나의 관심은 비대해져갔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뼈와 살이 타는 최고의 경험인지 나의 궁금증은 나날이 증폭되었다. 나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간접경험이라도 성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었기에 말이다.

신입사원 합숙연수 때의 일이다. 일과를 마치고 밤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여자얘기로 흘러가 자신의 성경험에 대한 각자의 파란만장한 경험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8명 중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 두 명이었고 많은 경우 사창가에서의 섹스경험들이었다. 마침내 우리 중의 한 사람이 하룻밤에 7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들 그를 부러운 듯 쳐다봤다. 그래서 우리는 조 이름을 세븐업이라고 짓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아는 선배 한 사람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첫날밤 관계를 치르고나서 다음날 아침 다시 시도하려다가 힘이 달려서 포기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하게 될 인류지대사인 섹스를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성트러블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룸나는 대로 여성지의 성상담 코너를 분석, 여성들이 성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그런 간접경험들을 통해 내가 얻핏 깨달은 것은 섹스란 게 영화에서처럼 남녀가 일단 옷만 벗으면 이후 전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었다. 그리고 섹스가 그리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나름대로 섹스에 대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정보를 축적해 가면서 섹스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지상최고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한 섹스란 때론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생리적인, 동물로서 필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섹스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특히 성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땅에 태어난 덕에 섹스를 하는 것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금지하면 할수록 사실은 섹스에 대한 그릇된 환상만이 비대해진다고 판단내렸다.

3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것이 섹스에

대한 진지한 검토 끝에 내가 얻은 결론이다. 그리고 간접경험이 아닌 내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진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지극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섹스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생각들 대신 나라는 생물에 관한 궁금증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섹스에 관한 그 모든 의문들을 풀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의 내 모습을 알고 싶었다. 한편으론 일상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권태로부터 탈출을 꿈꾸었을 때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섹스가 떠올려졌기 때문이었다. 안 해본 것이니만치 신선한 흥미로움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하지만 실제 섹스를 하기까진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만 섹스를 하기 위해 여자를 유혹하긴 왠지 치사한 것 같아 싫었고 섹스를 할 만큼 마음에 맞는 상대를 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만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난 그녀의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았고 어느날 마음먹고 촌스럽게 극장 안에서 처음 손을 잡았다. 오래 전부터 스킨십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터치를 한다는 게 왠지 속보이는 짓 같아 내겐 손 한 번 잡는 것도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었다.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난 뒤 자신감(?)이 생겼고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두번째로 그녀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순탄했다. 드디어 나도 완전한 성인(?)이 됐다는 생각이 관능적 쾌락보다 먼저 느껴졌다.

남자의 경우 사정을 하고 나면 200미터를 전속력으로 뛰고 난 직후 같은 급격한 힘의 저하를 느끼는데 그 찰나적인 순간을 전후로 느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내 경우 '아 이제 섹스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일단 흥분이 되고 서로의 움직임과 살의 촉감을 느끼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오는 느낌이 좋았을 뿐 오르가즘이라 일컬어지는 관능적 쾌락은 오히려 허무하기까지 했다.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신뢰감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만족스러웠던 것이다. 나의 몸짓과 그녀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대화가 주는 특별한 느낌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꿈꾸었던 환상적 기분은 아니었다. 너무도 빠르게 관능적 쾌락에 수반되기 마련인 허전함이 또렷하게 찾아왔다.

머리가 핑도는 것 같은 즐거움만으로 따진다면 정말로 괜찮았던 순간은 처음 그녀 손을 잡았을 때이다. 함께 있다는 존재감을 촉감을 통해 처음 전달받았을 때 내 심장은 콩닥콩닥거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섹스에 대한 별다른 호기심을 내 안에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것은 궁극적 쾌락도 천국도 아닌 두 사람 사이의 다소 특별한 대화일 뿐이다. 성을 나누는 것은 물론 즐거운 일이로되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보장해 주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삶 속에는 섹스보다 더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운이 없어 그런 기회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섹스를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IF

유쾌한 남자품평회가 시작되었다

이성적 두뇌를 자극하는 발상, 봄바람같은 스카프의 감촉
차갑게 와닿는 팔찌.온통 오감의 작극샘같은 이 세련되고 관능적인
시오노의 에세이들은 스타일이 있는 남자, 매력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지침서다.

매력있는 남자란 자기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슨 무슨 주의주장에 파묻히지 않고 유연한 사람.
그러니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매력있는 남자 스타일 있는 남자에게 건배!

보통인 남자를
특별한 남자로 개조해 버리자!

시오노 나나미의 고품격에세이

남자들에게

이현진 옮김 | 값 9,000원

영혼은 대담했고 몸짓은 관능적이었다

르네상스의 여인들

권모술수와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르네상스 격변기를 살아간
네 여성의 냉혹한 사랑

대담한 영혼과 냉철한 합리적 정신
정신과 육체의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조화가 감도는 르네상스의
공기가 당신의 온몸을 휘감는다.

김석희 옮김 값 9,500원

뉴 밀레니엄, 로마가 우리를 유혹한다!

로마인 이야기

고품격 책읽기 제1권부터 시작하세요

❶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8,500원
❷ 한니발 전쟁 10,000원
❸ 승자의 혼미 8,500원
❹ 율리우스 카이사르(상) 10,000원
❺ 율리우스 카이사르(하) 11,000원
❻ 팍스 로마나 9,000원
❼ 악명높은 황제들 12,000원
❽ 위기와 극복 10,000원

제1회 한국번역대상 수상작품

시오노 나나미 지음 | 김석희 옮김

한길사

빨간물에 꼼짝도 못하고 풍당 하고 있어

김세중

어떤 학교에선 돈을 받고, 어떤 학교에단 돈을 낸다.
무악재 아파트에서 내가 돈 내고 다니는 학교까지
승용차로 약 35분. 새미를 학교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을 때까지 여덟 시간이 나의 하루시간 전부다.
저녁이나 주말에 약속 있을 때 새미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는 새미보다 상대방의 인내력에 달려 있다. 새미의
만행을 못 견딜 상대하고는 애초 약속을 안 하는 게 속
편하다. 학교 엠티는 기본이고, 지방에서 며칠씩 학회 할
때도 달고 다녀봤다. 나와 새미엄마를 따로 알고 있는 어떤
작곡가가 이런 말을 새미엄마한테 하더란다. "우리 파에
새로 들어온 아저씨가 있는데, 엠티에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걔네 엄마는 가출했든가, 아주 나쁜 여잔가봐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듯 늘 노출돼 있다.
그래서 남들은 내가 주로, 그리고 아주 잘 새미를 키운다고
착각들을 하고, 이 착각을 나는 즐긴다.
그 최대 피해자는—새미엄마다.

서울경기—서울온천, 고양 북한산온천, 파주 금강산랜드, 이천 미란다, 포천 명덕탄산천, 일동제일유황천

강원—홍천온천, 척산온천, 설악워터피아

대전충청—덕산온천, 돈산탄산온천, 수안보온천, 초정약수스파텔

호남—지리산온천, 화순 금호리조트

영남—문경온천, 마금산온천

새미를 데리고 다녀본 온천(광천)당들의 이름이다. 새미는 11월 6일로 꼭 40개월 됐는데, 열일곱 군데를 갔으니 참 많이도 데리고 다녔다. 지역안배도 꽤 됐고. 북한산, 홍천, 문경 같은 데는 워낙 물이 적거나 외진 데 있어서 웬만큼 다닌다는 온천꾼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시설로는 설악워터피아 사우나가 단연 첫손 꼽을 만하다. 재미라면 한겨울의 명덕탄산천 노천탕과 온몸이 싸아 하면서 사이다처럼 기포가 솟는 초정약수스파텔(차디찬 냉탕!)이 갈 만하다.

새미를 빼놓고 간 데가 더러 있다. 내 나이 서른 넘어 처음으로 가본 온천이 신혼여행 때 간 백암온천(그 해는 한국관광의 해였다!)인데, 새미는 아직 선적(船積)도 되기 전이었다. 유성온천에는 두 번 갔는데,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돈의 사돈댁 문병 가느라(올라오는 길에 우리도 10중추돌 사고를 당했지만) 들른 첫번째는 순수 숙박목적이었으므로 객실 욕조에서 물장난만 시켰다. 두번째는 올해 7월, 제자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대전 사는 여자 후배네 들렀다가 함께 갔다. 이름도 기억 안나는 '유성에서 제일 물 좋다' 는 3류호텔 사우나에서 새미는 "언니랑 갈래!" (사실은 아줌만데, 그렇게 세뇌당했다. 요금 받는 아가씨는 당연히 엄만 줄 알았다가 흠칫 놀라는 눈치. 킬킬…) 하며 아빠를 배신했다. 8월에 처가식구들과 함께 간 도고온천에서도 또 한 번 이런 배신을 당했다. 새미 낳고 백사십 일만에(나는 첫돌까지 날수로 카운트했다) 간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는 새미를 방에 놔두고 엄마아빠만 번갈아 사우나엘 갔다.

거꾸로, 나는 못가고 새미만 가본 데도 있다. 유황냄새 코를 찌르는 포천 용암천. 이곳과는 악연이 있다. 처음 가본 게 98년 설날연휴 끝물인데, 그 날 하루 삼만 명도 넘는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새미만 엄마와 외가 식구들 따라들어가서 '몸에 물만 끼얹고' 나오고, 두 차남과 나는 로비 밖에서 해바라기하며 몸에 나쁜 담배만 열심히 피워없애야 했다. 그 날 나는 "오기로라도 여기에 몸을 담그고 가야겠다"며 처가 식구들 먼저 보내고 새미랑 새미엄마랑 일동싸이판, 하와이, 제일천부터 저 아래 베어스타운까지 목숨 걸고 자욱한 안개(포천은 온천지대라 겨울안개가 유난하다)를 헤치며 숙소를 찾아헤맸지만, 거짓말같이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 그 해 여름 새미랑 나는 금곡 사는 후배네를 꼬셔 이번에는 장대비를 뚫고 용암천에 다시 도전했지만, 마침 정기휴일이어서(세상에, 금요일이 정기휴일인 온천이라니!)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뒤로 용암천은 기어이 다시 가보지 못했다.

온천을 일컫는 새미와 나 사이의 공용어는 '뜨거운 물에 풍당' 이다. 새미는 아무리 딴 일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잔뜩 기분나빠 있더라도 "아빠랑 뜨거운 물에 풍당 갈래?" 하면 "응! 무슨 신발?" 하고 반사적으로 따라나선다. 가장 자주 가고, 또 새미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왼쪽 사진의 금강산랜드 황토탕. 이른바 '빨간 물에 풍당' 이다. 일 센티 속도 안 들여다보이는 그야말로 시뻘건 황토물인데, 여기 담가놓으면 두 손으로 물을 움키며 "아빠, (손이) 푸굴푸굴해!" 하고 좋아한다. 세 돌 때까지 '꼬불꼬불' 로 발음하던 데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푸굴푸굴' (기포탕)은 '새미 쪼꼬만 애기 때는' 좋아하더니 '이제 어린이니까' 영 질색이고, 사우나도크는 어둠컴컴한 명덕탄산천 황토굴에서 기겁한 경험이 있어 근처에도 안 간다.

새미와 나는 이틀에 한 번 머리 감을 때 말고는 몸에 통 비누칠을 안 하므로 목욕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한 시간을 넘지 않는다. 절차는 새미가 주도한다. "아저씨, 이거요"(영수증 내고 사물함 열쇠 받기), "아빠, 쉬!", "우리, 물 먹고 가자", "이제, 저기 들어가자"(탕에 입장), "아빠, 두꺼비(물을 내뿜는 금강산랜드 온탕의 돌두꺼비. 실물도 못 본 개구리와 두꺼비를 칼같이 구분한다) 발 만져볼래", "아빠,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 마(냉탕 잠수)"…, 딱 제 눈높이에서 덜렁거리는 아빠의 '꼬추' (여자의 같은 부위는 '잠지' 다. 이걸 바꿔보려고 해도 마땅한 용어가 없어 걱정이다)와 유난히 털이 많은 '쭈쭈' (젖꼭지)도 자지러지게 만드는 장난감이다. 물론 나는 죽을 맛이다. "아빠 쭈쭈 따먹을래!", "아빠, 새미 쭈쭈 따먹어!"

요즘 내가 초조해졌다. 온천들은 대개 만 세 살부터 남녀혼욕을 금지하기 때문. 여느 엄마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까지 뻔뻔스럽게 데리고 다니므로 나도 아직은 버티지만, 올겨울로 새미와의 아쉬운 마지막 온천행을 마음으로 준비할 때가 이제 됐다. 폭설 내린 뒤 영하 십 도쯤 내려가 살을 에는 날, 명덕탄산천을 가야지. "아빠, 꼼짝도 못하고 여기 있으자!" 이렇게 노천탕에서 목만 내밀고 몸을 충분히 데운 뒤, 바람 씽씽 부는 눈밭(대나무로 울타리를 엮어놨지만, 앞산이 그대로 보인다)에서 "빨개벗었대! 챙피하대요!" 떠들면서 술래잡기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간이의자에 누워 배 위에 새미 엎어놓고 나른 시원하게 한 잠 자고 오는 거다. 이 체위에서 새미의 멘트는 정해져 있다. "아빠, 배불뚝(복식호흡 크게)!"

'99 여성미술제

〈팥쥐들의 행진〉 기념판화집 판매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 미술제를 기념하는 판화집을 판매합니다.
여성미술제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선뜻 기증한
7인의 여성작가들의 판화입니다.
연말연시 감사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 전하세요.

참여작가 : 김수자, 김원숙, 김인순, 박영숙, 석난희, 윤석남, 이불
가　　격 : 1세트(7점) 20만 원, 낱장(1점당) 5만 원
문　　의 :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미술제 사무국(3477-0346)
사진설명 : 김원숙, 〈Golden Bath〉, 57cm×41cm

부광약품

메주는 묵히면 장이 되지만
변비는 묵히면 병이 됩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화장실!"

이젠, 묵히지 말고 비우세요!
하루 이틀 사흘… 변비를 계속 묵히면
나중엔 더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배변습관은 하루 한번!
이젠 묵히지 말고 매일매일 비우세요.

하루 한번, 깔끔하게 비우세요!
아락실은 식이섬유소가 대장 속에서 팽창,
마사지하듯 장의 운동리듬을 되살려주니까
장 속은 깔끔해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비우세요!

식이섬유성분의 상쾌한 변비약
아락실과립

소비자 상담실 02)815-2233 080)933-2233(수신자부담) http://www.bukwang.co.kr

• 가까운 약국에 가시면 나의 변비탈출기 응모작 모음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MP3 단말기
단말기 내부에 MP3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좋아하는 음악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너를 가지면 자유가 된
문득, 세상이 궁금해지면 인터넷을 펼쳐주고,
대화가 그리울 땐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노래를 불러달라면 MP3가 되어주고...
늘 그렇게 내 곁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날 지켜주는 너의 강한 에너지-
강한전파 017, 너를 가지면 자유가 된다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디지털 017
SHINSEGI
신세기통신

Canon
Canon BJ 프린터
인터넷PC를 위한
경제적인 인터넷프린터!
인터넷PC 출시기념 최고 37%까지 파격적인 가격인하! (11월 1일 부터)
BJC-2000SP
₩262,900 ➡ ₩164,000 (VAT 포함)
우와~ 성능은 전문가급에 가격은 겨우 10만원대?
전문가급 고기능 프린터
BJC-265SP
₩198,000 ➡ ₩129,000 (VAT 포함)
이정도 가격은 돼야지 인터넷 프린터!
살속파를 위한 초저가 프린터

"Better Tomorrow"
야쿠르트

•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

해가 뜨고 지는 일보다 더 신비롭게 이 세상에 태어난 너 -
작은 잇몸에 하얀 이가 돋아난 날도, 맨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었던 날도
너를 얻은 뒤로는 날마다 날마다 온세상을 얻은 것만큼이나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란다.

기쁨이 가득한 산선한 생활 - 슈퍼100 * 딸기, 복숭아, 사과, 알로에, 열대과일 5가지 맛

새 천년 우리 우유 - 서울우유

서울우유

대표전화 : (02)490-8151
소비자상담 : 080-021-5656
http://www.seoulmilk.co.kr

싸악 벗기면 푸릇푸릇~
싱싱한 건강이 보여요!

푸르네치즈-시금치

유기농 야채生즙에 영양이 듬뿍!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거름과 퇴비로만 재배되는
푸르네치즈 시금치-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에서 비타민A,B,C,
칼슘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어 어린 자녀의
영양 간식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 푸르네치즈의 시금치는 경기도 양주의 〈부리농산〉 농장에서 재배되는 100% 유기농 야채입니다.

새해선물로 최고의 만족을!

한사모 산딸기 차란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 (한사모)의 회장 하우청(43) 씨가 개발한 산딸기차(복분자차)는 산이나 들에 자생하는 야생산딸기를 고농축하여 구기자, 오미자, 감초 등을 가미해 무방부제, 무색소로 자연의 맛과 색을 살려 먹기 좋은 티백형으로 제작한 건강차이다.

산딸기 차의 효능은

산딸기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얘기는 여러 옛 문헌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옛날 중국의 노부부가 아들을 얻었는데 몸이 워낙에 약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의 처방대로 산딸기를 달여 먹였더니 건강을 되찾고 청년이 돼서는 소변줄기가 하도 강해 요강을 뒤엎을 정도로 정력가가 됐다고 해서 산딸기의 이름이 복분자(覆盆子)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 본초강목 - 간을 이롭게 하고 몸의 피로회복과 기운을 돕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도와 남자들의 정력을 좋게 하여 머리털이 희어지는 것을 막고 임신을 도우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오줌싸개' 어린이에게 좋다. - 동의보감 -

지나치게 정력을 소비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제이다. -약초꾼 최진규의 '토종약초장수법' 中 산딸기편-

제품의 종류 및 가격

포장단위 120포 48,000원, 300포 (100일분) 98,000원

- 전화주문시 전국 어디나 배달하여 드립니다.
- 한사모는 상표가 등록된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略字)입니다. 원조 산딸기차, 한사모 산딸기차는 같은 상표, 같은 제품입니다.
-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 (인터넷 이용 http://www.hansamo.com)

경향신문, 스포츠조선,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서울경제, 등에 산딸기 차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되었음.

특허출원 99-47362
문의전화 (02)966-8836(代), 967-8838 야간 (02)965-5482
청우당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892-84

호주풍의 패밀리 레스토랑

OUTBACK STEAKHOUSE®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푸짐하고 저렴한
다운얼더 테트(런치 스페셜 ₩9,900)를
즐기세요.

왈할라 파스타, 후라이드 치킨 샐러드, 아웃백의 특선 볶음밥,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온더 바비등 다양한 메뉴와 함께 (중 택1) 콜라, 부쉬맨 브레드, 수프, 그리고 커피가 풀코스로 제공됩니다.

■매일 낮 12시 ~ 오후 5시 까지 제공됩니다.

■ 공항점 : 366-1101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 강남점 : 3445-4701 강남역 7번 출구 한남 대교 방면 700m 직진
■ 홍대점 : 3142-445[illegible] 홍대역 2번 출구 춘전 B/D 1층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FORBES '99선정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남편꺼, 애들꺼, 부모님꺼...
가족들 내의 한 번 장만하려면
엄청 고생하시죠?"

믿으니까! BYC

BYC

믿을 수 있는 이름- BYC

BYC

N세대의 패션감각- 스콜피오

SCORPIO

BYC매장엔 없는게 없다!

소녀에서 숙녀로- 르송

Le-son

1318의 자기표현- 지마인드

MIND

패션 란제리- 아미에

Amie

에어메리 CHEIST CENTO ziros EUROPA SCORPIO

Hilton HELLO KITTY NICKEL KIDS BOOBY

주식회사 한국 얀센 Johnson&Johnson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타이레놀, 정말 좋은 두통약입니다

두통엔 타이레놀 - 믿으니까요!

전 머리 아플 때 꼭 타이레놀을 선택해요. 단일성분으로 두통을 말끔하게 없애주거든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두통약, 타이레놀 - 전 꼭 타이레놀이에요. 믿으니까요!

타이레놀은 사람의 건강과 함께
소중한 여러분에게 사랑의 타이레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 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믿을수 있는
타이레놀
www.tylenol.co.kr

신뢰의 상징 - 비너표
유한양행

"오늘, 웰빙 스타일을 골랐다"

한 번 염색으로 품격과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표정까지 밝아지는 헤어칼라링- 유한양행 매직브라이트

때론 우아~하게 웰빙 스타일로 꾸미고 싶은 것이 여자의
밉지 않은 욕심! 그러나 머리가 희끗 희끗하거나 숯처럼 검다면?
왕래의 머리 색처럼 자연스런 칼라는 물론, 풍부한 트리트먼트
성분이 머리 결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지켜주는 매직브라이트-
표정까지 밝아지고 품격까지 살려주는 매직브라이트로
우아~하게 살자구요!

매직 브라이트 55 밝은 갈색 50 약간밝은 갈색 45 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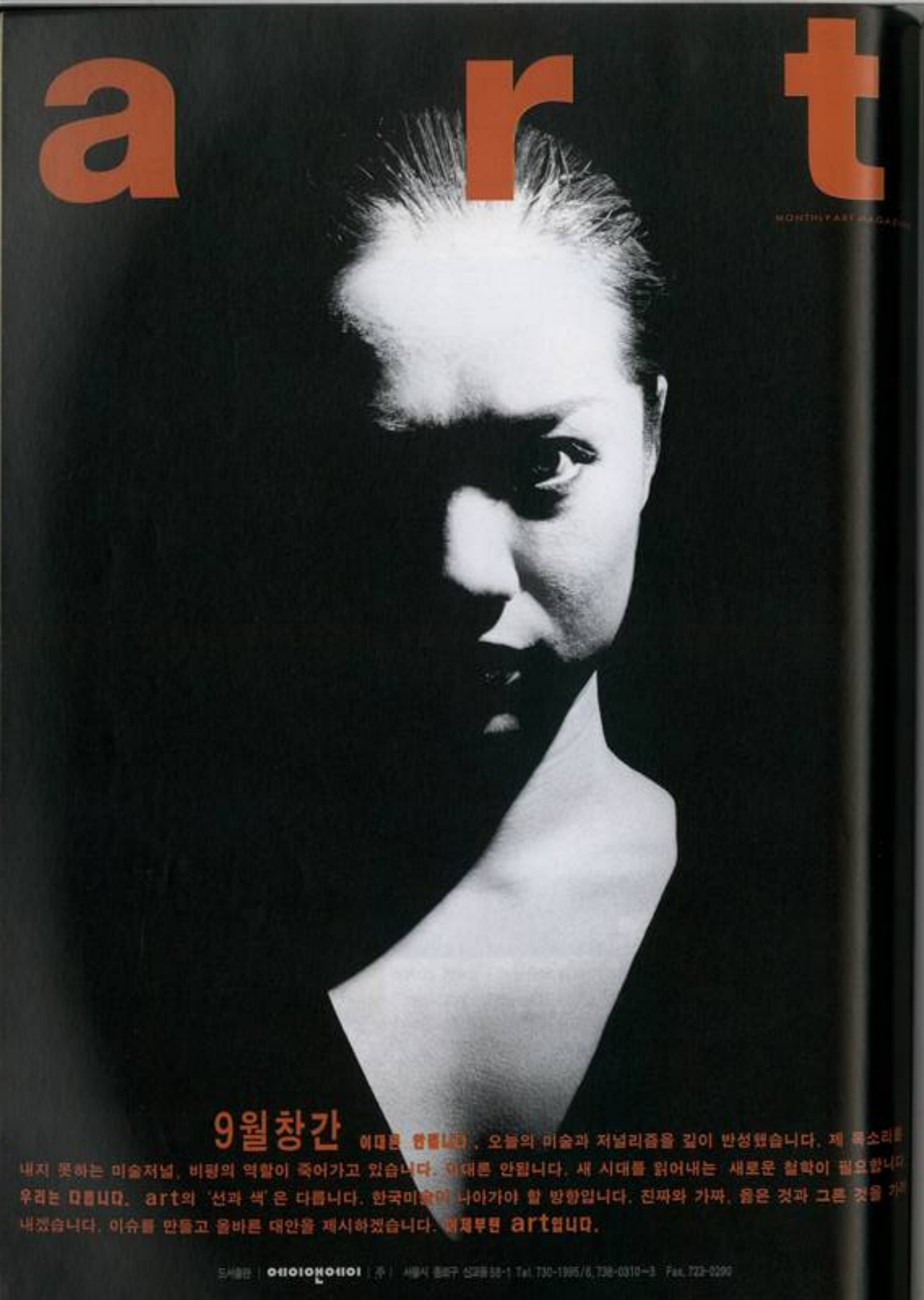
• 세치, 백모용 염색약 • 염색시간 20분 • 권장 소비자 가격 : 12,000원

한 번 써보면 다시 찾게 됩니다

모발보호	감초추출물과 비타민 C, E가 첨가되어 두피와 모발을 튼튼하게! 호호바 오일이 머리결을 건강하게!	저자극	암모니아 성분이 적어 자극적인 냄새 또한 적습니다!
실속형	크림타입 조금씩 덜어 쓰는 실속형!	간편하다	흘러내리지 않는 크림타입이라 혼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헤어칼라링 —
매직브라이트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9월창간 예대론 안됩니다. 오늘의 미술과 저널리즘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술저널, 비평의 역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론 안됩니다. 새 시대를 읽어내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art와 '선과 색'은 다릅니다. 한국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이슈를 만들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제부턴 art입니다.

도서출판 | 예이아트예이아이 | 주 |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53-1 Tel. 730-1995/6, 738-0310~3 Fax. 723-0290

태평양제약
www.pacificpharm.co.kr
소비자상담전화: 080-023-3900

선진 6개국 특허획득

미국
96년 4월 특허 획득
NO 550956

일본
96년 10월
특허 획득
NO 2569396

영국
97년 4월 특허 획득
NO 2273044

독일
97년 4월 특허 획득
NO 4241874

프랑스
96년 6월 특허 획득
NO 2698787

캐나다
99년 7월 특허 획득
NO 2183960

톱 클래스 국가가 인정한 케토톱

케토톱이 선진 5개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뼛속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케토톱의 D.D.S(Drug Delivery System) 신기술이 한국은 물론 선진 5개국에 이어 이제 캐나다에서도 특허로 당당히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특허와 함께 싱가폴, 대만,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수출 중인 세계적인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관절염, 세계 톱클래스 국가들이 특허로 인정한 케토톱으로 속부터 시원하게 캐내십시오.

특허획득
경피투여형
대웅침조기술

태풍이 만든 붙이는 관절염·류마티즘 치료제
케토톱®
클래스A

케토톱을 확인하세요

한국 · 미국 · 프랑스 · 일본 · 독일 · 영국 · 캐나다

롯데제과

카렌스 물어라! 노트북 걸려라!

롯데껌으로 짜릿한 행운을 낚으세요.

카렌스 4명, 아토스 4명, 노트북 8명 -
롯데껌 포장지 속에 인쇄된 클로버가 매월 306명, 4개월간,
총 1224명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롯데껌 클로버 행운대잔치

제1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아라!

모든 롯데껌의 겉포장에는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껌 포장지 속에 인쇄된 네잎 클로버를 오려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제2 세잎 클로버도 행운을 드립니다!

세잎 클로버를 오려 보내주신 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 1999년 9월 10일 ~ 2000년 1월 10일 (4개월간)

보내실 곳 : (150-6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54호
롯데껌 클로버 행운 대잔치 담당자 앞

발 표 : 10월 30일 스포츠서울(9/10 - 10/10 접수분), 11월 30일 스포츠서울(10/11 - 11/10 접수분), 12월 30일 일간스포츠(11/11 - 12/10 접수분), 1월 29일 스포츠투데이(12/11 - 1/10 접수분)

한국마사회
http://www.kra.or.kr

여러분은 밝고 싱싱한 미래에 투자하셨습니다.

환급금(복승식 기준) (72%)

경마를 즐기는 비용으로 여러분께서 1,000원을 쓰신다면 환급금으로 여러분에게 720원이 되돌아가고,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70원, 한국마사회의 경마운영 및 법인세로 70원이 쓰이며 사회공익 및 경마발전적립금으로 40원이 쓰입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재정 기여 및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축산발전기금 등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신 셈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마시행을 통해 사회공익 실천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7%)

비용 및 법인세(7%)

사회공익 환원(2%)

경마발전적립금(2%)

'98 사회기여실적

-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 마권세 등 (6,300억원)
- 축산발전기금 (524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31억 7천만원)
- 새마을장학기금 및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지원 등 (48억원)

청결세대 – 옥시

OXY

왜

타게트튜브여야만

하는가

기존의 설치식 바퀴살충제와는 달리 타게트튜브는 튜브식!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통로인 좁은 틈새까지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온 집안의 바퀴를 꼼꼼하게 없애줍니다

슈퍼에서 구입하세요

틈에 짜 놓는 튜브식 바퀴살충제 - 타게트튜브

- 수량이 제한된 설치식 살충제와는 달리 온 집안에 원하는 만큼 짜 놓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 · 경제적으로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습니다.
- 미관상 보기 흉한 곳(천장, 바닥의 모서리), 설치하기 어려운 곳(가구나 벽면의 틈새)에도 손쉽게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바닥과 벽 사이 틈

싱크대의 서랍 사이 틈

가스레인지와 벽사이 틈

고객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제품 개선, 상품명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모든 고객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며, 아이디어가 채택되신 분에는 별도의 상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 우편번호 : 135-080 • 본사대표 : (02)421-6789
• http : //www.oxy.co.kr • E-mail : csc@oxy.co.kr

대리남편

남편쪽의 문제로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스미스씨 부부는 '대리아빠'를 들이기로 결정했다.

"난 나갈게. 그 사람 아마 곧 올 거야."

잠시 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기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가 벨을 눌렀다.

부인: 안녕하세요.

사진사: 안녕하세요. 부인께선 절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인: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오실 줄 알았으니까요.

남자: 정말이세요? 잘 됐군요. 저는 아기 전문가이고 특히 쌍둥이는 자신 있습니다.

부인: 제 남편과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남자: 그럼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인: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어요.

남자: 그럼 일을 시작할까요?

부인: 어떻게 하면 되죠?

남자: 모든 걸 제게 맡기십시오. 저는 대개 먼저 목욕탕에서 두 번 정도 시도하고 소파에서 한 번, 그리고 침대에서 한두 번… 때로는 거실 바닥에서 잘 될 때도 있지요.

부인: 목욕탕, 거실 바닥이요? 남편과 저도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자: 글쎄요, 부인. 물론 매번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러 곳에서 해보고 또 제가 여러 각도에서 시도한다면 결과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조는 '고객의 만족이 곧 나의 기쁨'이거든요.

부인: 성공한 적이 많으신가요?

남자: (가방을 열고 아기 사진들을 보여주며)이 사진을 좀 보세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성공한 거지요. 이건 저희 시에서 가장 예쁜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그 엄마와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부인: 그 엄마가 어땠는데요?

남자: 말도 마세요. 일을 끝내려고 하이드파크까지 데려갔지요.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 엄마는 일이 좀 길어진다고 소리지르고 난리였답니다.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날은 어두워가구요. 그래서 행인들에게 그 부인을 좀 잡고 있어달라고 했지요. 다람쥐들까지 달려들어 갉아먹으려 하니 저는 그만 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당신의… 그걸?

남자: 뭐 그런 일이야 다반사지요. 저는 제 일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저의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아기를 보세요. 이건 대형백화점 앞에서 했던 건데요.

부인: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 자 그럼 부인, 준비가 되셨으면 저도 삼발이를 꺼내고 준비를 하죠.

부인: 삼발이요?

남자: 예,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하기 편하도록 삼발이를 쓰지요. 부인…? 부인…? 저런, 기절하셨네….

국회의원

어느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신부가 얼마냐고 묻자 이발사는 "주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안 받겠다"고 했다. 이튿날 나와보니 고맙다는 메모와 함께 10여 권의 기도서가 문가에 놓여 있었다.

며칠후 경관이 머리를 깎고 요금을 묻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안 받겠다"고 했다. 이튿날 나와보니 고맙다는 쪽지와 함께 도너츠 10개가 놓여 있었다.

며칠 후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고 요금을 묻자 "나라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안 받겠다"고 했다. 이튿날 나와보니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이(1)

부자동네 김포청천과 가난한 동네 박포청천이 살았다. 김포청천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작두를 대령해라."

지나다 이 광경을 본 가난한 동네 박포청천, 그 호통소리가 맘에 들었다. 어느날 박포청천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작두를 빌려와라."

차이(2)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부를 때 대답하는 것을 보면 몇 학년인지 알 수 있다.

1학년—네?

2학년—왜요?

3학년—뭐요?

"인어공주는 어느 쪽이 생선일까?"

참가자: 권혁란(출판팀장), 김보미(기자), 김영란(출판마케팅팀장), 난나(일러스트레이터), 박미라(편집장), 변재란(영화평론가), 엄을순(사진기자), 오혜주(미술평론가), 우안녕(독자팀장), 윤숙경(총무부장), 이숙인(소설가), 제미란(아트디렉터), 황금희(객원기자)

시간: 99년 11월 14일 저녁 6시

미라: 이번엔 주제가 좀 무거워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캐릭터나 여성이미지는 뭘까, 하는 거예요. 영화, 연극, 드라마, 만화, 미술, 각 장르를 통틀어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다 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다방은 초대손님도 있고 하니, 실명으로 합니다. 그래도 신경들 쓰시지 말고….

숙인: 엄마 전에 되게 참한 여잘 만났는데, 일도 잘하고 가정생활을 참하게 잘 하는 여자야. 근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사는 게 너무 똑같고 일상적으로 힘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기대 있다가 선만 넘으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을 때가 가끔 있대. 근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호수 같은 여자거든? 그 때 떠오른

게 홍상수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마음경의 마지막 장면이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같대. 그게 자살 같은 의미는 아니고, 광장을 가로질러서 〈염소를 모는 여자〉 얘기를 하더라고. '염소를 모는 여자'라는 전경린의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 거 같애. 그 한 마디로 거기 있었던 여자들이 다 "맞어, 맞어. 염소를 모는 여자같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여자들 내부에 도사리는 그런 충동적인 가출이나 일탈이 느껴져서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늘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나도 그 소설이 되게 많이 남아요. 강렬하고. 그 사실 염소가 갖는 이미지가 서구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염소를 악마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금희: 근데 선배, 나도 사실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

숙경: 그렇지.

혁란: 난, 전혀.

금희: 글쎄, 떨어졌을 때가 어떨까가 보고 싶은 건지, 아까 말한 일상에서의 탈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떨어지고 싶은 생각 되게 많이 들어. 순간 누가 안 잡아주면 떨어질 것 같애.

미라: 떨어진다는 말을 하니까 진짜 절벽에서 떨어지는 드라마 무지 많지 않았어? 특히 여자들.

숙인: 그래.

안녕: 〈델마와 루이스〉.

미라: 아니, 한국에서도 보면 소복에서부터….

금희: 낙화암 삼천 궁녀.

미라: 그래, 여자들 진짜 많이 떨어졌다.

금희: 심청이도.

혁란: 떨어지는 게 여자랑 관계가 있나보지?

숙인: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요즘에는 떨어지지 않고 걸어서 나가는 걸로 바뀌는 거 같애.

미라: 그건 〈델마와 루이스〉지.

혁란: 그럼 떨어지는 거는 죽는 거고, 뛰쳐나가는 거는 살려는 거야?

숙인: 아니, 나는 떨어지는 건 굉장히 패배적인 거 같다는 인상이 들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항상 결론이 자기를 파괴하고 끝나.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미라: 근데 〈델마와 루이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숙인: 근데 나는 그 떨어지게 하는 게 정말 싫어.

혁란: 그게 엮어놓은 거지, 결말을.

재란: 그 〈델마와 루이스〉는 원래 버전이 두 개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피엔딩 되는 두 개의 판을 만들어가지고, 감독인 리들리 스콧이 시사를 했는데, 그거를 본 관객들이 그 떨어지는 것에 박수를 더 많이 보내는 바람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영란: 와, 역시 전문가라 다른데….

미라: 왜 거기에 박수를 보냈을까. 난 소름 끼치는데….

혁란: 아니, 근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걸친 채 끝나잖아. 그러니까 결말을 열어놓은 거잖아.

미라: 그랬나? 이렇게 나르지 않았나?

혁란: 날았는데 공중에 비상하는 새처럼 그냥 딱 걸려 있는 거지.

숙경: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재란: 화면 밖의 얘기는 결국은 떨어지는 거거든.

혁란: 화면 밖의 얘기는 그건데 각자 받아들이는 건 진짜 새가 되어 날아갔다는 거구.

숙인: 아니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안녕: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미라: 직관이 움직이는 나로서는 떨어진 거라고 봐.

혁란: 내 직관으로서는 안 떨어졌다고 봐. 날아갔다고 봐.

난나: 근데 떨어지는 게 꼭 나쁜 게 아닌게, 〈마니〉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마니가 용으로 변신을 할 때 바다로 떨어져서 버다 안에서 다른 용 같은 생물체로 변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재탄생이라고 하나요?

모두: 음….

숙인: 그건 '만화' 잖아. 허구!

모두: 하하하.

혁란: 그럼 그건 영화잖아.

재란: 〈델마와 루이스〉에서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결말처럼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떨어지면 화면 밖으로는 죽을 게 뻔하죠. 그렇지만 이 스톱모션이란 기술적 장치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하는 은유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숙인: 아, 그렇네.

혜주: 영화 전체적으로 만화적인 상징이 중간중간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 영화는 끝에 가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상상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져 죽는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

숙경: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자들이 비상하기란 힘든 거지.

미라: 궁지에 몰린 여자지. 나는 그 장면이 슬픈 비상이거나 기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연한 죽음. 그 정도지. '살아서 비상한다'는 아니야.

재란: 아, 그리고 왜 미친 여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혜석에 대해서도 행려병자 이미지가 있구….

숙인: 응. 전혜린도 그래요.

재란: 까미유 끌로델의 그 이미지처럼. 나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아랫집에 있었던 내 동생 친구의 엄마였는데, 그 때가 한참 우리 나라 시대적 배경이 월남 전 당시였어요. 그 여자 남편이 아마 월남에 기술자로 갔던가 돈 벌러간 사람이었지. 우리 엄마는 그 당시 한복차림이었는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멋쟁이인 거야. 이렇게 모자 쓰고 너무너무 멋있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후 그 집안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를 통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그 여자가 바람피는 게 남편한테 알려져가지구 이혼을 당해서 완전히 결딴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2년 후쯤 내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옛날 그 동네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그 육교 위에 행려병자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때 어린 마음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란: 어머나, 어머나.

숙인: 완전히 소설이다.

재란: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가는구나, 사회에서….

숙인: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 화려한 여자나 일탈한 여자는 꼭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게 되게 못마땅해.

미라: 윤심덕도 그렇구.

숙인: 윤심덕 그렇지. 전혜린도 마지막에 죽은 이유가 사람들마다 분분한데, 여러 책에서 종합정리를 해본 결과는 어떤 남자를 사랑했던 거 같애, 전혜린이. 마지막 글을 보면 자기가 태양병에 걸렸어.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어. 그리

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버린 거 같애. 그 남자를 막 그리워해. 그 잘난 여자가 그 남자 때문에 악 먹고 미쳐가지구 총 들고 자살한 거잖아.

미라: 근데 '그 잘난 여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는 잘난 여자들이 사랑에 빠져서 죽을 특권도 있었던 거 같애.

숙인: 잘났으니까?

미라: 응, 그거에라도 열정을 쏟고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안녕: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혜주: 응, 딴 데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모두: 하하하.

혜주: 아니, 발산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잘나고 좀 특이하고 두드러지는 여자들, 나혜석도 그렇고 최욱경이라는 여자도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었는데, 자살이나 악으로 죽었느니 하는 추측들이 많아요. 그 여자가 대학교에 있었는데 진짜 너무나 잘났고 정열도 많고 자의식이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학생들에게 쏟아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선 최욱경 신드롬이 일고,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역시.

미라: 아마 실연이 자살의 이유는 전부 이

나왔겠지만.

혜주: 그렇지. 연애든 뭐든 다 안 되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지.

숙인: 난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헬렌 니어링 같은 여자 있잖아. 그런 여자라든지 미국 화가 중에 꽃만 그리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음순처럼 생긴. 아, 맞아, 오키프. 그 두 여자들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집에서 왕따당하고 그랬지만 참 잘 살아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작품 다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우리 경우는 대부분 비극적인 사례만 주위에 떠도는 거 같은 게….

을순: 있는 데 안 보이는 거겠지.

미라: 그러면 작품 속에는 있나? 잘 났는데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영란: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모두: 하하하.

영란: 가발공장에서 하버드까지!

미라: 그건 현대지. 현대로 넘어오면 비교적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잖아.

숙인: 또 딴 사람도 말해 봐. 강렬한 이미지로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거.

금희: 난 〈캔디〉.

난나: 나도 캔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라: 캔디는 「베르사이유의 장미」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 하하하.

재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금희: 나는 국민학교 때였어.

안녕: 그럼 캔디 다음이 〈빨강머리 앤〉이야?

을순: (밖으로 나가면서)아무, 〈황금박쥐〉 시대는 가야겠다.

모두: 하하하.

난나: 근데 요즘에 여성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친 여성주인공들이 많고 그래도, 캔디만큼 주체적이고….

숙인: 캔디가 주체적이야?

난나: 캔디가 주체적이에요. 자기 삶을 선택해요. 결국은 자기가 갈 곳이라든지 자기가 할 일을 택해요.

미라: 근데 독자는 그 캔디를 읽으면서 느낀 슬픔을 거기 나오는 남자들 때문에 극복해.

금희: 그래 그래, 그게 문제인 거 같애.

숙인: 안소니, 테리우스….

금희: 캔디의 주체적인 삶을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없었던 거야. 캔디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테리우스, 안소니 같은 남자들만 보이는 거지.

미라: 그래, 그걸로 다 위안을 받는 거야. '저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재는 남자가 있으니까 행복해.'

숙인: 그래.

난나: 캔디는 남자가 없어도 행복할 타입이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은 캔디의 삶에 있어서 역정이나 굴곡을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었을 뿐이지.

미라: 역경은 이라이자가 만들었지.

모두: 하하하.

숙인: 근데, 그 테리우스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면 지금까지도 안정환 보고 테리우스라고 그러잖아.

미라: 그래, 지겨워. 아우, 테리우스 너무 싫어. 난 든든한 알버트가 좋아.

모두: 하하하.

금희: 난 스테아가 좋았는데.

난나: 나두.

숙인: 안경 낀 발명왕.

혜란: 스테아는 진짜 인간적인 친구야.

혜주: 그러니까 캔디를 다시 해석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한 남자에 여러 여자가 스쳐가는 얘기처럼 한 여자에 여러 남자가 개처럼 스쳐가는 그런 얘기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안녕: 하하하. 개처럼?

혜주: 나도 캔디가 굉장히 주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캔디의 내용이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못 생기고, 그야말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나 즐겁게 살고 고아에다가, 근데 남자애들이 캔디한테 무슨 역할을 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타입의 남자들이 개를 스쳐서 이렇게 지나갔지.

혁란: 진짜 그래. 거기에 캔디가 휘둘리지 않았어, 별루.

미라: 아니, 근데 캔디는 안 휘둘렸는데, 읽은 우리는 왜 휘둘리는 거야?

모두: 하하하.

미라: 우리가 캔디를 비판할 때는 바로 독자들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주인공이 잘못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난나: 그건 독자들의 잘못인 거 같아요.

숙인: 독자를 둘러싼 시대상황 아니야? 하이틴로맨스 시대잖아.

난나: 만화를 읽는 방식이 지금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 당시 만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랐죠.

숙경: 다시 봐야 되겠네.

혁란: 우리집에 영인본으로 7권 딱 있어.

모두: 하하하.

재란: 내가 쓰는 논문이 50년대,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서부터 60년대초까지 한국영화사의 여성관객을 연구하는데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영화를 악착같이 보러갔까 했는데, 할머니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연애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

숙인: 아, 재밌다.

재란: 내가 보기에도 캔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 각자 독자 위치에서 다양한 남성들을 자기의 남자로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남성과 상상의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만화가 재밌었던 거지.

금희: 맞아요.

난나: 근데 캔디 이후에 히트작이 나오잖아요. 「베르사이유의 장미」도 있고 「올훼스의 창」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성캐릭터들은 남장을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사랑에 휘둘려갖구 여자로 돌아가고 싶어하구.

미라: 예를 들면 뭐가 있어?

혁란: 「베르사이유…」의 오스칼도 어느 날 갑자기 여장을 하고 드레스를 딱 입고 나왔을 때 등장인물들은 거기에 환장을 한 거야. 그리고 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나도 예쁜 여자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애.

난나: 여자가 되고 싶어했죠.

미라: 〈달려라 하니〉, 그거 일본 거지?

모두: 아니야! 이진주씨 거다! 진짜 한심해….

미라: 맞아, 맞아. 이진주인데, 굉장히 일본풍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 지독한 애, 악착스럽고….

숙인: 그렇지.

난나: 우리 나라 만화 주인공들이 일본의 트랜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재란: 유형화시킬 수 있을 거 같애. 주근깨 투성이의 못 생기고 그런 얘가 결국에 가서는 성공한다 이런 플롯이 있고. 미운 오리 새끼 플롯이지. 또 하나는 굉장히 예쁜데 미인박복이라고 고생하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모두: 하하하.

미라: 그래, 내가 박복해 좀.

난나: 진짜 하니를 생각 못했는데, 우리 나라 만화로서는 하니 만한 캐릭터가 없네요.

혜주: 근데 하니는 언제나 엄마에 대한 결핍감이 있지.

모두: 맞아.

혜주: 그것만 채워지면 걔는 그런 독한 면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사실 보기드문 캐릭터죠. 남자가 하는 스포츠를 여자가 한다는 점에서.

난나: 그리고 오스칼 같은 약한 모습 안 보여요. 오스칼 같이 괜히 여자가 되고 싶어 울면서 뛰어가는 그런 거 없어요.

금희: 나는 캔디 얘기를 꺼냈던 게, 나는 60년대 태어나서 9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활동하는 여자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 세대인데, 하이틴로맨스도 많이 읽었지. 우리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백혈병 걸린 여자와 남자의 사랑, 러브 스토리였는데?

숙인: 〈라스트 콘서트〉.

금희: 맞어. 〈라스트 콘서트〉는 중3때부터 고1때까지 거의 나의….

난나: 그건 1930년대부터 우리 나라 유행하던 패턴이다.

금희: 우리는 로맨스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로맨스영화 아닌 거는 재미가 없는 거야. 물론 여성학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로맨스 코드로만 읽을 수 있는 거야. 이 여자 주체성이나 다른 건 안 보이고, 모든 게 사랑과 따뜻한 러브스토리.

미라: 그렇지, 주체성은 안 보이고.

금희: 안 보여, 그런 게. 〈쉬리〉 같은 영화도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일본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면서 나오는 거야.

미라: 〈쉬리〉를?

금희: 응, 〈쉬리〉를 보면서, 개네들도 코드가 딱 그거야. 사랑, 둘간의 애틋한 사랑.

미라: 근데 그 전에도 그렇지 않았나? 〈맨발의 청춘〉 같은 거.

재란: 50년대 영화를 많이 보신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충 다 할리우드영화에서 특히 오드리 햅번, 〈로마의 휴일〉에서의 그 모습, 이미지를 많이 기억해요.

영란: 영화 속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산 위에서 1부 끝날 때쯤에 땅을 움켜쥐고 "다시는 가족을 굶기지 않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인상에 남던데….

안녕: "타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숙인: 스칼렛처럼 강인한 내면을 조장하는 엄마들 이미지하고, 난 왜 이렇게 허리가 굵을까 자학하게하는 오드리 햅번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도 굉장히 영향을 줬다. 그게 뭐냐면 하염없이 착하고, 헌신적이고 밝고, 그런 거.

미라: 조금 더 내려가보자. 디즈니만화로.

숙경: 난 〈소공녀〉가 좋았는데.

숙인: 너무 어울려, 숙경씨랑.

숙경: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 찾아다니잖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물발 같은 데서 오리알 같은 거 구워먹고, 막.

영란: 그거 아류 아냐? 〈소공녀〉에 오리알 안 나와.

모두: 하하하.

숙인: 그거는 〈소공자〉 아니야?

난나: 아니에요, 〈소공자〉에서도 오리알 안 나와요.

모두: 하하하.

금희: 오리알 구워먹는 스토리는 처음이야.

모두: 하하하.

숙경: 할아버지 찾는 과정에서 들판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럼 뭐지? 내용은 기억나는데….

미라: 또 동화 읽은 거 중에서 스토리가 아니라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가 있어요?

영란: 〈제인 에어〉.

혁란: 그게 무슨 동화야?

모두: 하하하.

영란: 난 어려서부터 워낙 그런 걸 봐서….

금희: 〈박씨 부인〉.

숙인: 맞어, 맞어. 〈박씨 부인〉은 진짜 충격이었어.

혁란: 김세윤하고 홍세미였어. KBS에서.

숙경: 맞어. TV에서 한 〈박씨부인전〉.

혁란: 근데 그 때 홍세미가 가면 쓰고 나왔었어요. 근데 김세윤이, 홍세미가 가면을 쓰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다가 어느 날 홍세미의 가장 예쁜 얼굴이 딱 나타났을 때 진짜 기막혔거든.

금희: 〈미녀와 야수〉다.

재란: 그 반대지.

숙인: 그래서 난 〈평강공주〉가 좋았어.

모두: 하하하. 얘기가 왜 이렇게 튀냐?

숙인: 〈평강공주〉나 〈박씨 부인〉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어.

숙경: 근데 펑강공주 좋아? 난 싫어.

혜란: 펑강공주는 주인공이 아니었잖아. 바보온달이 주인공이잖아.

숙인: 어쨌든 걔는 스스로 집 나왔잖아.

안냉: 온달을 트레이닝했지.

숙경: 결국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지.

미라: 그럼, 그 시대에 그 정도도 못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바보 남편보다는 펑강공주가 더 유명하잖아. 그 얘기하니까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생각난다. 나는 절대 북 찢지 말아야지, 왜 제발등을 찍었나… 그 때 얻은 교훈이었어.

숙인: 그럼 이제 우리 한국영화에서 나오는 이미지 갖고 하자. 호스티스 영화 주인공들 싹 나온 적 있었잖아.

재란: 그게 70년대.

숙인: 그러다가 애마가 싹 나왔구.

재란: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 여자〉, 이런 게 70년대지.

영란: 〈고래사냥〉은?

재란: 〈고래사냥〉은 70년대 말.

미라: 근데 〈별들의 고향〉을 옛날에 단체로 영화관람하는 거 있었잖아, 중고등학교 때.

혜란: 그거를 단체 관람했어?

미라: 아니, 동시상영하는 극장이었는데 일찍 가서 끝나는 부분을 본 거야. 선생님들은 나가 있으라고 그러지. 우리가 본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뭐였는지는 생각도 안 나. 근데 진짜 경아의 이미지를 분석한 건 여성학을 하면서 한 거고, 그 땐 정말 '아한 거 본다' 는 생각밖에 없었어. 문화분석을 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선생님들이 못 보게 하니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야한 거란 인상밖에 안 남아 있어.

영란: '경아! 오랜만에 누워 보는군.'

숙인: 나는 우리 나라 영화를 보면 별로 이렇게 기대할 만한 모델이 없었고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외화를 보면서 훨씬 재미있었던 거 같애.

재란: 어, 그거는 할머니들도 하시는 말씀이 50년대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를 많이 더 주목한 이유는 나름대로 교육받은 경우에는 울고짜고 하는 게 싫었고, 외국영화에서는 멋있고 당당하고, 그런데 우리 나라 거는 너무 구질구질하고,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을 자꾸 상기시키고 그래서 안 보러 갔다는 분들이 있어.

숙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봐봐, 그런 게 굉장히 풍미했는데, 거기 여자 캐릭터는 그늘에 있는 여자라고, 청순가련형, 자기를 다 던지고 그런 거 아니면 경아나 영자가 또 풍미했잖아.

미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우리 엄마들 세대가 타켓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

금희: 그래도 그 안의 여자주인공이 남성 감독과 동일시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기 힘든 거잖아. 이번에 조선일보에 최인호가 〈나의 20세기〉라는 칼럼을 썼거든? 〈별들의 고향〉 경아에 대해서도 쓴 거야. 근데 그 남자주인공 신성일이 최인호의 분신이 아니라 경아라는 여자주인공이 분신이야. 최인호가 28살 때 〈별들의 고향〉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해 가지구, 그거를 소설로 썼는데, 이장호가 그걸 영화로 만든 거야. 근데 쭉 내용을 보니까 경아가 바로 자기의 방황을 표출한 인물인 거야.

미라: 아니, 나는 기억나는데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다같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봤던 게….

재란: 교육받은 여성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울고불고 하는 게 카타르시스와 함께,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고 해야지.

숙인: 응.

재란: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 번〉도 잘 보면 문희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청순가련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애도 키우겠다, 그렇게 꿋꿋하고 당당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모성에 악한 거라,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결국은 남편의 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했더니 얘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애로 인한 이러저러한 문제를 1편, 2편, 3편으로 만든 거지.

금희: 근데 그런 캐릭터도 남성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미라: 남성판타지나 아니나, 좋으나 나쁘나,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 같애.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여자들이 아이문제로 굉장히 절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금희: 근데 눈물의 그런 것 있잖아. 〈쉬리〉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장면에 어떠어떠한 대사와 어떠어떠한 포즈를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게 있어.

미라: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여자가 영화를 보고 '그래, 역시 여자는 착하고 아름다워야 돼' 이런 짝 있잖아. 남성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는 영화가 있다면 〈미워도 다시 한 번〉 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야. '아이고 여자 팔자야, 내 심정을 너무 잘 드러내줬구나, 여자는 너무 고달퍼' 이 수준이라면 그렇게 단순히 남자들의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

혜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물론 구조가 사람들을 갈등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갈등과 모순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정사〉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미숙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보통 여자들이라면. 근데 애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

미란: 얘가 아예 안 나오니까.

혜주: 아니, 나오기는 나와.

미란: 하여튼 결손가정 이런 거 없이는 문학도 없고, 영화도 없어.

재란: 상처.

숙인: 그래, 상처.

재란: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나 하는 그런 70년대 만들어냈던 호스티스물도 시작은 항상 그 거거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딱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구 서울에서 도시에서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남자한테 버림받구 상처받구.

숙인: 맞어. 〈눈물의 웨딩드레스〉도 그래.

재란: 네. 그런 식의 이야기구조를 갖게 되거든. 항상 시작할 때는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야, 거의. 지방출신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와, 그랬는데 서울은 완전히 타락의 공간이야, 그런 공간 속에서 이 남자, 저 남자 겪으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지.

미라: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열심히 본 세대가 누구예요? 연령층이 지금은 몇 살쯤 돼 있을까요?

재란: 40대 후반.

미라: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재란: 70년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온 거는 '유신 치하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6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이 대중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손 붙잡고 영화관에 가는 일이 많았는데 인제 더 이상 가족들이 극장에 안 가거든요.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특히 주부들은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고 텔레비전을 지켜보게 되니까 남성들을 위한 특히 남성 성인들을 위한 영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 성인들을 위한 영화가 바로 일련의 호스티스물이죠.

모두: 아….

미라: 아, 그렇구나. 〈미워도 다시 한 번〉 하고 〈별들의 고향〉은 그 느낌이 전혀 다른 거야.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경우는 슬픔 속에서도 여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 같은 거가 느껴졌다면 그 호스티스영화류에서는 그것이 그냥 아름답게 보여지고 마는 거, 슬픈 아름다움, 이런 정조가 느껴지는 거 같더라구요.

혜란: 〈어미〉 있잖아, 기억나세요?

숙인: 응, 윤여정 나오는 거.

혜란: 응, 그거하고, 〈수렁에서 건진 내 딸〉 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강렬했던 거 같애. 이미례 감독의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그 다음에 〈어미〉, 그 딸이 인신매매되는 게 김수현이 쓴 거잖아, 엄마가 새로 생긴 남자하고 자고 있는 동안에 딸은 완전히 윤간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거를 용서 못해서 강간한 남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엽산 세례에 갖은 방법으로 다 죽이잖아. 그래놓고 마지막에 타자체로 자막이 나오면서 끝나요, 영화가, 어미는 어린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는데, 난 〈어미〉를 혼자 봤어요, 고등학교 땐가, 그래갖구 펑펑펑 울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외간남자와 잔다고 그랬어, 거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더 복수의 일념을 가졌던 거 같거든요.

숙인: 그 남자가 신성일이었어, 신성일하고 윤여정.

혜란: 게다가 〈어미〉가 박철수 감독 거예요.

난나: 근데 왜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싶었어요?

혜란: 인신매매 당한 애가 내 또래라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무서웠던 것도 있고, 그 엄마가 딸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끔찍했다구 그 시점에는.

재란: 딸이 자살을 했잖아.

혜란: 그것도 머리를 빡빡 깎고, 그것도 애가 이상해져서 집에 오는 세탁부, 전기수리공이랑 자고 이런 걸 엄마가 봐.

미라: 근데 그 영화는 어미로서의 본능, 이런 게 느껴지지지는 않았어. 만약 아들이 어떤 식으로든 폭행이나 린치를 당해서 죽었다 이럴 경우에 엄마가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것이 영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혜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구.

미라: 여자들 속에 그게 어미이건 아니건 집단무의식적으로 여성으로서 폭행당하는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거 있잖아. 그거가 영화를 만들게 하고, 보는 사람들도 그 분노에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재란: 그런 것도 있고 〈이블리스 피어스〉라고 미국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 엄마의 성이라는 것은 부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미〉에서도 엄마가 잠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이에…,

혜주: 엄마의 실책이 애들을 버린다.

혜란: 벌주는 것 같은 느낌.

숙인: 그래.

재란: 사실 엄마에게 있어서 최대의 벌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거거든.

미라: 그러니까 밥하다가 죽었거나 생계문제 때문에 돈 벌다가 죽었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영화가.

재란: 엄마는 엄마로서만 있어야 돼, 그밖의 다른 것들은 생각해선 안돼, 그거는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영화 30년대 40년대 영화에도 어머니 이외의 다른 것이 되기를 욕망하면 굉장히 탄압을 받거나 죄값을 받거나 불행하게 되거나 그러지.

혜란: 여자 죽이기.

금희: 2000년대 가까와지면서 세기말적인 이미지로 여자애들 나오잖아.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캐릭터인지 어떤지 얘기해 보자.

숙인: 그래 그런 이야기들로 가자.

금희: 세기말적인 캐릭터로 배두나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나는 배두나 캐릭터 참 싫더라.

숙인: 아무 생각 없어 보이니까 금희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

금희: 그래서 그런가?

혜란: 그게 그 애의 힘이야, 아무 생각 없는 거.

미라: 아니, 고 세대에는 여자나 남자나 아

무 생각 없이 사이버틱한 거 그런 이미지 아니야? 광고 패러디하려고 앤날 잡지 뒤지면서 의문시했던 게 뭐냐면 사이보그형 인류들. 굉장히 무표정하고 시체 같고….

영란: 이정현도….

미란: 이정현만 해도 에로틱하지.

금희: 굉장히 에로틱하지.

미라: 무성무색무취 이렇지, 사이보그들은.

혜란: 이정현는 정말 사로잡힌 포박당한. 정말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캐릭터야. 〈꽃잎〉에서도 그랬어. 거기다가 무당 같은 기운까지 갖고 있는 거야. 〈꽃잎〉 할 때도 많이 회자된 얘기가 '머리로 유리를 딱 부딪쳤더니 그 투꺼운 유리가 깨지고 이마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였잖아. 그래서 그 '신기'로 그 영화를 찍었다 그랬잖아. 〈꽃잎〉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사로잡힌 영혼이잖아. 악귀에 매달리고 남자들에게 정처없이 휘둘리는. 그 광고에서 릭 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야. 할리우드의 성공한 멋있는 남자잖아. 근데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 얘가 딱 누르며는 요정처럼 이렇게 잡혔다 저렇게 잡혔다 그러잖아.

미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키가 작아서 그런 거야. 키가 작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두: 하하하.

영란: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광고가 아니라 그거는 불쾌하지만 이정현 나올 때 왜 부채 들고 나와서는….

혜란: 환장하지, 미치지. 마이크도 여기다 (새끼손가락만 펴면서) 달고 다녀요. 알아요? 기가 막혀.

숙인: 미성년자 약취하는 기분이야.

미라: 근데 어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영란: 아니라니까. 진짜로 개는 너무 멋있는 거야. 말하자면 '니가 감히 날 버렸니' 그러면서 '날 봐, 날 봐' 하면서 굉장히 허스키한 음성으로 남자한테 호소를 하는데. 그리고 부채도 웬만하면 조그만 예쁜 부채 쓰지 개처럼 이만한 큰 부채는 안 들려고 하잖아.

미란: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그렇다니까.

모두: 하하하.

영란: 섹시한 것도 자기가 연출한다고 보거든? 머리도 그렇고. 하앙게 칠하고.

숙인: 근데 그 이미지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여왕 이미지하고 일본 캐릭터잖아.

금희: 어, 그거 완전히 일본 캐릭터야.

난나: 잘 자랐다고들 부러워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당당히 하고.

숙인: 보미씨는 어때?

보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정현이 악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노래 속에서 말하는 거는 다 악녀거든? 그러니까 너 한 번 가져볼 테면 오라 이거잖아. 날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소중한데 넌 그걸 아느냐 라고 던져주는 거 같아서 나는 너무 좋아요.

혜란: 근데 라디오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바보 같애.

미라: 아니야, 이제는 별로 안 바보같애. 바보 같다고 해서 항상 피학적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여자 누구니?

난나: 홍진경?

미라: 응, 근데 홍진경이 처음엔 바보같이 나와서 남자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했거든? 근데 바보 같은 이미지로 해체하는 게 있잖아. '난 여자다워요, 난 똑똑하면서 지적이면서 아름다워요' 이런 여자들의 자기환상을 해체해 버리는 거고. 또 하나

는 그 '신기' 얘긴데, 신기가 있고 불안정해 보이는 정서가 여자애들한테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남자애들한테는 가학하고 싶은 이미지로 보이는 거 같애. 그래서 개가 〈꽃잎〉과 광고와 노래 사이를 막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그 양면의 이미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난나: 뮤직비디오에서도 뭔가 조종당하는 인형같이 나와요.

미라: 그러니까 이정현을 남자들이 기획하는 거지. 근데 내 느낌엔 〈꽃잎〉에서 학대당했지만 결코 피학을 즐기지는 않는 여자야. 혜매는 영혼 있잖아. 끝내는 완전히 잡히지 않는 거. 오히려 나는 경아가 잡힌 거지 〈꽃잎〉에서 이정현은 영원히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란: 미쳐버렸으니까?

미라: 응, 계속 겉도는 거지.

보미: 그리고 또 다르게 변신해서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어.

영란: 개는 그럴 것 같애.

미라: 근데 그 사이보그형 어떻게 봐야 되요? 남녀의 구분을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어요.

혜주: 그게 하나의 트랜드죠.

미라: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얼굴에 허옇게 칠하고 기운 없이 앉아 있는 그 모델들 있잖아.

미란: 그게 사이버이미지야?

숙인: 그렇지.

미란: 그건 시체 미학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지.

영란: 근데 사이버틱하고 차가운 느낌, 철제적인 느낌, 그게 좋아요. 쿨(cool)해 보이는 거야.

숙인: 오, 쿨!

영란: 눈 밑에 하앙게 칠하는 거 그냥 시원함이야, 그거는.

미라: 그러니까 예뻐보인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는 화장을 할 때 여성답게 예쁘게 하잖아? 근데 요즘 화장이라는 거는….

영란: 변정수 같은 경우가 눈썹을 이렇게 꺾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확 밀고 나왔거든. 별로 여성스럽지도 못하고 별로 섹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차갑고 멋있어 보였어.

미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혜란: 무표정하고 남의 일에 관심 없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멋져 보이는 거구나?

금희: 근데 그런 이미지를 왜 좋아해?

보미: 근데 내 생각에 세기말 종후군인 거 같애. 2000년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었는데 당장 50일 뒤에 나타날 거는 어제와 다름없거든. 갑자기 뻥 뚫린 것 같애.

숙인: 고통의 도가니잖아.

금희: 근데 세기말이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만들어낸 거 아니야?

재란: 세기말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미란: 관공서의 음모라니까.

모두: 하하하.

미란: 시청 마인드.

금희: 그렇게 세기말이라든가 사이버라는 거 만들어낸 어떤 담론들이 있을 거 같애.

미란: 상품을 팔기 위한 거지.

금희: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마치 뭔가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혜주: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사이버 이미지라는 게 기존의 이미지들이 너무 지겨워지고 그런 것에 속하고 싶지 않고 대안을 찾다보니까, 표정도 없어지고, 새로운 이미지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대안을 만든 거죠.

미라: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금희: 대안이라는 게 왜 그렇게 갑자기 튀는 거냐는 거지.

미란: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그거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다시….

미라: 조거인 거지.

모두: 하하하.

미라: 그리고 그걸 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영란: 여태까지의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혜주: 90년대에 모든 과정이 빨라졌잖아요. 가속이 붙으면서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고, 그런 속도에 비하면 이미지가 그 정도로 발전됐다는 거는 크게 발전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안녕: 93년대 우리가 학교 들어갔을 때 'X세대' 하면서 난리였었잖아. 완전 다른 세대의 인간들이 나타났다 하면서.

미라: 근데 이젠 X세대 아니잖아.

숙인: N세대지.

영란: 근데 어차피 N세대도 상품인 거 같애. 모든 정보를 넷에서 보지는 않잖아. 뭔지 길거리 가다가도 '내 취미는…' 이러면서 핸드폰 꺼내야 할 것 같구, '너 쿠폰 어디서 다운 받았니'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상업성이라는 거지.

미라: 맞아, 맞아. 그런 것 같다. 상업적으로, 소비이미지로 만들어진 거다.

금희: 그러니까 80년대는 어떤 이미지, 90년대는 또 사이버이미지, 그런 식으로 역사가 만들어지잖아. 거기엔 또 분명히 여

자들이 얘기했던 거, 여자가 바라는 거는 분명히 삭제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그러니까 인기 만화에서 〈누들누드〉 1위로 뽑힌 거 보면서, 사실 〈누들누드〉 불쾌했던 여자들 되게 많거든.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만장일치로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1등이야.

미라: 그럼 모두가 다 좋아한 것처럼 기록되는 거지.

혜란: 근데 〈누들누드〉를 본 사람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혜주: 근데 나는 만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 느낌에는 굉장히 재미있을 거 같애요.

혜란: 안 재미있어요.

혜주: 그래요?

숙인: 재미는 있잖아?

혜란: 아니, 〈좋은 친구들〉 보면, 여자들끼리 나와서 삐삐를 사타구니에 끼고 있는데 서로 삐삐 쳐주는 거야. 개가 오르가즘에 다다를 때까지. 그럼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쳐주고.

미란: 그게 나빠?

금희: 나쁜 게 아니라, 남성의 판타지의 극치라는 거야.

영란: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다고 쳐. 뭐냐면 남자한테 커피를 타주는데 여자가 머리에 잔을 올리고 와. 그리고 갑자기 남자를 올라타고 섹스를 해. 그러면 여자가 막 너무 좋아서 흥분을 해서 커피가 끓으면 '다 됐습니다' 하고 쏟아줘. 불쾌하지, 그런 건.

금희: 그리고 지하철에서 티켓을 안 넣고 공짜로 타려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티켓 투입구를 여자의 질처럼 만드는 거야. 여자 질에 다 티켓을 넣으면 앞에서 뭐가 후루루 나오는 거야. 하얀 게.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들 넣고 가는 게 커트로 나오거든.

미라: 오 마이 갓!

혜란: 〈누들누드〉 내용이 다 그런 거야.

미라: 근데 양영순이 여자 아냐?

모두: 하하하, 좀 심하다.

미라: 잠깐, 갑자기 인어공주가 생각났는데, 인어공주를 완전히 해체하는 게 있어. 반인반어인데, 위가 생선인 거야. 이건 인어공주 환상을 확 깨는 거야. 아우, 비린내.

모두: 하하하.

미란: 그게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야. 옛날에 앙복점 이런 데 가면 있었어.

숙경: 그거 만화도 있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위인지 아래인지.

미라: 남자들은 분명히 아래가 여자인 거고를 거야.

재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어렸을 때 봤을 때 너무 끔찍했어.

혜란: 그러면 요즘 인어공주가 나오는 신발광고 있잖아. 남자가 옷을 확 벗고 신발 하나 벗어놓고 갔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응시하다가 눈 감고 확 사라지잖아. 그 광고 어때, 느낌이?

금희: 멋있어.

혜란: 걔는 왜 사라지는 거야?

미란: 광고이미지 너무 좋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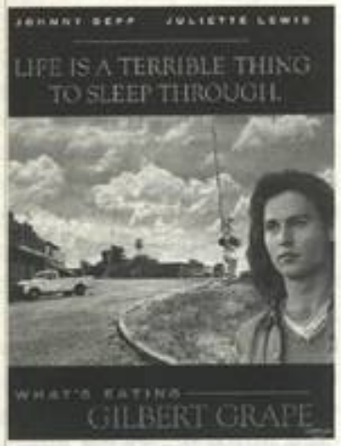
혜란: 아니 이미지는 살아 있는데, 개가 원하는 게 인어공주 버전이잖아. 나도 사람이 돼서 발을 가져서 저 신발을 신고 싶다는 거잖아.

금희: 라기보다는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성적인 부분을 느낀 거지.

혜란: 그러니까 나쁘지 않어? 나도 저 남자를 가지려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저 남자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신고 싶다 야.

금희: 그런 거야? 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보미: 난 그 신발 신고 싶지도 않고, 지 꼬리가 얼마나 예쁜데. 난 보면서 화났어. 그



리고 그 남자 꼬실려면 보쁘도 있는데, 왜….

미란: 빨리 가서 마녀한테 가서 다리를 안 들어야지, 그런 거야?

혜란: 그 이미지지. 광고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거야.

미란: 아니야, '저 남자를 먹고 싶다' 야. 개가 돌아서서 갈 때 빨리 돌아가서 마녀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는 안 느껴져.

미라: 그건 광고주가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는 거야. 다양한 해독을. 이제부터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캐릭터 이야기하자.

혜주: 차라리 드라마 갖고 얘기하죠. 우리가 20, 30대 때 많이 봤던 드라마 얘기가 빠졌잖아요. 김수현이나.

혜란: 그럼 〈청춘의 덫〉이네.

미라: 〈청춘의 덫〉만 해도 너무 멀다, 이제는.

미란: 최근에 심은하가 했잖아.

혜란: 죽여주더라, 진짜.

미라: 나는 옛날에 이효춘이 한 거 봐가지구.

모두: 하하하.

미라: 근데 김수현의 복수, 애증, 배신, 깊은 골, 상처 이거 지금은 아닌 거 같은 거야, 그 정서가, 그런 여자 안 닮고 싶고.

미란: 근데 나는 그게 기가 찼다니까, 〈청춘의 덫〉이 그래도 다시 되는 것은 심은하 때문만은 아닌 거야. 여전히 그 멜로의 힘이라는 건.

숙인: 그건 고전이야, 고전. 나는 최근에 김정란씨가 쓴 글 중에 은희경이 말하는 깍쟁이 같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극복한 여자처럼 아는 거가 함정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 그 여자가 콜한 거라고 포장이 되는데 실은 암체 같은 포즈다, 그 말 너무 맞지 않나? 어떤 고통도 어떤 연대도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아주 암체 같은 포즈라는 말, 그게 나는 맞는 거 같애.

혜란: 그래 놓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숙경: 그나마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게 질퍽거리는 것보다 낫잖아.

미라: 내 인생에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줬던 캐릭터 그런 거 없어?

미란: 그래서 나 〈길버트 그레이프〉, 거기서 엄마.

혜란: 거기서 무슨 해방감을 느꼈어?

미란: 해방감이라기보다 내가 분명히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자기 암시 같은 거. 내가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면 분명히 저렇게 될 것이다.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찔 것이다. 분노로 살이 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

숙인: 음, 언제 그랬어?

미란: 애 키우면서.

혜란: 애 키우면서 집에 있으면서 살이 찔 때.

미란: 난 그게 금방 안 잊혀져, 그 엄마가.

숙인: 나는 그 아일랜드의 가수, 시나드 오코너, 그 여자가 제일 좋아, 그 여자 노래 부를 때 봤어?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공격하고, 나는 오코너가 제일 좋아.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지현옥씨 산에서 죽었잖아. 가만히 보면 그거 같애. 내가 사실은 내가 더 강하고 독할 자신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건다 그런 이미지야. 사실은 내가 깨지기 쉽다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굉장히 부드럽고 평온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강해질 거 같애. 근데 난 아직도 뭔가 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 같애. 자기암시를 위해서.

혜주: 지향하려고.

숙인: 어, 그래서 난 그게 조금 슬퍼.

금희: 엄정화는 어때?

미라: 마돈나와 엄정화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돼. 엄정화는 그냥 놀아보는 거야, 변신을 하면서.

난나: 그것도 자기가 하는 변신이 아니잖아요.

미라: 그렇지.

금희: 엄정화의 캐릭터는 사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야?

미란: 그렇지, 군인들이.

금희: 우리의 쾌락에 관련된 모델이 없는 거 같애.

보미: 그 〈평등방송 디딤돌, 걸림돌〉 행사에서 이대 김혜순 교수가 한 말이 있어. 디딤돌 봅을 때는 이거저거 말이 많았는데 걸림돌은 딱 하나로 집약이 됐다 이거야. 미스코리아나 슈퍼엘리트모델 갈라소나. 하지만 디딤돌을 선정하려 했을 때는 분분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수라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계속 주장하고자 하는 이상형은 과연 우리 머리에 있는가….

미라: 대안이 있는가 하는 거지.

금희: 나는 찾으면 있다는 거지. 우리 시대에도 여자영웅이 있는데 그걸 찾는 데 더듬이 같은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더듬이가 없으니까 못 찾고, 못 찾으니까 없고, 그래서 기록이 안 됐고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그런 거.

미란: 나는 더듬이가 없었다고 생각 안 해. 그런 캐릭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

숙인: 그럼 요새 영화에서 긍정적인 캐릭터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그게 없어서 여성관객 1000명이 봅은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설문조사에서도 맨날 마땅히 여성 주인공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란: 아까 보미씨가 한 얘기랑 마찬가지로 싫은 사람은 확실히 있지만 좋은 사람을 뽑기란 쉽지가 않아요.

혜주: 내가 키타르시스를 느낀 여성캐릭터는 그렇게 밝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런 여성이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 죽은 여자들이에요. 현실은 굉장히 너무 치열하게 살았으나 끝내 자살하거나 하는…. 전혜린이나 나혜석이나 최욱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힘을 얻어.

숙인: 그런 여자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을 줘요?

혜주: 그러니까 난 그림을 하니까, 뭐 나혜석 같은 여자죠. 정말 지옥 같은 불행을 겪었던 여자가 있구나. 그런 거에 공감이 되고 내가 느끼는 그런 지옥 같은 괴로움을 같이 느꼈던 여자가 있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더 용기를 주는….

미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혜주: 시대가 못 알아줬던, 시대를 앞서 갔으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행해졌던 여자지.

혜란: 그래 꼭 잘 살아서, 유명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캐릭터를 찾으려면 저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금희: 나는 없는 건 아닌 데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지. 안 보이게 만드는 거.

혜란: 나는 신경숙의 〈깊은 슬픔〉에서 완을 기다리다가 세하고 결혼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남자가 삼 일간 안 와, 안 오니까 못 먹고 상위에서 곰팡이가 필 때까지 지내는 장면이 나와. 거기에 나왔던 그 은서의 캐릭터 있잖아, 그게 좋았다기보다 완전히 가슴에 와닿아서 미치겠는 거야,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미라: 남들은 뭐, 나혜석, 신경숙 이러는데 나만 오스칼! 캔디! 이러고 있구만.

영란: 난 우피 골드버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에디〉도 괜찮고, 여자 세 명 나온 거 뭐죠? 〈보이즈 온 더 사이드〉 거기서도 너무너무 멋있었고, 또 좋았던 건 〈사라피나〉.

난나: 거기서는 정말 멋있었어.

숙인: 그 영화는 너무 괜찮았어.

영란: 그 여자 보면 너무 좋구, 너무 신나, 유쾌하고.

금희: 나도 유일하게 우피 골드버그 보면 파워가 느껴져. 참 남 다른 거 같애.

영란: 요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때 누구 흉내냈지? 영국 여왕 흉내냈나?

난나: 응.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왔던.

재란: 흑인이 사실 백인 여왕 흉내를 냈다는 거 대단하지.

미라: 보미는? 젊은 사람들 얘기해 보자.

보미: 나는 G·I·제인 같은 여자가 좋댔잖아요. 정보화가 되지만 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항상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란: 보미는 뭔가 힘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열패감이 있는 거 같애.

보미: 수동적이고 당하고 이런 단어도 없을 거 같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미 무어가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몸이 몇 억짜리라고 듣기는 했지만 한 번 그렇게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AFKN을 가끔 보는데요. 거기서 〈헤라클레스〉라는 영화를 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지나' 라고 전사공주가 나와, 요즘은 로맨스 섞이고 이상해졌는데 처음에 말 타고 나오고 그러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강한 여자가 좋아.

난나: 여성전사를 좋아하는 구나.

숙인: 그래 우리가 뭉소 너무 억압돼서 그래. 나도 아까 그래서 강한 여자가 좋다고 그랬잖아.

미라: 그러니까 지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랑 공감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란: 자기와 닮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영란: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한 거잖아. 닮았다고 할까봐, 우피 골드버그.

모두: 하하하.

재란: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 문제의 〈거짓말〉, 두 번 봤잖아.

금희: 아, 그거 어때요?

재란: 이번에 두번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면 '왜 이 영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까' 특히 남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J라고 하는 남자가 굉장히 바보스럽게 나오거든. 바보스럽고 엉청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많은 포르노그라피가 여성이 괴성을 지르고 그러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여성은 주체적이고 당당하거든. 근데 그 남성은 굉장히 무력하고 그 무력한 것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하는, 몸에 기입된 기억 같은 것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남성관객으로 하여금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기도 하고 무력감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두: 아….

영란: 심기가 불안한 거구나.

재란: 불쾌할 거야, 한 마디로 말하면. 남성들의 어떤 승리, 혹은 남성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남성의 쾌락에 기초하고, 그렇다고 여성의 쾌락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을 모멸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숙인: 불쾌하겠구나.

숙경: 서갑숙 책에도 중간에 한 남자가 자기랑 한 번 잔 여자는 자기한테 들러붙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자보니까 벌거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미란: 그래서 서갑숙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기희는 찬스니까.

재란: 서갑숙씨는 문학일보에 쓴 걸 보니까, 나는 여성운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갑숙씨를 빨리 잡아야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미라: 드디어 서갑숙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대충 얘기가 끝난 거 같군요. 여기서 정리하지, 뭐.

〈노랑머리〉가 때론 포르노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포르노 사태에 대한 성찰

"한국의 소프트포르노 비디오(〈정사수표〉, 〈젖소부인바람났네〉)에서 욕망에 겨운 여자의 벗은 상반신만 보여주는 장면이 남녀가 다 벌거벗고 나와 직접 성행위를 보여주는 하드코어포르노보다 더 여성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한 여학생(동국대학 '영상사회학' 강의에서 소프트포르노부터 하드코어까지 편집된 장면을 본 소감)

"비디오상에서 여자들은 (강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가 더 좋다고 열심히 하지요. 비디오만 계속 보니까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 같아요."

—남학생(한국 성폭력 상담소 포르노 연구자료 중에서)

영화 〈거짓말〉은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부여를 거부당해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점잖은 표현이다.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성적 묘사가 들어간 포르노성 영화는 건전한 일반 성도덕을 해치기에 등급을 줄 수 없다.' 〈노랑머리〉와 〈거짓말〉 같은 영화에 등급부여를 거부한 담당기관의 입장이다. 〈노랑머리〉는 문제가 된 흔음부분을 정리한 뒤, 이전 시스템에서 통과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좀더 개방적이어야 할 새로운 시스템인,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의 등급심의를 받은 〈거짓말〉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서갑숙씨의 성경험 고백담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한 가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긴 하다. 과거 성묘사의 노골성을 둘러싼 논쟁은, '예술인가, 외설인가'로 벌어져, 애매모호한 예술의 개념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었다. 더구나 늘 남성주체가 여성의 몸을 어디까지 예술적인 안목으로 벗길 것인가, 가 중심 의제가 되는 매우 성차별적인 양상을 띠었다.

포르노, 피해갈 수가 없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포르노'라는 말을 내걸었다. '어떤 성묘사까지 봐줄 것인가' 혹은 '이런 영화나 책이 포르노그라피적인가, 아닌가?' 등 포르노를 핵심 의제로 삼으며 남녀 모두가 주체이자 객체라는 점에서 질적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까지 쓰다보니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몰려 화제가 된 포르노 사태가 두서없이 떠오른다. 언더그라운드 유통망을 통해 유명해진 〈O양 비디오〉도 있고, 더 거슬러올라가 청소년 다큐멘터리

〈빨간 마후라〉도 결국 포르노그라피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반응을 시험해 보여준 유사한 케이스였다. 하긴 마광수의 소설과 장정일의 소설,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만 TV강연 프로그램 사상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구성애씨의 '아우성'도 노골적인 성담론이란 점에서 이 리스트에 낄 자격이 있다. 지난 10월 중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포르노, 미디어, 여성〉이란 세미나를 개최해 상담소 세미나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정말 어지럽다. 포르노가 뭐기에 영화, 소설, 탤런트, 청소년, 시민단체, 대중강사 모두 들러붙어 시끌벅적한 화두로 삼고 있다. 하긴 나도 여기에 들러붙어 영상사회학이라는 강의시간에, 편집한 포르노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켰으니…. 물론 '불 켜고 토론하며 낯설게 보는 포르노'라고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성담론, 포르노담론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감히 추정컨대 필자의 '한국사회 살아내기' 경험상 지금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분야에서 포르노가 강력한 화두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담론의 개방이란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최근 성취한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결실로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노골적인 성담론의 자유라고 인정하게 만든다.

무엇이 남자를 불편하게 하는가

현재진행중인 포르노담론 사태는 한국사회의 권력과 질서, 관행, 집단무의식 같은 것들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그것에 순응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깊이있게 뜯어볼 만하다.

영화 〈거짓말〉(왼쪽 사진)과 〈노랑머리〉(오른쪽 사진)는 통념을 뒤집고 성애의 현장에 여성을 주체로 설정한 점에서 뛴다.

1. 〈노랑머리〉와 〈거짓말〉의 등급보류, 서갑숙의 책을 서울지검이 내사한 후 18세 이상 판매로 물러난 것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성표현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장면을 정리한 채 등급을 받은 〈노랑머리〉가 흥행에 성공했고, 부산영화제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매진된 영화가 〈거짓말〉인 것으로 봐서, 사람들은 노골적인 성묘사 영화, 그런 이유로 한때 금지된 영화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갖는다.

3. 필자의 판단으로는 〈노랑머리〉와 〈거짓말〉은 포르노라기보다는 통념을 뒤집고 성애의 현장에 여성을 주체로 설정한 점에서 뛴다. 심의당국은 〈노랑머리〉에서는 혼음(한 남자와 두 여자)을, 〈거짓말〉에서는 미성년여자와 중년남자의 성관계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노랑머리〉는 남자를 성적 도구로 삼는 아나키스트적인 두 여자를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제시한다. 〈거짓말〉에서도 후반부에서는 벌거벗은 어린 여자가 벌거벗은 나이든 남자를 때리며 가학하고 그에게 존댓말을 듣는 주체전도현상이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다. 개인적 취향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두 영화는 성애의 표현 중 남성쾌락 기제를 뒤집는 전복성에서 심의위원들(대부분 나이든 남자들이다)에게 대단한 거부감을 일으켰을 법하다.

4. 비슷한 맥락에서 서갑숙의 책은 이미 나온 남성주체 성담론보다 덜 노골적이어도 여성주체이기에 더 센세이셔널하게 다루어졌다. 즉 포르노를 둘러싼 논쟁과 사태가 매우 성차별적이라는 점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건 마치 60년대 미국의 포르노 여배우들

이 자신의 포르노영화찍기 경험에서의 인권유린을 고발한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사실 서갑숙 보다 진도희가 그런 고백에 공식적으로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 서운함은 있지만.

5. 노골적으로 남녀가 성기까지 다 드러낸 하드코어포르노보다 여자의 누드와 신음소리만 들려주는 소프트포르노가 더 혐오스럽다는 한 여학생의 날카로운 지적은, '어디까지 보여주는가'보다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보이고 안 보여주는가, 즉 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가라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스코리아대회가 떠올랐다. 전국에서 대표로 나온 잘 빠진 육체의 여자들을 무대에 수영복 차림으로 내세워 신체등급부위별로 심사하는 미스코리아대회는 포르노와 무엇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 라고 고민하면서.

필자의 견해로는, 어떤 성을 객체로 내세우고 다른 성이 주체가 되어 즐기고 평가하는 것은 포르노가 추구하는 쾌락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쪽은 반이라도 걸쳤고 성행위를 하는 중이 아니며, 한쪽은 다 벗은 데다 성행위를 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백주대낮에 여자들을 반벗겨놓고 남자들이 앉아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미스코리아대회가 전국에 생방송돼 '여성신체 보기 쾌락'을 유도하는 나라에서 아예 남녀가 같이 벗든 같이 때리든 서로 주체가 되어 몸으로 부딪치는 쾌락을 건전한 일반 성도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괴상적인 논리이다. 〈거짓말〉에 등급을 줄 수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미스코리아대회 전국 생방송 중계 따위를 먼저 없애야 된다.

6.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성애 표현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낙심스럽다. 표현의 자유는 섹스 묘사와 폭력 묘사의 자유도 포함하지만 이데올로기나 사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검열시절, 검열 때문에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사회비판과 사상표현이 거세된다고 항의해 온 영화인들은 다 어디 갔나. 허망한 눈으로 한국영화계를 둘러보게 만든다.

7. 나는 성담론이 좀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 특히 남성주체가 여성을 타자화하고 도구화하는 식의 담론은 소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여성주체가 남성을 도구화하는 성담론도 같은 이유로 소멸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경우는 아직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어쩌면 소멸하기 위해서라도 존재부터 해야 할 정도로.

8. 성에 대한 지식과 환상은 결핍되거나 과장되어 있다. 그 여파가 거품이 되어 호기심을 낳고 포르노그라피는 그 거품을 먹고 산다. 비아그라를 먹어서라도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믿는 남성이 있고 그런 남성을 위해 약이 개발되고 판매되는 시대에 성담론의 과제는 양성동등, 양성주체를 전제로 재구획되고 탈구축되어야만 한다. if

유채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REVIEW

book. music. cinema. theater. exhibition. advertising

REVIEWTHEATER

장진의 〈허탕〉과 이윤택의 〈바보각시〉

REVIEWEXHIBITION

방정아와 함진 개인전

REVIEWCINEMA

〈자소〉와 〈책상 서랍 속의 동화〉

REVIEWADVERTISING

주류(酒類) 광고 속의 여성모델

REVIEWMUSIC

if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

REVIEWBOOK

if가 뽑은 겨울의 책

디자인 김현정

무대 위에서 여자 죽이기

〈허탕〉, 〈바보 각시〉에 나타난 '남류' 예술가의 자궁 노이로제

지 혜

레즈비언 시각으로 문화를 읽고 쓰고 실험하는 글쟁이/ 랩쟁이다. 소위 대표적인 극작가/ 연출가의 작품은 되도록 기피한다. '여성'로 포장된 여성 혐오와 남근적 상상력의 빈곤은 내게 인내의 극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람료를 지불해서 '남류' 예술의 자본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불쾌하다 못해 끔찍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판적 개입을 위해서라면 관객으로서의 즐거움은 포기하지고. 그들의 신성한 예술성을 모독하고 신화를 벗겨내는 작업에 의미를 두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남자 '예술가'는 살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그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이 영웅화되는 고도의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소위 '위대한 예술'은 극도로 제한된 감정, 인식, 통찰, 판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남성들 자신에게 '삶'을 전해주고 안내해주기 위한 남성의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다."

—발레리 솔라나스

"여성들, 기호들, 물건들, 돈은 모두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옮겨간다."

—튀스 이리가라이

오랫동안 무대 위의 여성들은 '창녀'처럼 남성을 유혹시키고 타락시킨다고 믿겨져왔다. 그러므로 금녀의 영역이던 무대에 여성의 몸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그녀의 '말'을 빼앗긴 채, 성적인 볼거리 혹은 인격 없는 '살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99년의 한국 무대 위에서도 여전히 매맞는 여자의 신음 소리, 강간당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온다. 이는 팔방미인이라는 신세대 인기연출가 장진의 작품이나 대표적인 중견 연출가 이윤택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캠코더에 찍힌 '여자 살인사건'

장진의 〈허탕〉은 두 편의 영화 연출 후에 대학로에서 장진의 상품성이 고조되었을 무렵, 학전을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 〈허탕〉의 기획/ 제작팀은 젊은 연출가의 개성과 다재다능함을 강조했고, 영화적 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극임을 집중 홍보했다. 나는 이미 연극 〈매직타임〉을 통해서 마당극과 결합한 셰익스피어의 신명과 재미를 경험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극장을 찾았다. 특별히 감옥으로 은유된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언어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다.

각종 담배와 영양식, 원두커피, 클래식 음악이 제공되는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그것은 장진이 연출한 감옥의 정경이다. 안주하고 적응한다면 어떠한 죄수도 탈옥에 대한 욕망을 망각해버릴 안락한 공간이다.

남자죄수 덕배와 달수가 수감된 감방에 여자죄수 화이가 들어오면서 극은 비로소 발단과 갈등의 국면을 얻게 된다. 그녀는 덕배와 달수가 풀어야 할 미지(未知)의 수수께끼이며 탈옥의 암호이자 본격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실마리이다.

화이는 살어중에 걸린 임산부이며 그녀에 대한 정보는 비밀에 싸여 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상실과 실어증은 세상과의 불화나 단절이 아니라 천진하고 미숙한 저능아로 표현된다. 더구나 임산부 화이의 설정은 남성의 환상이 빚어낸 성처녀와 어머니의 결합이기도 하다. 순수한 처녀이자 아이를 밴 어머니로서 화이는 남성작가의 자궁집착증에 철저하게 결박당한다. 남성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여성은 남근을 뛰어넘을 구멍(창녀)이거나 다시금 품어져 돌아가고픈 영원한 자궁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덕배와 달수의 많은 대사가 전달하는 풍자와 언어적 유희는 화이의 침묵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그녀는 언어를 가질 수 없으며 성인이 될 수 없고(화이는 애인 달수를 '아빠'라고 부른다), 인품로서 주체성을 지워버린 채 남성 서사를 이어가는 욕망의 매개가 된다. 화이는 마치 '늑대소녀'처럼 무지한 상태로 문화와 유리되어 있고 남성은 그녀의 심리치료사, 선생님, 보호자, 수사관이 된다.

화이는 두 남성 사이에서 교환되고 채워지는 빈 기호(sign)에 다름아니다. 자궁 노이로제에 의

학전에서 공연된 장진의 〈허탕〉.

해 태어난 '하구적' 여성은 남성들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의 등장 이후, 이상한 감옥은 남자들에 의해 '집(가정)'이 되어 버린다. 참은 달수와 화이는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되며 덕배는 달수의 형으로서 제수씨 화이를 맞게 된다.

극이 이쯤 이르게 되면 실존에 대한 부조리적 탐구의 긴장감은 느슨해지며 서서히 진부한 신파쪽에 가까워진다. 작가의 주제의식은 '여성(성)'과 마주하자, 방향성을 잃고 비틀거린다. 화이의 과거를 밝히려는 덕배와 묻어두려는 달수의 대립 속에서 화이는 게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화이의 비밀이 드러날 무렵, 일상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 달수는 만삭이 된 화이의 배를 난타해서 죽이버린다. 이제 '형량 없는' 수감생활과 감시와 훈육 체계의 메타포는 와해되고 그 위에 비련의 여주인공의 수난사가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감시 공간 효과를 노린 캠코더, CCTV는 관객에게 객관적 거리감을 만들지 못하고 멜로드라마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무대 세트에 그치고 만다. 관객들은 배우들을 감시하거나 스스로도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대를 '구경'하면서 가정 비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감시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 결국 감옥으로 은유된 세계는 폭력남편에게 학대받았던 여성이 새 남편(달수)에 의해 살해되는 것으로 엉뚱한 결말을 맞는다.

화이를 살인한 달수는 정신적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키지만 화이처럼 순진한 지능아가 되지는 않는다. 그의 광기가 내면의 강한 주체성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허탕〉이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살 보시' 설화를 재해석했다는 이윤택의 〈바보각시〉

창녀에서 부처로

이윤택의 〈바보각시—사랑의 형식〉은 '세기말에 피우는 사랑의 서사시'라는 부제를 달고 서울연극제 기간 동안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신화의 재해석, 전통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그럴싸한 연출 동기는 '살 보시 설화'의 발굴에서 비롯된다. 어디서 흘러왔는지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머슴, 장애자, 홀아비, 문둥이 등 마을의 남자들에게 살(몸)을 나눠준다. 그리고 마을에서 추방당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부처였다는 것이 설화의 내용이다.

〈바보각시〉는 '하늘 아래 첫 동네'인 신도림 역 주변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살 보시 여인—창녀/보살—을 되살려놓는다. 바보각시 역시 〈허탕〉의 화이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마치 벙어리처럼 연기한다. 그녀는 인형으로 노래하고 구음을 읊조릴 뿐이다. 그리고 마을의 소외된 사내들에게 살을 보시했듯이, 바보각시는 술에 취한 소시민, 실직 청년, 파출소장에게 집단 강간당함으로써 그들을 성적으로 구원(?)해 준다. 무대 중앙에 여인을 눕혀놓고 붉은 야간용 곤봉을 자궁에 꽂아대는 장면은 가히 남근예술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성들은 탈(가면)을 쓰고 강간한 뒤, 결말부에서 탈을 벗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 강간당한 여인의 고통 또한 구슬프고 처연한 전통 가락의 구음으로 처리될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끔찍한 폭력행위를 전통 연희를 통해 예술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바보각시를 남자들이 공유한 시점(집단강간)부터 설화와 현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세기말의 남성 서사는 여성의 몸을 빌려 자신의 뼈와 살을 만든다. 윤간을 당한 여인은 남자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모두 변명을 늘어놓고 회피한다. 세상에 살을 섞고 뿌리를 내리려던 보살은 결국 자살함으로써 속세로부터 쫓겨난다.

바보각시의 희생은 남자의 죄를 씻어줌으로써 남성들에게 깨달음을 보시하기 위한 극적 장치인 것이다. 살아 있는 아기를 배에 품은 채 암매장 당한 여인의 시체는 미륵불로 환생한다. 바로 성처녀와 어머니의 결합이라는 자궁집착증의 원형이 구원의 종교적 신화와 만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탈과 인형, 구음, 피리, 정가 등 전통 연희의 도입은 남성을 위한 정화의 제례에 필요한 배경음악과 소도구로 쓰인다.

여전히 전통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이고, 여성은 영원히 남자의 희생자이자 그를 구원해 줄 어머니로서 한(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

1999년 끝자락에서도 '한국적인' 여성은 순수와 인내와 성애의 기표로 박제되어 있다. 창녀와 맹인가수와 밤무대의 쇼걸들은 남성에게 살을 나누어줄 바보각시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남성인물과는 달리 여성 인물들은 관객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무대의 볼거리가 된다.

포장마차가 흰 돛단배로, 바보각시가 부처로, 신도림이 바다로 변하는 비현실 혹은 초현실의 세계에서만 여성은 죽음을 보상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부르짖는 작가에게 강간 피해자 혹은 창녀가 부처라는 '살 보시 설화'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쓰레기장 같은 세기말, '중심 없이 맥이 풀린 세상'에 대한 비관이 설화 속에 잠들어 있는 희생적 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강간설화 연극에 감동한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을 때, 나는 우리 사회의 연극 풍토와 관객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망해야 했다.

설화 또는 전통적 서사구조는 당대의 가치와 상징들을 담고 있으며 그만큼 유구한 가부장성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옛 형식의 차용은 내재된 가치들을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현대적 가치로 재구성하지 않는 한, 시대착오적인 퇴행이 될 수 있다. 전통적 가치, 한국적 가치에 대한 맹신은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하나 겨부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공연양식의 새로운 발견에 목마른 한국 연극은 형식적 새로움 그 자체에 너무도 많은 기대와 찬사를 보내면서 내용의 진정성과 작가 의식에 대한 비판에 둔감해지는 것은 아닐까?

최첨단의 영상장비가 동원되든 〈허탕〉, 탈과 국악이 시도되든 간에(〈바보각시〉) '말하는 남자'와 '보여지는 여자'라는 남은 문법이 존재하는 한, 유명 작가의 화제작은 가장 보수적이고 빈약한 '남류' 예술을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도 여자들은 어느 무대에선가 위대한 예술(?)을 위해 벗겨지거나 강간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형식적 실험을 자랑하던 〈허탕〉의 CCTV 장치나 문화계릴라, 이윤택의 '우리 것'의 수용은 구태의연한 여성 혐오를 '새로움'으로 위장하는 가면일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회에서 '계릴라'는 '남자(macho)의 변장술' 혹은 '젊은 남자(macho)' 쯤으로 번역되는 것 같다. IF

영화가 전하는 세상의 법칙

〈자소〉와 〈책상서랍 속의 동화〉

공혜조

글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밥이는 시원찮음. 그게 직업인지 아닌지 의심할 때가 많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 한 길로만 기어가고 있음.

영화 하나

객석은 텅 비어 있다. 이럴 때 좌석표는 제 구실을 잃어버린다. 좋은 자리를 골라 냉큼 앉으면 그만.

비가 내린다. 웨이(이기홍)와 연인이 타고 온 차가 멈춘다. 잘 자라는 연인의 말에 무척 서운해하면서 웨이가 연인을 안는다. 황홀한 웨이의 표정에 비해 연인은 별 감흥이 없어 보인다. 그런 차 안을 누군가가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다본다. 놀라 문을 연 젊은 연인에게 웨이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이미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완(귀아뢰). 주인공치곤 나이가 많다. 이후 영화는 완의 과거와 웨이의 현재를 짜깁기한다. 나이 든 여자는 역시 영화에서도 별 매력이 없나보다. 완(유가령)은 수려한 미모를 가진 과거로 돌아가고 그 과거에는 애처로운 미인 푼(양채니)이 있다.

돈에 팔려가기를 거부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자소〉의 주인공들.

이제 막 자소식을 마친 푼은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 푼은 위기를 자살로 마감하려 하지만 부모의 애절로 갈등한다. 핏물 같은 눈물이 푼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스무 명 남짓한 지금 이 땅의 한국 관객은 누구도 울지 않는다. 여성들이 지나온 길은 그랬다. 늘 힘이 없었고 최고의 저항은 자살이었기에 새삼스러운 감동이 될 수 없다. 푼을 데리러 온 부자의 끄나풀에게 전 재산을 던져주는 인물이 권력을 가진 또 다른 남성이 아닌 아무 인연도 없어 보이는 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새롭다.

이 '자소'라는 동아리 속에는 규율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제재가 따랐다. 돈에 팔려가기를 거부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대신 결혼은 물론 이려니와 이성과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된다. 어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권력 없는 그네들이 살자고 택한 길은 결국 자신을 죽이자는 길?

가난한 직공 푼과 잘 나가는 기생 완은 비단공장에서 다시 만나고 완은 비단공장 사장의 여덟째 처가 된다. 완은 세상 살아가는 밑천을 마련할 양으로 사장에게 제 몸을 투자하지만 사장이 일본군 장교에게 완을 상납함으로써 그 투자는 실패한다.

20세기 말을 사는 웨이 또한 마찬가지다. 근사한 직업을 가진 커리어우먼인 웨이의 애인 역시 아마도 더 매력적이고 돈 많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뉴욕으로 떠난다. 웨이와 완의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

완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사장의 집을 나와 푼과 함께 자소너들이 사는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하지만 푼은 어릴 적부터 알던 씽과 사랑에 빠져 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사랑을 말리던 완은 씽을 포기할 수 없다는 푼에게 배신감을 느껴 떠난다. 혼자 남은 푼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씽에게 도망가자고 하지만 씽은 이름뿐인 아내가 가져온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푼은 처참한 기분으로 쇠꼬챙이로 제 자궁을 찌른다.

반 세기를 건넌 지금 웨이는 면도날로 손목을 긋는다. 젊은 완은 거적때기에 덮혀진 채 수레에 실려온 푼을 살려내고 나이 든 완은 웨이의 손에서 면도날을 뺏는다. 푼과 웨이에게 완이 하는 말은 같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바보같이 목숨을 버리려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마!" 하지만 누구나 동조할 이 말은 어딘지 건조하다. 투자에 실패했으면 깨끗이 물러서라, 완전히 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감독은 완이나 푼, 웨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냉정한 현실의 반영인가, 홍콩 특유의 쓸쓸한 정서인가? 그도 아니면 여성들이여, 사랑은 남성들의 것이니 줄 생각은 말고 받을 생각만 하라는 웅변인가?

불이 켜진다.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은 거의 여성들이지만 감동한 얼굴은 별로 없다. 나 또한 역사책 한 페이지 읽은 기분으로 극장을 나섰다.

영화 둘

붉은 수수밭, 국두, 홍등, 귀주 이야기, 인생…,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심각한 영화들…, 하지만 언제나 텅 빈 객석이 우울했던 기억…

배신이다, 이건. 놀랍다. 처음부터 웃음보를 터뜨리게 한다. 제목의 끝에 달린 동화라는 단어가 수상하다.

중국 장촌의 초등학교. 가오 선생님,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러 집으로 가야 한다. 촌장이 데려온 대리교사는 13살 소녀 웨이. 가오 선생(가오엔멘)은 인민당 노래 한 곡도 제대로 못 부를 뿐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밭을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웨이(웨이민치)에게 기겁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다. 글자를 가르칠 책 한 권과 분필 스물여섯 개를 남기고 길을 떠나려던 가오 선생이 웨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만 잘 지켜주면 촌장에게 받기로 한 50위안에다 10위안을 더 얹어주겠노라고.

웨이의 머리 속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지킬까 하는 생각뿐이다. 출석부를 만들고 아이들

〈책상 서랍 속〉판 따뜻한 동화 한 편을 만들어낸 천진난만한 아이들.

을 교실에 가두어두지만 한 아이가 육상선수로 뽑혀 도회지로 떠난다. 웨이는 남은 아이들만이라도 지키려 하지만 며칠 후 말썽꾸러기 장휘거가 없어진다.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버렸다.

가오 선생에게서 10위안을 받아야만 하는 웨이는 어떻게 해서든 장휘거를 찾으려 한다. 도시로 가는 차비를 마련하려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고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기도 하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라는 돈 때문에 무임승차하기로 한다. 개구쟁이들의 도움으로 버스에 몰래 올라타는 데 성공하는 웨이. 모든 궁리와 행동들은 우스꽝스럽고 따뜻하다.

돈만을 생각하던 웨이는 어찌된 노릇인지 가진 돈을 다 쓰면서 몇 날 며칠이나 장휘거를 찾는 데 몰두한다. 그 행동은 순전히 10위안 때문일까? 아니면 가오 선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특별한 사명감이 생겨서일까? 순진한 웨이는 만나는 남자마다 방송국장이냐고 묻는다. 사람들은 냉정하다. 누구도 국장이 아니라는 말만 할 뿐 왜 국장을 찾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남루한 소녀는 관객을 안타까움의 도가니로 빠뜨린다. 관객의 조바심이 터지기 일보 직전 감독은 웨이와 국장을 만나게 한다. 탁월하다. 드디어 휘거를 찾는 방송을 하는 날, 웨이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잊는다. 일정한 간격으로 웃으라고 강요하던 감독은 이제 노련한 솜씨로 눈물샘을 터뜨려버린다. 모두 무장해제 당한다. 극장 안은 쥐죽은듯 조용해진다.

휘거를 찾아 선물꾸러미와 성금 보따리를 안고 깡촌으로 되돌아가는 웨이. 말썽꾸러기 장휘거가 칠판에 '웨이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쓰자 환하게 웃는다. 관객들도 한껏 기분이 좋아져 극장을 나선다. 하지만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앉아 있는다. 시골을 떠났던 아이들의 15%만이 학교로 되돌아간다는 자막이 나온다. 영화를 만드느라 애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배급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영화(주)라는 자막이 나오자 더 서글퍼진다. 벽돌 나른 돈으로 콜라 캔 두 개를 사서 스물여섯 명의 아이와 웨이가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미국의 싸구려 문화를 맛보던 장면이 떠올라서다. 왜 하필 콜라인가! 황급히 극장을 빠져 나온다.

씁쓸함이 곱배기

두 편의 영화를 보고나니 왈칵 사는 것이 더 서글프다. 굽이굽이 힘겹게 살아온 여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득 묻혀 내놓은 장지량 감독이나 깡촌에서 웃음 잃지 않고 사는 천진한 아이들을 따뜻하고 걱정스레 바라보는 장예모 감독이나 서글픈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음, 그러니 여성들이여 홀로 꿋꿋하게 살아야, 인생의 반을 저며내야 그나마 반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 영화가 〈자소〉라면 순박한 시골소녀의 승리담을 앞에 내세우지만,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움직이니 못 가진 자들이여 권력의 처신만 바라야지 별 수 있겠느냐고 예술적으로 되묻는 영화가 〈책상 서랍 속의 동화〉이다. 그런 면에서 장지량 감독은 고지식하고 장예모 감독은 능란하다.

고지식한 감독의 진지한 영화는 외면당하기 십상. 장예모 감독의 이전 영화들이 극장에서 외면당했던 것처럼 〈자소〉도 외면당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돕는 어른이 있는 세상이니 살아볼 만하지 않겠느냐며, 세상과 불화한 자여, 화해하자고 선동하는 장예모는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환상을 퍼뜨린다.

〈책상 서랍 속의 동화〉는 분명 새로운 환상이다. 뛰어난 테크놀로지나 화려한 치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실제 시골에 사는 인물들의 능청스럽고 자연스런 연기로 환상을 전하는 장예모는 뛰어난 예술가다. 하지만 〈자소〉의 비극적인 여성들과는 달리 비록 어린 여성일지라도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제가 구하려는 걸 구할 수 있다는 환상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영화는 역시 수상하다. 주인공이든 주변인물이든 힘 가진 자는 모두 남성이다. 그러니 여성들이여 남성에게 기대라,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아름다운 동화에서 애써 비극을 쪼아내는 짓궂음이라고? 그 또한 맞는 말이다.

그러니 이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따뜻한 동화 한편에 젖고 싶은 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장예모 감독에게 머리와 가슴을 내주길! 반대로 여성으로 홀로서기가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소〉를 보시고 분노에 찬 응원을 보내시길! 부디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시길! "

감자기 선생님이 된 13살 소녀 웨이.

어디, 남자도 한번 먹어봐?

주류(酒類) 광고의 여성모델

이남경

광고대행사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다.
여자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
광고에도 페미니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이 휘재 남희석의 멋진 만남〉을 보다가 들은 한심한 멘트 하나. 남희석 왈, "휘재도 곧 요리책을 낸대요." "무슨 요리책인데요?" "까다로운 여자 요리하는 법…." 남희석은 특유의 하회탈 웃음을 지으며 웃음을 유도했지만 상대방 여성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연찮게 재방송까지 보는 바람에 그녀의 표정을 다시 한 번 관찰할 수 있었는데 역시 웃고 싶은 기분은 아닌 듯했다. '그런 한심한 말장난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니?' 아마도 속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 만약 그녀가 '저는 그런 남자들을 쩜쩌(?)먹는 데 일가견이 있죠!' 라고 되받아쳤다면,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제작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편집과정에서 얼른 삭제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여성을 요리에 비유하는 행태는 방송 이외에 다른 매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 '여자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이휘재 못지 않은 솜씨를 자랑하는 광고들을 소개한다.

여자란 자고로 따먹는 것?

아무래도 내가 좀 음흉한 데가 있나보다. '따먹는 물' 이란 카피를 보는 순간 〈용의 국물〉이나 〈떡갈나무 침대〉 같은 에로비디오의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로비디오까진 아니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웅큼한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싶다. '따먹어? 뭘?' 순진하게, '아, 맥주캔처럼 캔에 담아 파는 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도 아닐 뿐더러 팔다리를 훤히 드러내고 앉아 있는 이, 승, 연, 한테도 미안한 일이다.

'따먹는 물' 을 카피로 내건 정수기광고.

물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따먹다' 의 정의는 1. 과일을 따먹다 2.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상대방의 말을 잡아없애다, 두 가지다. 하지만 남자들에겐 또 하나의 따먹다가 있다. 바로 '여자를 따먹다.'

한 남자선배는 여자후배인 내게 "00여관에서 우리 마누라를 따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나는 그 선배의 마누라랑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 '따먹다' 는 어머니나 누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말인 듯하다.

정수기에서 걸러낸 물은 '반도체가 지키니까 항상 갖 따온 듯 신선한 물' 이다. 막 우물에서 퍼올린 물, 산에서 길어온 약수, 버들잎 띄워놓은 물을 제치고 단연 최고의 신선한 물로 선정된 따먹는 물! 물론 막 딴 과일의 신선함을 간직한 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승연이 나온 이상 따먹는 과일의 그 신선함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이승연 옆엔 '청호는 햇물' 이라는 카피가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어 더욱 이승연과 물과의 관계를 묘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햇물과 동일시되는 이승연', '아무도 개봉(?) 안한 여자를 따먹는 것처럼 신선한 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광고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 지겠다고 호소하는 주부대상의 다른 정수기광고와는 좀 달라보인다. 따먹는 즐거움은 주부보다는 남자(아마도 기업체의 물품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득력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수기 앞에서서 따먹는 즐거움을 떠올리면서 가슴 설랠 남자들. 같은 정수기라도 여자에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남자에겐 따먹는 즐거움이 먹히는 세상이다.

뒤끝 없는 여자 한 병이요!

사람이나 소주나 뒤끝 없는 건 미덕이다. 특히, 술 마신 다음날 이 걱정스러운 술꾼에게 뒤끝이

광고1.

광고2.

깨끗한 소주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광고1에서는 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엉거주춤 서 있다. 겨드랑이가 다 보이도록 팔을 치켜올리고, 가슴을 쑥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쑥 빼 몸의 굴곡을 한껏 강조한 포즈로. 여기까지는 카셀터에 붙어 있는 엔진오일 포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벗겨놓기가 미안했는지 온몸에 하얀천을 감아놓았는데 물에 푹 젖은 천은 오히려 여자의 몸 구석구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딱 한 군데 빼고 다 보인다). 여자모델의 몸 위로 흐르는 'I LOVE C1'(소주의 이름인 '시원'을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영문카피. '뒤끝이 깨끗한 세상을 위해 그녀가 온다!'는 본문의 카피를 읽다보면 '시원소주'와 '여자'가 동일인물임이 드러난다. 뒤끝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자못 심각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뒤끝 없는 여자처럼 뒤끝 없는 소주라는 단순한 메시지에 다름아니다.

2차, 3차까지 연거푸 마시고 백주, 막걸리, 폭탄주까지 섞어마시고도 언제 마셨냐는 듯 끄덕없어야 뒤끝 없는 소주! 전날 나이트에서, 술집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화끈한 밤을 보내고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면 몰수할 수 있어야 비로소 뒤끝 없는 여자! 한 마디로 남자가 사고를 쳤다 해도 귀찮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뒤끝 없는 여자라고 할 수 있다. 물에 홀딱 젖어 있는 여자를 보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뒤끝 없는 여자를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뒤끝 없는 소주'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끝 없는 여자?

병 속의 여자는 고달프다

누드시리즈로 소비자들의 항의와 업계의 주목을 동시에 받은 소프트곰바우 광고. 시원소주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광고2는 제품의 레이블이 샤워커튼처럼 가리워져 있고 그 안에서 여자가 요염한 포즈로 샤워를 하고 있다. 그 옆에

'1999년 부드러운 반란, 소프트 곰바우'라는 카피 한 줄. 반란도 여자가 하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다는 말인지 여자는 반란도 몸(머리 대신)으로 한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저항을 위해 옷을 벗었다면 이건 반란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나 선전포고 수준인데 기껏 '소주 한 병의 부드러움'이라니. 그 상상력의 빈곤 앞에 화가 난다. 소주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부드러움의 최상급인 여자를 술병 속에 가둬놓았다? 게다가 과일주 담듯 여자를 소주에 넣어놓았으니 여자를 먹는 듯한 만족감까지 준다는 속셈?

'말보다 입술이 먼저 간다'는 노골적인 카피에서 '소프트곰바우=여자酒?'의 진짜 협의가 드러난다. 입으로 마시는 소주, 입술이 먼저 가는 여자. 대화보다는 술잔만이 분주히 오가는 술자리, 여자는 정신보다 몸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남자의 입술은 즐겁겠지만 병 속의 여자는 고달프다. 뭇 술꾼들의 입술세례를 피해갈 수 없게 됐으니 말이다.

광고3.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자를 눈요깃거리로 만들지 않고도 승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이슬 광고(광고3)는 그중 돋보인다. 노출이나 끈적거림이 없고, 모델 자체의 깨끗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깨끗한 소주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 저녁 한 잔해요'라고 말하는 다소곳한 모델(이것도 썩 좋지는 않지만 참고 넘어가자)을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좋은 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 예감, 술주정이라도 했다간 망신당할 것 같은 단정함이 느껴진다. 참이슬은 광고에서 여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광고이다. ■

지리한 일상에 관심 집중

방정아와 함진 개인전

장정화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원 재학중이면서 웅전갤러리에서 전시기획을 맡고 있다. 나에겐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좋아서 하는 일, 좋아서 만나는 사람, 좋아서 하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가 모자라기만 하다. 이런 꽉 짜여진 삶 속에도 한 구석에 빈 공간이 남아 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길을 나선다.

그림을 보러간다고 하면 우선 강북의 인사동과 사간동, 강남의 청담동이나 신사동을 떠올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인사동의 전시를 빼놓지 않고 들아보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고 인상적인 전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금호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방정아 개인전〉(1999년 10월 6일~24일)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전시중인 〈함진 개인전〉(1999년 10월 20일~11월 19일)이다.

방정아, 여성 삶의 기록

경복궁 맞은편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서 1층의 아트숍을 지나 지하전시장으로 가면 '방정아 개인전' 이란 푯말과 함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얼른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이유는 아마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방정아, 〈낯선길〉, 1997.

방정아, 〈길들여지지 않는 것 I〉, 1999.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의 삽화 같기도 하고 개인의 그림일기 같기도 하다.

방정아는 서른두 살의 여성작가.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인간이기보다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현실에서 겪은 갈등을 작품 하나하나에 옮겨놓았다.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마다 느낀 놀람과 당혹스러움은 다행히 그림 그리는 작업으로 해소했다고 한다. 그림 안의 모습들은 매우 익살스럽게 데포름화돼 있어 작품을 보면 절로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작가는 결혼으로 인해 갑자기 변한 삶의 형태에서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낯설음 등을 〈소화불량〉, 〈낯선길〉로 표현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달라지는 생리적 현상과 신체의 변화, 자기비하적인 생각들은 〈숨찬교감〉, 〈수혈세습〉에 그려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온몸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눈도 뜨지 못하는 시뻘건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를 생각하며 그려낸 〈얼떨떨했어요〉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엄마가 되면 겪게 되는 경험들, 예를 들면 임신해서 만삭일 때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모습, 젖몸살을 앓을 때 젖이 넘쳐 조금만 놀리도 분수처럼 솟구치는 모습, 수건에 돌돌 말려 있는 갓난아이, 설거지 개수대의 음식찌꺼기를 훑어내는 모습 등의 소재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후련함과 함께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방정아는 임신해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아이의 출산과 함께 조금씩 누그러졌고 아이가 딸이란 점에 더욱 안심했다고 한다. 또한 딸아이의 탯줄이 잘린 순간부터 아이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었으며 일 년간 엄마 젖을 먹고 자란 딸아이와 엄마인 작가는

방정아, 〈숨찬 교감〉, 1999.

함진, 1999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방정아는 주로 삶의 어두운 부분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루어왔지만 이번 전시는 자신의 삶을 스토리적으로 전개했다.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안정되고 정리가 되면서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작품은 이어진다. 남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고 작은 데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세로 바뀐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솔직하고 소박하며 투명하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는 마치 메마른 화선지에 물이 번져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기에 보는 사람에게 쉽게 지나치지 않고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닐까.

웃음과 집착의 의미, 함진

다음은 사루비아 다방으로 자리를 옮겨 보자.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은 비영리 갤러리로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이와 경력, 경향에 구분을 두지 않고 독창적 사고와 실험정신을 지닌 작가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루비아다방은 문인, 화가들의 아지트역할을 해오다가 올해 10월말에 그 첫 전시를 열게 됐다.

작가공모 당선의 주인공은 아직 장난기가 채 가시지 않은 대학교 4학년인 남학생, 함진이다. 필자가 이프 지면에 과감하게(?) 젊은 남성작가를 소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작품의 원초적인 소재들이 여성인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함진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언급해야 한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맞벌이부모를 둔 이유로 주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찰흙이나 지점토로 인형을 만들거나 혼자 중얼거리며 놀았다. 그 때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청년으로 성장한 후에도 아주 작은 조형물에 의미를 부여하며 마치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작품들을 전시공간 안에 끌어다놓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아주 조그맣고 하찮은 것에 관심이 많다.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 놀잇감으로 만들기도 한다. 아이들은 일상의 아주 작은 그림도 찾아낼 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과 무언가를 만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엄마! 저기 돌리 있어! 저기 고양이…"라고 했을 때 엄마는 아이가 가리키는 것을 얼른 발견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80년대 어린아이들이 찰흙과 지점토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면 요즘 아이들은 레고블럭으로 만들기를 한다. 함진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의 감각과 관찰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전시공간을 들어서면 우선 일반적인 화랑공간과 다름을 느끼게 된다. 캔버스라는 틀의, 감상 위주의 그림을 전시하는 흰 벽이 아니다. 내부는 어둡고 시멘트벽에는 철근도 조금 튀어나와 있어 마치 짓다만 건물내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다. 요즘 새록새록 보여지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들은 흰 벽의 환한 전시장보다는 여기 사루비아 다방이란 차별화된 공간에 훨씬 잘 어울린다. 아예 작품과 공간이 하나가 되기도 한다.

전시공간의 벽, 모서리, 천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돋보기를 대고 봐야 할 만큼 작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1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눈, 코, 입, 팔다리를 모두 갖추었고 신문의 작은 인물을 오려만든 작품에는 시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PVC 재질의 동물, 곤충인형을 이용한 작품, 폐품을 총동원한 작품들은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밖에도 재료는 성냥개비, 이쑤시개, 조립인형, 나사못 등 다양하다. 함진은 재료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자기만의 노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이런 독특함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엄마와 어린아이들을 새로운 관람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4,000여 점의 미세한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웃음'과 '흥미', '집착'의 의미를 던져주었다.

방정아와 함진은 개성이 강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굳이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삶을 그대로 보여준 전시라는 점, 거창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 그리고 작품을 본 사람들에게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

함진, 1999

if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을 넘나들 것이리라 상상하던 21세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이 시기 여성가수들은 뭘 준비하고 있나.

누구는 과거를 반추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경향에 뒤지지 않으려고 앞서 뛰어나간다. 몇몇은 자신의 노래를 다시 모아서 앨범을 내거나, 자신이 아끼는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앨범을 발표했다. 이미자는 40년의 가요생활을 정리했고, 민해경과 김혜림도 예전의 노래를 모은 새로운 앨범을 내놓았다.

○ 이미자 가요생활 40주년 기념음반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미자 노래 중 적어도 한 곡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91년 KBS 자료실 집계에 따르면 발표곡이 모두 2,064곡이라고 한다. 그녀가 59년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 왜색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당하는 등 많은 굴곡을 겪은 가요인생 40년 동안의 주옥같은 노래들을 모아 기념음반을 냈다. 직접 작사한 신곡 〈내 노래 40년〉 외에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 총 8곡이 수록돼 있고, 또 다른 한 장의 앨범에는 〈낙화유수〉, 〈고향설〉 같은 원북각곡가의 곡들을 재해석했다. 그의 감칠맛 나는 목소리를 좋아하거나 정통 성인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뜻깊은 앨범이 될 듯.

○ 민해경 〈당신과 나〉

80년대 커다란 눈과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등의 댄스곡을 불렀던 민해경의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 게다가 3살 난 딸의 엄마가 됐다. 3년 만에 선보이는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인 〈당신과 나〉 외에 〈보고 싶은 얼굴〉,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 등 자신이 아끼는 4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했다. 이번 앨범은 기존의 댄스곡과는 달리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듣기 편한 곡들로 구성됐다. 결혼, 출산 등의 변화로 훨씬 풍부하고 성숙해진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이정현 1집 〈Let's go to My Star〉

'혹시 〈꽃잎〉의 이정현?' 하고 설마 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배우 이정현이 테크노의 전사로 찾아왔다. 테크노는 50년대 말 독일에서 생긴 일정하게 반복되는 침단기기음과 강렬한 비트가 특징으로 현재 유럽을 비롯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 데뷔앨범인 이 〈Let's…〉는 정통테크노로 이정현의 숨어있던 음악적 재능과 조PD 등 여러 뮤지션의 도움으로 탄생됐다. 타이틀곡인 〈와〉는 도입부에 국립국악원 단원 이태백의 아쟁연주를 첨가해 테크노와 국악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그녀를 보면 아슴아슬하면서도 주술적이고 가끔은 악녀 같은 이미지로 작은 몸에서 뿜어져나오는 엄청난 양의 '끼'를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테크노로 대변되는 새로운 음악이 대두해 사이버세계로의 진입을 알리고 있다. 꺼로 무장하고 다가온 이정현, 엄정화, 유채영, 백지영 등이 테크노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음악세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자우림과 서은영이 새로운 앨범을 내놓았다. 이들의 노래와 함께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알찬 겨울이 됐으면….

○ 페이지 〈Blue Note〉

페이지? 그룹 이름인가? 다름 아닌 안상예란 가수로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솔로이면서도 일부러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98년 〈미안해요〉로 다가왔던 그녀가 10개월만에 선보이는 앨범이다. 페이지의 매력은 곡마다 다르게 변하는 목소리다. 어떤 곡은 섬세하면서도 미성으로, 어떤 곡은 슬픔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타이틀곡은 〈Say Goodbye〉. 김조한과 듀엣으로 부른 감성적인 R&B 곡이다. 그 외에도 미디움댄스곡인 〈말해〉, 장통 모던록인 〈내일 일기〉, 유럽 팝댄스곡 〈프렌치 키스〉 등이 수록돼 있다.

○ 서문탁 1집 〈Asura〉

시원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 음 높이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음색, 이런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서문탁의 노래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백문이 불여일청(百聞이 不如一聽(?))'. 듣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예쁜 옷차림에 고운 노래를 부르는 동년배 여가수와는 달리 서문탁의 화법은 힘있는 록이다. '욕은 시끄럽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발라드, 블루스, 댄스 등의 느낌이 나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서문탁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니어가요제, EBS 청소년가요제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실력파로 현재 대학교2학년의 사회학도이다. 특히 타이틀곡인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은 그녀의 매력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곡.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다.

○ 자우림 〈B 定規作業〉

언제나 독특하고 개성있는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는 자우림의 새 앨범. 'B 定規作業'이라는 뜻은 신곡만을 담은 보통의 앨범과는 달리 이전 발표곡들을 리메이크했다고 해서 비정규적인 앨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보통 방송홍보용 곡들을 A면에 담고 나머지 곡들은 B면으로 밀리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B면의 곡들을 앞부분에 수록하고 오히려 신곡 두 곡을 뒤에 수록했다. 신곡은 상쾌한 느낌을 주는 〈나비〉와 〈레테〉이며, 예전의 〈그대 재킷〉과 〈밀랍천사〉는 테크노스타일로 리메이크했다. 곡 하나하나에서 자우림의 자유로운 정신들을 엿볼 수 있다. 역시 자우림이군!

if가 뽑은 겨울의 책

에세이

『나도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이동연 지음 · 미래사 펴냄). 처음 책이 사무실에 왔을 때 또 '잘난 여자'의 성공담이겠지싶어 한 켠에 밀어두었었는데 머리말을 읽어보다 끌리기 시작해 거의 단숨에 읽어버렸다. 물론 성공담이기도 하고 자화자찬도 없지 않다. 게다가 '마누라'는 전업주부의 비하어가 아닌가!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한 번쯤 꿈꾸었을 것이다. 아, 내게도 마누라가 있었으면.

저은이 이동연은 한국 최초 레이디은행 지점장이다. 20~30대엔 남성위주의 조직사회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했고, 이제 불혹의 나이에 유혹을 꿈꾸는 여자다. 성공한 여자들이 그렇듯이 주눅들게 할 정도로 일과 조직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 그러면서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슈퍼우먼은 없다고. 직장일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절대 없지만(있어서도 안 되고) 집안일은 얼마든지 자기를 대신할 방안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출은 낭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직장여성들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결혼, 임신, 모성이 발휘되는 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만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후배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레이디은행은 여직원들로만 구성된 곳이다.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직장관도 투철하지 못하고, 가사일에 매달려 직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가 취약하고…. 그러나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직장여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그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고. 물론 저자에게도 '직분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현재의 지혜로운 전략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여느 성공담과 달리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적극 권하고 싶다.

그외에도 잘 보이는 곳에 그림 한 점 걸어두고 싶게 해준 **『그림 읽어주는 여자』**(한젬마 지음 · 명진출판 펴냄),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안귀옥 지음 · 세계의 여성들 펴냄), 한국문화와 독일문화 특히 두 번의 시집살이를 겪은 주부조각가의 진솔함이 담기 있는 **『포츠담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황인애 지음 · 백만문화사 펴냄), 재무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두렵게 느끼는 여성들을 위한 투자정보서 **『여성이여!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자』**(신호영 지음 · 한양대학교 출판부 펴냄), 누구보다 정열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을 한 페미니즘의 여전사 보부아르의 20년 동안의 사랑을 담은 **『시몬느 드 보부아르 연애편지』**(이정순 옮김 · 일림원 펴냄), 암으로 턱뼈를 잘라내어 20년간 30회나 수술을 하면서 겪은 고통의 전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서른 개의 슬픈 내 얼굴』**(루시 그릴리 지음 · 김진준 옮김 · 문학사상사 펴냄), 김혜수, 엄정화, 진도희에서 구성애까지 우리 시대의 스타분석서 **『스타비평』**(변희재외 지음 · 인물과 사상사 펴냄), 부당한 세금싸움을 통해 시민운동을 하게 된 보통 아줌마의 좌충우돌 생활이야기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김용숙 지음 · 김영사 펴냄)을 또한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동화책 **『따로 따로 행복하게』**(배빗 콜 지음 · 고정아 옮김 · 보림 펴냄)를 아이와 함께 읽어보자. 취미를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맞지 않아 서로 미워하는 엄마 아빠에게 '결혼식'을 마련해 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경쾌한 터치로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이혼가정이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혼가정을 또 다른 가정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성숙, 그것이 최선 아닐까?

윤숙경

『라테란의 전설』(도나 크로스 지음 · 송은경 옮김 · 예담 펴냄).

'그녀는 생각한다. 고로 그녀는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여교황 조안의 이야기는 전기적 소설들이 으레 그러하듯, 주인공의 지칠 줄 모르는 광적인 열정과 확고한 신념, 불굴의 정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어린 시절의 비범한 총기, 탐욕스런 지식욕, 완고하고 편협한 아버지와의 불화, 어머니와의 동지의식 등등이 전기적 인물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구성요소들로서 부족함이 없다.

또한 죽은 오빠의 신분을 가장하고 그 당시 남성들의 성역인 수도원으로 들어간 조안의 에지적인 활

약상과 '나 자신의 주인은 나'라는 주체적인 태도, 선지적이고 용감한 결단력은 '명예남자'로서 완벽에 가까울 뿐더러 오히려 여느 남자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는 지나치게 영웅적인 시각이 없진 않다(하기사 철저히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중세의 여교황이라면 영웅호걸이기도 하다).

뛰어난 지력으로 의술까지 터득한 조안은 어렵사리 교황에 등극한 이후, 여성학교 수립이나 빈민구제, 민중을 향한 자애롭고도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며 권위보다는 인간애를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가슴을 누르고 머리로만 살아야 하는 조안의 번민은 말미에 이르러 사랑이냐 권좌냐의 갈등, 사산아 출산중 사망으로 얽혀가면서 대부분의 도전적인 여자들이 빠지는 사랑의 함정 수순을 밟고 있어서 좋은 여성 캐릭터의 진형이 신과 스토리에 묻혀버리는 아쉬움이 크다. 또 주인공 조안의 비범한 지력 이외의 독특한 자의식이나 남다른 가치관 등의 접근이 미약하다. 거기다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여자 교황 조안의 전설 같은 사랑이야기'라는 통속적인 카피나 판타지 풍의 조야한 표지그림은 매력있는 여성캐릭터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

그럼에도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행위마저 이단시했던 중세의 암흑기에 자신의 존명가치를 위해 대담한 도약을 서슴지 않았던 여인들이 비록 남자로 위장한 가면을 쓰긴 했어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은폐되어 있는 많은 조안 같은 여성캐릭터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든다.

기타 읽을 만한 소설들

경주를 배경으로 소멸과 재생의 윤회의식을 다루고 있는 『내안의 깊은 계단』(강석경 지음 · 창작과 비평사 펴냄), 그 동안의 짙은 리얼리즘의 색채를 걷어내고 근원적이며 다양한 인간군상을 그리고 있는 『딴 나라 여인』(윤정모 지음 · 열림원 펴냄), 남성작가가 쓴 여성소설로 버지니아 울프가 모티브가 된 『세월』(마이클 커닝햄 지음 · 정명진 옮김 · 생각의 나무 펴냄), 세밀한 감성묘사로 평범한 젊은 여성의 지리한 일상과 사고로 딸을 잃은 중년여자의 방황을 교차편집해서 보여주는 『기대어 앉은 오후』(이신조 지음 · 문학동네 펴냄). 그외에 『99 올해의 좋은 소설』(현대문학 펴냄)에는 오정희, 이청해, 김채원, 전경린 등의 글이,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집』(개미 펴냄)에는 한강, 배수아의 단편들이 읽을만하다.

김정복(자유기고가)

유진아.

지난 번 여성학 관련 책 좀 같이 보자고 했지? 혹 『모성의 담론과 현실』(심영희외 지음 · 나남펴냄)이라는 책을 봤니? 모성이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 내맡겨지고, 사회와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와졌다는 거야.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모성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가족계획법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가족정책을 쭉 훑고 있기 때문이야. 모성이란 것이 사회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것을 알겠더라구.

또 '애바라지'가 엄마능력인 것처럼 믿고 뛰는 '뛰모'들의 인터뷰도 꽤 재미있어. 이런 엄마들이 우리의 엄마들이었잖아. 우리도 머잖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한 번 읽어봐.

그렇담 예전 우리 엄마들의 엄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지더구나. 그래서 찾아봤지. 『우리 여성의 역사』(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 청년사 펴냄)란 책이 새로 나왔더라구. 이 책은 보기 드물게도 상고시대부터 일제 침략기 이후까지의 우리 여성사를 다룬 통사(通史)였어. 솔직히 여성사 하려면 자료도 없고, 막상 하고나도 학계에서 인정도 안 해줘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보란 듯이 열심히 만들었더라. 상고시대 자료는 고고학 자료와 중국, 일본의 자료까지 망라하고, 그 이후는 벽화, 풍속화, 부장품, 지방지, 민속지, 재문, 편지글 등 정말 많은 자료를 다루었더구나.

그래서인지 왕실 및 귀족 여성들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여성사를 극복하고 일반여성들의 실생활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었어. 아, 그리고 정신대여성 문제를 고발하고 규명해 내려는 정대협의 활동까지 정리되어 있는 건 여성사가 수난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줬어.

읽으면서 느낀 건데 섣부른 판단과 비약을 피해 신중하게 여성의 역사를 파악한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야. 그러면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려했던 점이 돋보이고, 무엇보다 쉽게 서술한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외에도 몇 가지 이론서를 간단히 소개할게.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수잔나 D 월터스 지음 · 김현미외 옮김 · 또하나의 문화 펴냄)은 '여성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대안적이면서도 대항적인 문화적 이미지들을 만들어나가는 방법론과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여성'이란 주제가 철학에 적합한 주제인가? 『여성과 철학』(김혜숙외 지음 · 철학과 현실사 펴냄)의 저자들은 여성주의 윤리학, 경제주의 문화비평, 최근의 여성주의 철학의 흐름, 낙태, 외도가 넘실대는 한국 현실을 그 철학적 주제로 삼음으로써 나의 궁금함을 풀어줬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전여강 지음 · 이재정 옮김 · 예문서원 펴냄)는 유독 명 · 청 시대 여성의 자살이 늘어난 이유를 묻고 있어. 과거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사회적 실패를 겪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욕구를 여성들을 통해 얻으려고 했다는 당시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실증적인 이들의 연구방법이 퍽 신선하기까지 하단다.

유여종(인터넷서점 〈알라딘〉 편집부)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라』(필리스 체슬러 지음 · 이광용 옮김 · 세상 기획 펴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진짜 싫은 가을, 가부장적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제 입으로 제 말을 하는 여성들을 '모난 돌'로 몰아붙여서 하나하나 정으로 내리치고 있던 암울한 어느날, 책으로 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젊은 페미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라』.

어떤 여자든지, 질책할 만한 사소한 꼬투리가 잡히면 개떼처럼 물고 뜯어 팽개치고야마는 사람들에게 질릴 만큼 질려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필리스 체슬러가 쓴 편지는 힘이 된다. 여자들이 나서는(?) 꼴을 도무지 못 보아내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정말 죽이고 싶어서 환장할 만큼 행동하라고 그녀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종일관 온화한 편지글의 형식을 빌어 여자됨의 의미와 함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개처럼 모욕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한다. 그 논조는 웬만큼 그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의 의식도 다시 한 번 선동할 만큼 아주 단호하고 과격하다.

'착한 여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악이 승리한다'고 첫번째 편지를 쓴 그는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고, '페미니스트는 진정으로 평등한 가족을 원한다'고, 그리고 '결혼은 성적으로 여자들을 억압한다'고 계속 편지를 써내려간다. 이만하면 여성도 살 만하지 않느냐고 주저앉은 여성들에게 '벌써 가부장제라는 흡혈귀가 당신을 물어버렸나요?'라고 다시 한 번 되묻는다.

진정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식은 피를 다시 끓게 하는 정말 좋은 책이다.

권혁란

『학교 종이 땡땡땡』(김혜련 지음 · 미래M&B 펴냄)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답답해졌다. 학생들이 안 됐고, 선생님들도 안 됐다. 과연 학교에 희망은 있는가, 참담해지기까지 했다. 교육현장을 지킨 지 20년이 가까워지건만 점점 두려워진다는 저자는 지금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학교가 지루한 아이들은 때로는 적개심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저항하고, 생각이나 고민이 많은 아이를 재수없어 하고 서로 왕따가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취미로 교과서를 찢는다는 학생들 앞에 선 교사는 악에 받칠 대로 받친다. 19세기 환경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희한한 곳,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소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필자는 말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의 변화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또 성급하게 굳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그리고 조금 일찍 산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말한다. 자신을 아끼라고, 결코 부모나 학교, 세상을 탓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자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문을 열어놓는 것, 그것만이 과도한 입시경쟁의 숨막히는 현실에서 따뜻한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임을 이 책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

여성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 활동한 저자의 절절한 교육일지를 보며 오래 전 내 선생님들은 어디쯤 계실까 궁금해졌다.

윤숙경

겨울의 필수품

코트로 멋내기

달랑 한벌만 있어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가 하면 종류별로 수십 벌이 있어도 어쩐지 부족한 듯한 옷이 바로 코트. 코트는 그 어느 옷보다도 입는 이의 신분이나 감각, 경제적 여유까지 은근히 암시하므로 고를 때나 입을 때나 신중해야 한다.

VIKI(위)와 i·n·v·u(아래)가 내놓은 모피장식의 털제품들.

재클린 케네디가 즐겨 입었던 박스형의 심플한 코트,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가 입었던 모자 달린 코트, 〈러브스토리〉의 알리 맥그로가 입었던 깜찍한 하프코트, 옷로비사건의 주인공들이 '입었다, 걸치기만 했다'를 주장하는 호랑이무늬 모피코트에 이르기까지 코트는 소재나 디자인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 빛깔을 낸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벌은 갖고 있는 옷이 코트다. 겨울의 필수품인 코트는 18세기까지만 해도 남성용 겉옷이었지만 이젠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옷이다.

달랑 한벌만 있어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가 하면 종류별로 수십 벌이 있어도 어딘지 부족한 듯한 옷이 바로 코트. 코트는 그 어느 옷보다도 입는 이의 신분이나 감각, 경제적 여유까지 온근히 암시하고 있으므로 고를 때나 입을 때 신중해야 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이고, 코트는 그 대표적인 품목이기 때문이다. 또 빠르게는 11월, 늦게는 3월말까지 입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엄청난 옷이기도 하다.

코트는 모피 소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수십만 원이 넘는다. 캐시미어 등 순모 제품의 경우 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선뜻 구입하기도 어렵다. 모처럼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첨단 유행도 아니라면 카드 결제일마다 얼마나 악몽에 시달릴 것인가. 게다가 올 겨울에 구입한 코트라면 21세기까지 2세기에 걸쳐 입어야 하는데 말이다.

요즘은 날씨도 예전처럼 춥지 않고 오너드라이버들이 늘어난 데다 실내 곳곳에 난방도 잘 되어 있어 방한용의 두터운 '오바'를 입는 이들이 드물어 거의 퇴출 수준이다. 하지만 각국의 컬렉션 자료나 국내 의류브랜드의 올겨울 상품을 살펴보니 유난히 다양한 코트들이 눈에 띈다.

새로 큰맘 먹고 코트를 구입하려는 이들을 위해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한다. 첫째, 유행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의류매장을 둘러보거나 패션잡지를 보며 자신의 체형에 어울리면서도 요즘 감각에도 맞는 디자인이나 소재를 체크한다.

둘째, 반드시 직접 입어보고 산다. 친구가 입었는데 예쁘더라며 똑같은 코트를 사는 이들도 있는데, 절대로 안될 일이다. 코트만이 아니라 옷을 살 때는 입어봐야 제 모습을 알 수 있다. 어깨를 뒤로 젖혔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소매 부분이 움직이기 어렵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 본다.

셋째, 갖고 있는 이너웨이를 고려한다. 직장여성이라면 재킷이나 수트를 입고 코트를 덧입으므로 풍성한 크기의 코트가 적당하며 갖고 있는 옷들의 주종 색상을 염두에 두고 연출하기 좋은 색상과 디자인의 코트를 고른다.

넷째, 기본형의 디자인은 할인매장 제품을 고른다.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코트는 굳이 값비싼 신상품을 살 필요가 없다. 상설할인매장에 가면 명품으로 불리는 제품들도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최신 유행경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디자인 면에서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단순한 미니멀코트와 부유함이 자르르르 흐르는 모피장식의 털제품이 동시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단순한 디자인이란 주머니, 벨트, 견장 등 거의 모든 장식이 배제된 것이다. 통이좁고 밑이 약간 퍼지는 A라인, 길이는 무릎이나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형태다. 쉽게 설명하자면 〈청춘의 덫〉에서 심은하가 주로 입고 나왔던 청순해 보이는 코트를 연상하면 된다.

또 동물보호주의자들은 경악할 일이지만 올해는 가짜가 아닌 진짜 동물 가죽이나 털을 소재로 한 코트들, 하다못해 깃이나 소매라도 장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토끼털은 밍크나 여우털보다는 싸지만 훨씬 화려하고 다채로운 빛깔로 염색되어 있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기다. 친칠라, 족제비, 다람쥐 같은 동물의 털도 모두 코트 소재로 쓰인다.

색상도 변화를 보인다. 겨울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검정색, 회색, 잉크색 등 무채색 일변도의 코트가 온 거리를 어둡게 했지만 올해는 흰색을 비롯해 올리브그린, 연보라, 낙타빛 등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빛깔이 많이 등장했다. 이건 참 반가운 현상이다. 검정색은 지적으로 보이고 다른 색과의 연출이 편하긴 하지만 조금 지겹다. 또 겨울이면 모두 칙칙한 빛깔의 코트만 입어 거리까지 우중충해 보인다. 특히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역에 서 있으면 온통 검정머리에 검정이나 회색 코트를 입은 이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와 컬트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때가 타는 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감깐 외출용이라면 우아한 아이보리나 사랑스러운 연보라 등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좋을 듯하다.

색깔만큼이나 소재도 가벼워졌다. 두껍고 딱딱한 모나 합성제품 대신에 솜처럼 가벼운 캐시미어, 앙고라, 모헤어 등 고급스런 모제품이 가볍하고 산뜻한 착용감으로 사랑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가 회복되어 이런 고급 소재가 인기라고 분석한다. 물론 가격은 착용감과 비례해서 꽤 높은 편. 하지만 입으면 어깨가 아플 만큼 두껍고 무거운 옛날 코트에 고생했던 이들은 새털처럼 가벼운 캐시미어의 유혹을 거부하긴 힘들 것이다.

정통코트가 싫다거나 겨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해 코트 대용

인턱에 털을 댄 SI의 제품.

품들도 많이 등장했다. 파리, 밀라노, 뉴욕 등 세계 유명 컬렉션의 겨울제품 중에는 디자이너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망토와 판초, 온몸을 휘감는 대형숄을 내놓았다. 특히 망토는 목부분을 폴라스웨터처럼 처리한 것, 인디언옷처럼 술을 단 것 등 종류가 다양하다. 끝부분에 주머니를 달아 실용성을 강조한 것도 많다.

온몸을 휘감는 숄도 장만해 두면 요긴한 품목. 이런 숄은 약간 목목한 소재의 투피스에 슬쩍 둘러주면 근사해 보인다. 외국 패션잡지를 즐겨 보는 이들이라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어깨가 드러난 드레스에 캐시미어나 인도산 모헤어 수직숄을 두른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숄들이 국내에도 상륙했지만 가격이 30~50만 원대여서 어지간한 코트값보다 비싸다.

하나만 걸치면 모두 해결되므로 코트를 입을 때 속에 입는 옷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속에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코트의 선이 달라지고 또 갑자기 실내에서 코트를 벗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우스개이야기가 하나 있다. 건망증이 심한 어떤 부인이 잠옷차림으로 있다가 옆집에서 그릇을 빌려달라기에 롱코트를 걸치고 갔다. 마침 그 집 남편까지 있어 우아한 모습으로 그릇을 전해주고 차까지 한 잔 마시게 됐는데 수다를 떨다가 "코트를 벗으시죠"란 권유에 무심히 코트를 벗어 자신의 잠옷을 공개하고 말았다. 건망증만 탓할 수 있을까.

나는 샤넬이나 조지오 아르마니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제품이나 최신유행 코트를 해마다 바꿔입는 이들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맘껏 발휘한 코트를 입는 여성들에게 감동받는다. 장롱에서 꺼낸 옷들로 멋을 부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한 친구는 그녀의 아버지가 입었던 팰트소재의 헐렁한 박스형 코트를 겨울마다 멋지게 소화해 낸다. 물론 키도 훤칠하고 날씬한 체형이라 무슨 옷을 입어도 옷이 살아나긴 하지만 요즘 보기드문 소재여서 앤티크한 느낌도 나고 남성복이 오히려 더 섹시함을 강조해 아주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또 어머니의 수직실크 두루마기를 개조해서 동서양 퓨전풍으로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다. 고급스럽고 동양적인 소재인데 청바지 위에도 의외로 잘 어울렸다.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오리엔탈 패션이 유행한다니 어머니들의 옛날 두루마기를 뒤져볼 만하다.

그러나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는 어떻게 입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 코트를 입고 있어도 불안하고 어색한 듯한 표정에 웅크린 자세라면 그 옷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낡은 코트라고 해도 당당한 자세와 즐거운 표정이라면 그 옷이 대단한 마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진다.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옷이자 액세서리가 아닐까? IF

유인경

경향신문 생활문화부 차장.

i·n·v·u.
올겨울 세계유명
컬렉션들은
망토와 판초, 온몸을 휘감는
대형숄들을 내놓고 있다.

엄마의 가지 못한 길…

여자들의 흔한 레퍼토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억울한, 엄마의 인생,
그리고 가지 못한 길.
딸들은 지금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을까.

유품 속에서 발견한 소망

가지런히 땋은 갈래머리를 하고 잘록한 허리의 플레어스커트와 깔끔한 반소매 블라우스를 입은 두 소녀가 작고 오래된 흑백사진 속에 있다. 배경은 바닷가이고 바람이 조금 부는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날리는 것도 보인다. 두 소녀 중에서 통통한 몸집의 그이가 바로 내 엄마다. 바다를 바라보는 데 정신이 팔려서 사진기에는 표정 없는 뒤통수만을 들이밀고 있는 그이. 아마 열여덟 살? 나, 열여덟 살에는 이유없는 반항을 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삼박사일이라도 주절거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유랄 것도 없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내 심적 상태였다. 난 결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없는 대학의 학과를 한 달 동안이나 다니다가 어느날 진저리를 치며 그만두었다.

엄마, 열여덟 살에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아이였다. 교장선생님이던 외할아버지를 우쭐하게 할 만큼 차분하고 조신하며 공부마저 뛰어난 장녀였다. 글을 쓰고 싶어하던 그이는 아버지의 권고대로 유수한 여대의 영문과—당시 딸들이 다니기에 가장 자랑스러울 수 있는 곳이었나 보다—에 입학했고 때가 되어 결혼을 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품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훤하다. 내가 아는 엄마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권고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식구들 몰래 어두운 부엌에서 한숨 쉬던 —난 즉시 몸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이의 눈물은, 잘 모르겠다— 모습을 몇 번이나 내게 들켰던 엄마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많이 생각하지 않기, 글쓰지 않기'라고 가계부에 묵묵히 적어넣었던, 한때 문학소녀였던, 내 엄마라면.

엄마의 여동생도 같은 대학, 같은 과에 구겨넣어졌다. 외할아버지는 법대에 가고 싶어하는 둘째딸에게 "여자가 무슨 법대냐. 아예 대학을 가지 마라"며 무시했다. 그리고 내 엄마는 상심한 동생을 달래야 했을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겠지? 영문과에 가서도 법을 공부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을까? 아니면 여자가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걸맞지 않는 노릇인가를 완곡하게 주장했을까? 무슨 말을 했건, 결국 아버지의 말은 거역할 수 없어, 네가 져야 해, 라는 의미라는 걸 내 똑똑한 이모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내가 학교에 휴학원을 제출하게 된 사건은 전적으로 엄마의 무공(?)에 힘입었다. 가정사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아빠는 내내 강경했다. 그런데 내가 캄캄한 거실 구석의 소철나무 화분 옆에서 울었던 다음날, 엄마는 내 손을 잡아끌고 나서더니 의자마다 흰커버를 씌워놓은 다방에서 아빠를 불러냈다. 나는 무심한 듯 재미도 없는 비디오영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 자리의 분위기는 전적으로 엄마가 주도했다. 아빠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실질적인 얘기는 한 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감지되는 기싸움, 엄마의 승리, 그것뿐이었다.

엄마의 그 날 행동은 전에 없이 과감했고 다시 볼 수 없이 적절했다. 왜 그랬을까? 엄마 열여덟에도 외할아버지에게 주장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걸까? 이모 열여덟에 꺾어놓은 꿈이 미안했던 걸까? 나 열여덟에는 저 먼 곳에 대한 아쉬운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진기를 향해 자신 있는 표정을 가져주기를 바랐던 걸까?

가계부 아랫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엄마의 쪼박지 메모들 말고 제대로 제목 달린 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겐 기쁨이며 우울함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유품 속에서 얼굴을 돌린 채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사진과 함께 집혀 있던 시 한편은, 물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한 바다에 서 있는 내게 안정감과 유동감 중에서 너의 몸을 실을 곳이 어디인지를 넌지시 신호한다. 그 신호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품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그 신호.

이현정(31세, 대학원생)

엄마는 꿈꿀 수 없었다

어머니는 꿈꿀 수 없었다. 꿈이란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란 걸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알았던 것일까? 아직 걷지도 못하는 당신을 두고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신 이후로 어머니는 무엇도 꿈꾸지 않았다. 지방신문사의 기자였던 외할아버지께서 취재길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바다로 떠나버리신 후에는 더더욱 그랬다. 친척집에 얹혀살아야 했던 어머니는, 새어머니가 두고 떠난 어린동생들까지 돌보느라 꿈꿀 틈이 없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것만도 감지덕지하고 살았던 어머니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친구들처럼 하얀 세일러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그건 동생을 셋이나 둔 맏이가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이었다.

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 어머니는 잠시 꿈을 가지기도 했다. 언젠가는 글쓰는 사람이 되리라. 그건 일찍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꿈을 이루는 데 걸맞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다. '착한 여자'로 살기를 강요당했던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했듯 어머니는 글쓰기를 위한 최소의 전제인 '자신'을 만나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착한 여자', '착한 언니'가 되어갔던 것이다.

착한 언니였던 어머니는 열아홉이 되자 시집 보내졌다. 두려움 많고 수줍은 새색시는 매서운 바다바람을 맞으며 어부의 아내로 살았다. 바다바람보다 더 매서운 시집살이는 어머니에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다. 외종숙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공무원시험을 치고 어머니는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지만 그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남에게 인심 잘 쓰고 술 잘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을 사내다움으로 인정하던 그 비뚤어진 시절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으로 바뀐 어머니의 꿈을 또 한 번 짓밟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가정을 꾸리느라 꿈이라는 말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어머니가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 슬금슬금 반란을 일으켰다. 집안형편으로는 당치 않아보였던 것을 맏딸인 내게 다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비호 아래 여상을 다니는 대신 여고를 다녔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국립대학을 다녔으면 했던 당신의 바람을 저버리고 사립대학 원서 한 장 달랑 들고 서울로 도망간 딸 대신 4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술주정을 받아냈다. 딸뻘뿌려기처럼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도, 논문을 쓰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까닭을 묻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 어머니의 자식, 특히 딸자식들 셋은 어머니의 비호 아래 열심히 제 꿈을 꾸며 살았다. 어머니는 자식을 통해 꿈꾸기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일까?

이제는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아프고 집중이 안 돼서 못 읽으시겠다며, 텔레비전 영화 프로를 열심히 보시면서, 언제 당신이 글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했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신 어머니

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한바탕 난리가 날 말씀을 어머니는 맏이인 내게 몰래몰래 토해내시곤 했다. 말끝마다 '여자가…'를 달고 사셨던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꿈꾸기는 불행하게도 내세를 기약하는 꿈이었다. 그러더니 이즈음엔 그런 말씀도 않으신다. 어머니는 이제 꿈이란 것을 꾸지 않기로 하신 것일까? 다음 생에 가지고 갈 꿈도 버리신 듯한 어머니가 요즘 무슨 꿈을 꾸는지 이 불효한 딸은 알지 못한다.

공미혜(가명, 37세, 방송작가)

마침내 찾은 엄마의 행복

내 기억 속에는 아내로서의 엄마는 없다. 신기하고 기이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그저 엄마였을 뿐이다.

내 기억속의 아버지와 엄마는 손 한 번 다정히 잡은 적도 없다. 25년 남짓한 결혼생활 동안 실제로 함께한 기간은 아마 절반 정도일 것이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외국에 오래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이나마 마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 어릴 적 기억도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 커다란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방문을 여니 아버지가 TV를 들어 엄마를 막 내리치려는 순간이었고, 난 울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두번째는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보인 엄마의 뒷모습. 정신없이 수면제를 삼키던 엄마, 나를 발견하고는 다시 억지로 게워내던 그 모습. "엄마, 잠들지 마. 언니랑 나만 남겨두고 혼자 잠들지 마." 우리 가족은 참 많이도 울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그저 엄마였다. 돈도 열심히 혼자 다 벌고, 두 딸도 열심히 혼자 다 키워내고, 남들은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까지도 열심히 키웠다. 생각해 보니 엄마는 두 딸과 망나니 같은 아들 하나를 키워내신 셈이다. 물론 엄마에게도 아내로서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언니와 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조차 부인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 기간은 터무니없이 짧았고, 말도 안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요즘 갑자기 중년의 재혼을 다룬 드라마가 많다. 주말연속극에서 한 아들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난 이미 10년 전에 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 때는 아무 희망의 근거도 없이, 일단 계속되는 고통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작년, 갑자기 희망이 나타났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사랑했던 아저씨로부터 거의 30년 만에 연락이 온 것이다. 엄마와 헤어지고 그 아저씨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이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엄마를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다가 마침내 연락이 닿았던 것이다. 엄마의 소식을 동창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알리기 싫었던 엄마는 어느덧 옛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다.

30년 만에 만난 두 분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보였다. 이제 엄마도 드디어 새로운 삶을,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후 3달 가량 두 분은 매일 전화를 했다. 아니 3시간마다 전화를 했다는 편이 정확하다. 처음으로 나는 엄마의 콧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 된장찌개에 취나물로 저녁을 먹었는데…."

미국으로 보내는 엄마의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으로 가면서 난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

영어교육과를 다닌 엄마의 애송시는 프로스트였다. 지금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컬하다. '가지 못한 길'. 엄마는 뒤늦게,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지 못한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그 시에서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숨을 지을' 그런 일은 이제 없다.

진주영(23세, 대학원생)

"엄마도 공부 잘했는데…"

직장에서 인정받는, (엄마 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바쁘고 인정받는 남자'인 우리 아빠와 (내 생각에)요즘 보기드문 현모양처인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도시에서 공부를 '꽤' 했고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간 큰딸인 나와 말썽 일으키는 소문난 날라리는 아니지만 공부에 뜻은 있으나 하지는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못하는 내 동생. 이런 우리 가족의 구성을 고려(?)하신 엄마의 한 말씀. "너는 아빠 닮고, 네 동생은 나 닮아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정말 신경 쓰여. 엄마는 공부 잘 했었는데…." 어릴 때는 그저 엄마의 자조섞인 말로만 들었고 단지 "아냐, 엄마가 나도 키웠잖아. 애들은 엄마 머리 닮는 거래"라고 그 때는 나름대로 위로랍시고 이런 철없는 말을 내뱉었다.

엄마는 시집오기 전에는 7남매의 맏딸로 친정의 가세가 기울어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더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결혼후에는 워낙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아빠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오십평생을 살아오셨다. 어찌 보면 그 나이대의 보통 여자들이 겪었을 흔한 인생 레퍼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부당하기에는 억울한, 엄연한 한 여성의 일생이다.

"공부 잘 했었는데…." 하고 뒷말을 흐리는 엄마가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의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라면? "엄마는 뭐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공부가 하고 싶었단다.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이야기를 꺼내신다. "니들 더 크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 때 친정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동생들도 많고 공부는 포기했지. 그래서 재봉기술을 배웠는데 다들 학원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책 보구 터득했어….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많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배우고 해보고 싶어." 말씀하시는 엄마의 그 커다란 눈에는 자신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 역시 엄마의 길에 놓인 하나의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아들선호사상이 지금보다 더 짙었던 시대에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딸로, 남편을 위한 내조를 자아실현과 일치시키면서 희생해야 했던 아내로,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참아야 했던 어머니로… 그렇게 엄마는 살아왔고 엄마에게는 현재의 안정된 가정이 지금 최상의 행복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이

고 남편이었다면, 동생의 성적을 고민하고 아쉬움의 눈빛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 갈수록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엄마를 바라보게 된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같은 여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겨우 보게 되는 것 같다. 이미 존재했을 그 모습을 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가. 그만큼 가려지고 포기했을 엄마만의 꿈들을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좀 컸다고 멀어져가는 것만 같은 큰딸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눈빛 대신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눈빛을 보고 싶다.

박찬숙(21세, 대학생)

동네 해결사, 우리 엄마 옥리댁

애초 우리 엄마에게 꿈이란 없었다. 올해가 육순인 우리 엄마의 또래들이 그렇듯이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외에 뭔가를 한다는 건 "자선없는" 일이었다. 희망이라면 좋은 집안의, 좋은 며느리 정도였을까. 올 추석 우리 엄마는 내게 그렇게 말했지만 며칠 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는 꽤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

"그 때는 니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랬는디 가만히 생각해 본께야 젊었을 때는 못 배운 거시 한이 돼서 많이 배워서 직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고야 지금은 늙어빠져서 그런 생각은 없는디 테레비에 똑똑한 자식들, 잘된 자식들이 나오믄 '워메 으찬 사람들은 저런 자식을 다 났을까잉.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남들이 다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믄' 하는 거시다."

늦가을 아침 코끝을 스치는 쌀쌀한 바람처럼 우리 엄마의 말은 가슴 한 구석을 밀고 들어왔다. 우리집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여자로선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나는 아직도 대학 진학 당시 동네 '아제'가 "여자를 대학 보내서 핏에 쓰냐"며 우리 엄마를 비웃었던 일, 그리고 대학 진학 후 방학이나 명절을 이용해 시골집에 들렀을 때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던 어느 '아짐'의 눈빛과 비웃음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농사지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을 댔던 딸이었건만 대학을 나오고도 몇 년을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1년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던 내게 우리 엄마는 "내가 너라믄 결혼 같은 것도 안 하고 멋지게 살 거시다. 그만침 배웠으믄 뭐시든 하는 것땐치로 해야제" 하며 은근히 내 속을 뒤집어놨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일중독자가 아닐까싶을 정도로 일에 매달리고 있어 별말은 없지만 흡족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엄마가 가지 못한 그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쩌죽쳐죽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만침 배운' 나는 못 배운 우리 엄마를 따라가기엔 아직도 멀었다. "운명은 내가 개척하믄 못할 일이 없어야" 하시며 동네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 군수건 면장이건 필요한 발언은 똑부러지게 하는 '무서운 여자'의 당돌함과, 동네 한쪽에 생긴 미역공장에서 노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딸이 엄마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겄냐고 해서"(사실 그 당시 이 말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다.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했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당당함과, 일당 2만5,000원 받는 고구마 캐러갈 때 동네사람들이 일부리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로 '옥리댁'(우리 엄마의 택호)이 있어야 안심을 한다는 그 책임감, 또 서울 외갓집에 어쩌다 들르는 날에는 외삼촌이나 외

숙모가 입지 않는 옷들을 가져다 일복으로 입으라며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조카들의 작은 옷들도 모조리 가져오게 해서 딸부잣집에 가져다주는 삶의 태도는 '배운' 내가 따라가기엔 벅차다.

동네는 '못 배운' 우리 엄마의 직장과 같은 곳이다. 여전히 '많이 배운 직장인'은 우리 엄마의 가지 못한 길로 남아 있지만 '많이 배운 직장인'으로서 나는 엄마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진다.

"엄마! 많이 배워도 배운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 자기밖에 모르거나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김소영(31세, 자유기고가)

"장남은 절대 안 된다"

따르릉따르릉….

연속극이 한창인 주말 오후,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나를 찾는 전화인지 내게 수화기를 건넨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연속극을 볼라치면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엄마의 확인질문이 있다. "몇째니?" 전화를 건 사람이 후배건, 선배건, 혹은 개인적으로 관계도 없는 통신회사 직원이건 남자다 싶으면 물어보는 엄마의 질문이다. 보통의 엄마들이 "누구니?", "뭐 하는 사람이니?"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면 우리 엄만 꼭 그 사람의 형제관계를 묻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덧붙이는 말. "장남은 절~대 안 된다." 종가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온 엄마. 그것도 전라도 처녀였던 엄마는 형제가 8남매나 되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인 아버지와 결혼했다. 시집 오자마자 앓고 계신 할아버지 간병과 1년에 12번인 제사 등 온갖 집안 행사와 인사치레를 떠맡았다. 더구나 맞벌이를 했던 엄만 그야말로 제3의 성, 즉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억척스럽게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명절날 끓여댄 떡국이며, 빚어낸 송편만 해도 쌀 수십 가마니는 넘을 게다. 어디 그뿐인가. 조용하다 싶으면 티져나오는 시댁형제들 문제 수습하랴, 고령의 할머니 수발하랴, 또 둘 다 대학생인 오빠와 나의 학비 마련하랴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날이 없었다.

오죽하면 엄마의 바람이 명절날 곱게 차려입은 채 과일바구니 하나 들고 남의 집 방문해 차려놓은 밥상 한 번 대접 받아보는 것이랴.

어릴 적부터 엄마의 이런 고충들을 보고 들으며 자란지라 엄마가 왜 맏며느리란 말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지, 또 왜 남자의 형제관계를 따지는지를 십분 이해할 수는 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막내랑 결혼했더라면 엄마의 삶은 분명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딸인 나만큼은 장남과 결혼하지 않길 바란다.

엄마를 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제사를 지내야 하는 등의 일보다도 장남, 맏며느리라는 부담감,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게다. 단 한 번 만이라도.

엄마는 술을 전혀 못 한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불그레 발그레 정신을 못 차린다. 엄마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최백호의 트롯을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거다. 그래서 엄만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마시고 들어온 날도 꾸짖지 않으신다. 오히려 내 주량에 신기해하며 아빠를 닮아 다행이라고 한다. 그런 엄마가 한 번은 동창회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다. 그리곤 최백호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장남은 안 된다."

등뒤에 올라탄 원숭이처럼 엄마를 짓누르는 그 부담감의 실체는 무엇인가. 엄마가 가지 못한 길, 그 길에 대한 바람은 영영 경험할 수 없는 과제일 뿐일까. 넬 모레면 또 고조할아버지 제사다. 달력을 펴고 날짜를 확인하고 있는 엄마를 보니 또 다시 안쓰러움이 밀려온다.

그런데 큰일이다. 엄마는 알고 있을까? 유난히 큰 키와 체격 탓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맏며느리감이란 말을 듣고 있는 나를. IF

김미영(23세, 방송작가)

다음 12호 주제는 '엄마의 노래, 엄마의 18번'입니다. 분량은 원고지 7매로 써주시고, 채택된 분에 한해 1만 원권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전라도 김치를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랭지 재배 지리산운봉 춘향골 맛김치

미군 김치납품업체,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 받아

지리산 운봉은 춘향골로 잘 알려진 전북 남원에 속한 곳이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야채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춘향골 맛김치〉는 전량이 이 지리산 운봉의 400-800m 고랭지에서 재배된 양질의 배추, 무 등을 사용합니다. 봄, 여름, 가을의 일교차가 큰 최적의 기후조건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와 무는 드문드문 칼륨성분이 섞인 계곡에서 재배되어 품질면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춘향골 맛김치〉는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동치미, 깻잎김치, 풋고추젓지, 미나리지, 깍두기, 반지, 콩나물김치, 배추지 등 무려 10여 가지에 걸친 각종 김치를 95년부터 생산, 인기리에 시판해 왔습니다. 특히 춘향골 맛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동부영농조합법인(대표 김춘봉)은 남원시와 전북도내에서 우수품질로 인정받았고, 98년 12월 농림부로부터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김치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이미 입증시킨 바 있습니다. 더욱이 납품업체 선정시 미군 제18사단 에디캄센터에서 예고없이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획득해 김치 생산과정의 위생상태 역시 검증되었습니다.
〈춘향골 맛김치〉의 뛰어난 맛의 비결은 무엇보다 젓갈의 적절한 가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젓갈의 사용과 전라도식의 맛이 진한 김치로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춘향골 맛김치〉가 곧 전국의 유명백화점과 E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주문에 따라 전라도식 김치뿐 아니라 서울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젓갈을 덜 쓴 김치를 주문판매(판매원 (주)세현)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운봉 고지대에서 재배된 채소류와 젓갈이 어우러진 〈춘향골 맛김치〉의 맛은 전국 소비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주문구입처 : (주)세현 02-5577-006
가격 : 1kg당 4,000원
(주문배달은 5kg이상시 가능합니다)

긴 겨울밤, 곁에 두고 보는 책

내가 이즈음 기착한 지점(현실)은 영국작가 도리스 레싱(1919~)의 작품들이다. 호흡이 길면서도 명쾌하고, 주제가 무거우면서도 살아움직이는, 그리하여 문명과 야생의 바람이 한 데 얽혀 심신을 새롭게 하는 소설이 흔치 않은 시대, 나는 모처럼 벗을 발견한 듯 이 작가에 빠져 있다.

우선 짧은 단편 하나. 현실과 미래사에서 나온 연애소설모음집 『견딜 수 없는, 미쳐버리고 싶은』(밀란 쿤데라외 지음 · 장석영 옮김) 가운데 레싱의 작품이 하나 있다. 제목은 「호모에로티쿠스」. 상습적으로 여자에게 추근대는 저급 저널리스트의 속성을 날카롭게 간파한 글이다. 일정이고 꿈이고 다 사위어진 나이, 그저 그렇게 사건의 언저리에서 맴돌듯 삶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주변부 남자의 속성이 자의식 강한 여자의 모습과 대비되어 그려진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남자를 끌고 가 무참하게 만드는 식. '똑똑한 여자는 정말 싫어'라고 내뱉는 그 남자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올해 민음사에서 세계문학전집 27번째로 발간된 『다섯째 아이』(1988년 작, 정덕애 옮김)는 한 마디로 섬뜩하다. 책을 덮고 나자 엉뚱하게도 영화 〈록키호러픽처쇼〉가 떠올랐다. 마치 낙원과도 같았던 빅토리아식 저택, 중산층이 항구적이라 믿는 모든 가치와 관습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전율과 공포를 동반하면서 한편으로 통쾌한 까닭은 무얼까. 작가 자신 이 소설을 1980년대 영국의 사회적 상황과 빗대어 읽지 말라는 당부를 했지만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재창조의 길을 걷기도 하는 법, 새로운 세기를 맞는 혼돈과 지난 시대의 자괴어린 반성이 직조되어 그 어느 것보다 생생한 세태 소설로 읽힌다. 아울러 모성

에 가해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그 어떤 폭력보다 커다란 무게로 독자를 짓누르며 공분을 자아낼 것이다.

끝으로 심호흡을 한 다음 겨울잠 자러 동굴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펼쳐볼 책이 하나 있다. 영국에서는 1962년 간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선 1997년에야 평민사에서 상하 두 권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니 이 장편소설의 제목은 『황금빛 노트북』(김수정 옮김). 작가 안나 울프의 삶과 작품, 그의 소설쓰기와 사색의 편린들이 독특한 구조 속에 서술된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분류하기 위해 기록하는 검정, 빨강, 노랑, 파랑 4권의 노트북과 황금빛 노트북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주인공 안나와 친구 몰리, 그 주변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자유로운 여자들'이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형식이다. 레싱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인류와 역사의 문제를 폭넓게 사고하면서도 개인의 생과 미래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섬세함으로 읽는 재미와 감동을 증폭시킨다.

영국인 부모를 두었으나 이란에서 태어났고 로디지아의 황량한 초원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레싱은 일생 동안 '유년 시절 만끽한 야성적이며 황량하고 독립적인 기운'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그의 삶과 문학에 어떤 무늬를 남겨 놓았을까. 글을 쓰기 위해 결혼생활을 포기할 만큼 글쓰기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임했다는 도리스 레싱. 일생을 영국문단 변경에 머물며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지냈으나 시간이 흐른 후 도리어 문단의 중심에 우뚝 선 그의 궤적을 보면서 오늘날 언론과 문예지의 커넥션이 어쩌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문화계 행태가 새삼 부끄러워진다. IF

이숙인

부모양계혈통제를 향하여!!!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컴퓨터 통신에 접속을 했더니 아니, 웬 무더기 메일? 오호라, 딴지에 글을 보냈더니 그것이 실린 모양이구면. 딴지일보(23호)에 들어가 '퐁꼬 깊쑤키' 를 누르고 글을 보았다. 해마다 '추석 연휴에 벌어지는 불륜, 불륜들' 이라는 제목으로 통신에 글을 써오다가 올해는 딴지에 글을 보냈더니 글을 싣고 뒤에 푸른색으로 내 인터넷아이디를 달아 놓았다(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우스 화살표가 스쳐지나갈 때에 아이디 위에 손가락 그림이 나타나고 그걸 콕 누르면 바로 당사자에게 전자편지를 쓸 수 있다. '어준이오빠' 는 사전에 말도 없이 내 이름 밑에 '딴지일보 여성문제 고문' 이라고 달아놓았다. 미리 양해를 구한다거나 통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딴지 방침이 아니란다. 파쇼냄새가 좀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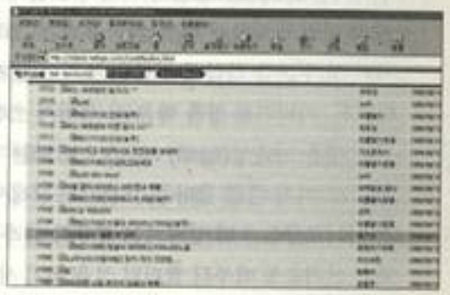
내가 사용한 '불륜' 이라는 말은 아니 불(不), 인륜 륜(倫), 즉 '인륜이 아니' 라는 말이다. 명절이라는 것은 남성중심의 과거지향적 문화(처음 들으셨다구? 밀줄 치고 별표 3개 하시라)이고 따라서 우리 철든 여자들은 명절신드롬을 앓기도 한다. 여성민우회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던가. 21세기로 가면서 버리고 가야 할 것 1순위는 여성차별의 명절문화라고. 절반의 인구, 여성이 완전히 소외되는 문화는 인륜이 아니다. 불륜 맞다. 남녀간의 야시꾸리한 그 무엇을 기대하고 보는 넘들은 더 이상 글을 읽지 말고 다른 데 가보라고 했거늘… 기어이 보고는 메일들을 보내왔다.

물론 글을 읽고 부라보, 기립박수, 환상적, 언냐 파이팅! 도 간 휘(감동의 도가니라나 머라나), 졸라 파이팅, 자기 멋쟁이, 남자로서 반성한다, 와 멋지다, 감동 또 감동… 등등 입뿐 남녀들의 편지가 더 많았지만(얼굴 붉어진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 칼럼이 '고은부인 도끼 들었네' 이니만큼 제목부터 씨발년아… 등을 쓴 넘들의 편지글을 디벼 보기로 하자. 딥 디비 디비디비…

JOTKA@shinbiro.com : 씨발년아 잘봐… 좆아난 씨발년아. 니는 예미 예비두 없나? 븅신 같은 년이 여자가 어쩌구 남자가 어쩌구 지랄떨지 말구…. 야 이년아 다른 사람들한테 머라하지 말구 니년이나 집안일 잘해. 븅신 같은 게 지두 잘 못하면서 여자우대 어쩌구 하는 년들은 보기만 해두 오바이트 쏠린다.

lch1998@hymail.hanyang.ac.kr : …외국에도 sala model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조금 달은 것인데 좋은점 나쁜점이 반반입니다.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죠. 저도 남자중심적인 사회 별로 맘에 안 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글은 현실배제적인(exclusive reality) 글입니다. 점증주의적인(increamentalism) 사회가 느리더라도 견고하게 발전해 갑니다. 우리 나라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고 합디까? 미국넘들 결혼하면, 여자도 남편 성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 우리는 그대로 아내 이름 지켜주잖아요….

Jgenex@netian.com : 이 씨불탱아…!!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시르면 이민가!!! 니네들 말대로 졸라 짱난다. 이 씨불탱아. 나서지 좀 마!!! …야이 씨불년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는 젊은 여자들… 그 꿈이 뭔지 알어?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이런 따위를 꿈꾸며 열심히 사는 여자들 많어. 그런 여자들 꿈이 명절날 푸짐하게 상차려서 가족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걸지도 모를 일인데, 씨발년아 뭔 근거로 그런 개 같은 소리를 지껄여. 야이 씨발년아! 엄마 전 우리 고졸 여직원이… 이번 추석 때도, 직장 때문에 시댁에 일찍 못 가서 맏며느리지만 추석날 아침에야 도착하게 되니 정말 면목이 안 서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맘씨 아냐? 야이 씨발년아! …네가 이런 드라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 한 며느리는 직장 마치고 부라부라 시댁 가서 음식 장만하고 그걸 맛있게 처먹는 가족



들 보면서 효뭇해하는데, 한 며느리는 뺀질대면서 남편 옆구리나 찌르면서 시댁 안 가려고 지랄발광하는…. 너는 뭔 생각이 들겠어…. 야이 씨불년아! 시댁에 한번 가면 친정에도 한 번 가? 할아버지 산소 가면 외할아버지 산소도 꼭 가야 돼? 야 이 씨불년아. 네 남편이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건달이거나, 명절이 무슨 7박8일쯤 되면, 다 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외할아버지 산소가 그리우면 네 남편 출근하고 휑하니 한번 갔다오믄 되자나….

조탱아!… 아이 씨불년아!… 어떤 여자가 너 같은 소리 못해서 그냥 그냥 사는 줄 알아? 그게 힘들고 불만인 걸 몰라서 그냥 사는 줄 아나고…. 인도의 여자들이 처도르 휘감고 눈꾸녕만 삐죽이 내놓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고, 어떤 씨불년도 그걸 갖고 지랄발광할 자격은 없는 거라 그 말이야. 이 씨불년아. 너 같은 년 그냥 놔두면 남자한테도 애 낳으라고 할 년이야… 알어? 명절날 상처리는 거 물론 힘들어. 나도 인다고… 근데, 어쩌란 말야. 그럼 명절날 상 안 차리고 제사도 지내지 마? 아니면, 네 시부모는 돌때치더라도, 귀한 남편, 새끼들 마저도 제 손으로 밥 찾아먹어? 그게 여자가 평등해지는 너 같은 년이 바라는 세상이야? 대가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지랄 좀 하지 마. 그래도 우리네 어머니들은 너처럼 지랄발광 안 해도 항상 존경받았고 사랑받았어. 씨발년… 같으니라고….

우선 너, JOTKA@shinbiro.com 말이야. 어쩜 아이디도 글케 자기답게 잘 지었는지 몰러. 날 보구 좆마난 씨발년이라구? 엄멈머. 그러니까 그게, 네 거시기는 160센티미터나 된다는 소리니? 음머, 여러가지루다가 사는 게 좀 힘들겠구나… 쯧쯔…. 글구 모 나한테 욕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씹할년' 은 욕이 아니야.

'씹못할년' 요렇게 해야 욕이 되지. 안 그러니? 그렇다구 모 나는 너한테 '씹할놈' 또는 '씹못할놈' 이렇게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if 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 입은 좀 우아하거덩.

'여자우대 어쩌구 하는 년들은 보기만 해두 오바이트 쏠린다' 구? 글쎄… 지금까정 '여자우대' 하라는 페미니스트는 나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못 봤다. 음… 가끔 있기는 있지. 룸싸롱 문앞이나 너거들 회사직원 채용시에 '사람구함. 날씬하고 미혼인 여자우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여성단체에서 '고용평등법' 같은 것두 만들라구 애썼던 거 아니니? '평등' 을 바라보기두 힘든 판에 무신노무 '우대' 씩이나? 너거들처럼 엄살떠는 넘들 보면 이 고은부인은 오바이트까정은 안 쏠려두 주먹에는 힘이 좀 들어가지. '평등' 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을 다짐하느라구 말이야. 때릴려구 주먹에 힘주는 줄 알았다구? 우린 폭력은 싫어한다닝깐. 그러게 맞을 짓은 하지 말아야 맘두 편하다는 걸 알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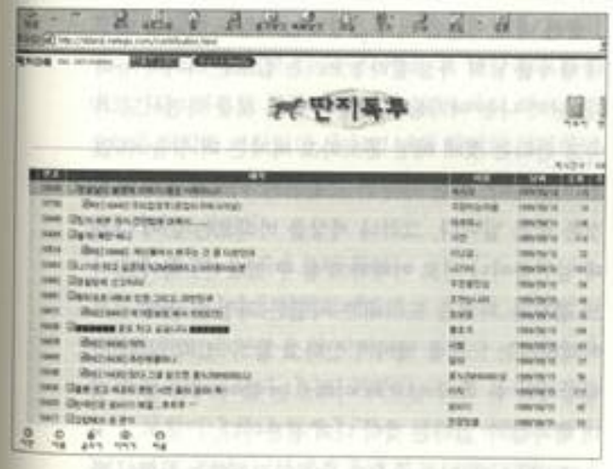
그 다음, lch1998@hymail.hanyang.ac.kr! 호호, 제 글이 현실배제적인(exclusive reality) 글이라구요? 점증주의적인(increamentalism) 사회가 느리더라도 견고하게 발전해 간다구요? 미국넘들 결혼하면, 여자도 남편 성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대로 아내 이름 지켜준다고요? 우하하. 우리는 민법781조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러나 대개의 나라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머니의 성을 따르든, 아버지의 성을 따르든, 섞어서 쓰건, 새로 만들건… 강제하지 않지요. 1991년, 독일의 어떤 여자가 남편 성을 가족성(family name)으로 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청했고… 오모나… 헌법재판소는 그 여자 편을 들어주었다네요. 그래서 합의해서 정하라고 이름법을 고쳤고(점증주의적으로 고친 것은 아니로군요.) 더 앞서가는 북구의 나라들은 합의가 안 되면 엄마 성을 쓰도록 하고 있답니다. 힐러리는 재선 선거운동 때부터 클린턴 성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법원이나 구청에 가서 이름을 새로이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습적,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요.

오잉? 더구나 1979년 UN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을 만들어 제16조 (사)항에 여자의 성씨도 가족의 성으로 택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부계혈통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의 하나라는 것을 UN은 알아차린 것이지요. 한국은 84년에 위 협약에 비준한 뒤 이 조항만을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데 UN은 4년에 한 번씩 한국정부에게 이 협약에 관한 이행정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유보조항도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NGO(시민단체) 대표도 함께 부름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활동에 쐐기를 박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우리 if독자들이라면 애인의 생일도 좋지만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16조 (사)항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애인한테도 꼭 말해 줍시다).

잠깐! 김희로씨는 의붓압지 성 때어버리고 내 살 때 돌아가신, 기억도 하기 힘든 친압지의 성을 따서 권희로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왜 퍼엉~생을 마지막 한 방울의 피땀까정 쏟아 사랑을 퍼부었던, 31년간 아들의 석방만을 위해 기도했던 엄니 박득숙씨의 성을 따서 박희로라고 하지 않은 것일까요?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는 무시크가 아직도 이 땅에 호주제나 부계성씨만 쓰도록 하고 있는 법(혹은 아시아적 가치?)에 녹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난자, 정자 모두 절반의 씨앗임을 잊지 맙시다! 부계혈통제가 부모양계혈통제로 바뀌는 날을 위하여… 호주제 폐지운동, 부모성함께쓰기, 꼭 실천합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genex@netian.com. 야, 이 씨불놈아…. 모 이런 소리는 나는 안하겠다. if독자들께서 한국사회의 남정네들 사고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내 글은 덜 줄이고(물론 많이 줄이고 줄였지만) 내 말은 짧게 마치도록 하지. 난 우리 여성들(혹은 열린 가슴의 남성들을 포함해서)이 이런 글을 통하여 너와 같은 넘들과 한 하늘 밑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강준만님도 언젠가 이런 넘들에 관한 글을 쓰신다니 기둘리고 있을테요).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넘들의 존재를 눈치채면 '백마 타고 오는 왕자' 따위의 환상은 품지 않을 터이니 말야.

야, 이 씨불놈아… 이런 소리는 빼고 말하기로 하지. 너 이런 책 제목, 들어는 봤니? 『딸들아, 이 에미처럼 살지 말아라』 또, 들어는 봤니?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치는 이 땅의 지혜로운,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노예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여자들의 절규를…. 물론 끝끝내 노예처럼 살도록 길들여진 여자들은 그런 소릴 하지 못하지. 그러나 여자들은 이제 알아차리고 말았다. 네들이 '아름다운 전통' 이라고 말해 왔던 족보, 가문, 혈통, 조상에 대한 제례, 오행에 따른 돌림자, 종갓집 맏며느리, 대잇기…, 이런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을 철저히 도구, 수단으로 보는 야만적인 사기극이라는 것을, 파쇼적인 가부장적 남자들의 잔치일 뿐이라는 것을, 양성평등한 나라에 사는 남정네들은 감히 입밖으로 뱅긋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생각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야, 이 씨불놈아… 이런 소릴 안 하고도 나는 말을 곧잘 하고 있지? 그런 거야, 성숙하려고 노력하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인간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노예를 부리면서 으스대는 것보담은 진화한 것이라고, 대가도 안 바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거 보믄… 이 아지매 괜찮은 아지매여.

그렇지?

(그간 제 글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긴 여행 후에 다시 돌아와 인사드릴 날을 약속드리며, 고은광순) IF

같이 사는 남자 길들이기

나랑 같이 사는 남자가 이 글을 보면 분명 한 마디 할 것이다. '남자 길들이기라고? 내가 이제까지 길들여져 왔다고?' '그럼, 길들여졌지!'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들은 사실 길들이기가 아닐 수도 있다. 여성을 이상하게 다루는 이 사회에서 서로 길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까? 나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투닥거렸다. 종가집 종손과 여성학을 하는 여자의 만남은 처음엔 순조로왔으나 결혼까지 가기에는 시끄러웠다. 그 과정을 어떻게 다시 언급하랴!

최근에 딸을 결혼시키는 남편의 선배가 남편에게 "이제까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 이 사회가 몹쓸 사회더라"고 고백했단다.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선배가 이제야 성숙하셨네요.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요. 딸도 잘 키웠으면서…." 선배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래? 딸 가진 사람이 죄인이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요구대로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텨서 우리집에서 많이 물러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더라구요."

그후 선배 부인이 나에게 하는 말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재관이 아빠 말을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내가 옆에서 봐도 시원하더라구." 어쨌든 나와 같이 사는 남자는 길들어가고 있다(길들여져가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에 대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남자를 길들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이혼(파혼)당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마음약한 여자가 묻는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리라. "이혼(파혼)하면 어때? 뭐가 두렵지? '내 배 째' 라고 하면 절대로 남자가 이혼하지 못할 걸."

여자가 미리 알아서 기기보다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저 여자 왜 저래' 하면서도 그것에 길들여져간다는 것(함부로 못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물론 이런 나의 말에 한 후배는 "언니! 그러다가 길들이기는커녕 영화 〈장미의 전쟁〉처럼 부부가 갈 때까지 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다가 이혼한 경우 같은데…." "이혼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사는 것같이 살지, 너 이혼한 거 지금 후회해?" 그러자 후배 정색을 하고 "아니, 절대로!!"

물론 내가 이혼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행복한 남의 가정 갈라놓으려는 심보는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나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면서도 기죽고 산다는 것에 매일 분노하고 이제는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가 조화롭게 이해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얼만큼이나 서로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방적인 한 쪽의 양보와 이해로는 같이 사는 둘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주장에 못내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여성학 때문에 잘 사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싸운다는 것이다. '여성학이 (잘 사는 여자들을 꼬드겨서) 나의 가정을 파괴한다' 고 비난해도 이제는 이런 비난을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내적으로 파괴된 가정에서 속앓이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의 몇 가지를 여자들과 나누고 싶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라. 그리고 대답하라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면 이는 정말로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같이 사는 남자를 길들이는 방법이다. 내가 행복해야지 같이 사는 남자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첫째, 주장 :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그 남자는 내가 감정도 없는 슈퍼우먼인 줄 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남편을 속이지 말고 그 진실을 밝혀라.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즉 너무 고생해서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울타리 밖으로 영영 날아가버릴 수 있다고…. 나도 당신처럼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당신 부모에게 잘해주면 당신이 좋은 것처럼 나의 부모에게 잘해주면 나도 기분좋은 한 인간이라고.

둘째, 애원 : 여보! 나를 딸처럼 생각하면 안될까?

그 남자는 내가 아이 키우는 도구인 줄 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늦게 잠든 나를 깨우는 그 남자가 정말 밉다. 오늘도 아이 학교 보내라고 깨우기 시작한다. 자기가 보내면 안 되나? 애를 왜 낳았을까 화를 내보기도, 깨워도 모른 척하면서 잠든 척도 해보지만 오늘은 전략을 바꾸었다. "여보! 나를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될까? 큰 딸이 공부하다가 잠들어도 이렇게 깨울까? 아빠 도와줘!"

셋째, 충고 : 나에게 보험 들어!

그 남자는 나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성화다. 바깥일은 적당히 하고 내 본분을 잘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더욱 능청을 떤다. "나의 본분이 뭔데? 그러지 말고 자기, 보험이나 하나 들지." "무슨 보험?" "생명보험!" "어디에 또 들어?" "나에게 들면 되지, 괜히 엄한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 나에게 투자해 봐. 당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 뒤을 할게."

넷째, 강요 : 당신도 그럼 애기 낳아 봐.

내 일 내 일 나누는 그 남자는 정말로 아이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 건강하고 용감하게 아이를 쉽게 낳아놓으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한 줄 안다. 어느 날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안다. 그래서 자기만 죽도록 애쓰고 나는 취미생활하는 것쯤으로 나의 일을 깎아내린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지지 않는다. 나의 일이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백 번 말하는 것보다 "당신, 그래 잘난 거 알지. 그러면 애기도 좀 낳아보시지!"

다섯째, 협박 : 내가 당신을 버릴 거야!

내 친구가 아이랑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단다.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아이들은 무사한 것 같고 차만 견적이 300,000원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허리가 뻐근하고 욱신거리는 것이다. 그래도 그 남자는 다음날까지 아이가 괜찮냐는 확인만 계속해 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 친구, 남편에게 일갈한다. "당신 아이는 내가 쿠션받이 노릇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그 쿠션이 망가진 것 같아. 이 참에 아예 새 쿠션 하나 준비하시지."

여섯째, 무관심 : "밥먹자." "…그래 밥 먹어."

대체로 남녀가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집에 가지고 오는 수입은 차이가 난다(당연하지, 한국사회 남녀 임금격차는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힌다). 남자는 그 사실을 뻔히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이 집안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또는 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는 형평성을 위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나의 잘못인가? 같은 시간 일하고 나면 집에서도 똑같이 일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다가 참다못한 남자가 말한다. "밥먹자." "그래 밥 먹어. 그런데 나는 배 안 고픈데."

기가 막혀하는 남자에게 한 마디 덧붙인다. "나도 돈 많이 주는 데서 일하고 싶어…. 당신은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IF

변혜정(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동가식 서가숙의 노하우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백수가 된 여자가 어디 한둘이랴!
때론 슬프고, 때론 우습고, 때론 기가 막힌 백수들의 이야기.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1994년 졸업후 무작정 상경. PC통신 구인란을 뒤지다 모 영화사에 취직함.

1995년 일년 재직중 회사에서 만들었던 영화 '현대판 전설의 고향'이 망하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와중에 즐지에 퇴사.
한 달 정도 놀다가 모 여성단체에 입사. 온갖 종류의 '문화 따까리' 생활 시작
(이 때부터 빛좋은 개살구의 인생이 펼쳐지다).

1997년 모 계간잡지 창간팀에 합류. 하나의 아이템을 만든다는 기쁨에 자신이 '따까리'임을 망각하고 마냥 정열적으로 일에 몰두.
공사다망했던 해(혹자는 공, 사가 다 망한 해라고도 함).

1998년 한 나라를 휩쓸었던 IMF 실직자 대열에 당당히 끼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방종하다 핑계 김에 짤렸다고도 함. 졸업후 처음 맞는 백수생활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려고 결심함. 몇 달 동안 일없이 놀면서 방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낙향.

1999년 낙향한 뒤 6개월간 한 푼의 돈도 벌지 않고 식구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콧콧이 바닥까지 내려감. 눈물짓은 눈칫밥을 먹어보지 않고서 백수를 논하지 말라.
7개월째 활동자금을 얻기 위해 '벼룩시장'을 보고 대학교 앞 복사집에 취직.

1999년 6개월 동안 일한 복사집에서 하산함(IBM 편집과 롯데캐논 5060, 6060의 달인이 되다).
상경. 배낭에 옷가지와 휴대용 녹음기, 카메라, 노트와 필통을 챙겨들고 '직장을 얻겠노라' 고 큰소리 땅땅치며 집을 떠나 성북동에 베이스캠프를 차림.

이 원고를 청탁받기 며칠 전 if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모씨에게 안부전화를 했더니만 대뜸, "야, 이 낮도깨비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얏!" 한다.

그러면 나는 매일 얼굴 보던 사람처럼

"예, 저 지금 혜화동인데요오…, 살 만하면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시죠오…" 한다.

집에서 우리 엄마는 나더러 '날백수'라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지인들은 나더러 '낮도깨비'라고들 한다. 지인들의 눈에는 내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낮도깨비처럼만 보이나보다.

그도 그럴 것이 일 년 전에 짐 싸들고 낙향해야 했을 때, 나는 대여섯 건의 송별식을 거창하게 했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여차여차한 무리들로 동아리를 나누다보니 다 따로 송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심정으로는 '에잇, 이노무 서울땅, 다시는 안 온다, 흥!' 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백수생활도 1년이 되어 지금의 나는 서울이든, 고향이든, 또는 부산이든 강원도든 어디로든 달려가서 그 지역의 친구들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요컨대 내 발길 머무는 곳이 곧 집이고, 고향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독자도 있겠다.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로부터 한 곳에 뿌리박고 농사짓던 평화로운 농경민족이 아니던가. 그런 민족이기에 나처럼 발이 가벼운 인생은 몹쓸 것으로 쳐서 '객지살이' 하는 나쁜 팔자요, '밥은 여러 군데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야 한다' 느니 '역마살'이 꼈느니 하며 혀를 끌끌 차는 분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백수가 달리 백수인가. 상황이 나를 몰았건 내 본성이 그리 살도록 했건간에 이왕 뿌리내릴 땅이 없는 처지가 되었으면 이 참에 세상유람이나 하며 즐거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즐거이 살다보면 체질에 맞는 좋은 땅을 만나 거기서 뿌리내리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백수 일년차 나의 인생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유랑민족처럼 살 수 있으려면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노하우는 나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른 백수 또는 백수 지망생분들은 참조만 하시면 되겠다. 결코 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첫째, 베이스캠프 정하기.

한 도시에 한 군데의 베이스캠프를 정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움직인다. 베이스캠프 없이 움직이다보면 정신적인 피로감이 가중된다. 매일매일을 어디서 지내야 하는가로 골머리를 썩이다보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놓치

고 정신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베이스캠프 예정지는 2~3군데를 미리 정해두어야 낭패가 없다.

둘째, 큰 짐은 막역한 친구집에 맡긴다.

베이스캠프가 정해지면 그 곳에 큰 짐을 두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짐 두는 곳과 잠을 주로 자는 곳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 때 짐을 두는 장소는 소꿉친구로 전업주부인 경우가 좋다. 수시로 드나들며 세탁과 탈의실로 이용한다(남편이 백수인 친구네는 제외).

이 경우에는 청소, 설거지 등을 당연히 해야 하며 전업주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잘 나누는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항상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한다.

지저분한 청바지, 질끈 묶은 머리, 큰 배낭은 절대 금물. 상대방이 당신의 행색을 보고 긴장하는 수가 있다. "얘가 아예 나한테 붙어살게 되는 게 아닌가"라며 긴장한 상대의 냉랭하고도 노골적인 박대를 받는 수가 있다. '입성부른 거지가 동냥질도 잘한다'는 옛말은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넷째, 연락가능한 통신수단을 최대한 열어둔다.

인터넷 e-mail, 호출기나 핸드폰, 베이스캠프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열어두고 언제든지 부르면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과 몸은 백수의 재산이다!

다섯째, 무리없는 선물을 준비한다.

친구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음료와 과일, 꽃 등을 적절히 준비한다. 이밖에 읽던 책을 빌려주거나 아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짐도 덜고, 생색도 낼 수 있고 공통의 화제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

나의 경우에는 평소에 자동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수시로 친구들의 스냅사진을 찍어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현상한 사진을 선물하는데, 정말 돈이 별로 안 든다! 사진선물을 받는 친구들의 기쁨에 나날이 향상하는 촬영기술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창조적인 선물을 시간날 때마다 구상하라.

여섯째, 소문을 낸다.

자신이 백수라는 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사람들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일손이 달릴 때, 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시간과 돈이 남아돌 때, 또는 그저 당신의 존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제 백수인 당신은 적조해진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보의 교환이 원활해지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동료를 만든다.

아무리 바쁜 백수라 해도 때때로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때를 조심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허해진 당신은 인생 전반에 대해 회의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의기소침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평소에 동료 백수나, 프리랜서인 친구들을 알고 지낸다면 문제없다. 모두들 제자리로 들어가 도시가 텅빈 듯이 여겨지는 대낮에도 당신은 어슬렁거리며 동료 백수와 프리랜서들을 만나 뜨거운 인류애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백수에게도 철칙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다면 굳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겠다. 그 말이 맞다. 백수 짓(?)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백수가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간에 즐겁기를 포기하고, 무의미하게 삶을 허비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낼 것, 이것이 내 백수의 철칙 1호이다. IF

일러스트 난나

김영선

서른 살. 70년 개띠.

연락처는 alicekim@hanimail/ bluesub@orgio.net

(내 의견에 동참하는 창의력 왕성한 백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1999년 겨울호

09

값 10,000원

당대비평

20세기와 노동의 운명

노동 운동의 세기 에릭 홉스봄

노동의 대두와 몰락 지그문트 바우만

다시 만나는 전태일 풍란의 향기 김하경

특집/우리 안의 파시즘2
억압과 규율에서 자율과 연대로

좌담 역사와 일상의 변혁, 다층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임지현 최정무 이한

우리는 누구인가?—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 권인숙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한국 문승숙

너 뉘집 아들이야?—언어 안의 파시즘 김근

외국인·외국인 노동자, 열린 사회를 향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유명기

쟁점

우리에게 '김지하'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약한 현대, 그리고 야만으로의 퇴행—김지하, 시적 강인함과 철학적 혼돈 뒤에 오는 것 홍윤기

우주적 상상력의 '시중적 성찰'을 위해—김지하 사상의 '틈' 벌리기 장석만

기획산문 20세기의 야만과 결별하기 위하여

'편장' 마을 가는 길—베트남에서 온 편지 구수정

노근리, 그리고 힘의 질서 오연호

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 20년 만의 고백 이경남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팡기의 시대를 생각함 문부식

논단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조희연

시 정현종 김준태 박흥식 윤중호 이진명 이정록 백연숙

삼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삼형빌딩 전화 322-1845 팩스 322-1846 천리안 · 유니텔 h3952 하이텔 hhoa E-MAIL Samin@netian.com

이란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공 세에서 살다 나온 것 같은 개도심처럼은 여성들과
현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란의 모습은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까?

이란항공기가 테헤란 공항에 도착하자 승객들 중 여성들은 저마다 울긋불긋한 보자기, 스카프, 마후라 등을 꺼내서 머리에 쓰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란영토 안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도르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는 '여성복장표준그림'이 가장 눈에 잘 띄는 1층 안내데스크 벽에 붙어 있다.

그 그림에 의하면, 검은 색이어야 하고 정식 차도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천으로 덮어야 한다. 길에서 만난 여성들을 보면 천이 자꾸 흘러내려 옛날 우리 나라 쓰개치마를 쓴 듯이 두 손으로 붙들고 다닌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이나 학생 등 두 손이 자유로워야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 고안해 낸 것이 간이 차도르. 수녀들의 머리수건처럼 이제까지 내려오는 차도르를 쓰고 안에 발끝까지 오는 긴 옷

찻집에서 물담배를 피우고 있는 커플.

을 입은 위에 무릎까지 오는 코트를 덧입는 복장이다.

관광객들에겐 더 관대해서인지 아무 색이나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만 하면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하루는 머리카락이 덜 말라 스카프를 손에 들고 호텔 방을 나섰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종업원이 스카프를 쓰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 대사관저의 만찬에 초대받아 갔을 때 대사부인이 "여기는 대한민국 관할이니 스카프를 벗어도 돼요"하는 바람에 일행들은 환호하며 스카프를 벗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긴팔 옷을 입고 스카프까지 쓰고 다니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다.

나는 우리 관광버스에만 오르면 커튼을 닫고 "여기는 해방구다"하면서 스카프를 벗어버렸다. 한 번은 커튼을 안 닫은 채 스카프를 벗었다가 길가에 있던 시민에게 스카프를 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 남자들의 복장은 어떤가? 자유다. 반바지 차림은 못 봤지만 긴바지에 반팔 남방, 티셔츠 등 우리 나라 남성들의 옷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적인 옷차림의 남성과 중세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여성이 꾸려가는 가정의 풍경은 어떨까?

그곳에서 방영되는 TV 드라마를 보니 여자들은 집안에서도 검은 차도르(짧은 것)를 쓰고 있었다. 가옥구조와 살림살이는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데 가정 안에서의 위계질서는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한 듯 50대의 부인은 남편 앞에서 절절 매고 사랑에 빠진 딸은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따귀를 맞고 하는 모습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 딱 우리 나라 삼류 연속극 수준이었다. 이란에 있는 일주일 동안 TV에서는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나 얼굴과 손을 뺀 살갗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모두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살까? 천만의 말씀. 흥미롭게도 그들의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영역과는 딴판이었다.

국가적으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이란이지만 중상류층 가정의 파티에는 언제나 술이 있다. 여성들은 집안에서 차도르를 벗어던지고 아주 섹시한 차림으로 있으며, 부부가 아닌 사람은 같이 걷거나 손을 잡을 수도 없지만 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데이트를 하고 임시결혼허가증이라는 것을 얻어 호텔출입까지 한다.

암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어 유럽인들이 입는 것과 같은 옷이나 술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단다. 팔레비 국왕 시절 중동국가 중 가장 서구화됐던 이란이 1979년의 회교혁명으로 갑자기 시계바늘을 백 년쯤 돌려놓은 셈이니 회교원리주의자가 아닌 한 변화된 삶의 방식에 갈등 없이 순응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만난 남자들도 모두 자기 아내나 딸이 차도르를 써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이란의 젊은 인텔리 남성들은 가정 안에서 평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의 가이드 중 한 명은 자신은 미국유학을 다녀온 석사인데 부인은 박사고 교수라고 했다. 또 한 명의 가이드는 건축가면서 피아니스트인데 부인은 소아과의사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었다. 폐쇄된 사회에서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 중의 하나가 가이드인 듯하다.

나는 그곳에서 영어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보았다. 그들에게는 집안일을 부부가 나눠서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요리는 주로 부인이, 청소 같이 힘든 일은 남편이 한다고 했다. 출산한 여성에겐 1년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직장탁아소나 마을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복

아기를 안고 있는 신세대 엄마.

관공소에 붙어있는 여성의상표준그림.

사장의 옷가게에 고용된 인간 마네킹 어린이.

어둑한 저녁 공원에서 데이트중인 연인.
공공장소에서 부부아닌 남녀가 피부접촉을 하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

직할 수도 있다.

이곳의 이혼율은 5%정도로 낮은 편인데 이혼시 재산은 반분하며 7세 이하의 자녀는 부인에게 양육권이 있고 7세 이상이라도 부인이 직업이 있고 양육능력이 있으면 친정의 도움으로 키울 수 있다. 가정에서의 딸, 아들 차별은 거의 없고 직장에서의 남녀차별도 거의 없으며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 대학에서 여학생 수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니 차도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별은 없었다.

이웃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1996년 강경파 회교원리주의자가 집권한 이후 모든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하고 남편이나 혈연남자의 동행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어 의사거나 교수였던 전문직 독신여성들이 굶어죽어 가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비하면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다. 게다가 개혁의지가 있는 하타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란 국민들은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란 같은 나라도 있는데 한국여자들은 너무 극성이야" 하며 개탄하는 한국남자들이 있다면 좀 신중해야 할 듯. IF

글 · 사진 김민숙

월간 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은

1998년 4월 공공적 논의의 활성화와 실명 비판 문화의 정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간됐습니다. 이 잡지는 보통 사람들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기존 여론매체와는 달리 월간 인물과 사상은 독자의 글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철저하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반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전화(02 -471-4439)나 팩스(02-474-1413)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 잡지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정기구독 신청을 해야겠다는 분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inmul.co.kr)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인물과 사상사

딸의 호연지기 기르기

'수련과 육아'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써야 할 것은 출산이다. 첫아이 때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 출산의 공포에 질려 있던 나는 둘째아이 출산 때는 막달에 열심히 수련을 한 덕분으로 출산의 고통이 아닌 쾌통(快痛)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지면상 생략하고 바로 아이의 수련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딸에게도 수련할 수 있는 격(格)을 7살 때쯤 짜주었다. 건강하게 크라는 마음에서였다. 매일 자기 전에 10분씩 좌선을 하고 자게 한 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다. 당시 나는 너무한다싶게 남자애들에게 맞고 오는 딸을 보며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엄청 화가 났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때린 남자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 따진다는 것도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꼴불견인 것 같아 내 성질로는 할 짓이 못됐다.

아이 문제는 아이가 풀어야 한다는 원칙대로 대응을 해갔다.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폭력어른으로 크지 않도록 그 아이를 위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일러주고 딸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련을 하면서 나는 각자가 뿜어내는 기운(氣運)이란 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수련은 딸에게 아무 일에서나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야만적인 새끼 가부장'들을 밀쳐버릴 기운을 갖출 수 있게 해줄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수련은 그다지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호연지기란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자애들과의 부딪침은 일상적인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싸우고 맞고, 선생님께 일러 자기를 때린 남자애들을 혼내키면서 딸은 저학년을 살아냈다.

건강한 몸, 예쁜 몸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보니 여러 면에서 수련의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로 딸은 건강하게 커주었다.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내 처방은 "그러니, 오늘은 10분만 더 앉아 있다 자라" 정도였다. 딸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아들의 감기약을 빼앗아 먹으려고 할 정도로 병원 문 앞도 가보지 않고 컸다.

늘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 건강이 수련 덕분임을 인정하는 듯하다.

아들도 다섯 살 가량부터는 아픈 게 한결 덜하다. 역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유기농 배쥬스나 포도쥬스를 한 며칠 양껏 먹이면서 내가 아이를 안수해 주거나 아직은 아들에게 버겁다싶지만 함께 5분 정도 좌선을 한다.

둘째로 딸은 체형이 반듯하게 자랐다. 어릴 때는 체형이 나를 꼭 빼닮아 크면 몸매가 이쁘지 않을 거라며 걱정스런 우려를 들었다. 참고로 나는 작은 키로 분명 서구형 체형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내 몸매에 별다른 콤플렉스를 갖지 않고 자랐다. 어쨌든 나를 닮았으면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다리도 무다리고 해야 할 텐데 딸은, 내가 보아도 참 반듯한 체형의 아이로 컸고, 물오른 봄나무 같은 아가씨 티가 난다. 좌선이 습관이 되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뼈가 곧바로 커주고 하니까 반듯한 체형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많은 엄마들이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클럽이 유행하고 있다. 이것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빼고 남자들인 경우 근육은 좀 붙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작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젊은이들에게 댄스뮤직이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댄스뮤직을 하는 가수들의 체형은 뼈의 한 부분이 굽었다든가, 허리디스크가 있다든가 하다. 건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춤, 음악은 수련에서 응용된 동양의 춤과 음악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는 아이

외모관리를 확실히 하고 싶은 현대 젊은이들에게 수련은 자기 몸을 가해하는 현대적 관리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이다. 그러나 동기가 몸관리로 출발해서는 수련을 유지할 수 없다. 반듯한 체형은 수련에서는 그저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딸의 사회성이다. 사회성은 우선 잘 노는 것으로 표현된다. 친구 집에 잘 놀러가고 우리집에 잘 데려온다. 장기자랑한다고 친구들이 몰려와 녹음을 하고 영등포에서 있었던 선생님 결혼식에 아이들과 전철 타고 다녀오고(우리집은 우면동이다), 5학년 때부터는 엄마가 안 가주는 놀이동산도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다.

놀기 좋아하면서도 몸이 불편한 친구를 배려할 줄도 안다. 한 번은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반은 장애아가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딸이 그 아이를 잘 보살펴주어서 오랫동안 짝을 시켰는데 편찮냐고 물어오셨다. 나

는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도움도 잘 받는 법이니, 그 경험이 우리 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 몸을 쓰지 못하는 아이라 일체의 공책, 책, 문구류 등을 싹이 다 꺼내주고 넣어주고 해야 한다는 걸 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건, 그 짝이 무슨 일로 딸을 많이 속상하게 한 어느 날, 딸이 털어놓은 약간의 불평에서였다. 자기가 하루에 실내화를 스무 번도 더 신겨주는데 그렇게 속상하게 한다는 거였다.

하루에 스무 번 실내화를 신겨준다는 말에 딸의 짝 수발들기가 보통을 넘어서는 일임을 비로소 눈치챌 수 있었다.

자아성찰력의 복원

마지막으로 딸의 사회성은 자율성으로 표현된다. 자율성은 내 생활교육의 가장 큰 원칙인데 수련은 아이가 자율성을 유지해가는 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곱 살 때 딸이 떼를 써 신청한 학습지가 미뤄놓은 책 쌓이자 나는 딸과 약속을 하였다. "너 학습지 해보니까 재미없지. 이젠 다시는 안 하는 거다. 친구들이 학습지를 한다고 또 하겠다고 떼쓰기 없기다." 딸은 이 약속을 5학년 말까지 지켰다. 수학 성적이 50~60점을 헤매자 딸은 심각한 얼굴로 수학 학습지를 해야겠다고 말해 왔고 몇 개월 해서 다시 수학 성적이 오르고 자신감이 붙자 이제는 학습지를 끊겠다고 말해 왔다. 학원 끊는 것도 마찬가지로 딸의 판단에 맡겼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3, 4학년 때는 피아노, 글짓기, 수영, 방과후교실 등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남편은 교육운동을 한다면서 학원으로 딸을 돌리는 나를 나무랐지만, 나는 내 강제보다는 딸이 알아서 번잡스런 자기 생활을 정리해주기를 바랐고 기다렸다. 내 강제로 중단하는 건, 엄마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을 중단했다는 쓸데없는 회한을 남길 것도 같아서 싫었다. 결국 딸은 오래지 않아 자기 일정을 스스로 정리했다.

공동육아연구원의 실무자로 상근을 하며 정신없이 세월을 보낼 때 원군은 딸이었다. 당시 5학년이었던 딸은 내가 있을 때는 동생에게 안 지고 싸우면서도 내가 없을 때는 엄마 노릇을 잘 해주었다.

한 평론가가 쓴 아저씨 비판론은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속물화된 우리 사회의 성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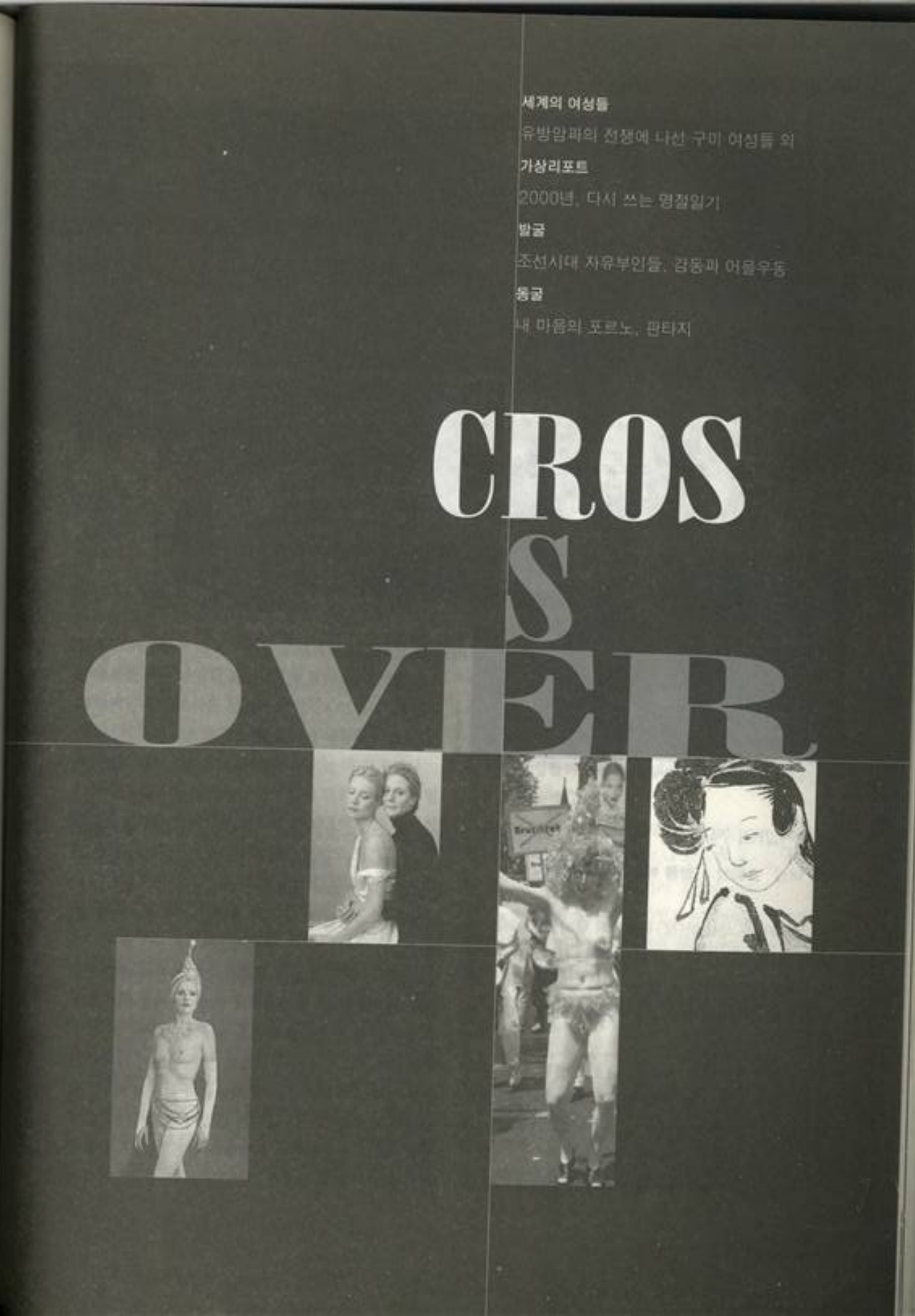
"아저씨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소한 일상사에서 나랏일을 다루는 곳까지 아저씨들이 마음껏 위세를 드높이고 있다…. 사람을 다룬다면서 시 한 줄이나 소설 한 권 읽어보지 않고 법조문만 뒤적거려야 하거나, 마음을 다스릴 틈도 없이 공부해서 몸을 다룬다거나, 전공책만 침 발라가며 들여다본 걸로 학위를 따는 게 성공한 아저씨들의 사회라는 걸, 그래도 사회는 '사회지도층'으로 대접해 준다는 걸 아저씨들 자신은 알고 있다….

권위적인 '막무가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아저씨들은 이미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을지도 모른다(김진송, 『죽은 '아저씨'의 사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 수련은 바로 이 힘을 길러주는 듯하다. 이런 힘을 갖지 않은 성인들이 판치는 사회를 필자는 죽은 사회라고 칭하고 있고 나 또한 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희망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성찰력의 회복에 있고 그래서 수련은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부르고 수영하고 놀 때, 외국보다 몇 년 진도 앞서 나가서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1등 했다고 좋아하는 교육부 관리들의 교육정책에 우리 희망은 있지 않다. 나는 자기체험교육의 기초공사를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의 기초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그나마 거기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수련은 자기체험교육의 전형이다. IF

김정희(공동육아연구원 부원장)

세계의 여성들
유방암과의 전쟁에 나선 구미 여성들의 외
가상리포트
2000년, 다시 쓰는 명절일기
발굴
조선시대 자유부인들, 감동과 어울우동
동굴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유방암 수술 한 가슴을 드러낸 채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선 여성들. ('EMMA' 사진 인용)

MQuinteiß

유방암수술을 한 여성이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유방암과의 전쟁에 나선 구미 여성들

미국 여성, 유방암 사망률 에이즈 사망률의 2배

지난 10월은 국제 반(反)유방암의 달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여성들과 의사들이 함께 뭉쳐 길거리시위 등을 펼치며 유방암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단체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구에서 유방암은 여성질병 1호로 꼽힐 만큼 많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병. 특히 중상류층 백인여성들에게서 발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아시아 여성들은 발병 빈도가 가장 낮다고.

서구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해 절박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들어 발병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20년 전만 해도 유방암에 걸리는 여성의 수가 18명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10명 중 하나로 급증했다. 게다가 환자들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 때문에 미국여성들은 90년대 들어 '유방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유방암 극복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왔다.

여성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정부나 관련단체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 유방암 문제를 관심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고환암이나 전립선암이 유방암과 같은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면 당장 상응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계 이 운동에 나선 여성들의 주장이다.

1989년의 경우 미국 정부의 연구예산 중 유방암을 위한 액수는 에이즈를 위해 배정된 액수의 5%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해에 유방암으로 죽은 여성의 수는 에이즈로 죽은 여성의 수보다 두 배나 많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즉각 반유방암 캠페인을 벌이며 유방암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스폰서를 모으고 캠페인에 동조하는 남자들을 규합하면서(그 중에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있었다) 유방암에 대한 전 미국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유방암의 원인규명을 위해 2000년까지 26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기금모금을 위한 재단도 생겨났다. 현재 미국정부의 유방암을 위한 연구예산은 에이즈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여성들의 투쟁이었다. 일례로 그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말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격렬한 토론을 벌여 마침내 국방예산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내는 쾌거를 이뤘던 것이다. 유방암과의 '전쟁'에 쓸 돈을 '적소'에서 찾아낸 셈이다. 힘있는 여성들의 동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에스테 로더의 사장인 이블린 로더가 대표적인 인물.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던 그녀는 이블린 로더 유방암 센터를 만들어 유방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유방암을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져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의학적 연구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 이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전 세계 45개국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국제 유방암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제3차 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2000년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남성에게 설거지할 법적의무를

독일, 구체적인 가사분담법 등 가족법 개정 박차

새 천년을 한 해 앞둔 1999년, 독일 여성계의 동향에서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가정에서의 동등권 추구'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 어머니날에 제기됐던 한 여성의원의 법개정 제안. 이 날 녹색당의 여성문제 대변인이자 연방의회 의원인 일민가르트 세베-게리크는 '여성에겐 더 많은 돈, 남성에겐 더 많은 가사일'을 주장하며 남성들의 가사일에 대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것.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는 많은 권리들을 쟁취했으나 가정 내에서는 아직 그에 상응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게으른 성'인 남성들이 도대체 가사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국남성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빨래나 다림질, 유리창 닦기, 요리 등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젊은 남성일수록 가사일에 동참할 태도가 되어 있어 30세 이하 부부들의 경우 27%가 손님이 오면 요리를 함께 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의 가사동참 태도가 결혼여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남

애니 리이보비츠 의 작품들.

자들이 일단 결혼을 하면 가사동참율이 절반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

이런 남성들의 행태를 보는 독일 여성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성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싶다면 남성들이 가사의 절반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미 지난 97년에도 각 주의 여성장관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가사일에 양성이 '서로 협조' 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이런 독일여성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 주는 것은 이웃나라인 오스트리아의 여성들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6월 여성장관의 주도하에 '남편이 자유시간에 가사일을 보조하도록' 규정한 가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독일남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세베-게리크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제안이 처음 알려진 뒤 예상외의 엄청난 반응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녀를 인터뷰하러 몰려온 저널리스트의 90%는 남자였는데 그들은 느닷없이 직면한 '강제적 설거지 의무' 에 마치 자신들이 공격당한 듯 격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들의 그런 태도는 '남자들은 이제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 '그가 설거지를 안 한다면 그녀는 경찰을 부를 수 있을까?' 등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로 지면에 나타났다. 한 마디로 너무 지나치며 웃기는 얘기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편의 수입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독일 정계가 분주했다. 이 움직임은 독일 가정주부노동조합의 주도하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법안을 만들으로써 본격화됐는데 이 법안은 '남편의 수입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적은 생활비로 만족해야 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 혹은 가사를 전담하는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상대방의 수입에 대한 '응분의 권리' 와 상대방의 수입과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미 지난 7월 연방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현재 연방하원에서 논의중에 있다. 여성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 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부들이 남편에게 돈을 '타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응분의 몫에 대한 권리자로 확실히 규정됨으로써 그녀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남자들은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더 이상 생색을 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더 많은 동등권 보장' 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독일여성들. 그들의 '주저없는 투쟁' 은 우리들에게도 힘이 돼줄 것임에 분명하다.

김신명숙 편집위원

'야망과 도전' 앵글 속 20세기 여성

애니 라이보비츠사진집 『여성』 화제

지난 세기 여성의 도전을 이미지로 기록한 사진집 『여성』이 미국에서 출판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 굴지의 출판사 랜덤하우스에서 최근 발간된 이 사진집은 여성 사진작가 애니 라이보비츠의 작품을 모은 것으로 어머니, 딸, 직업인, 노인 등 현대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170여 장의 사진들을 담고 있다.

한편 라이보비츠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미국작가 수전 손탁은 이 사진집에 리뷰에세이 「사진은 의견이 없다. 아니 있다」를 게재했다. 이 사진집의 주요사진과 함께 손탁의 에세이를 요약, 소개한다.

"여성을 표현하는 대명사(she)가 남녀 모두를 의미하는 '인간' 으로 쓰이는 언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강제적 열등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산술적으로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성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오 주여,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주여, 남자는 무엇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을 상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남녀평등은, '잘난 체하는 여자들의 파라다이스' 로 여겨지는 19세기 미국에서도 요원한 일이었다.

남성이 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조차 여성들

은 20세기가 한참 지나서까지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했으며 모로코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아직도 그렇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먼저 투표권을 선사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남성을 제2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성은 외모에 의해 평가받는다. 젊고 날씬한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는 사진이나 영화 등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 강화된다. 상업주의 시대의 도래로 요즘은 남성도 외모에 신경을 쓰며 섹시한 매력이 강조되지만 남성의 경우 성의 대상이 될 때도 그것이 그의 주된 정체성이 되지는 않으며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도 않는다.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은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사회는 진정한 평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 베일에 가린 채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다."

지난 1천년 여성지위 변화

뉴욕타임스 밀레니엄특집서 다뤄

수백 년간의 복종과 예속을 딛고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천 년간의 여성지위에 얽힌 변화를 돌이켜보면 거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다. 어머니거나, 노동자거나, 소비자거나 정치지도자이건 간에 여성의 삶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밀레니엄특집 「밀레니엄의 그늘, 여성이야기」 중에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게일 콜린스가 쓴 「포효하는 빙하」를 소개한다.

"100년 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사교모임에서 술을 마시거나 원피스수영복을 입는 등 외형적인 성적 자유를 처음으로 누리게 된 세대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여자의 운명은 남편을 잘 만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를 쓴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한 여주인공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장래의 결혼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운명의 줄이 묶여 있는 불쌍한 신세'라며 100년 일찍 태어난 여자의 운명을 한탄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해결 방법을 몰랐고 오로지 돈 있는 남자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방법밖에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증손녀들은 이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투표권도 갖게 되었으며 피임법을 획득하고 커리어우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장래의 결혼이라는 침몰하는 배'는 완전히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20세기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진정으로 눈부신 도약을 이루었다. 미국에서는 대학 학위의 55%가 여성에게 수여되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뒤늦게 대학으로 몰려들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총합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법대와 의대생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또 맞벌이부부 중 4분의 1은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있다.

아직도 집에서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순결을 상실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나 오빠 등 남성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이 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세기,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비약적으로 신장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남녀평등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여전히 미래의 일이다. 현재의 추세로 여성이 기업 경영면에서 남성과 똑같은 숫자의 임원으로 참여하려면 2270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의회나 정부 등 정치참여 부문에서는 2500년에야 동등수준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고조할머니 세대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빙하가 1인치 움직이는 데 일생을 기다려야 했다. 19세기말에 태어났던 미국의 유토피안 페미니스트 샬럿 퍼킨스 길먼은 육아와 가사노동이 숙련된 고용노동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식생활을 기계화된 배달서비스로 해결하는 등 여성을 가사노동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주장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러나 그녀는 1920년 자서전을 집필하며 37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왔지만 눈곱만큼의 변화밖에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성은 정서에 비해서 힘이 없고 정서는 역사보다도 오래된 것이라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고 철학적으로 표현했다. 최소한 그녀가 피자를 배달시키는 오늘날의 엄마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살았더라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았을 텐데…."

방황하는 남성성, 원인을 찾는다

수잔 팔루디 『경직』 퍼내

지난 92년, '미국남성들이 경제적·인격적 독립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며 전체 미국여성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도발적인 내용의 책 『반격: 미국여성들에 대한 선포되지 않은 전쟁(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으로 전 미국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페미니스트 저자 수전 팔루디가 이번에는 남성문제로 눈을 돌린 저서를 발표, 또다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 서점가에 등장한 팔루디의 새 저서 『경직: 미국남성의 배반(Stiffed: The Betrayal of the American Man)』은 2차 대전 이래로 미국남성들이 '남성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 책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남성들은 아버지세대와 달리 '세상에 대한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성취감도 맛보지 못한 채 무력감에 시달리며 가장으로서의 자신감도 없이 방황하고 있다.

팔루디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많은 남성이 여성의 독립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팔루디는 〈람보〉의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나 극작가 혹은 포르노배우 등 유명남성을 포함해 무명의 수많은 남성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남성들이 느끼는 불만의 실제 원인은 '남녀간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느끼는 남성상의 변화와 남성성의 상실에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직업에의 충성심과 팀플레이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남성사회가 이미지가 중시되는 장식적인 문화로 전이되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성이 많다는 것이다. 팔루디에 따르면 연예인과 대중매체에 의해 주도되는 이러한 장식문화는 팬티만 입은 남성의 몸을 전면적으로 과시하는 캘빈클라인 속옷 광고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남성성은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전시해야 하는 무엇이 된 것이다.

『경직: 미국 남성들의 배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테마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한 관계이다. 팔루디는 2차대전 세대인 아버지세대의 남성성은 개척자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군이 있었고 가족과 조국 등 수호해야 하는 제도도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시작되는 아들세대의 영토개념은 경계선이 없어지고 우주로 확장되었으며 베트남전의 경험으로 적군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다. 도덕에 대한 개념도 불확실해졌으며 가족이나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옛날 같지 않다.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던 남성성의 근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독립과 경제활동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약화됐으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남성의 정체성이 이제 그 누구의 주인도 아니게 변해버린 것이다.

하버드대학 우등 졸업생인 팔루디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로 재직중이던 199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92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그녀의 첫 저서 『반격』으로 전국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 기자를 거쳐 이번 여름부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기자로 재직중인 팔루디는 그 외에도 미즈, 네이션, 뉴요커, 에스콰이어, 머더존즈 등 잡지에도 기고하고 있다. IF

류숙렬 문화일보 국제부

영나니가 건진 유머 95쪽 정답 콩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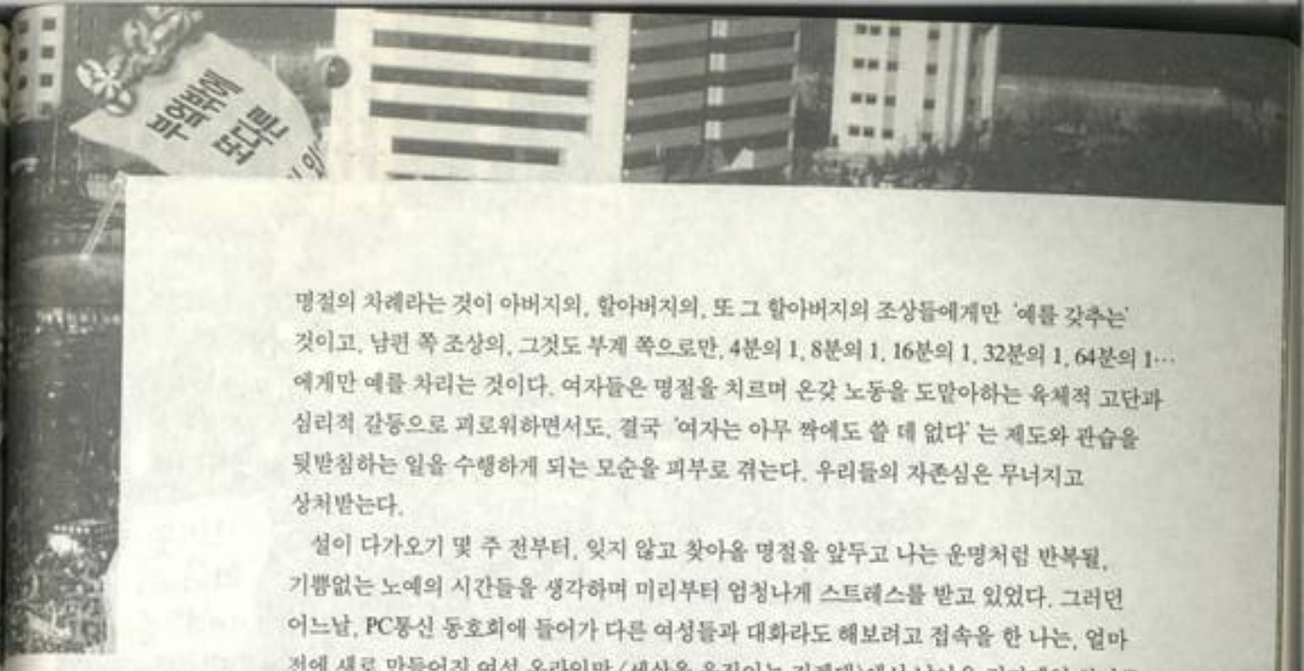
2000년, 다시쓰는 명절 일기

눈을 떴다.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명절 다음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본 적이 언제였던가. 설날을 이렇게 홍겹게 보내다니! 내가 기억하는 한, 이런 설날의 경험은 처음인 것 같다. 결혼하고 난 뒤 명절 때마다 피곤한 몸과 날카로와진 신경으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는 게 연례행사였는데, 옆에 누워서 세상 모르게 잠든, 어제 처음 만난 이들의 곤한 그러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나는 싱긋이 웃고 있다. 강당으로 새어드는 아침햇살을 느끼며 문득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야호! 우리들이 해냈다!", "우리들이 '효'라는 이름의 족쇄 하나를 끊었단다!", "성차별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를 깨부쉈다!"

강제노동을 보이코트하라?!

예년 같았으면, 설이 되기 훨씬 전부터 시가에 갈 차표를 구하느라 이리뛰고 저리뛰고, 빡빡한 살림에 제수비용을 마련하느라 요리조리 주판알을 굴리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예년 같았으면,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허름한 막옷으로 갈아입고 어깨가 떨어지도록 장을 보랴, 전을 부치랴, 나물을 다듬으랴, 국을 끓이랴, 적을 만들랴, 김치를 담으랴, 다과를 만들랴… 하루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을 해도 밤이 깊어서야 간신히 끝나는 음식 준비. 설날 당일에는 새벽부터 천근만근인 몸을 일으켜 음식을 데우랴, 차례상을 차리랴, 친척들의 밥상을 차리랴,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하랴…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지뢰가 되어 있었다.

'명절'이란 무엇인가? 여자들에겐 그야말로 강도높은 노동이 강제되는 기간이다. 게다가



명절의 차례라는 것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의 조상들에게만 '예를 갖추는' 것이고, 남편 쪽 조상의, 그것도 부계 쪽으로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에게만 예를 차리는 것이다. 여자들은 명절을 치르며 온갖 노동을 도맡아하는 육체적 고단과 심리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여자는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다'는 제도와 관습을 뒷받침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모순을 피부로 겪는다. 우리들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상처받는다.

설이 다가오기 몇 주 전부터, 잊지 않고 찾아올 명절을 앞두고 나는 운명처럼 반복될, 기쁨없는 노예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미리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PC통신 동호회에 들어가 다른 여성들과 대화라도 해보려고 접속을 한 나는,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여성 온라인방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에서 날아온 전자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이번 설날에는 범 여성적으로 설날 강제노동을 보이코트하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대축제를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딸들도 데리고 꼭 참석하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관성과 유혹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던 나는, 이 '명절이라는 고통'을 내 딸 승리에게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꺼이 설날 강제노동을 보이코트하고 여의도로 가리라 결심했다.

여의도, 여의도로!

설날 아침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까만색 올레깅스를 입고 여러 겹의 상의를 껴입었다. 밑창이 두툼한 생고무로 되어 있는 겨울 단화를 신고 귀까지 덮어주는 모자에 목도리와 장갑을 챙겼다. '이 정도면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기에도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승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여성대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근처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연배에서부터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보였다.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대의식을 느끼는 여성들은 매번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여자를 동행한 남자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여의도광장 한가운데에 원형의 중앙무대가 있고 그 주위에 각종 작은 무대들과 텐트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작은 무대에서 한국의 가부장제를 배꼽잡게 묘사한 가면극도 공연되었고, '나도 한마디'라는 즉석 연설 코너에서는 '이름없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성난 목소리로 자신들의 얘기를 쏟아놓고 있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처음 보는 페미니스트 풍자단 〈개그걸 다리미〉들의 무대였다. "가부장제에 찔어 있는 인사들의 구겨진 마음보, 확확 파팍 다려버립니다. 치지지익~~", "성차별주의의 폭력에 주름진 언니들 얼굴의 잔주름 깊은 주름, 모두 예쁘게 펴드려요오!" 하더니, '성차별이 뭔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국회의원, 왜곡된 여성상을 단골로 그리는 드라마 작가와 PD, 신문방송에서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 하면서 억지쓰는

남덕여대 모 교수, 불법 재산상속에 혈안되어 있는 재벌2세들, 여성에게는 수건과 비누 제공 안 하는 목욕탕 주인, 정자만 제공하고 부성애는 없으나 친권을 가진 미혼부, 여성을 접대하는 남성접대부 눈꼴셔서 금지법안 만들려던 룸싸롱 단골(단속?) 공무원, 대형 목욕 '조각' 과 아들바위 '조형물' 을 창조한 고상한 예술가들과 그런 '예술품' 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휘두르는 강력한 다리미에 풍비박산나는 것이었다.

가부장제에 구겨진 마음, 우리가 다립니다

인터넷 여성전문서점 〈아마존즈〉가 특별히 현실로 튀어나와, 수많은 여성관련 서적을 전시, 판매하였다. 평소 서점에 가면 여성코너에 요리, 육아, 화장, 다이어트 등의 책들로만 채워져 있어 불만이 많았던 나는 꼭 읽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했던 책들을 기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개그걸 빰치게 재기와 생기가 넘치는 여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의 고은광순님의 특별 강연,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서 덩치 큰 도우미들과 연습할 수 있게 하는 '때워봅시다' 코너, 조한혜정 교수 등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책 사인회, 10대 소녀들의 연극무대, 패널 토론회, 악명높은 반여성 인사 처단회, 신도시 아줌마들이 만들었다는 영화 〈있다없다〉 상영회, 여성주의 화가 - 사진작가들의 작품전시회…,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가끔 춥다고 느낄 때면 중앙무대 가까이로 가서 '립싱크가 아닌' 여성가수와 그룹들의 열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 열을 내면 됐다.

또 하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성차별에 반대하는 남성연합〉 회원들의 참여였다. 그들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남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성차별주의의 해소를 위해 싸우며, 새로운 대안 남성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남성들이라고 했다. 각종 캠페인과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개인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그들의 활동을 알게 된 것은 무척 반갑고 희망적인 일이었다.

여자들의 명절파업, 그후는…

해가 저물어갈 즈음, 대축제에 참여한 여성 대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신촌으로 가기로 했다. 일부는 카바레 라브리스, 클럽 레스보스, 카페 고마, 또 하나의 문화 사무실 등에서 진을 치고, 다른 일부는 가까이에 있는 여자대학의 강당과 체육관에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이 여대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숙사의 방을 제공해 주었다.

일행은 신촌 교차로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저녁뉴스를 보았다. 신나는 여성 대축제 행사가 강릉,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가부장제의 아성' 부산과 대구에서도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

이 뉴스에 이어서, '어동육서~ 좌포우혜~ 홍동백서~' 는 알아도 그 어느 한 가지 만들 줄 모르는 무능 아자씨네 '어른' 들이 도포차림으로 쭈그리고 황망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비쳤다. 여자들이 모두 명절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버린 것이다. 변변한 제수도 없이 노가리 한 마리 딸랑 올려놓고 있는 꼴이라니…. 함께 행진하고 있던 우리들은 일제히 박장대소를 하였다. 조선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양반' 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틀째인 오늘은 모두들 시위대를 이루어 시내를 가로질러 대학로로 행진을 한다.

호주제를 끝장내야지!

모부성 함께 쓰기도 널리 알려야지!

내년에는 더 신나는 여성 대축제를 만들어야지!

모든 차별 철폐하여 딸들도 아들들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오조영란

이 글의 초고에 해당하는 글을 통신에 올린 것은 지난 해 2월. 그런데 무척 기쁘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신문과 여성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명절문화 만들기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나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해가 갈수록 더 신나는 명절일기가 쓰여지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시대

자유부인들

감동과 어을우동

얼마 전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책이 음란성 시비문제로 꽤 화제였다. 평소 성 풍속이란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과연 이 책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 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극히 선정적이고도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무조건 그런 책을 썼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서갑숙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에 관한 한 남자들에겐 관대하고 여자들에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 남자가 썼다면 과연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이 그녀의 항변이었다. 그렇다면 서갑숙의 지적대로 왜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이중의 성윤리를 요구하게 된 것일까?

다음에 소개할 조선시대 감동과 어우동의 간통 사건은 아마도 이러한 궁금증에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39명과 간통한 '감동'

조선 초기 여성들이 남자 못지 않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동과 어을우동의 간통사건이다. 이 두 여자는 양반 사대부 출신의 유부녀라는 공통점 외에도 한 남자가 아닌 수십 명의 남자와 간통을 한 당대의 자유부인이었다.

그러면 먼저, 세종 때 간통사건으로 온 조정을 발칵 뒤집어놓은 감동(甘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감동은 검 한성 유귀수의 딸로 남편은 평강현감까지 지낸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당시로선 상당한 상류층 여성이었다. 그녀가 간통사건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이미 그 당시 유부녀답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유부녀의 신분은 아닌 셈인데 아무튼 이 때부터 창기라 자칭하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매부와도 상간할 정도인 그녀의 거침없는 애정행각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갔다. 결국 감동이 풍기를 문란시킨다고 판단한 조정은 '음란녀를 체포하라' 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의 검찰에 해당하는 의금부에 잡혀온 감동은 취조를 받으면서 자신이 관계한 남자들에 대해 속속 불기 시작했다. 그녀가 실토한 남자의 수는 무려 39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조정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감동이 상류층 여성이었던 만큼 그녀가 상대했던 남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당시 조정에서 잘나가는 신분의 남자들이었던 것이다. 사헌부 지평 및 공조판서를 비롯하여 공신자제, 수령 등 그야말로 다양한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이다.

그런데 유전무죄의 법칙은 옛날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직관리 및 공신의 아들들이 연루된 감동의 간통사건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감동은 양반부녀자이므로 '양반의 처와 간통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당시의 법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 '지도층인사' 들에게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곤란했다. 결국 "감동이 음녀이기 때문에 간통한 남자들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여 상간자들을 곤장 내지 파직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그렇다면 감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동의 처벌에 대해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곤장을 맞고 노비가 되는 것으로 결말을 보았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간통사건치고는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은 셈이다.

감동에 대한 온정적 처벌은 당시 조선사회가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 그다지 억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세종은 감동 외에도 양반부녀자들의 간통사건이 꼬리를 물자 오히려 두둔해 주기도 했다.

"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생긴 것이 아니다. 남녀의 욕구를 어찌 단지 법령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남녀의 정욕은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극형까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간통에 대한 세종의 입장이었다.

어을우동도 감동과 마찬가지로 집안 좋은 양반여성이었다. 그녀는 태강수 이동이란 왕족에게 시집갔는데 정욕이 남달라 일찌감치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은 상태였다.

친정집으로 쫓겨난 어을우동은 본격적으로 한 남자

어을우동이 사형을 당한 것은 그녀가 단지 보기드문 희대의 음행녀여서도, 천한 종과 간통을 해서도 아니었다. 어을우동에 대한 처벌은 자유부인들의 성적 문란을 엄벌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찬양받도록 하겠다는 유교적 정조관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어을우동이 죽은 이유

감동은 무수한 남자들과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보전했지만, 거의 비슷한 간통사건을 일으킨 어을우동(於乙宇同)은 사형을 받았다. 그녀가 성종이 아닌 세종대에 태어났다면 사형은 면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의 간통사건은 점차 성윤리가 보수화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일어났다.

의 부인이 아닌 자유로운 여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개척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새로운 삶의 표시로 어을우동은 이름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소박맞은 어을우동이 아닌 세상 남자들을 희롱할 '현비'라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을우동이 음행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그녀와 간통하려는 남자들도 갈수록 늘어갔다.

어느날 생원 이승언이란 자가 어을우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농짓거리를 했다.

"선비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요?"

"이생원이니라"

"장안의 이생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어찌 알겠습니까?"

"춘양군의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르는가?"

이렇듯 농을 주고받은 두 남녀는 곧바로 동침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는데, 뒷날 이생원은 어을우동과의 간통으로 인해 출세에 큰 지장을 받았으니 아마 두고두고 이 날 일을 후회했을 것이다.

어을우동과의 간통으로 앞날에 먹구름이 낀 사람은 비단 이생원만이 아니었다. 홍찬이라는 사람 또한 그 어려운 문과시험에 합격하고 재주도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지만, 어을우동과의 간통으로 벼슬길이 막혔다. 그의 재주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면을 요청했지만, "만약 용서해 준다면 사대부가 처첩을 서로 도둑질하는 풍습이 생길까 걱정된다" 하여 끝내 등용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이 모두 양반이었던 것은 아니다. 밀성군의 남종 지거비란 자가 이웃에 살면서 간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날 새벽, 어을우동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몰래 뒤따라 나가 외쳤다.

"어째서 부인이 밤중에 나다닙니까? 내가 이제 소리쳐 이웃사람들이 다 알게 하면 큰 사건이 일어날 줄 아시오."

지거비의 협박에 겁이 난 어을우동은 억지로 간통하기도 했다.

어을우동의 음행은 마침내 의금부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그녀가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자 정부였던 방산수가 사형을 면할 비책을 알려주었다.

"예전에 음부 감동은 유명한 인물과 간통해서 오히려 사형을 면했다. 너도 어유소 · 김세적 · 김칭 · 정숙지와 서로 간통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방산수의 말을 들은 어을우동이 이들의 이름을 거명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어을우동 혼자만이 '음행녀'로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한 여성과 수많은 남자와의 간통사건에서 남자들은 무죄이고 여성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로 결론이 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을우동은 왕실 종친녀 신분이어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특권층이었다. 그럼에도 조정은 그녀가 천한 종과도 간통을 했다는 것을 구실삼아 사형까지 언도하는 무리한 처벌을 내렸다. 그렇다면 살려둘 수도 있었던 어을우동을 굳이 사형까지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을우동이 사형을 당한 것은 그녀가 단지 보기드문 희대의 음행녀여서도, 천한 종과 간통을 해서도 아니었다. 어을우동에 대한 처벌은 자유부인들의 성적 문란을 엄벌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찬양받도록 하겠다는 유교적 정조관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어을우동은 유교적 정조관의 첫 희생양이었고 이제 조선사회 여성들은 정조라는 이름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의 굴레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IF

정성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서각 연구,
『한국사 101장면』,
『조선의 성풍속』 저자.

전화 · 02-471-4439 ▪ 팩스 · 02-474-1413 ▪ 홈페이지 · http://inmul.co.kr ▪ 하이텔, 천리안ID · 월간인사

인물과 사상사

대중을 위한 강준만 교수의 대·중·문·화·이·야·기

이책은 대중문화의 단순한 현상 비판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구조와 속성까지 분석해 내고 있다. 우리는 대중문화의 문화적 측면과 정치·경제적 측면을 균형있게 관찰할 때 대중문화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세대와 세대·문화와 문화·문화와 자본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중문화의 겉과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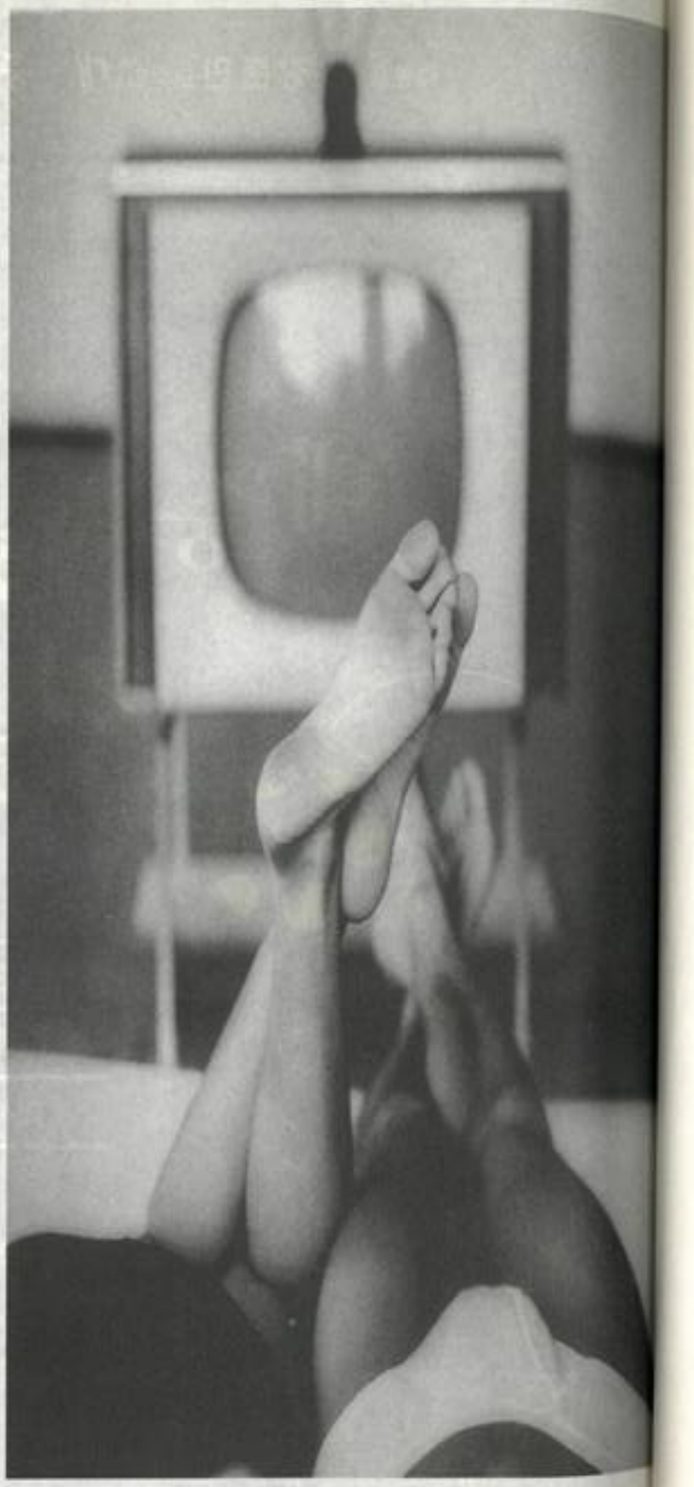
대중문화의 구조와 속성을 이해한다
대중문화를 둘러싼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을 해소 하는 책

대중문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적인 논점을 제공하는 책

강준만 지음 / 384쪽 / 정가 9,000원

새로하는 성교육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새로하는 성교육 순서
1. 자신의 몸을 알자!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
2. 여성의 성기는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3. 자기의 성적인 리듬 알기
4.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지난 9호(99년 여름)에서도 여성의 판타지에 대해 얘기했다. 여성들이 꿈꾸는 성적인 판타지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사회문화적인 영향 아래 있는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들의 판타지 유형에 대해 더 심도있게 얘기해 보겠다.

주방판타지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판타지를 정당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주부가 해야 할 역할에 판타지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판타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도록 할 수 있고,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죄의식을 줄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남편과 주방에서 섹스를 하는 상태에서 가사일도 하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을 팔거나 고치러 집에 온 남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즐긴다고 말한다. "나는 돈을 지불하는 대신 그 남자와 사랑을 하는 척한다." 이런 수리공과의 성적 관계도 역시 주부로서의 의무감의 연장선이다.

많은 판타지에서 남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판타지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도록 인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남편이 어떤 행위를 지시하고 아내는 그 지시에 구속당한다. "다른 남자들이 나를 보고, 남편은 그 남자들에게 내 속을 보여주고 내가 즐기는 것도 보여준다."

남편은 심지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판타지의 영상을 조종하기도 한다.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는 남편이 '부인 바꾸기 파티' (그것은 아내가 만든 행사가 아니다)의 초대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섹시한 속옷에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와인 몇 잔을 마신 후 춤을 춘다. 그리고 나서 입회식이 열리고, 다른 여성이 내 남편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간다. 나는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춤을 춘다. 그는 내 옷을 벗기고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차례대로 나와 섹스를 한다."

사진작가의 모델

다른 종류로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일을 하는 판타지다. 예를 들어 여성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돈이 필요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매춘여성을 연기할지도 모른다(매우 수준 높은 고급 콜걸이다!). 또는 어떤 남자나 여자, 혹은 아주 가끔은 동물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화보집이나 포르노에 출연하는 판타지를 꿈꾼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선으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많다. B는 "나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이상화시켜 포르노잡지의 모델로 생각한다.

완전하게 '낯선 사람'을 상상하는 일은 아주 성적이고, 사람을 극도로 흥분시키지만 또 곧바로 안정을 찾게 하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좋은 자극원이 될 수도 있다. 한 여성은 "누드잡지의 화보에 나온 내 모습을 보고 남성들이 자위행위 하는 것을 상상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신만의 판타지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조작된 여성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바꾼다. 그래서 슬픈 일이지만 많은 경우 여성들의 판타지 경험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대중스타의 판타지

어떤 여성들은 대중매체의 스타들, 이를테면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등의 이미지를 판타지 내에서 불러낸다. 거의 소수지만 어떤 여성들은 소설 속의 인물과 사랑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런 종류의 판타지의 특성은, 상대방이 얼굴 없는 이방인이거나 희미한 모습의 상징적인 남성모습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여성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고 기쁨을 나눈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여성은 침대를 정리하거나 욕조를 청소하고 남자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다.

여러 상대와의 판타지

이번에 소개하는 판타지에서는 둘이나 셋 또는 더 큰 그룹이 등장한다. 헤매다가 실수로 들어간 방에는 벌거벗은 남자들이 '멋진 섹스를 위해 크고 단단한 페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지만 연인들은 길게 오래 끌려고 다양한 접촉과 애무를 시도한다. 이것은 여성이 현실에서 연인으로부터 받는 자극과는 상당히 다르다. 여성들은, 현실에서의 파트너가 여성의 몸의 다른 부분은 무시한 채 젖꼭지나 질만 집중적으로 애무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러나 판타지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판타지 세계에서 이런 문제들은 여럿과 함께일 때 쉽게 해결된다. 여럿과 함께하면 양쪽 가슴을 동시에 애무받을 수 있고, 질, 항문, 입, 넓적다리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여성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한다. 이런 장

소는 비행기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극장 또는 감기가 걸릴 정도로 추운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다.

판타지 내의 자위행위

어떤 문제도 없는데 파트너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자위행위를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오르가즘에 대해 정확히 안다. 그래서 자위행위를 상상할 때 오르가즘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관객 앞에서 플라스틱 페니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자위행위 하는 것을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상상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들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판타지에서 남성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여성이 그에게 섹스를 가르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독단적이지 않은 남성과 관계를 갖고 여성이 자신의 성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성적으로 아주 미숙한 젊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 공상을 할 때는 정반대의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다.

많은 판타지에서 중요한 요소는 여성이 그 장면을 관조하면서 즐긴다는 점이다. 섹스하는 어떤 커플을 상상하는 여성은 "나는 그 남자의 페니스가 마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상상한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가끔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섹스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이야기한다. 어떤 판타지에서는 같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아닌 다른 억압받는 여성이 남자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질을 탐험하는 동안 그녀 안에 진동기(vibrator)를 밀어넣는다."

훔쳐보는 사람의 판타지는 포르노(그래피)에도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동안 그를 지켜보는 남성은 섹스하는 이들의 행동들을 컨트롤하거나 흥분해서 지켜본다. 여성들은 이런 판타지를 말할 때 '가슴'에 관해 말한다.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은 큰 가슴을 가진 다른 여성을 꿈꾸기도 한다. 상상을 하는 여성들은 가끔 자신이 페니스를 가졌다고 느끼기도 한다. "종종 나는 삽입하는 것 상상한다", "나는 크고, 힘센 페니스로 내 파트너에게 사정하는 남성이다." J는 자신의 남자파트너가 질을 갖고 있어서 자신이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상상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의 페니스는 '우리들의 질' 사이에 공유되는 진동기(vibrator)이다."

포르노이미지

소수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하듯 기분좋게 자극받기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이 화보의 모델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포르노잡지를 보고, 자위행위를 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동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비디오에서 보는 여성과 동물이미지의 결부는 현실의 여성들의 상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년시절의 경험들

어떤 판타지들은 몇 달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완성된다. 그래서 유년시절의 경험을 끌어내는 무의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애인의 부드러운 피부와 부드러움에 대해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팔과 부드러운 가슴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흥미를 갖게 되는 유년기 후반부의 경험도 역시 포함된다. N이 주로 상상하는 자위행위 판타지는 8살 때 시작됐다. 그녀는 체포돼서 복종하는 상상이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들이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또 다른 여성은 6살이 되기도 전에 갖게 된 피터팬과 팅커벨 판타지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날개를 팔랑거린 채 서랍 안에 갇힌 자신이 팅커벨이라고 상상했다. 팅커벨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풀려나려고 양전해진다.

당신이 판타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죄의식에 젖어서 얼른 묻어두었던 상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상력이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에로틱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은 당신이 신체적으로 자극받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를 발견하면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섹스는 성기에 있는 것보다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이다.

판타지의 배경에 대한 상상

사랑할 때의 주위환경을 변화시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당신은 강가의 잘 자란 풀 위에 누워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 야생장미 울타리가 숨막히게 울창한 화원이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하얀 백사장에 푸른 해변이 있는 열대섬을 상상할 수도 있다. 또 당신은 호화로운 호텔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L은 검정색 새틴시트와 양털카펫이 깔려 있고 천장에 커다란 유리가 있는 방을 상상하며 무드에 빠져든다. F와 그녀의 파트너는 샴페인과 부드러운 음악이 있고 털로 덮여 있는 커다란 침대에 있는 것처럼 흥내낸다. 또 다른 커플은 거울과 빨간 벨벳이 깔려 있고 어디든 금장식이 있는 침실 안에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S는 물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상상한다. "밝고 화려한 색의 물고기와 조개들이 있고 신기한 산호초들이 있는 따뜻한 녹색바다에서, 무중력 상태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인다."

또 판타지에는 장난 같은 요소도 있다. 여왕이 여러 명의 노예 가운데 애인을 선택하거나, 공주가 원하는 어떤 소녀노예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아라비안나이트 장면은 에로틱한 전설의 색깔과 광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즐기는 판타지의 종류는 우리 자신이 바뀔 때 변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즐기는 판타지의 종류도 역시 바뀐다.

판타지로 바꿀 수 있다.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은 종종 피학적인 성관계를 상상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곤 한다. 이것은 우리가 남성지배적인 성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판타지들은 여성들이 새로운 상상을 통해 없앨 수도 있으며, 더 나가서 여성중심의 새로운 판타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리는 판타지를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판타지는 우리 것이 되고 단순히 남성 포르노그래피의 반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은 판타지가 종종 머리를 장악한다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를 행복하게 받아들여보자. 단,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판타지들이 옳은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욕구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IF

엄을순 사진전

꿀이 들려주는
스물일곱 가지 이야기

시기 2000년 1월 21~1월 30일
장소 금산갤러리
주소 서울 종로구 소격동 66번지
전화 735-6317

정보화는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타자기와 전화발명, 그리고 정보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몇 년 전 일간지마다 앞다투어 정보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일보가 내건 이 구호는 우리 나라의 정보화 열기를 웅변하고 있다. 1960~70년대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최단시간 내에 최대한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듯이, 이제는 최대한의 속도로 정보화를 밀어붙이고자 한다. 과거 이룩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 지수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타자기 발명가 숄즈의 전망

정보화가 진전되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정보화가 가져다줄 편익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귀에 익도록 듣고 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1980년대 전세계에 정보화의 선풍을 일으킨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우리 나라의 현대전자 광고에 출연하여 정보화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이 정보화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고 한다. 정보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성별 불평등이 해소됨으로써, 여성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이른바 3F, 즉 feminine(여성성), feeling(감성), fiction(허구)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담론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는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먼저 19세기말 미국에서 발명되어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타자기와 전화의 예 살펴보자.

타자기를 발명한 크리스토퍼 숄즈(Christopher L. Sholes)가 서거하기 직전 며느리와 나눈 대화라고 한다.

"아버님, 세상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글쎄 세상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힘들게 일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만들어낸 타자기 덕분에 여성들이 더 쉽게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숄즈처럼 타자기 보급의 결과로서, 미국여성의 사무직 취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취업에 수반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타자수의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19세기 후반 미국의 역사를 보면, 타자기가 발명되기 전부터 이미 사무직이 급증하였고, 남성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다수의 여성이 사무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경제규모와 정부기구가 확대되고 대기업이 출현하면서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전에는 남성 전유의 직종이었던 사무직에 불가피하게 여성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급속한 사무직의 확대와 여성의 진출이 타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타자기는 하나의 촉진요인이었을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타자기 때문에 사무직 업무가 기계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여성이 하루종일 자판만 두드리는 단순노동을 맡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타자기의 도입으로 기계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수긍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세분화된 단순반복 작업에 배치된 것이 타자기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작업의 세분화를 지향한 당시의 기업경영 전략 때문이고, 당시 여성들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단순반복 작업에 배치된 것이다.

전화의 보급과 여성의 지위

이제 거의 보편적인 통신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를 보자. 집안일과 자녀양육 때문에 집안에 고립된 여성들에게, 전화는 만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사처리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긴

기술은
공급자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새로운 용도와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한 수단이 되었다.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교환수와 전화번호 안내원을 비롯하여 전화와 관련된 하급사무직에도 대부분 여성이 취업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전화가 발명, 보급되기 시작할 단계에서는 여성은 안중에 없었다. 발명자인 벨(Alexander Graham Bell)이나 전화회사에서는 전화를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전보 대용품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주로 남성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았다. 원래 의도한 용도와는 달리 여성들이 전화를 사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전화회사에서도 뒤늦게 이 새로운 용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통신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기술은 공급자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새로운 용도와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화는 바로 여성들이 이런 혁신적인 소비자로서 기술이 재구성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이다.

이런 사례가 깨우쳐주는 바는, 정보기술의 발전이나 정보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혁신과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누가, 어떤 의도로 그 과정에 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무슨 기술이 개발되어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깨어난 인식과 지금부터 기울이는 노력이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모습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예찬론자들이 전망하는 장미빛 미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우리 여성의 현실이다. 종래 문자매체 위주의 시대는 문자 구사능력(literacy)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데 필수조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전자매체와 네트워크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 구사능력(computer literacy)이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이 된다. 부와 권력, 사회적 영향력 또한 컴퓨터를 매개로 창출되고 배분될 것이다. 여성들이 과거에 '문맹'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듯이, 앞으로는 다시 '컴맹'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문맹에서 컴맹으로?

현재 컴퓨터 활용능력은 남녀간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1999년 우리 나라에서 13세 이상의 인구 중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은 46%인 반면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컴퓨터 이용자 중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자주, 더 오래, 그리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용자는 평균 20%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4 정도이다. 이러한 컴퓨터 활용능력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로 연결된다. 우리 나라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4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산업에서는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11%에 불과하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남녀간의 정보격차가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정보통신기술이 사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래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그렇다면 약간만 참고 기다리면, 여성의 지위가 저절로 향상될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그리고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도 재현된다.

정보화의 '허풍'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깨어난 인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여성의 삶에 대하여 정보화는 또 다른 현상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진지한 성찰과 다각적인 대응, 적극적인 실천만이 정보화를 여성의 새로운 능력 계발과 삶의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정보화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과학기술사회학을 전공한다.

내 사랑 투명반창고 3

애무(愛撫) 애~무(愛~撫)!

이숙인 장편소설 『학교는 다다』의 작가. 본지 객원기자.

붉고 긴 혓바닥이 발가락부터 핥아 위로 올라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끈한 발등에서 날렵한 발목으로, 장딴지 안쪽 꺼끌꺼끌한 털숲을 지나 단단하고 부드러운 허벅지 위로. 너는 꿈틀, 전라의 몸을 떨며 뒤틀고 나는 허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네 몸 전체를 살살이 애무한다. 허억, 마침내 너는 소리를 지르고 나는 혈관 속 핏방울 하나하나까지 끓어오르며 흥분한다. 끈적한 점액, 우리 둘의 몸안에 숨어깃들던 형형색색의 액체들이 물밀듯 쏟아져나와 온몸을 하나로 흠뻑 적신다. 시큼한 땀내 배인 네 겨드랑이, 움푹 파인 그곳에서 작은 돌기처럼 도드라진 귀여운 젖꼭지까지. 네 섬세한 손가락 사이사이를 훑는 것은 마치 찝질한 과자를 씹어먹는 것처럼 고소한 기분이 든다. 작은 여자아이였던 시절, 어른들 몰래 훔쳐보던 야한 주간지에서 '전라' 라거나 '애무' 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짝과 함께 키들대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땐 얼마나 칙칙하고 민망한 어감이었던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의 몸은 나날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 발견이다. 마치 전족처럼 의식을 조여놓았던 부끄러움이라든지 쑥스러움, 불결감 등이 조금씩 벗겨져 몸 전체가 맨살 그대로 드러난다. 그 어떤 두려움없이 그대로 드러난 살은 말할 수 없이 예쁘다. 거죽이 까맣든 노랗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살의 감각은 분홍빛 복숭아와 같다. 물기가 충분하고 들큼한 과육 향기가 코를 찌르는 살, 거기에 맑고 신선한 피와 여물어가는 뼈들. 그리하여 온몸의 단내가 땀구멍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축 처져 있던 눈꼬리가 팽팽히 잡아당겨져 점점 위로 치올라가는 느낌이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얼굴이 아니다. 그것도 마음에 든다. 엉거주춤 굽은 등은 곧게 펴졌으며 구겨져 있던 목도 꼿꼿해졌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면 우리는 밖으로 걸어나가 텅빈 거리를 즐겨 걸었다.

"밤이 되면 누가 밖에서 날 부르는 것 같애."

나는 말없이 네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젠 내가 있잖아. 같이 걷자. 아주 오래, 길이 끝날 때까지…. 구겨져 누워 있던 푸른비닐이 바람에 일어나 부시시 움직이며 쓰레기 냄새를 피운다. 도심의 정류장과 시장바닥,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주정꾼들, 냄새나는 개천, 청회색 새벽, 물기어린 보도…. 그리고 이따금 안개. 하지만 어디든 좋았다. 얼마나 이런 시간을 꿈꾸었던가. 물상을 물상대로 바라보며 가볍고 무심하게 스쳐지나기. 남들은 쉽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고요한 용시조차 호사인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거리를 쏘다니는 호사를 즐긴다. 너는 나를 호강시키는 사람이다.

"참 이상하지,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호기심이 일시에 사라지다니."

네가 말했다. 나는 득의의 웃음을 머금는다.

"아이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

너는 노래하듯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해."

나는 네 이마에 흩어져내린 머리칼을 쓰다듬어올린다. 너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뺨을 갖다댄다. 차갑고 상쾌하다. 새벽빛이 밀려드는 청계천 8가, 거기 가운데 우뚝 서서 나는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누군가 어떤 존재에게 완벽히 사랑받고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 그 하나로 인해 나는 세상 앞에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어떤 빛을 뿜으면 남들도 그것을 알아챈다. 그렇지 않다면 근사한 외국회사 지점장이 나이든 나를 비서로 낙점할 이유가 없다. 그가 아무리 네 형이라 해도 말이다. 나는 그 때 분명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철저히 빠져 있었다.

보랏빛 5층 건물이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네 형은 너와 아주 달랐다. 갈색 수트가 썩 잘 어울렸다. 노란 바탕에 감색 물방울무늬 넥타이, 아이보리 와이셔츠. 위로 바짝 치켜올린 머리, 남카톨고도 여유로운 인상을 주는 금테안경. 네 형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럼에도 더 지긋한 풍모였다. 나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마음이 푸근해져 조금 떨리던 기분도 가라앉았다.

"비서일은 처음이시라구요?"

그가 마치 지중해 태양빛에 그을린 외국잡지의 모델들처럼 살짝 이마를 찌푸리고 말했다. 나는 자꾸 그의 이마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저렇게 반듯할 수 있다니. 나는 느긋하게 그의 윤기 흐르는 이마와 누군가 끌로 정확하게 잘라놓은 듯 분명한 콧날을 탐닉하듯 훑어내렸다. 전 같았으면 아마 똑바로 그를 바라보거나 분명한 어조로 대답하는 일도 힘에 겨웠을 것이다.

"네, 전에 회사에선 주로 홍보나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잘 됐군요. 여긴 그저 한국적 의미의 여비서를 찾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았다. 날마다 스크랩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광고며 업계 동향을 분석, 보고하는 일, 지사장이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면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 빈번한 외국출장 동행까지. 격무만큼 돈도 많이 받게 되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즐거운 일이었다. 엄마에겐 새로 듬직한 간병인을 구해 드릴 수 있었다. 내 눈앞엔 그간의 검은 진창이 사라지고 초록빛 잔디가 좌악 펼쳐지는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게 널 만나서인데, 나의 생이 불현듯 무덤에서 카니발로 변했는데, 너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었다. 물론 내가 그토록 의욕에 충만해서 일에 골몰할 줄은 나도 몰랐다. 나는 점점 유능한 사원으로 성장했다. 네 형은 매우 친절했으며 나를 자주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널 감시했고 애착했고 경이로와했다. 그것만큼은 단연코 진실이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밤거리를 쏘다닐 여유가 없어졌다. 이를 걸러 야근을 했다. 연장근무 수당도 매력적이긴 했지만 네 형은 가욋일을 자꾸 주었고 나는 그것을 피하기 싫었다. 그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조를 감지했다. 슬래가 뒤바뀐 느낌 말이다. 이제 나는 너만을 좇지 않는다. 하루종일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며 네 형과도 뭔가 끊임없이 의논을 해야 했다. 그럴 때 나는 잠시 누군가의 사람임을 잊게 되었다. 그것이 배반일까. 네가 친구나 여자들과 섞여 갖가지 감정과 체온을 나누는 것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하루종일
너만 생각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꿈도
네 꿈만 꾸지.
너는 내 길이고
깨달음이고
수련의 도장이야.
나의 엑스타시고
알파고 오메가야.

것이 아닐까. 그러나 너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마치 오기를 부리는 십대처럼, 떼쓰는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너는 무섭도록 빨리 변해갔다. 나에게 너를 완벽히 맞추어갔다. 나는 너였고 너는 나였다. 처음에 나는 행복감에 전율했다.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 같았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어느날 오후 네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는 마침 어느 외국남자와 면담을 하고 있었고 그는 무척 핸섬한 신사풍이었다. 반면 그 날따라 너는 볼품없는 면티에 찢어진 청바지, 거기에 운동용 점퍼를 대충 걸쳤고 수염도 더부룩 자랐다. 아니 내 등쌀에 못 이긴 너는 언젠가부터 외양을 그리 돌보지 않게 되었다. 나는 턱짓으로 너를 접대용 의자 한켠에 앉으라 한 뒤 생글거리며 그 남자와 이야기를 계속했다. 잘 생긴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고 네가 처음으로 날 찾아 사무실까지 올라온 것도 흥분되었다. 그리고 굳은 표정의 네 앞에서 부러 나는 이야기를 좀 길게 끌었다. 네 눈빛은 몹시 불안했다. 난 그런 너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 날 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에게 매를 맞아보았다. 내 어깨와 등의 터진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리저리 얼룩진 피를 빨며 너는 속삭였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네 눈물을 핥아주었다. 미안하다며 날 버리지 말라며 흑흑거리는 널 따스하게 용서했다. 아니 용서랄 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그 날 난 평소와 전혀 다른 절정을 경험했으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곧 지워버리기로 했다. 얼마나 날 사랑했으면… 하는 위안으로 말이다. 점점 완전한 사랑에 도달한다는 성취 의식이 모든 것에 눈 멀고 귀 막게 했다.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나날이었지만.
어느 날 너는 작은 상자에 무언가를 담아왔다.
"이게 뭐야?"
"열어 봐."
그것은 두 개의 핸드폰이었다.
"우리 둘이서만 쓰는 거야."
퇴근이 이르면 이른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너는 사무실 지하 카페에서 나를 기다려주었다. 점심시간에도 외근 나갈 시간에도 너는 차를 몰고 나를 찾아 달려왔다. 네 눈은 전과 달랐다. 더 이상 흑표범의 형형한 눈이 아니었다. 어딘가 멍하니 응시하거나 축축하게 젖어드는 눈빛이었다. 나는 까닭없이 불안했고 때로 네가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 지겹기도 했다. 지, 겹, 다. 나는 지금도 화들짝 놀란다. '지겹다'라는 말을 감히 네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다, 잠깐 생각이 빗나간 것이다.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것이었다.
작은 차를 한 대 사서 출퇴근까지 도맡아주던 너를 밤길에 보낸 어느날, 꿈이었던가. 다시 주혜가 나타났다. 한밤중, 저 발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어떤 기운이 가슴까지 누르듯 덮쳐 올라왔다. 마치 두터운 담요를 덮어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엔 따스하고 기분이 좋았으나 이내 그 기운은 차게 식어 물뱀처럼 칭칭 목을 조였다. 나는 숨이 막힐 듯

갑갑하여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순간 빛이 조명처럼 천장에서 하얗게 떨어져내리고 주혜가 나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깨우려 했지만 목에 걸려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았다. 끼익 끼억, 어, 어… 주혜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몇 초 후 친구는 사라졌다. 그 웃음이 선연하게 슬퍼 보였다. 나는 찔끔 눈물을 짜내고는 이내 탈진한 듯 자리에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주혜네 친정으로 연락을 했다. 뉴욕으로 이사를 가면 연락하겠다더니 벌써 두 달이 흘렀다. 나는 회사일과, 무엇보다 네게 완전히 홀려보냈던 저간의 시간들, 친구에 대한 무심함을 뼈저리게 뉘우쳤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렇게까지 내 앞에 나타나려 애를 썼을까.
너는 내 걱정을 비아냥거리며 일축했다.
"멀리 떠난 친구가 그렇게 걱정돼? 얼마나 서로 단단히 얽어져 있으면 그런 환영까지 볼 수 있을까.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제발 그러지 마. 나한테 슬픈 일이야. 둘도 없는 친구가 죽었다구. 난 그것도 모르고 두 달을 그저 정신없이…."
"관심 없어. 널 슬프게 한 친구가 원망스러울 뿐이야."
"…."
"우리 형은 어때. 착실하고 점잖고 좋은 사람이니 당신 마음에 들겠지."
비아냥거리고 의심하는 것, 너는 본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나.
"하루종일 뭐하면서 지내? 학원도 안 다니잖아."
"아무것도, 하루종일 너만 생각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꿈도 네 꿈만 꾸지. 너는 내 길이고 깨달음이고 수련의 도장이야. 나의 엑스타시고 알파고 오메가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인간이 말야. 감히 찰나의 생을 허락받은 인간이 이런 절대와 영원을 꿈꾸다니. 우린 도사야, 도반이라구."
"잘난 척하지 마. 비꼬지 말라구. 우리만이 아니야. 세기적인 연인들은,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 초월한 이들은 얼마든지 있어. 싫으면 그만두지, 너 지금 억울한 거지. 바람기를 누르려니까 몸이 비비

꼬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순간, 맞은편 컵이 날아와 내가 앉아 있는 뒤쪽 벽에 부딪혀 깨졌다. 카페 여주인이 달려와 우릴 노려보며 유리조각을 치웠다. 나는 붉은 음료를 뒤집어썼고 창피해 어쩔 줄을 몰랐다. 너는 씩씩대며 나를 한참 노려보다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늘 밤 그의 방에 가면 나는 또 두들겨맞을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 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나. 나는 날로 싱싱해지는데 너는 점점 물기 빠진 나뭇가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난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행복했는데 넌 괴로웠을까.

"너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지?"
"우리의 신성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어서."
모처럼 바다를 보았다. 둘이 한가하던 시절, 바다에 자주 갔었다. 바다는 그와 잘 어울리는 곳, 바다와 비와 밤은 그를 언제나 기분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동해는 깊고 푸르렀다. 검은 바다에 부서지는 하얀 포말은 히힝거리며 웃는 말의 앞니처럼 즐겁게 보였다. 하지만 그 때 네 얼굴은 밤바다처럼 어두웠다. 반면 나는 조금 느긋하게 바다를 즐겼다. 은행잔고는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고 엄마의 신경질도 잠잠해지고 있었다. 일은, 어처구니없게도 내가 이미 버렸던 '야망'이라든가 생에 있어 '번듯한 포즈'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사무'와 '접대'뿐 아니라 꽤 사교적이었고 눈치가 빨랐다. 나는 회사에서 여러모로 돋보이고 있었다. 너로 인해 이따금 혼돈에 빠지긴 했지만 너는 절대 내 옆을 지키고 있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편안한 존재였다. 즉 총체적으로 나는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도망가자."
불쑥 너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멈칫 네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도망가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여기가 좋아. 사랑하는 너도 있고 일도 있고, 엄마 옆엔 내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같이라도 살자."
미쳤어. 말도 안 돼.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거야.
"밤마다 네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
나는 밤마다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해.
"너는 언제나 너 편할 대로만 하지. 아무것도 날 위해 희생하지 않아."
네가 소리질렀다. 너는 돌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너는 등뒤에 마치 이글대는 불덩이가 붙어 있는 사람 같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는 앞으로 마구 달려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 제발 돌아와, 아아, 그러지 마….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때였다. 너는 점점 멀리 사라지고 희부연 연기가 내 주위를 감쌌다. 머리칼 타는 것 같은 냄새가 속을 뒤집었다. 너무 메스꺼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 주혜야.'
'알아. 주혜 네가 두 달 전 충기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사고가 아냐. 지원아.'
'뭐라구?'
'아니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원아.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나는 주혜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네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했다. 너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난 네게 어서 달려가야 함에도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할 수 없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많은 공주가 살았어. 자기는 늘 남보다 다르고 돋보여야 한다는, 그러면서도 혼자라는 건 끔찍히 못 견뎌하는, 게다가 세상에 예쁘고 고운 것만 보면 뭐든 가지려 하는 그런 공주 말야.
공주는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다 아름다운 새를 보았지. 그 새는 오색의 날개와 하늘빛 홍채를 지닌 날쌔고 멋진 새였대. 날개가 한 번 퍼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멀리까지 번졌고 고운 울음소리는 겨울 하늘처럼 청명했단다. 공주는 명령했어.
'저 새를 잡아오너라.'
새는 아름다운 두 날개가 뜯겨질 만큼 저항했지만 결국 공주에게 잡히고 말았어. 공주는 금으로 만든 새장에 그 새를 가두고 늘 곁에 두었지. 이름난 학자에게 부탁해 최고의 사료를 주고 날마다 이슬 받은 물에 몸을 씻기고. 하지만 새는 더 이상 울지도 날개를 퍼지도 않았어. 옛날 이야기 각본대로 새는 결국 죽고 말았을까. 아니야. 새를 버린 건 공주야. 추레한 날개, 하늘빛이 사라져버린 홍채, 그걸 바라보던 공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새를 도로 버렸어. 숲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저자거리에 버려진 새는 아이들 손에서 놀림감이 되어 어찌어찌 굴러다니다 죽었겠지. 혹은 박제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절대 그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니, 너희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 네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듣기 싫어. 네 이야기나 해줘, 주혜야. 네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아니, 내 이야기 먼저 들어. 난 어제 지하철에서 네 눈빛을 유심히 보았어. 넌 혼자 있고 싶어 그 남자를 따돌리고 혼자 지하철을 탔어. 네 해방된 기분, 무심한 몸가짐, 텅 빈 눈빛을 난 보았어. 넌 진심으로 행복한 게 아냐. 그래, 지원아, 죽음에 이르는 광기는 사랑이 아냐. 사랑이란 어떤 기준이나 표본이 있는 게 아냐. 죽으면 안 돼. 죽음은, 죽은 후의 세상은 정말 추워. 검고 아득한 침묵의 세상이야. 나는 가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날 이렇게 동댕이친 모든 것들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지원아, 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아아, 날 좀 안아 줘…. 넌 죽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저 인간은 널 결국 버려, 뼈속의 단물까지 다 빨아먹고 버릴 거야. 널 개처럼 버릴 거야. 넌 쓰레기보다 못한

"준서를 봐요. 당신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소.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철저히 길들인 뒤 방치하는 거요."

처지가 될 거야…. 으으으….'

나는 전신에 오소소 소름이 돋고 와락 겁이 났다.

'이리 와. 추워. 날 좀 안아줘.'

희부연 연기는 실체가 되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었고 무슨 갈퀴처럼 나를 그 중심으로 자꾸 빨아들이려 했다. 나는 두려웠다. 있는 힘껏 버텼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빨려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본능으로 직감되었다. 가. 가버려. 날 데려가려 하지 마. 나는 발버둥을 치며 너를 불렀다. 너를 부르는 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주문이었으니까. 그 때 휘적휘적 함부로 걸으며 네가 멀리서 한 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는 온몸이 젖어 검은 수초처럼 보였고, 배움하고 희부연 연기는 사라졌고, 나는 모래투성이가 되어 땅위로 동댕이쳐진 물고기처럼 길게 누워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네 형과 함께 뉴욕에 가게 된 것은 그래서 행운이라 불러도 좋을 사건이었다. 나는 모든 게 지긋지긋했다. 날로 초췌해지는 네 모습도, 우지끈 불같이 화를 내며 발작하는 또 다른 너도, 잊을 만하면 주위를 감싸고 도는 축축한 넋의 흐름도…. 나는 아이처럼 출장을 고대했다. 하지만 뉴욕이라니. 주혜가 총기사고로 죽은 곳이 아닌가.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날 밤 이후 죽은 넋과의 소통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저런 책을 뒤진 결과로도 그랬다. 상대를 하지 말라. 무시하라.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피자는 뜨거울 때 조심스레 칼라 하나씩 조각을 내서 먹는 음식입니다. 비유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사는 것과 흡사해요. 둥근 피자를 전부 들고 먹을 순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단 말인가. 이 남자는 너무 사소한 이야기를 늘 중요하게 한다.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다. 게다가 그의 시선과 기준은 언제나 서구인들의 것과 유사하다. 늘 그들과 함께 이 나라 사람들 흉을 보고 킬킬거린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피자 말이다. 하기는 아주 작은 크기가 아니라면 먹기에 좀 버거울 것이다. 아니 버겁다기보다 귀찮은 일이 생기고 맛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우선 너무 뜨거워 제대로 손에 집어들 수도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때 나는 자주 머리가 멍한 상태였다. 마치 집안에 이유기의 아가를 하나 두고 있는 엄마 기분이었달까. 너는 어디에 있을까. 너는 지금 기분이 좋은가. 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너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너를 두고 출장을 갈 수 있을까. 너는 또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두들겨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내내 가슴을 떠돌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피자처럼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건가요. 인생이란 조각조각 잘라서 맛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우선 선택을 잘해야 하고 처음부터 맛있어 보이는 조각을 먹을지 어떨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제 말은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먹든 나눠 먹든 피자를 먹는 일처럼 산다는 것도 단순해선 곤란해요. 어린아이처럼 양손에 뜨거운 피자를 움켜쥐고 쩔쩔매며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충고를 하고 계시군요."

"제 동생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동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원래는 그렇게 맹목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와는 다르게 살고 있었지만 난 그애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애는 자유분방하고 예술적 끼가 넘치고 감성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저렇게 살다보면 남들의 삶에도 눈뜨고 나아가 생산적인 일도 아주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늘 중시하시는군요."

"맞아요. 난 그래요. 난 그애가 적어도 캘커타 자원봉사자나 가난하지만 줏대있는 예술가는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난 그애의 심성을 언제나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나는 네 형의 입에서 아주 속물 같은 이야기, 너를 문제아로 바라보는 식의 말들이 튀어나올 줄 알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리라는 모범답안까지 재빨리 준비해 두었었다. 여유있는 사람은 대사도 여유롭다. 조금 의외였다.

"저는 파스타를 먹겠어요."

"본래 피자를 먹자고 이리로 온 건데, 피자가 먹고 싶다면서요?"

"아니, 해물 파스타가 맛있을 것 같네요."

"아마 그애도 곧 이리로 오겠죠? 어두운 골목길 어디선가 차를 대고 당신을 기다리겠군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아, 두 사람 사이 말이요?"

작은 이태리식 음식점 안은 호젓하고 깨끗했다. 음식이 곧 나왔다. 나는 조금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주말드라마 같군. 하지만 좀 다르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만나던 친척들처럼 이 사람도 꽤 느끼하고 세련된 매너를 지녔어. 나에게 무슨 충고를 하려는 것일까. 헤어지라는 말, 그렇다면 우린 바보였어. 어렵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건데. 갑자기 여행지에서의 카니발은 끝나고 주말연속극 안에 들어온 기분이란. 속에서 밀가루 반죽이 팍 뭉치기 시작하는 것 같군.

"준서가 나한테 전화를 했소. 뉴욕에 같이 갈 수 없냐고. 셋이 말이요. 아주 애걸하더군. 개는 변했어. 최근 너무 몰랐어요. 준서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알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지. 그런데 그애는 지금 최악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이 파괴되고 있는 거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구요."

"자립, 직립보행을 가져온 인간의 아름다운 진화본능이지. 준서는 지금 그것을 잃고 있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거요. 아주 위험해."

"내가 있어요. 내가 옆에서 부축할 거예요."

"친구가 살던 집이 바로 몇 블록 건너 있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친절한 네 형, 한민서씨.
"지사장님 호의는 고맙지만 전 두려워요."
"다 변한다.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넋도 흘러가는 물상의 일부다. 이렇게 여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출장 기한 열흘 가운데 이틀 남은 어느 날 밤. 나는 아직 빈 아파트로 남겨져 있는 주혜의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물론 네 형 한민서씨가 동행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난 여전히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대로라면 자정 무렵 불을 끄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거겠군요. 그러니 지금은 좀 이르지 않은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올까요."
그는 익살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아주 가까이 무슨 기운인가가 감지되는 기분이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대로 신경이 팽팽히 조여들면서 극히 민감해지고 가슴 한구석을 드릴로 파대는 기분이랄까. 또는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말 그대로 차가운 기운이 뒷편을 훑어내리는 느낌들 말이다.
"집주인이 방문을 꺼려하진 않던가요?"
"세 명의 남녀가 모조리 총에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건 뉴욕에서도 흔치 않은 사건이라는군요. 한국에서도 이따금 사람들이 찾아오나봐요. 한 달 후면 이곳도 곧 폐쇄된다는데 다시 수리해서 내놀 모양이에요. 참, 주인은 나한테 분명 '사고'라고 했습니다."
"주혜는 '사고'가 아니랬어요. 분명히."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가 부러 자리를 피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층으로 된 아파트는 꽤 넓었고 아래층만 해도 방이 세 개였다. 하필이면 붉은 카펫이라서 아직도 바닥에 핏물 같은 것이 점점이 배어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착각이 아냐. 진짜 피야.'
귓전에 바짝 다가드는 속삭임. 주혜였다.
'날마다 피가 흐르고 있어. 말라붙질 않아.'
난 얼어붙은 듯 꼿꼿이 서 있었다.
'편히 앉아. 네가 와줘서 난 기분이 좋아. 이번엔 절대 심술 부리지 않을게.'
나는 이끌리듯 초록색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절로 눈을 감았다. 바이킹 맨 뒷자리에서처럼, 360도 회전 기차를 탔을 때처럼, 눈을 감으면 어떤 공포도 지나간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면 쫄끔거리는 오줌도 참을 수 있다. 한민서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왜 날 이리로 끌고 들어왔을까.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귀신 따위 믿지 않아.
'두려워 하지 마. 네게 부탁이 있어서 그래.'
나는 순간 꿈속에서 허방을 짚다 밑으로 아득히 꺼지는 기분에 앗질,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와들와들 떨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이러는 자신이 지겨워졌다. 그리하여 잠시 자기최면을 걸기로 했다. 마음을 편히 지니고 심호흡을 했던 것이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것, 마음이나 편히 먹자고 생각했다. 부탁이 있다면 들어줄 것이고, 그러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심신이 이완된 기분. 그러자 한순서, 네가 갑자기 그리워졌다. 넌 잘 있는 걸까.
'아이가 있어. 내 아이야. 찾아서 한국에 데려다줘. 아니 염치없지만 네가 키워줘.'
말도 안돼. 이건 음파도 소리도 아냐.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또렷이 전달되는 걸까. 그런데 뭐? 아이라니. 날더러 키워달라니.
'잘 들어. 아이를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아주 예쁜 아기야. 경찰서에 가면 기록이 있어. 네가 좀 노력해줘. 아무리 좋은 데 수용되더라도 아이에겐 가족이 있어야 해. 대신 서울에 가면 내 은행 잔고에 꽤 많은 돈이 있어. 너한테만 암호를 알려줄게.'
난 흠칫 놀란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주혜 부부였다. 이민도 그래서 간다고 여겼다. 생활의 전환점을 찾고자. 부유한 집안 출신인 주혜 남편은 잡지사에 근무하다 뒤늦게 사진학을 한다고 뉴욕 주립대에 입학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시작은 어학코스부터 해야 했다.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 이제 필경 백마나 흑마를 타고 싶은 게지…." 그러면서 주혜는 그저 따라간다고만 했다. "청과물 수퍼에서 아르바이트나 할 거야." 입술을 비틀며 자조적으로 말하던 그애였는데, 아이라니.
'부탁이야. 네 호적에 올려줘. 그애를 한국애로 키워줘. 아주 용감하게 길러줘.'

서울에 돌아가자 너를 동댕이친 대가를 톡톡히 받았다. 너는 사라지고 없었다. 네 거처는 엉망진창이었다. 해일이 지나간 뒤처럼, 혹은 화산이 폭발한 직후처럼. 나는 힘없이 네가 준 은빛열쇠를 툭,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IF

일러스트 이승민

확 바뀐 2000여성수첩이 나왔습니다

2000 여성수첩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여성수첩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여성인권의 길잡이 여성수첩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작은 여성학 노트로서, 삶의 지침서로서
좋은 친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 여성수첩

- 이 시대의 화두 '인권'을 주제로 꾸몄습니다.
- 두꺼워졌습니다.(무려 192쪽!!)
- 산뜻해졌습니다.(본문 2도 인쇄)
- 표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적색, 청색)
- 3년치 달력이 한눈에 좌악~ 펼쳐집니다.
(1999, 2000, 2001년)

· 판매가 : 5,000원

단체로 구입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 100부 이상 구입하면 10% 싸이드립니다.
- 300부 이상 구입하면 20%나 싸게 삽니다.
- 500부 이상 구입하면 30% 가격파괴 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따로릉(02)2237-1024~1027 /전송(02)2237-1028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if에게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이프!

내 책장 속의 이프

창간호부터 10호까지 계절이 바뀌려는 찝새를 알아차릴 때마다 난 머칠씩 계속 서점에 확인하러 간다. '이프의 이번 표지 사진은 어떨까, 특집은 또?' 라는 기대 땜에…. 벌써 내 책장 제일 좋은 곳에 자리잡은 내 새끼들이 열 놈 째! 괜시리 푸듯하다. 산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제 겨우 한 번 읽었다. 너무 아까워서. 마치 어릴 적 동생들 몰래 숨겨놓고 꺼내 먹는 봉지라면의 맛 같다. 벌써 겨울호가 기다려지는데, 어쩔 줄을까. 그 기다려야 할 시간 동안의 내 설렘들을.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정지연

표지가 상큼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프의 열렬한 독자입니다. 이번 가을호는 표지가 참 상큼했습니다. 표지의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중성', '아름다움', 아니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함께 느껴져요. 그건 그렇고 시간이 지난만큼 이프도 변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느끼기에 가을호는 인터뷰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좋아요. 하지만 처음에 이프를 접했던 그때의 느낌, 충격, 지식, 유머…, 다음 겨울호를 준비중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이프 내용을 한 번 쭘 정리하는 것은 이프를 더욱더 발전시키리라 믿어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고유진

처음 보는 이프

솔직히 처음 보는 거예요. 책이 소박해보이고 읽을만해서 샀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수 김종서씨 엄청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구요. '심리테스트' 도 몇 개 넣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여성' 을 주제로 꾸미는 잡지종류 같은데 보다 더 여러 측면에서 기사들이 실렸으면 하구요. 대체적으로 좋아요.

p.s 영원한 이프가 되기를 파이팅!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김민수

아니 이프가 배신을?

IMF에서 빌려온 급한 돈도 갚았다는 시대가 왔는데 저는 백수가 됐네요. 덕분에 이프로부터 온 지로용지는 고지서처럼 무겁게 책상에 자리를 잡고 빨리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돈 드는 일은 왜 그리 많은지…. 하여간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호 이프를 헐값에 넘기는 행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서출판 이프)가 헌책방은 아니잖아요? 어떤 잡지도 과월호를 구입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 값을 주고 사본 독자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물론 더 많은 독자의 확보를 위한 고육책인 건 알지만 더 나은 책으로 승부를 걸어서 독자가 지난호를 찾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저가정책으로 나가는 건 기존의 독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백수라 돈 문제가 민감한 이가.

전북 진안군 군하리 김영호

왜 홈페이지는 없어요?

창간호부터 쭈—욱 샀는데 이번 호로 딱 열 권이네요. 보기만해도 뿌듯해집니다. 이번 호 주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학과 입시가이드도 유용한 거 같구요.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프는 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나요? 현대사회에선 컴퓨터와 무관할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프도 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프를 알 수 있을 텐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선미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리뷰에 실린 '광고의 영원한 봉, 아줌마' 란 글을 읽고 기뻤습니다. 특히 BYC 광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에 좀 위로가 되더군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지….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며 또 미혼모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이수영

이프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서점에서 우연히 표제 글귀에 끌려 보게 됐다. 그 동안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을 막상 책에서 접하게 되니까 놀랐다. '이런 잡지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기뻤다. 계간지여서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할 듯. 좀더 빨리 이 잡지를 알게 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본다. 내 사고방식을 많이 발전시켜준 계기가 되어—보다 넓고 공정하고 포용력있는 사고—고맙게 생각한다. 다음 호가 기대된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최은석

그것이 알고 싶다

이야기 하나—박수는 남성의 고유인사문화인가? 연예인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토크쇼 보더라도 방송이 끝나면 여성은 뒷짐이나 지고 있거나 박수로 때우기 일쑤다. 박수를 여성에게 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원칙적 행동양식인지 남성 문화의 전형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알고 싶다.

이야기 둘—검찰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최근 서갑숙씨의 성경험 에세이 출간을 둘러싸고 검찰이 먼저 제동을 걸었다. 성문제가 오로지 사회적 문제로 단죄돼야 할 유해물임을 인정하면서 뒷골목 원조교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은 뒤로 젖혀두고 여자가 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윤리에 어긋난다는 XX같은 논리가 아쉽기만 하다. 똑같이 리얼한 섹스 경험을 담아 쉽게 돈 버는 김지룡, 김정일은 왜 안전한가?

이야기 셋—이프의 월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로서는 이프 이외에 페미니즘 잡지 대중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페미니스트란 딱지를 붙이는 현실이 못마땅하지만 어떻게든 말이 선전하고 씹어대고 이야기돼야 특별한 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잡다한 연예 정보지나 정치만담과 거두어 여성지로 분류되는 존재가 필연적이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정아진

간급요청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인터넷에 이프 독자 모임방이 됐길래 만가운 마음에 달려가 봤지만 썰렁썰렁~

daum.net에 오세요. '까페' 를 클릭하시고, 검색어로 '페미니즘' 을 치면 '이프 매니아' 라는 까페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컴에 "이프 매니아는 당신이 등록한 까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당신은 그것을 클릭합니다. 앗, 내 주술에 걸려라!!! 날마다 시끌벅적한 이야기꽃이 피는 따뜻한 까페를 함께 만들어요.

1014hot@hanmail.net

씩씩하게 사는 '박이은경들' 지화자!

저는 지금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속이 시원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작년 11월 늦깎이 결혼을 한 주부입니다. 결혼후 거우 시부모 생신, 명절을 치르고는 정말 어디서 확 사고를 당하고 싶던 제 마음과 같아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 를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이런 책을 내신 것에 한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더욱이 종가집 외아들인 남편과 연애해서 결혼한지라 시댁과 더 불편합니다. 시부모님과 시모님의 외가친척들은 지금도 내 품자리를 점령하는 악몽입니다. 임신 초기인 지금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도 오로지 호주제 언제 폐지되나, 법적으로 내 성을 아이에게 줄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어느새 돌아온 결혼 일주년도 시모님 환갑잔치 걱정에 밀리는 느낌에 화가 납니다. 당당하고 싶은데 부당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 아시죠? 더 힘내시구요. 떠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아주 잘' 떠들기를 열심히 기원합니다. 저도 요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글을 올리려 해요. 씩씩하게 사는 많은 '박이은경' 들을 보며 저도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천리안 pleun

이프해외여행계

지난 호에 공고가 나갔던 '이프해외여행계' 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여행 갈 사람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15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입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죠? 클릭 "^" 비밀입다~. 부럽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이프 사무실(02-553-6715)이나 계주 최은묵(018-208-3373)에게 연락주세요.

때 : 내년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자세한것은 추후 개인사정을조정하여 결정)
여행지 : 유럽
여행기간 : 6박 7일 정도
회비 : 10만원씩 10개월 100만원
농협 123-02-150783(예금주: 최은묵)으로 매달 25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이많이 연락주세요.

12월 한달간 2년이상
정기구독 신청하시는 분과
기존 독자분들 중에서 추첨하여
50분에게 (주)클리오에서 협찬한
케라틴 마스카라를 보내드립니다.

Happy new millenium

2000년,
널 위해 준비했어!
혁란

전쟁터를 파티장으로!
해숙

해피 투게더
2000!
금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당신들께 보내는 기쁨의 메시지!

나라야마 부시코
숙인

Happy New Year

나도 때론
서감숙이 되고싶다.
영란

새 천년에는
이프가 필요없는 세상 되길!
민숙

네 인생의
클리토리스를 찾아라.
숙렬

이프 삼위일체는
실무자, 필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
미라

탄탄대로에 이프를 싣고…
유미

나는 희망의
증거를 보고싶다.
여권

천년동안 행복추구!
사자성어 훌륭하지?
안녕

아름다운 밤이에오.
미란

한국! 地구!
보미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라도 살고싶다.
숙경

두근두근 새 천년.
교수님, 죄송합니이다.
난나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553-6715/6, 팩스565-9059).
- 책 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 혜택

- 본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구입하실 때 할인혜택이 있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회원특전이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 · 주소변경

- 미착, 분실, 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55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번호와 온라인번호가 대폭 변경되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반드시 본사로 전화해 주십시오.
- 지로영수증에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if 지난호는 페미니스트까페 고미(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 : 5104723
- 온라인 입금 : 예금주 (주)도서출판이프

외환 057-13-42924-6 / 조흥 592-01-002980 / 국민 349-01-0056-563
신한 295-05-019766 / 제일 438-20-253045 / 한빛 148-203097-13-101
농협 096-17-009311 / 서울 16508-3667201

IF 를 만든사람들

- 발행 (주)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김민숙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디자이너 김명진 • 포토디렉터 김민숙
- 편집위원 김세공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류숙렬 손자희 오한숙희 유채지나 이혜경 • 사진기자 엄을순 조여권
- 기자 권혁란 김보미 • 객원기자 이숙인 황오금희 • 광고기획부 정유미 윤숙경 김영란 • 정기구독 · 교열 우안녕
- 주문전화 557-7942(김영란) • 디자인 광일문화사 박선미 김미연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등록번호 : 바 - 02699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빌딩 2층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135-080)
- 전화: 553-6715~6 • 팩스: 565-9059 • 하이텔 ID: ifthopia • 천리안, 나우누리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한국통신 21세기 비전 선포!

여성의 욕망을 아는 잡지 if

웃자!

놀자!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유효기간 1999. 5. 25 – 2001. 5. 25
서울 강남우체국 승인 제 29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 B/D 2층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35-08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유효기간 1999. 5. 25 – 2001. 5. 25
서울 강남우체국 승인 제 29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 B/D 2층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앞

135-080